

法泉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 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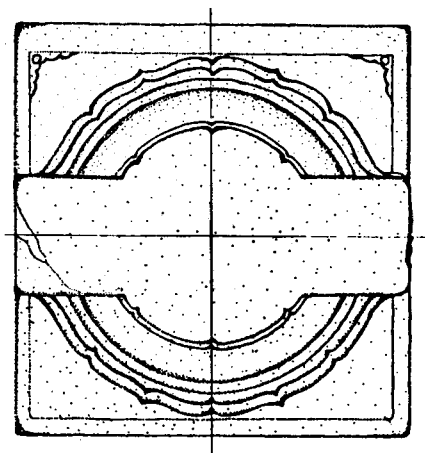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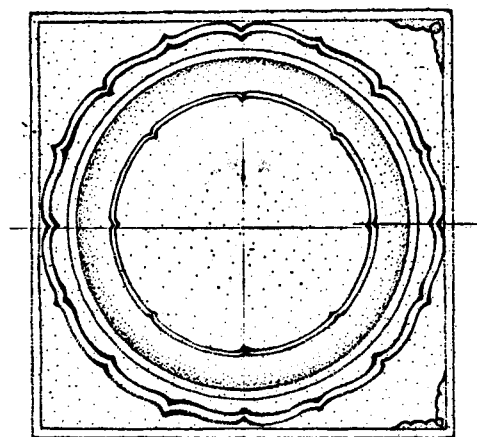


原 州 郡

法泉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 報告書

1992.12

調査 編纂 새한建築文化研究所



原 州 郡

發 刊 辭

우리는 悠久한 歷史와 더불어 貴重한 文化遺産을 先祖로부터 물려받아 民族의 自
矜心을 갖게 되었다.

값진 보배들이 더러는 無關心과 無知, 그리고 災難으로 毀損되고 流失되는 事例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로 貴重한 遺産을 잃게 된다면 先祖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罪를
짓는 것이요, 後代에 대하여는 부끄러운 일이다. 한번 毀損된 文化財는 완벽한 考證
을 거쳐 復元한다 해도 이미 歷史性的 價値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祖上의 물려준 遺産을 바로 알고 最大한 原形대로 保存하여 後代
에 물려주어야 할 責務를 지고 있다.

統一新羅때에는 五小京의 하나인 北原小京이 자리하여 地方行政의 中心地가 되었
고 朝鮮時代 500年 동안 江原道の 首府였던 點과 秀麗한 雉岳山の 精氣를 이어받은
우리 原州郡 일대에는 값지고 많은 文化遺産들이 散在해 있다.

그중에서도 國寶 59號인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 寶物 78號인 居頓寺 圓空國師
勝妙塔碑와 寶物 750號인 居頓寺址三層石塔, 그리고 寶物 463號인 興法寺址眞空大
師塔碑 龜趺 및 螭首, 寶物 464號 興法寺址三層石塔 등은 훌륭한 藝術品들이라 하
겠다.

또한 옛 寺址를 떠나 지금은 서울 國立中央博物館 境內에 옮겨져 있는 法泉寺 智
光國師玄妙塔(國寶 101號)과 居頓寺 圓空國師勝妙塔(寶物 190號)은 더욱 더 佛教美
術品の 찬연한 면모를 보여준다.

오래전부터 斯界의 깊은 關心을 끌어오던 地方紀念物 第48號 法泉寺址 내에 있는
地上石造物의 一部는 統一新羅末, 高麗때의 石造藝術品이다.

이번에 本郡에서 石物實測을 겸한 地表調査를 시행하게 된 것은 文化遺蹟에 대한
바른 이해와 補修, 保存課業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이 조사작업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2. 12.

原 州 郡 守 姜 泰 淵

● 目 次 ●

I. 法泉寺의 沿革	9	
1. 法泉寺와 高麗佛教	9	
2. 智光國師의 生涯와 業績	14	
3.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碑文	15	
II. 法泉寺址 現況	17	
1. 立地 및 周邊環境	17	
2. 法泉寺 伽藍址推察	19	
III. 塔・碑殿址	24	
1. 配置現況	24	
2. 周邊石築	27	
(1) 北側石築	(2) 南側石築	
3. 中央建物址	36	
(1) 基壇	(2) 石階	(3) 礎石과 고매기 돌
4. 東建物址	47	
(1) 基壇과 石階	(2) 礎石과 고매기 돌	
5. 西建物址	53	
(1) 基壇과 石階	(2) 礎石과 고매기 돌	
6. 智光國師 玄妙塔碑	64	
7. 西建物址위의 石物	78	
(1) 拜禮臺石(奉爐臺石)	(2) 石塔材	
(3) 石造佛像 및 光背	(4) 虹蜺形 石物	

(5) 浮屠身	(6) 蓮花臺石	
(7) 用途不明石臺	(8) 石獸形階段소대石	
8. 南石築 前面의 發見石物		98
9. 塔・碑殿址의 考察		103
(1) 建物址의 現況	(2) 塔・碑殿址의 原形探索	
IV. 幢竿支柱		112
V. 書院터		116
1. 講堂址		117
2. 祠堂址		124
VI. 部落內의 石物調査		132
VII. 智光國師 玄妙塔		169
1. 構造 樣式		169
2. 表面莊嚴		176
3. 特殊性 考察		186
(1) 時代的 考察	(2) 地理的 考察	(3) 西域美術의 影響
VIII. 附錄		197
1965年度版, 「高麗法泉寺 智光國師 塔・碑殿址 調査概要」		
참고문헌		225

● 調查擔當 ●

指導委員 金正基 (翰林大教授, 博物館長)

調查員 李應默 (새한 建築文化研究所, 代表)

黃義秀 (韓國文化財保存技術振興協會, 理事)

調查・實測 高周煥 (새한建築文化研究所)

洪性浩 (")

鄭一權 (")

測地 李海吉 (")

徐正男 (")

原稿作成

•沿革・遺構解說 李應默

•塔碑殿址考察 黃義秀

•智光國師玄妙塔 李榮姬 (梨大 大學院 博士過程)

主管實務 原州郡 文化公報室 吳世根, 鄭光和

I. 法泉寺의 沿革

1. 法泉寺와 高麗佛敎

法泉寺의 沿革을 詳考할수 있는 文獻資料가 거의 없어 開創으로부터 法香이 다하기까지의 仔細한 緣起를 더듬어 살피기 어렵다. 또 寺址 역시 香火가 絶緣된지 數世紀 경과됨으로서 荒廢化되어 연면히 이어왔던 法脈의 遺構가 극히 일부에만 남아있으며 事蹟記하나 傳해진 것이 없다.

다만 智光國師를 비롯하여 法泉寺에 住錫하거나 관련맺어온 法相宗系 麗代僧侶들의 관계記事가 高麗史를 비롯한 文集등 몇개 史書에 수록되고, 최근의 研究書에 斷片的으로 登載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法泉寺의 寺況과 伽藍形成의 내용을 추찰할 만한 資料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新增東國輿地勝覽 原州牧 法泉寺條에 記錄된¹⁾ 朝鮮初期의 절의 상황 일부와 智光國師 玄妙塔碑文을 根據하여 近年에 編述한 鄉土誌, 事典類 등이 接해볼수 있는 資料의 大綱이 아닐가 생각된다.

이들 資料에서도 法泉寺 創建이 725年(신라성덕왕 24)이었음을 밝히고²⁾ 있으나 具體的 文獻上 典據를 摘記하지 않고 있다. 또 後代文集記에는 「新羅古刹」³⁾이라고만 하였다. 法泉寺가 그 寺勢를 제대로 갖추기 시작한 것은 麗代에 들어서였던 것으로 推測되고, 法相宗系의 僧侶들이 住錫, 또는 往來하면서 그 門下의 重要寺刹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 「新增 東國輿地勝覽」 卷46, 原州牧 佛宇條 및 「梵宇攷」 法泉寺 在鳴鳳山 有高麗僧智光塔碑 泰齋 柳善 嘗在此寺 講學修業者 自遠而集若 權曄 韓明澮 康孝文 徐居正 後皆有大名 塔上題詠 至今猶在

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刊 「民族文化 大百科事典」 法泉寺 條.

3) 退耕堂 全書 「卷二」 韓國寺刹全書上卷 法泉寺條에 수록된 「遊原州 法泉寺記文」중에 「春州之南三十里, 有山 曰飛鳳山 山下有寺 曰法泉 新羅古刹也…」라 되어 있음.

이보다 앞서 南漢江 中流지역인 인근에는 統一新羅末에 開創(9세기경)되어 麗初에는 이미 國家大刹이 된 興法寺와 高達寺, 居頓寺가 있었다. 각기 眞空·忠湛(869-940), 慧眞·元宗(869~958) 圓空智宗(930~1018)등 高麗建國에 크게 기여하고 후일에는 王室과 밀접하여 王師, 國師로 추대된 禪宗高僧들이 住錫하였기 때문에 이 일대는 麗初부터 重要的 지역으로 부각되었었다. 이들 寺刹에는 統一新羅期의 典型 石塔樣式을 보이는 二重基壇위에 三層石塔과 麗初의 雄壯한 장식技法이 보이는 建物址 基壇, 浮屠塔·碑, 石臺座등 石造美術品들을 남기고 있다.

- 興法寺 眞空大師塔과 碑(940 : 보물 463호, 365호)
- 高達寺 元宗大師 塔·碑(977 : 보물 제6호, 7호)
- 居頓寺 圓空國師塔·碑(1025 : 보물 190호, 78호)

水運을 이용한 便利한 交通과 일찍부터 佛教文化가 싹트던 忠州地方, 驪州, 楊平 지방과 南北으로 연결된 中心地이자 麗初부터 地方豪族勢力이 强했던 立地條件에 따라 原州는 쉽게 地方文化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다.

法泉寺는 이러한 地理的 位置에 있는 寺刹로서 德宗年間(1031~1034)에 鼎賢이란 큰스님이 住錫하며 도량을 넓히었고, 智光國師 海麟의 主刹이 됨으로서(初年修學, 末年에 3年餘間 거주하다가 入寂함) 全盛期를 이룩할 수 있었다.

法相宗은 본래 中國 唐代에 成立된 宗派로 玄奘法師(600-644)가 開祖이며, 慈恩 窺基大師(632~682)가 完成시킨 宗派이다. 우리나라에서는 新羅 景德王代(742~765) 大賢에 의해 도입되어 元曉(617~686)에 이르러 기틀이 이루어졌다 한다.

法相宗은 일명 唯識宗이라고도 부르는데 高麗時代에는 瑜伽業으로 통칭되기도 하였으며, 解深密經과 瑜伽師地論을 主要經典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그 宗勢는 高麗顯宗代(1009~1031)로부터 高麗佛教의 中心勢力으로 浮上했고 當代의 大門閥이던 仁州李氏와 제휴 宗勢를 더욱 확장했다고 한다.

顯宗12年(1021) 王室의 願刹로 開京에 玄化寺를 創建하여 그 본거지가 되었으며 歷代住持 法鏡(大智國師), 鼎賢(慧昭國師) 海麟(智光國師) 韶顯(慧德王師) 등이 王室과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왕과 나라의 師表가 됨으로서 많은 門徒를 輩出하였고, 宗風을 振作시켜 華嚴宗과 함께 高麗中期佛教의 兩大教團으로 隆盛시켰다. 또한 지

금은 京畿道 開豐郡 嶺南面 玄化리에 廢寺址만 남기고 있는 玄化寺가 高麗의 代表的 寺刹로 되게 하였다. 여기에 소속된 寺院들은 海安寺, 天興寺, 水多寺, 三川寺 修理寺, 月岳寺, 法泉寺, 金山寺등 이었는데 特히 法泉寺와 金山寺는 地方에 멀리 떨어진 寺院으로서 重要性이 컸으며, 法泉寺에 住錫하던 鼎賢, 海麟, 德謙(1083~1158) 등이 후일에 玄化寺 住持로 발탁되는 緊要한 聯關을 갖었다. 또 위의 세 僧侶뿐 아니라 그 門下의 여러 門徒들은 出家와 受戒, 巡禮, 安居, 住持등의 修行歷程중 대개 海安寺와 法泉寺, 王輪寺, 玄化寺, 内外帝釋院 奉恩寺등의 寺院을 한번씩은 거쳤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韶顯은 海麟(指光國師)의 嗣法弟子로서 그의 뒤를 이어 僧統이 되고, 또한 玄化寺 住持로서 法相宗 教壇을 領導해왔으므로 玄妙塔·碑와 同塔碑殿 建立에 主導的 役割을 했음은 당연하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지금은 廢寺되어버린 法泉寺의 佛教性格이나 도량내의 제반 象設(상설)을 理解하는데 이러한 寺刹들을 섭렵함이 참고될 듯 하다.

그 以後로도 法泉寺 住持를 맡았던 圓證僧統 德謙(1083-1150), 證智首座 觀奧(1096~1158)등이 玄化寺 出家와 後日の 住持부임등 法泉寺와 玄化寺와의 交流는 계속되었다.

法相宗(瑜伽宗)僧과 寺院과의 關係

僧名(生存年代)	出家·受戒·巡禮·安居 등의 寺院	住持한 寺院
法鏡(-1020·1034-)		三川寺, 玄化寺
鼎賢(972~1054)	光教寺(出家), 漆長寺(得法師), 靈通寺(官檀), 彌勒寺(大選), 廣濟寺(救恤), 奉恩寺(王師·國師)	口雲寺 法泉寺, 玄化寺 水多寺, 海安寺, 玄化寺
海麟(984~1067)	法泉寺(受學), 海安寺(出家), 福興寺(官檀), 王輪寺(大選), 鎬京重興寺(夏講), 內帝釋院(王師), 奉恩寺(國師)	
韶顯(1038~1096)	海安寺(出家), 福興寺(官檀), 王輪寺(大選), 開國寺, 慈雲寺(選場)	海安寺, 金山寺, 玄化寺
闡祥(~1141)		玄化寺
德謙(1083~1150)	玄化寺(出家), 佛日寺(受戒), 王輪寺(選佛場), 香林寺(避亂)	長嚴寺, 天興寺, 法泉寺 玄化寺
義光(1107~1157)	佛日寺(受戒), 王輪寺(選席), 玄化寺(入寂)	忠州龍頭寺, 伊山伽耶寺, 崇教寺
觀奧(1096~1158)	玄化寺(出家), 佛日寺(受戒), 崇教寺(成福選), 奉恩寺(大選), 外帝釋院(說經)	月岳寺, 天興寺, 法天寺, 修理寺
覺觀(1121~1174)		玄化寺
惠永(1228~1294)	南白月寺(出家), 王輪寺(選佛場) 金山寺(門人)	興德寺, 俗離寺, 佛國寺, 重興寺, 瑜伽寺, 桐華寺, 成道寺(元)
彌授(1240~1327)	元興寺(出家), 崇教院(教學), 旻天寺(講院), 元興寺, 祇林寺, 天神寺, 玄化寺, 重興寺, 天神寺(門人)	國寧寺, 態神寺, 莊義寺, 俗離山 法住寺, 桐葉寺, 法住寺
海圓(~1340)	金山寺(出家)	福元寺(元), 金山寺

이 표는 許興植 교수의 「高麗佛教史研究」에서 轉載함.

朝鮮時代に 들어 法泉寺 寺況이 어떠하였고 언제까지香火가 이어졌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단지 朝鮮初에 「泰齋 柳方善이란 儒學者가 이 절에서 學問을 강의하였는데 배우러 오는 자가 먼곳으로 부터 모여들었다. 權擘·韓明澮·康孝文·徐居正 등이 후에 큰 이름을 얻었다. 그들이 塔 위에 詩를 써 놓은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15세기까지는 遺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院村마을의 옛 寺刹터는 部落과 田畠으로 변하였고, 부락 뒷쪽 언덕위에 玄妙塔과 碑가 있는 碑殿일곽과 그 부락 어구에 幢竿支柱만이 남아 있다.

玄妙塔은 1912년경 日人들의 掠奪行爲로 日本 大阪의 藤田男爵家 墓地로 移轉되었다가 1915年 舍利具를 제외하고는 반환되었는데 原所在地로 가지 못하고 景福宮 內에 옮겨졌다.

1965年 國立博物館에 依해 塔·碑殿址 일대가 발굴되어 그 報告書를 남겼다.

2. 智光國師의 生涯와 業績

法泉寺 重興主人 智光國師(法號는 海麟)의 俗姓은 元씨로 原州地方 土着貴族家門에서 高麗 成宗3年(984) 12월 31일에 태어났다.

幼年期인 7,8세까지는 故鄉에서 李守謙에게서 儒學을 배우고, 인근의 法阜寺(法泉寺일듯)스님 寬應(麗初의 法相宗 승려)에게서 佛經을 修學했다. 이후 당시의 왕도였던 開京으로 나아가 海安寺 方丈 “俊光”에게 出家하였다.

그리고 16세때인 穆宗2年(999) 龍興寺 官壇에서 具足戒받아 得道僧이 되었고 21세때인 穆宗7年(1004) 王輪寺 僧科 大選에 及弟함으로서 “大德”이란 下位僧階를 除授받았다.

이즈음(11세기초)의 高麗佛敎는 地方豪族 勢力聯合과 中央의 門閥貴族 勢力間에 심한 競合과 마찰을 격으면서 새로운 中心勢力이 再定立되어가는 과정에서 羅末麗初에 强盛했던 禪宗이 점차 약화되고 敎宗系의 華嚴宗과 法相宗(唯伽宗派)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다.

특히 法相宗은 王室의 願利로 창건된 玄化寺를 본거지로 하여 宗勢를 크게 확장하였으며 初代住持 大智國師 “法鏡”이 王師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이 무렵에 海麟은 “大師”가 되었고(顯宗 2년, 1014), 玄化寺가 창건된 현종 12년(1021)에는 鎬京(平壤)의 重興寺에서 夏講을 펼 때 講師로서 많은 名文章을 지어 여러사람을 감탄시켰다.

그후 “重大師”에 封해져 法相宗 寺刹인 水多寺와 海安寺 주지를 역임하였다. 德宗 때(1031~1034)에 더욱 王의 恩寵을 받아 三重大師에 除授되었고 首座의 職을 받아 宮中에 들어가 法華經을 講說하였으며 靖宗9년(1043)에는 教宗의 第1僧階인 僧統의 자리에 까지 올랐다.

文宗 즉위후 궁중에 나아가 “唯心妙義”를 講說하고 同王8년(1054)에는 玄化寺 住持가 되어 이절을 대폭 重建하는등 법상종을 領導하여 크게 隆盛시켰다. 그리고 文宗은 그의 在位 10년(1056) 10월에 工部侍郎 張仲英과 尙書左丞 柳紳, 禮部侍郎 金良贊등을 보내 禮를 갖추고 동년 11월 11일에는 몸소 內帝釋院에 행차 執禮하여 海麟을 王師로 삼았다.

그리고는 2년후인 1058년 5월 19일에 致書三請하여 奉恩寺에 親行 國師에 封했다. 이 시기에 나라에서 王師와 國師로 策封한 僧侶들로는 1047년(문종 1년) 華嚴宗의 瀾圓이 왕사로, 決擬(964~1053)가 國師로 되었고, 1049년 법상종 鼎賢(972~1054, 현화사 2대주지)이 왕사됨이 전부였음으로 海麟의 지위는 그만큼 당당했으며 당시 고려중기불교를 지배하던 華嚴宗과 法相宗 兩教團체제의 중심인물이었다.

그후 문종21년(1067) 老弱해진 海麟이 法泉寺로 돌아가기를 請하매 문종이 친히 현화사에 나와 전송하며 茶藥, 金銀器皿, 采緞등의 寶貨를 下賜하였다.

법천사에 돌아온후도 內殿에서 百高座會가 있을때에는 第一說主로 초빙받는등 王室과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國家의 師表되는 지위를 계속했다.

문종 24년(1070) 10월 23일 海麟이 入寂하자 문종은 智光의 諡號를 내림과 함께 茶香과 油燭, 原州倉穀을 내리고 朝廷의 臣下를 보내 葬禮를 監督케 하였다.

이때 海麟의 歲壽는 87才요 僧臘으로는 72才였다. 동월 29일에 法皐寺(법천사) 山東을 택해 茶毘의 禮를 행하였다. 海麟의 門下에는 法靈, 韻顯, 尙之, 世梁, 祐翔 등 1,000餘人의 門徒들이 있는데 이중 그의 法統을 繼承한 嗣法弟子는 韻顯이다.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

所在 江原道原州府富論面法泉寺址
年代 高麗宣宗二年(西紀一〇八五年)

附錄智光國師玄妙之塔碑銘(題額)

高麗國原州法泉寺講真弘道明了頓悟戒正高妙應覺探玄道源通濟淵奧法棟具
行了性導首融昭朗微證智光國師玄妙之塔碑銘并叙

中大夫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尙書禮刑部事監脩

史兼 太子太傅上柱 國臣鄭惟產奉 宣撰

承奉郎尙書都官郎中賜緋魚袋臣安民厚奉 宣書并纂額

臣聞 聖德敷演妙音瓦三摩地蘇婆度製成高論窮八識源幹開相應之真宗深

廣顯揚之正教斯所以誠我人於夜喻旌主宰與執持雖至理本乎虛玄等無差別而

諸根由乎利鈍悟有淺深然汲引於

愚迷則指陳其權實暨乎去 佛滋遠遺文漸廢有如玄獎之儔念念相續探彼脩羅

之窟拳拳服膺崇信寶乘競騰鋒製晉翻而視奧並振頰經法隋譯以鉤深俱維絕

紐東流之法非異內向者心心自

通茲故間出魁雄題爲舊胤播威名於賢切研戒定於梵題效 慈氏之分身降毗梁

帝快 文殊之現跡來應穆王普化仁□丕弘象正顯祈 聖祐助致鴻均者唯 我

國師而已哉 師諱海麟字巨龍俗

姓元氏幼名水夢原州人也惟高唯曾積善積慶最易安貞之緣用晦而明達彥升

儉約之風不創其朴祖諱吉眉心卜筮首事陰陽著象何虞觀變而仰瞻軋願鑽龜得

兆決疑而無俾世迷父諱休繼蓬衡

官譽先操吏思得床哩之嗣愛聞板衍之詩母李氏利契提壺恭踰舉按無邊善願宛

然光目婦人最勝妹容知是妙顏聖□嘗夢河海澄澈并泉涌汙因以有娠甚於吞氣

履得之跡那羨於姜原託胎之期置

符於王邵既彌厥月爰發其祥以雍熙元年歲在閏逢涓灘涂月晦日誕 師於私

第歟故童年號爲水夢也昔明王即位二十四年江河泉池忽然汎漲是 佛生之瑞

比於 吾師資始之微一無異焉 師

曰蕉分精於運稟性銳意於斷除舍愛非心乎資益色身甫及解季勤懇幼學謁李守

謙請業謙見異之曰余則不知碩量爾宜務擇明師矣或有一老嫗善相者見文在手

謂 師曰徐若爲僧必貴於世 師

泊聞達算抵事道將不觀孔孟之方向鄙老庄之鑿鑿錙銖軒冕糖批膏梁遽就法泉寺

大師寬雄處學之次雄公適指京華俄辭水石彼則浮杯以渡纔出五雲 我則負

笈而追匪遙千里同歸輩下即占山

西旋接于海安寺俊光方丈剃髮毀容出家修道祈展綈儀於函杖款窮縹緲於貫花

魏若舒祥象之年解傳眞諦迦衛國駝鳥之類僉讓金公其於檢括機緣適□激揚宗

要一聞千悟功倍於嚴師兩智三明

道存於紹 佛雄公悅而名之海濤以統和十七年首夏之月稟具於龍興寺之官壇

洗心離染如手畫空矣時年二十九例被崇教寺開創之恩初職爲得名也仍赴慈雲寺

唱薩之場焚修向畢雄公於法泉寺

安寢之頃間夢見一鷹飛到則伸左拳以捧之又兩山君來入於後圍互相踴躍微明

而去雄公異而誌之翊日 師揭來本寺此其應也 師夢到海濱手捉小魚吞之覺

而解之曰魚則鱗也因以鱗爲名巨

龍爲字矣春秋二十一赴王輪寺大選談經而言近意深命侶而問同答異彼缺望者

如百之執燭或視爭者止語於衍枚心息諸緣敢歎波濤之依水法離羣動應唯索簡

之假風解議圍而橋梵疊降戒忍證

分尼輒輒亂捉塵而一趁誠可折床之衆許明揚仍署大德千時 師以謂曰紛吾懸

後於義龍瑞 聖莫先於仁獻故 以麟改鱗爲名也統和年中受法號曰講真弘道

二十八年大師將還法泉寺路值寒

講真崇偕行次聞崇公念曆算之法 師請傳之取則而易於反掌移謀而明若發蒙

賈餘勇於恒流究多能於鄙事者矣屬統和末考我聖孝顯宗御宇第五年也特蒙

容獎加□□□太中祥符十□□□

號爲明了頓悟天禧五年於錦京重興寺爲夏講說師談傾法澤伴火宅以農涼焰微

慈燈底昏衢之夜曉竺□西意 師每一稱箕子古都衆皆三讚其後見嘗宿先公社

會詞談文理不便改而製之小□□

道顯載浮辭出語成章惠璫以之饒擬分文足簡於憑以顯倪其適妍敏捷之能侯

誰的對乎太平年中加重大師戒正高妙應覺爲號住持水多寺十季有 勅移住海

安寺迄于 惠宗臨朝轉甚重之特

授三重大師并賜磨納法服一領加法稱曰探玄道源未幾加 授首座兼 賜磨納

田衣一箇者□□□滋深寧許井蛙之測緇流嗣賀却輕度燕之投疑出世之 覺王

幸同時於 仁王蓋海之聲無失數

懸河之辯不盡言重熙季中加號曰通濟淵奧法棟忽一旦 宣許入內俾演運經

師竭隆瑞雲貌陳兩標真顯正牛車之奧旨箕張勇惡裁疑龜木之妙詮玉振暨諧

駐聽奚倦 珎頒別 賜細繡帳

相服二領十四年擢 授僧統治于 今聖上育夏臨民 頒股布政洪業已臻於懿

樂論誠深切於親摩迺 召師於琳宮講唯心妙義仍 賜磨納僧伽梨一領 漢闕

九重下負屨者親迎象步慈徒十百

升堂者謂透龍門達公慙在北之精通僧徹讓流中之龍錫其年中荐加具行了性導

首爲号且或祇園釋風寔惟教所由興咸里神童嚙不禮恭來學是以故守大師門下

侍中追贈中書令章和公李諱子淵

遂許第五男謚令落髮於望振衣爲神足以服勸謁 法身而鑽仰何者今金山寺住

持三重大師紹顯是也大師祥親甲第節食仰齋想振掖之后妃悉云同氣剋專樓之

3. 法泉寺 智光國師塔碑文(朝鮮金石總覽에서 轉載)

兄弟皆謂此乃如之人以其道

併通儒釋頓絕等倫德行文章復魯堂十哲慈悲智慧全超魏寺千僧資岐玄班力扶赫世其壯麗 師門之盛莫之與京乎重熙二十三年丙月有 聖勅移住玄化寺師因辭不得遁捨驅馬一疋先

納于寺俄有一比丘來申賀謝須臾不知所去此則聖僧之靈驗也入院後夜分魂榻之際與一僧同遊則傍有神人告曰而 國師也彼 王師也辭則猶在耳嘉兆首稱於瑞錄吉音漏溢於環區矣況

國師也何偏局乎內宗亦兼羣乎外典生知衆妙夙齡欺未勃才童強識群書時譽冠惠超學士至若詞峯倚日筆塚擎天若警句之愈工被鉅儒之寡和湯開士碧雲雅作豈是壤奇李謫仙白雲清吟誠爲瑣

劣較於縑素之侶亦不可同年而語矣其或期憑梵福益盛 宸圖傾覆施之財藏工依之價愛徵懷筆繪出 眸容或鑄龜鍾兼成茫具新營 寶剎移視吏之天宮敬造金言悉拘那之海藏斯所謂始擅

乎發弘誓願終圓乎緒大因緣其諸善奉行之采豈可彈指乎清寧二年十月日 上謂之曰鸞著則非法無以救迷 賢聖則非師無以請益苟能悟法者可以爲師乎特降 國王諸請遂遣工部侍郎張

仲英尚書左丞柳紳禮部侍郎金良贊等備行三反之禮續道知中樞院事異惟忠押賜錦犀法服銀黃器用香拜等 師膠讓不獲 命即以十一月四日 大駕行幸于內帝釋院備禮 拜爲 王師彼

其周之同職與之同輩者共在下風矣三季 進法稱曰融煥四年五月初一日 上欲里爲 或師致書三請以是月十九日備 金駕親幸奉恩寺封 我師爲 國師封靈通寺主僧統綱圖爲 王學者

洞辰並 授於丕稱兩相合矣同日祗承於 雙龍二美顯焉觀其所由歎未曾有獨所夢神人之吉語必識此矣同遊之僧靈通寺主是也五季陽月八日 師赴內殿爲百座會第一說才宜半偈荐集丕

休累 進法稱曰朗微咸雍三年二月日 師欲歸安于法泉寺幾興暮齒之嘆樓陳身退三上需頭之奏確執懇辭 上優詔從之以九月二十二日 駕幸玄化寺特設閤院僧齋兼置賞錢之筵訖 率

班拜辭後則道左承宣中書舍人鄭惟產押上茶藥瑞貨等名數夥多刪煩不載 學取是月二十七日發行指本山 上命太子率諸王百僚於南郊饒別特差道俗員寮等慰送于本寺芒 師下山後三

仲夏之月 聖上以延德宮第六王子許令刺髮接息于玄化寺舊住奉天院特授首座者斯緯類肖 國師之邊幅也是歲十月二十三日晏陰右臥而寢此夜零雨其濂師寤而跌坐謂弟子曰兒

答曰雨也聞言則示化矣昔驚子入滅無色諸天所泣之淚如春細雨今之夜雨豈非諸天之淚乎嗚呼哀哉報年八十七僧臘七十二即世前夜有二星見其大如燈又有大虹二條如亦龍之雙臥此

示滅之兆也門首座法靈三重大師韶顯等歸誦訃於 彤陛 上則震悼尋遣左街僧錄崇演保章正全奎爾等監護葬事續差遣專不任彼殯堂致其卓祭 贈諡曰 智光併 賜茶香油燭及原州

倉穀以充拔薦之費十一月九日還勝于法泉寺之山東茶毗禮也是時人祇憐憫天地晦冥鳥獸悲鳴峯巒慘列有情無情皆感 德之終乎 上追嘉軌範敢弗標題欲使刊黃相之辭樹貞珉而不朽煥

赤髭之蹟流歷代以長存爰 命顯儒俾甄鴻烈臣牛渚校量覓海寡能謬奉 綸宣罔由恭讓抱其 風而紀其 德雖堅匪石之心庸於學而拙於才自愧無錢之手輒狂斐但聲譽塔羅爲銘曰

妙法奚自 能仁所宣西軋首出東震騰傳諦分真俗理應機緣集迷歸正憑實假權其大教既周群生胥悅惠日流光岸谷皆徹慈雲灑潤蘭不別去 聖逾遙遺風欲絕其誰紹者唯 我尸之誕鍾乎

氣端迢 明時辭親割愛捨素從緇釋林尋鳳簪固 三思發菩提口修般若內究空宗外工儒雅品匪地前譽魁天下福智相嚴比倫蓋寡 戒賢再出無着重生德瓶恒滿心鑑轉明桑門鍊行 藥闍馳

聲 瑞皇請益寶世飛榮 萬乘師合諸天道普祐邦家永堅懷抱岬崱危園封告老還阜于歸 高年是禱 其身雖不凋命也云亡醍醐風味苾苾香 簽宰茹歎暗斷腸腸栗栗忼慟如喪爺孃 其

吁哲弟之蜂屯感遺言而潸慕頻北沒之先芬勒南刊而後論儼海塞以河湮或人新而代故庶 淑德與雄名巨將來而有裕 八

(略記) 秘書省陪戎校尉臣李英輔大臣臣張子春等奉 宣刻字

故法泉寺主智光 國師碑銘陰記如左 玄化寺主僧統紹顯俗離寺主 王子僧統釋觀首座廣玄三重大師釋

大師灌雲弘諦占顯融保嵩幹繼相僧鑑真占尚賢承覺同壽祐翔雙紹秀顯釋稱定神覺明冠僧元契右賢說如釋翔覺玄尚之釋雲邦蘭甫賢釋淋澄祥釋因稟宗祐承真續續世梁等一百三十三大師賢蓋忠恕等一十七人大德

定支真保等二十二入受教繼業者也石口僧錄亮亮重大師玄占慧宗梁濟廣碩慶忠念忠心月應諸敏成慶調元崇元釋等二十八入大師義雲釋升爲顯等二十三入大惠崇器通月弘學均善等二十五入隨職加階者也重職惠燈弘範等一千一百餘人慕德歸化者也首座釋虬法靈三重大師占先爲

現宋光重大師昇紹成現繼言安鏡道生講雲利真大師通現周現神暢實成 大德周蘭秀品單職真契等五十二人先後 師而沒世者也 右件門 開座職名彰錄施行 承奉郎尚書都官郎中 賜緋魚袋臣安民厚 大安元年歲在乙丑仲秋月 日樹 臣李英輔臣張子春

Ⅱ. 法泉寺址 現況

1. 立地 및 周邊環境

法泉寺址는 행정구역상 江原道 原州郡 富論面 法泉里 院村마을에 있다. 院村이라는 朝鮮時代에 書院이 있던 마을임을 뜻하는데 이는 仁祖~肅宗代에 이곳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性理學을 공부한후 故鄕 법천리에서 농사지며 後進養成을 위해 講學에 힘써온 丁時翰(1625~1707)의 講堂과 그 門下 儒生들이 그를 追慕하여 세웠던 廣岩祠를 緣由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이 원촌말은 富論面 所在地로 부터 약 1.5km 가량 떨어져 있다.

이마을에의 進入은 當初 면소재지 동남쪽에 있는 ‘골말’이라는 작은 마을 뒷산둥이를 돌아 들어가는 옛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재지 북쪽에서 산곡리로 가는 新作路길을 따라 마을 後崗으로 進入한다.

서원말의 주변사방은 黃鶴山에서 흘러내린 標高 100m 내외의 山麓이 둘러쳐져 있고 마을바닥은 약 6만여평에 이르는 低平한 山間盆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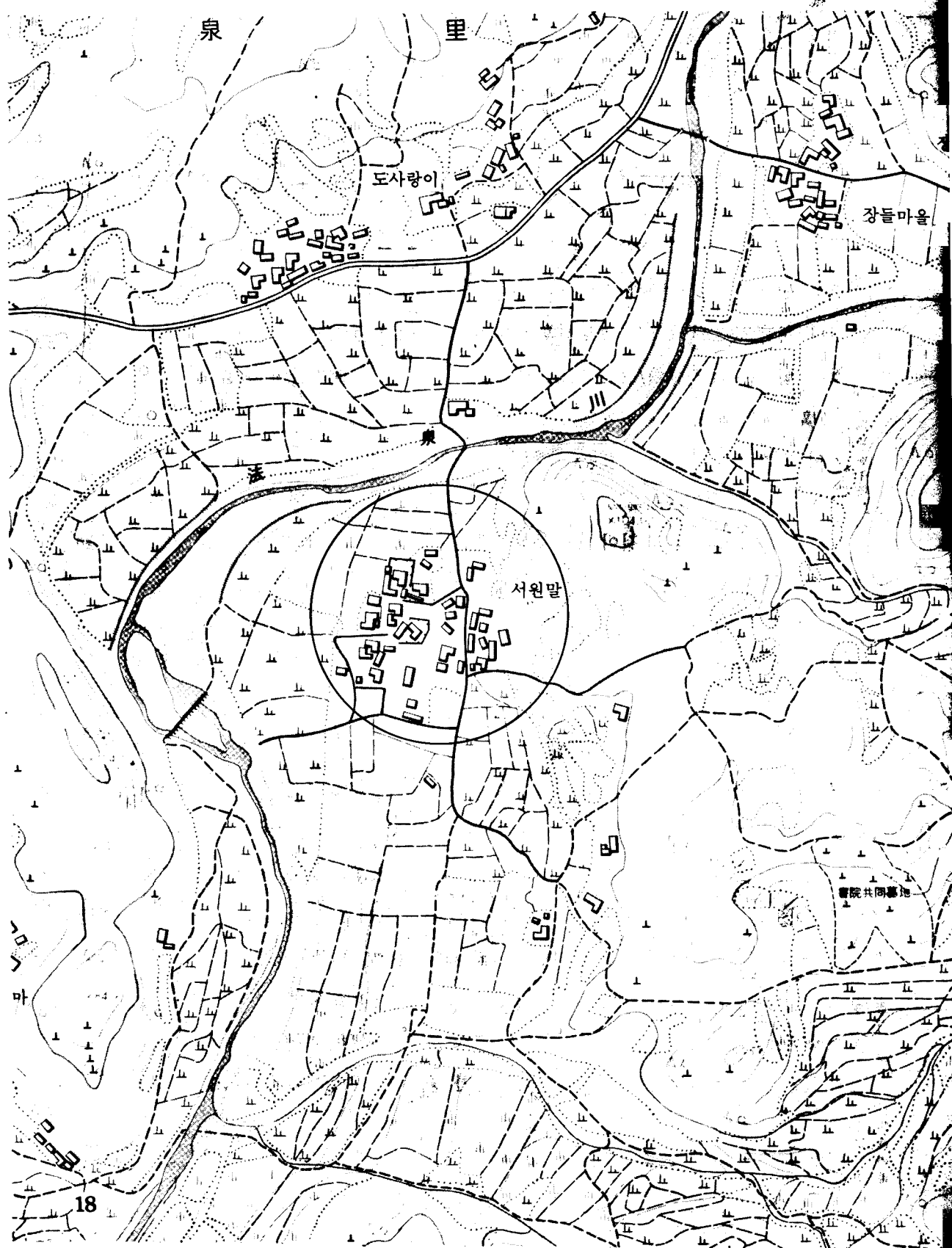
마을 북쪽으로부터 서편으로는 法泉川이라는 작은 냇물이 흘러 南漢江에 流入된다. 옛 법천사가 있던 자리는 현재 약 30여호의 民家가 들어서 있으며 냇물 건너 북쪽 산기슭에는 도사랑이, 장들이라는 작은 部落들이 이어져 있다.

법천리는 南漢江과 蟾江이 合水되는 興湖里에서 남쪽으로 4km 떨어진 곳이며 忠州로가는 길목의 남한강변에 連接되어 일찍부터 水運을 이용한 交通路가 發達되었다. 이곳은 강을 사이에 두고 京畿道와 江原道, 그리고 남쪽으로 좀 떨어져서는 忠淸北道가 이어지는 三道 接境地域이며 興湖里에는 옛 興原倉이 있었다.

原州로 부터의 거리는 30km이고 忠州로부터는 약 40km이다.

興原倉은 原州, 平昌, 寧越, 旌善, 江陵, 橫城, 三陟, 蔚珍, 平海등 강원도 지방의 租稅米를 陸路運搬 이곳에 貯藏하였다가 중앙으로 水運 運搬케 하였던 基地이다.

서원마을 주변 지형도(1/5,000지도)



富論面 일대는 오랫동안 驪興땅에 소속되어 開京과 南京(漢陽)에 쉽게 接續되고 高麗朝가 全國을 十道로 나누어 統治할때에는 原州일대가 中原道에 編入되었던 까닭에 忠州중심의 中原지방과 더욱 밀접한 연관을 갖었다.

그리고 남한강 일대의 寺刹은 인근의 居頓寺, 高達寺외에도 그 上流쪽에는 靑龍寺址, 중원군 가금면의 內洞寺址, 院洞寺址, 塔平里寺址, 金生寺址, 淨土寺址, 億政寺址 등 신라말부터 고려시대에 造營된 寺址들이 江岸이나 그 인근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水運을 통한 交通便利를 擇해 절의 위치를 정하였고 이런 聯關으로 옛부터 僧侶들이 서로 往來하여 왔으리라 생각된다.

2. 法泉寺 伽藍址 推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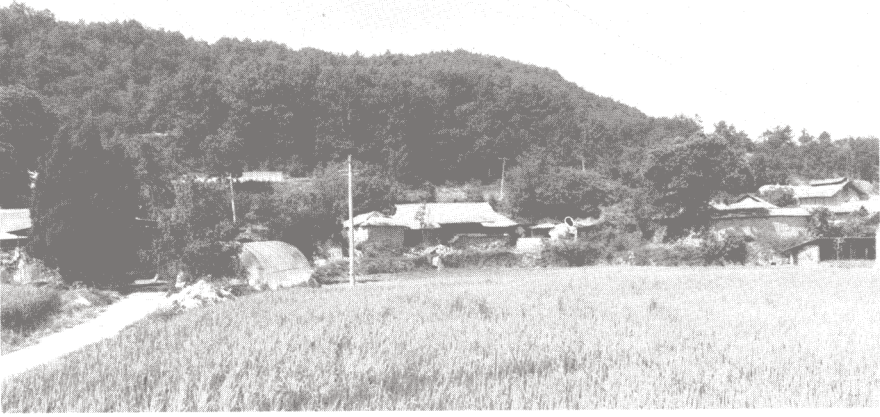
현재 法泉寺址에 남아있는 伽藍遺構는 智光國師 玄妙塔碑가 있는 속칭 '碑殿' 지역과 講堂 및 祠堂 遺址가 있는 옛 書院地域(이후 講堂地域이라 통칭함), 마을의 남쪽 발가에 멀리 떨어져 있는 幢竿支柱뿐이다.

그리고 部落 民家들의 基壇과 장독대, 담장 周邊에 무수히 散在해 있는 加工石物들이 옛 법천사 도랑내 여러 건물들에 사용되었던 石物들이다. 이들 석물들은 講堂址 周邊과 길아래 정해용씨집 주변에 集中的으로 배열되어 있어 이 부근 일대가 도랑의 중심지역이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또 다수의 석물들이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동남쪽 산기슭의 民家와 개울 건너 마을입구 廢家에서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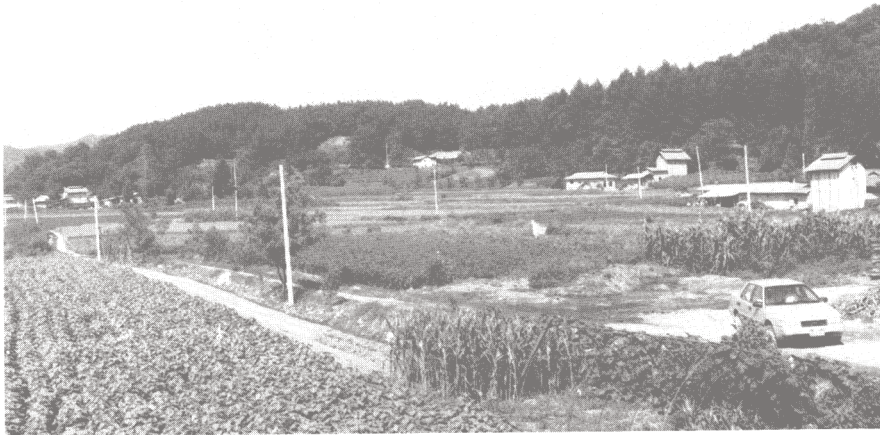
서원마을 중심부 동쪽은 바로 낮은 동산에 連接되어져 그 중턱부위 작은골안에 玄妙塔, 碑殿이 남향해 造成되고 그 西便 산자락에 講堂址가 있다.

幢竿支柱는 마을중심에서 320m가량 떨어져있으며 그 사이의 주변일대는 모두 밭으로 耕作된다. 마을서쪽으로는 120M떨어져 냇물이 흐르고 그 건너에서 바로 산자락이 이어진다. 북쪽으로 냇물 건너 200M 가량쯤의 평지(논)를 지나서 북쪽외곽을 두른 낮은 山麓아래 도사랑이 마을민가가 道路邊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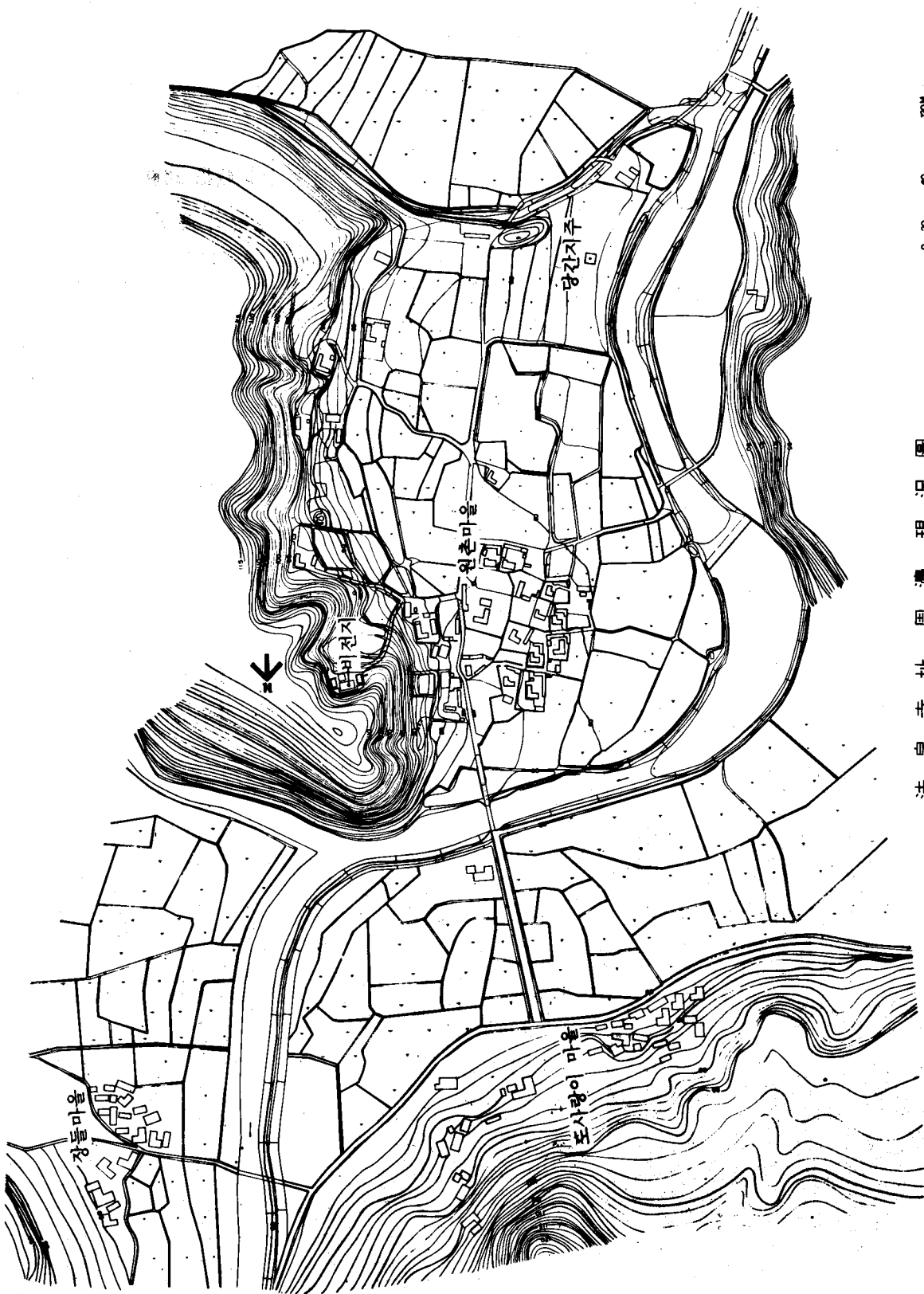
이런 地形下에서 법천사 옛 伽藍은 지금의 마을을 중심곽으로해서 개울안쪽 평지



서 원 마 을 전 경



장 들 마 을 전 경



法泉寺址周邊現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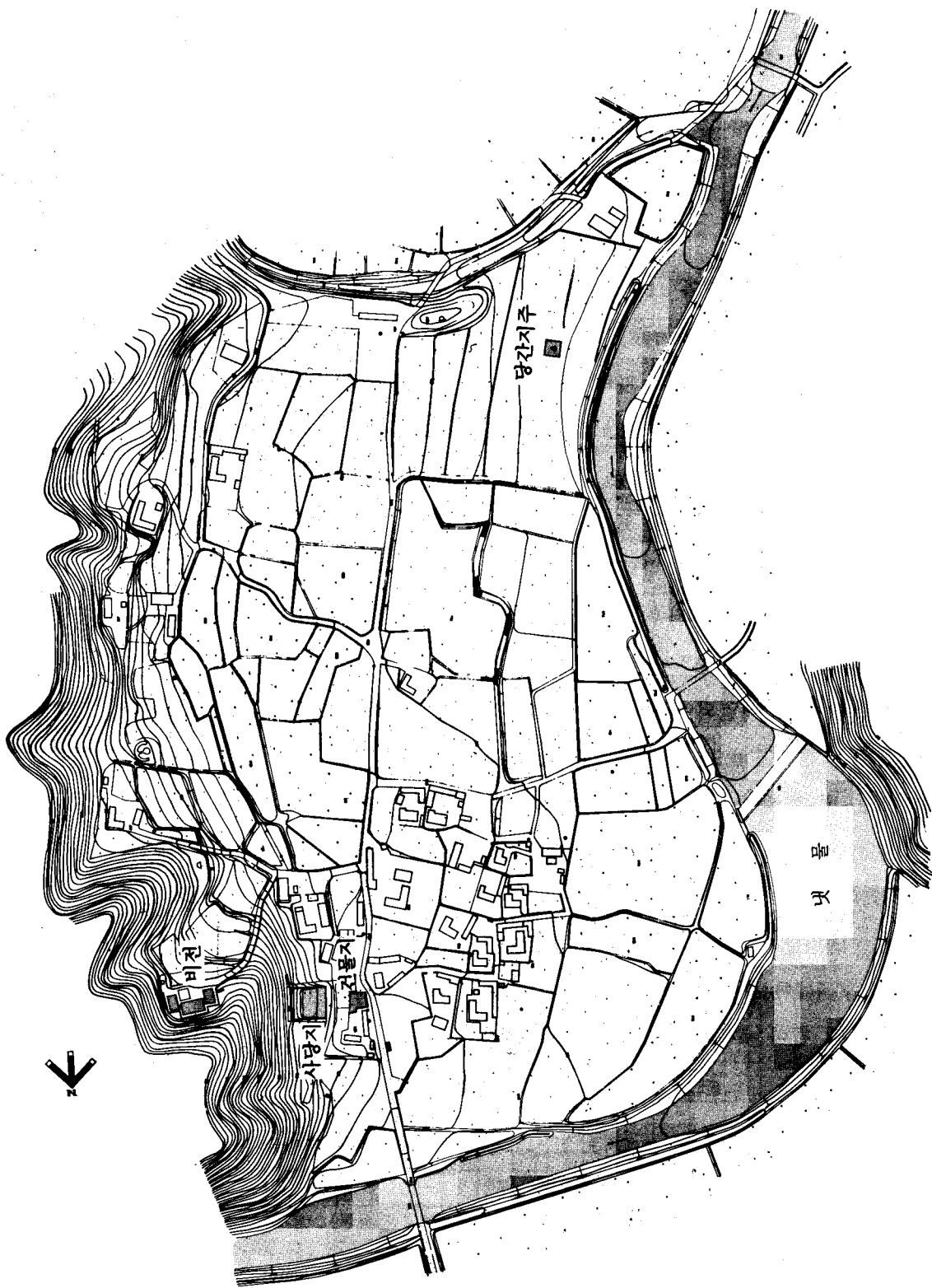
에 도량을 일구었고 당간지주 까지를 寺域으로 했던것으로 추측된다. 절에 출입은 이곳으로 했을 것이며 마을과의 사이 평지에도 殿閣들이 일부 들어 서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 塔碑殿址 서건물지에 있는 廢塔材들이 정해용씨댁 뒷밭에서 收拾 移轉되었다 하며 또 인근의 정태영씨댁에 여러점의 塔材들이 흩어진 것과, 강당지 주변에 견실한 長臺 기반석과 精巧한 加工礎石, 階段소대석등이 集中됨을 보면 塔과 金堂이 이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推察되는데 어느방향을 向해 중심곽이 앉았을지는 알 수 없다.

西向 또는 西南向 배치 일 경우에는 탑비전이 있는 동산이 背山되기 적절하나 남향일 경우에는 敷地의 背後面이 매우 虛하기 때문이다.

도시랑이 마을과 장들마을 民家들에도 옛 寺刹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지는 加工 長臺石 및 礎石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곳은 서원말로 부터의 각각 320m와 400m씩 떨어져 있어 法泉寺에서 옮겨진 것이라 判斷하기에는 좀 먼거리이다.

도시랑이 마을 노인들에 따르면 그 뒷산 둔덕에서 상당량의 가공석물들이 출토되어 이 마을민가들에 옮겨졌고 지금도 開墾된 밭 지중에 많은 분량이 埋設되었다고 證言하는바 이지역에는 법천사에 소속된 山內庵子나 別院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院村마을現況配置圖

Ⅲ. 塔・碑殿址

1. 配置 現況

智光國師의 浮屠塔과 그 碑가 있던 일곽이라 하여 略稱해서 「塔・碑殿址」라 칭하며 마을내에선 옛부터 「碑殿」으로 불리어 왔다.

法泉寺 도량의 중심곽이 자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 서원마을 취락군 동쪽 낮은 산 자락을 끼고 돌아서 올라간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내 중앙 관통 도로변 김영득씨 집 옆으로 난 路幅 2m 가량의 길이 연결되어 있다.

塔・碑殿 일곽의 주변을 보면 西쪽으로부터 背後面인 北쪽과 東편으로는 낮은 산 기슭이 둘러쳐진 아늑한 평탄부지이며 南쪽인 前方은 넓게 視野가 트인다.

平地바닥 뒷부분과 좌우 삼면 산자락 갯에는 加工石으로 잘 쌓여진 낮은 石築이 둘러지고, 그 內區 중앙에 中心建物址로서의 基壇과 左右 2棟의 建物址가 양쪽에서 양팔을 벌린듯 배열되어 있어 마치 山寺의 작은 도량을 연상케 하는 배치이다.

3棟의 建物基壇으로 형성된, 前庭 중심축 東편에 玄妙塔碑가 서 있으며 그 西쪽으로는 빈 空間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浮屠塔(玄妙塔)이 있었던 자리로 傳해진다.^(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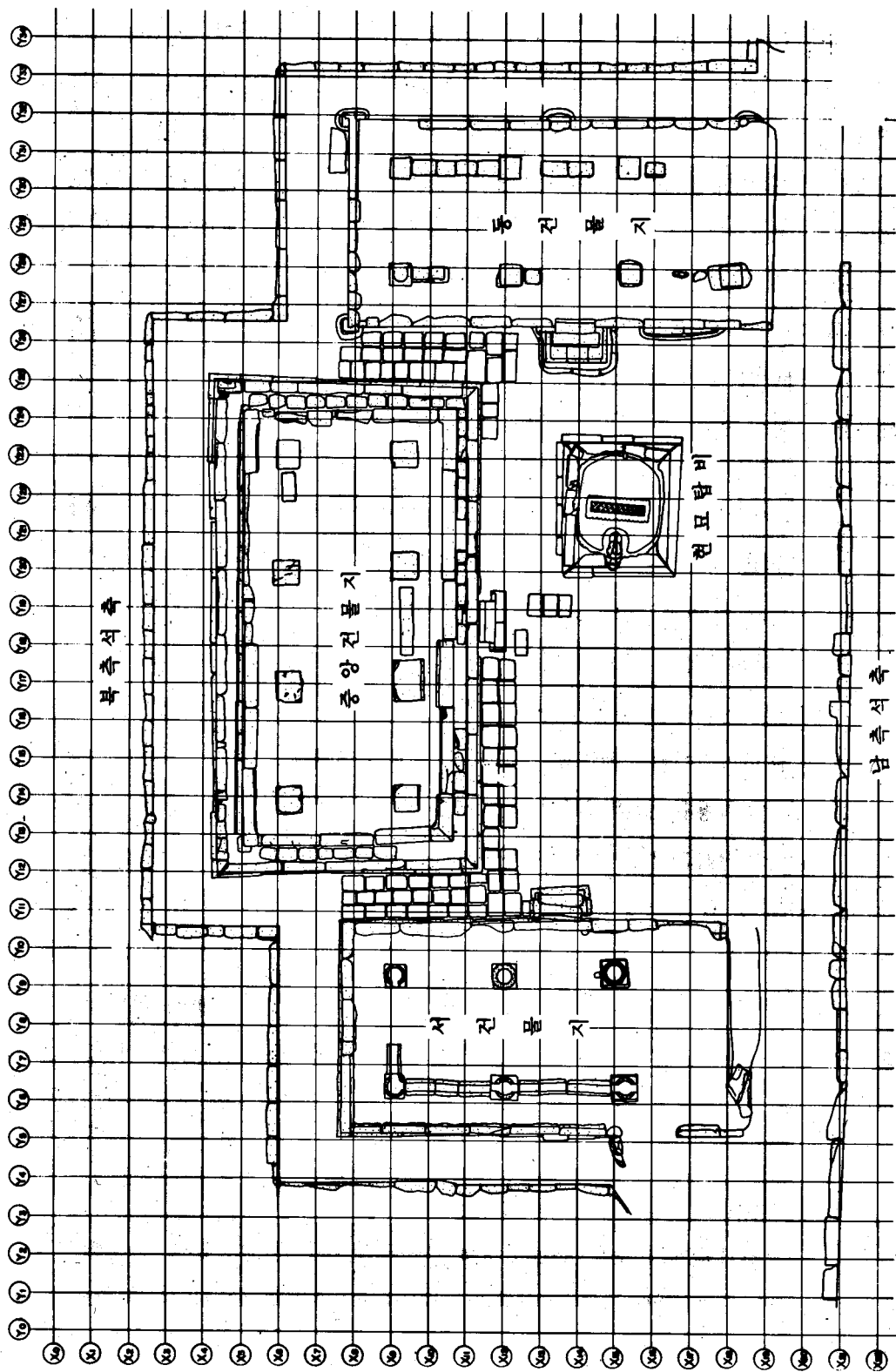
中心建物址 前面과 그 左右便 東西建物址가 있는 사이 일부에는 加工薄石이 깔려져 있다.

塔・碑殿址 바닥 內區의 규모는 東西 29.2m, 南北 18.4m로 대략 537㎡(166坪)이고 東西建物地 基壇間의 거리는 16.70m, 中心建物址 下部基壇으로부터 南쪽 築壇까지의 길이는 10.2m이다. 平坦부지의 南端을 이룬 石築도 역시 가지런히 鋌

註 1. 마을내에서 口傳으로 傳해지고 있는데 1964년도 국립박물관 발굴 조사시에도 이 자리로 推定한바 있다.

(1965년 高麗法泉寺 智光國師 塔碑殿址 調査概要 : 김동현)

2. 금회조사시 그 부분 지표하에서는 잡석 몇 덩어리와 일제때 세웠던 문화재 표석이 출토됨



塔·碑殿址配置平面圖

(정)다듬 加工된 長臺石으로 축조하여 塔·碑殿址의 경계를 이루게 하였고 여기 중앙부분에 石階를 부설 출입하게 하였던 흔적을 남기고 있다. 南石築 전면으로는 경사를 이룬 밭이 마을에까지 이어졌다.

세 建物地의 背後面을 감싼 北側石築은 中央建物地 北基壇 外緣으로부터 1.53m, 東建物址 北基壇 外緣에서 1.65m, 東基壇 外緣에서 1.32m, 西建物址 北基壇 外緣에서 1.62m, 西基壇 外緣에서 1.28m 떨어져 위치해 있다.

이들 石築과 建物基壇 사이의 간격에 자연스럽게 배수로가 형성되어 산 기슭을 흘러내린 물과 바닥의 물이 빠져나가게 되었다.

東建物址 남쪽의 한단 낮아진 平坦지대에 最近에 세운 臥碑가 서 있다.

2. 周邊石築

(1) 北側石築(建物址 背面)

中央建物址의 背面(북쪽)과 東·西兩建物址의 背後面 산자락을 마감하는 위치에 축조된 北側石築은 대체로 加工된 花崗石을 4단 높이로 쌓고 일부구간(㉔ ㉕)에서는 下端모점은 갑석이 축대상부에 얹혀져 있다.

각부분 석축의 下部는 지대석을 놓고 장대석을 층단들여 쌓았는데 2段이상은 일직선면을 이루고 있으며 윗부분이 前面쪽으로 약간 기운 상태이다.

장대석의 규격은 작은돌 층이 높이 18~26cm에 길이 67~98cm, 큰장대층은 높이 36~47cm에 길이 45~130cm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中心建物背面(㉑)과 그 左右부분(㉒ ㉓ ㉔ ㉕)이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사용 전실하게 축조되었다.

가공상태는 고운 鈹(정)다듬이고 모서리와 면상에 균열, 박락된 모습이 많이 보인다. 상부에 보이는 장대 두께는 약 35cm내외이다. 缺失된 부분을 더러 흑두기 정도의 거친 정다듬 가공석을 끼워 넣기는 하였어도 자연석을 채우지는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中心建物の 東便쪽 2개면에 모점은 갑석이 얹혀져 있음을 볼때 이 석축 전체에 갑석을 올렸던 것이 아닐가 생각되며 用材 사용과 건설한 築法으로 보아 建物址基壇 축조시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推測된다. 1964년 발굴당시 “뒷채움 積心없이 맨흙이 접속되었던 것을 補修時에 積心石을 넣었다”고 한 記錄으로 보아 이때의 再築결과로 매우 健實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발굴당시의 복원 입면도와는 다르게 돌이 배치된 까닭에 재 실측하여 현황도면을 작성하였다. 지금 流砂로 매립되어져 지대석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초층 장대석이 절반 가까이 묻혀 있기도 하다(㉑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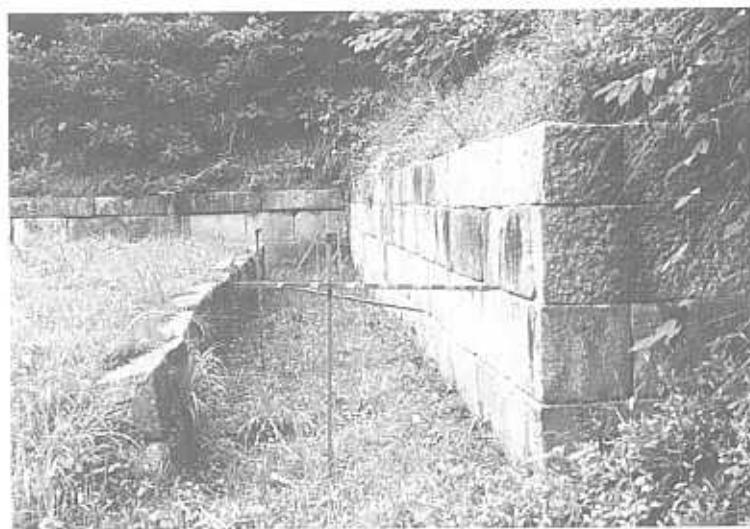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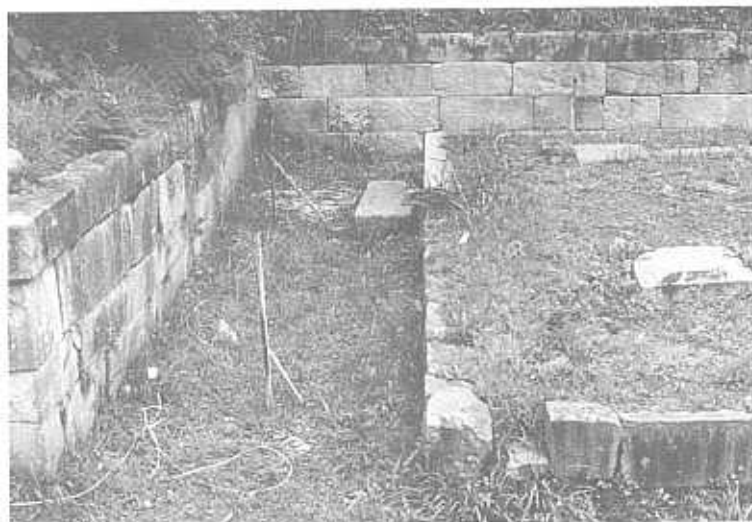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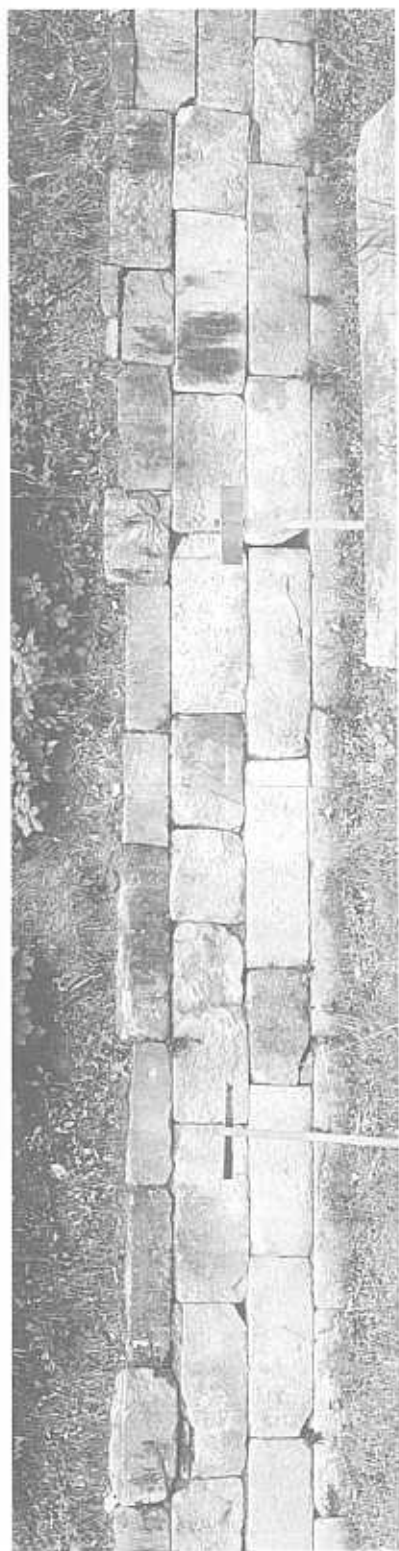
(2) 南側石築

塔·碑殿址 南端경계를 이룬 南石築은 地形조건에 맞추어 北側石築보다는 훨씬 높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웅장한 모습이다. 西建物址 배면(西側)기단 연변에서 4.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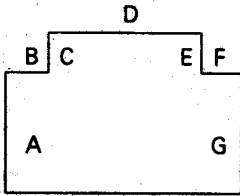
北側石築1.





北 側 石 築 實 測 値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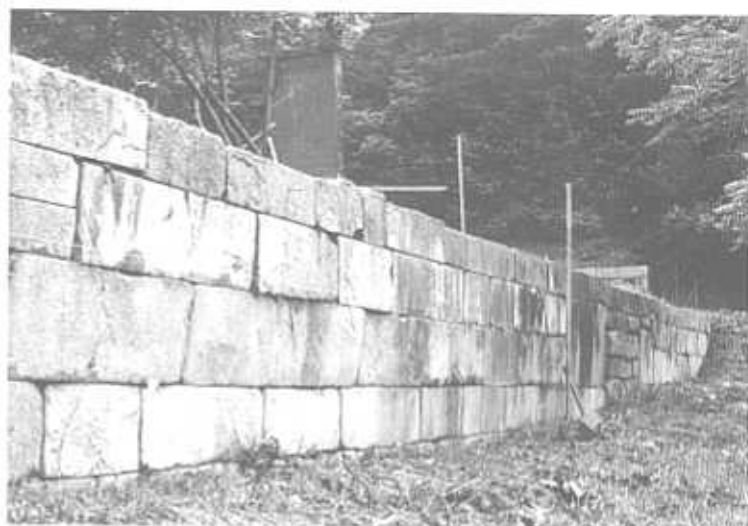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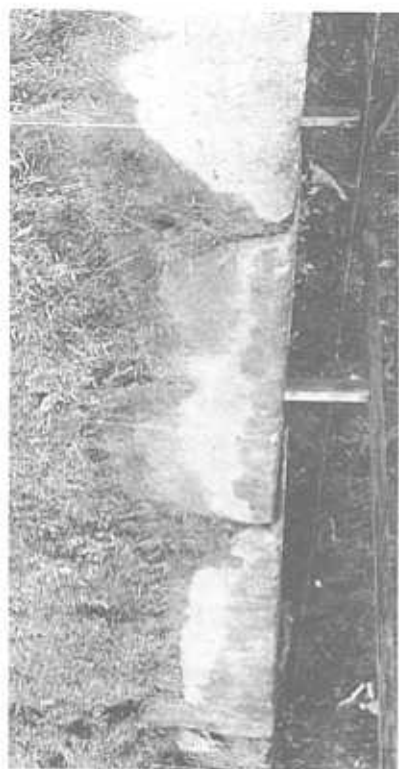
구간별	길이	높이(현지표상)			비 고
		左端	中央	右端	
A ㉠ 단면	885	63	65	110	4段쌓기 : 부분멸실 지대석내밀기 4cm
B ㉡ "	673	112	143	133	4段쌓기 지대석내밀기 9cm
C ㉢ "	340	128	120	112	4段쌓기 지대석내밀기 3.5cm
D ㉣ "	1,607	118	124	117	4段쌓기 지대석내밀기 7cm
E ㉤ "	367	109	120	126	갑석내밀기 3cm 지대석내밀기 8cm
F ㉥ "	663	127	121	113	갑석내밀기 3cm 지대석내밀기 4cm
G ㉦ "	1,267	114	124	128	4段쌓기 지대석내밀기 8cm

가량 더 나간 곳(Y1 列부근)에서 시작하여 東建物址 前面列 礎石線(Y28)까지 현재 27.5m가량 이어져 있다. 西端에서는 꺾여진 隅角部가 정연하게 북쪽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 통행로 개설로 인한 상부 매립으로 연장된 길이는 알 수 없다. '64년 발굴당시 실측된 西側面 길이가 6.6尺로 표시되어 있다. 東端부분은 확인해 보았는데 현 지표상 나타난 바로는 전술한바 대로 東建物址 前列礎石線인 Y28 부근에서 상부 제1, 제2단 장대석열이 끝이었다. 그 아랫단들도 이 부근에서 끝이고 臥碑가 세워진 남측 돌출지대에 연결되는 경사 지형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實測된 南石築의 길이는 27.3m이다. '64년 발굴실측 당시 東西全長 114.8尺이라 한 것과는 약 6.30m가량 차이가 진다.

이런 결과로 보면 와비 있는 돌출대지 조성시 그 東端부분을 그대로 두고 매립성 토하였거나 성토시 일부 석축을 해체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石築의 築造方法은 地台石을 평편하게 깔고(그 크기는 확인못함) 그 上面에서 약 15~18cm가량 들어서 4段石材를 築石하고 그 상부에 長台甲石을 얹었다. 갑석은 모



접음 없이 上面治石한 견실한 장대석이 더러 보이거나 대개 보통 장대석을 올려놓아 石築 높이로 삼은듯하며 그 下段石보다 2~3cm가량 돌출시켰다. 전체적으로 석축의 상부가 前面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갑석 돌출이 크게 눈에 띄이지는 않는다.

前次 補修당시 조사기록('64년도)에는 「地台石상면 뒷쪽을 한턱 내려 第一段石을 끼여 맞추고 차례로 第二, 三, 四段을 組續하였다. 石築되는 外面으로부터 4.95尺까지 雜石으로된 積心石을 石築面에 垂直(수직)으로 쌓았다. 지대석은 석축면으로부터 4.1寸 돌출시켰고, 最上段 長臺石은 1寸정도 밖으로 내어 쌓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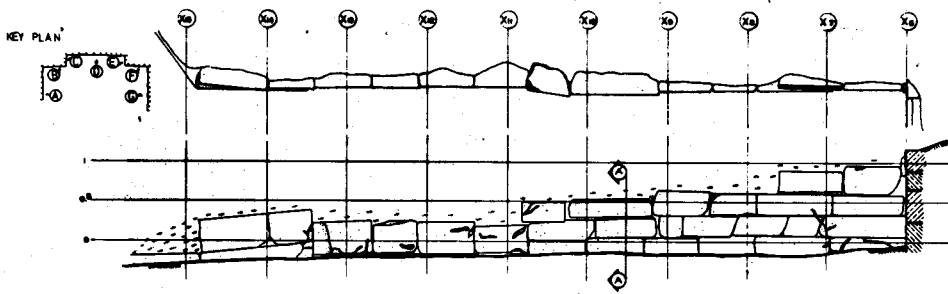
돌의 규격은 第 3,4段째의 築石列이 가장 크고(높이 및 길이) 제 1,2段의 築石이 이보다 약간 작다. 中心建物址의 中心軸에 맞추어진 階段中央에서 일직선으로 연결된 南石築面에 階段이 부설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후대에 맞추어 쌓은듯한, 細長한 6段石築 위에 上端長臺石이 올려져 있다.

이 石階址의 幅은 2.26m이고 그 兩쪽에는 2段築石 높이의 매우 큰 武砂石이 築造되어 있다. 또 西端部인 Y3~Y6 축선 구간에서도 缺失된 부분을 후일에 보충한 듯, 第 3, 4段 石列이 각기 細長한 장대석을 두켜씩 짜마추어 築續되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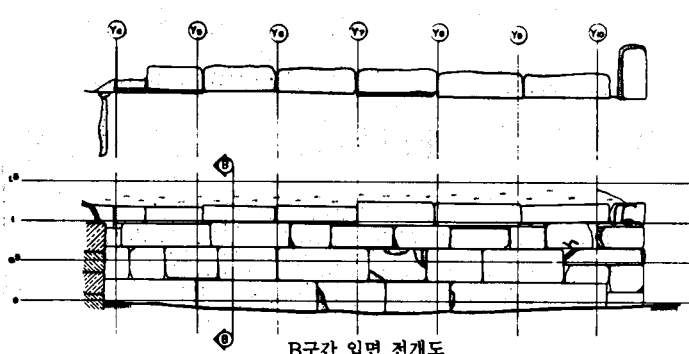
石築의 전체높이는 지대석 상면 위에서 2.20m(단면참조)이고 현 지표상으로는 1.93m 노출되어 있다.

石材의 加工治法은 고은 정다듬으로 잘 가공된 편이며 상하 모서리에 특별한 手工 없이 直角으로 다듬은 것이며 계단지 양편의 거대석에 가해진 충맞춤 따내기 수법이 돋보인다. 계단지를 매꾼 돌과 결실부분을 보충한 築石들에 거친정, 또는 도드라다듬 정도의 治石면이 보이고 일부 보충석은 불균형한 흑두기 면도 몇곳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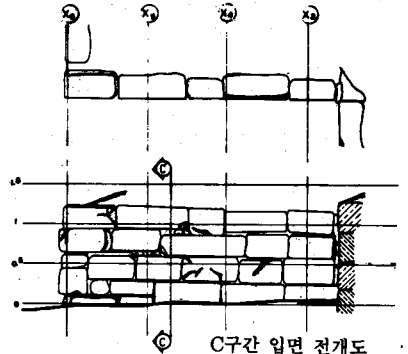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長大하고 堅固한 築法을 보임으로 上段의 建物址 築造時期와 同一年代로 推定된다.



A구간 입면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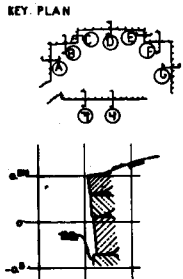


B구간 입면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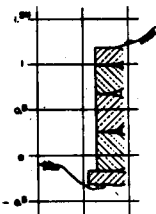


C구간 입면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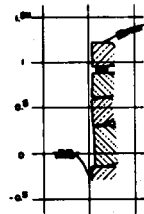
北側石築立面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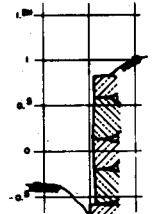
A-A' 단면도



B-B'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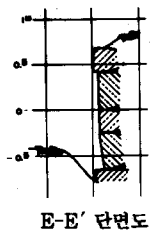


C-C'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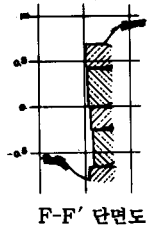


D-D'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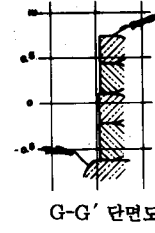
北側石築斷面圖



E-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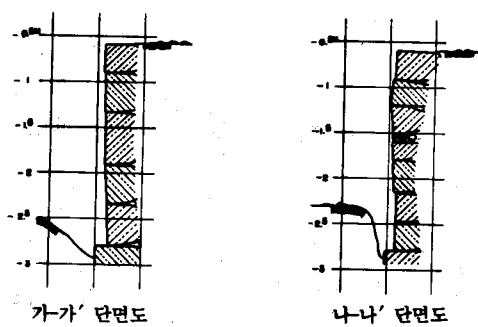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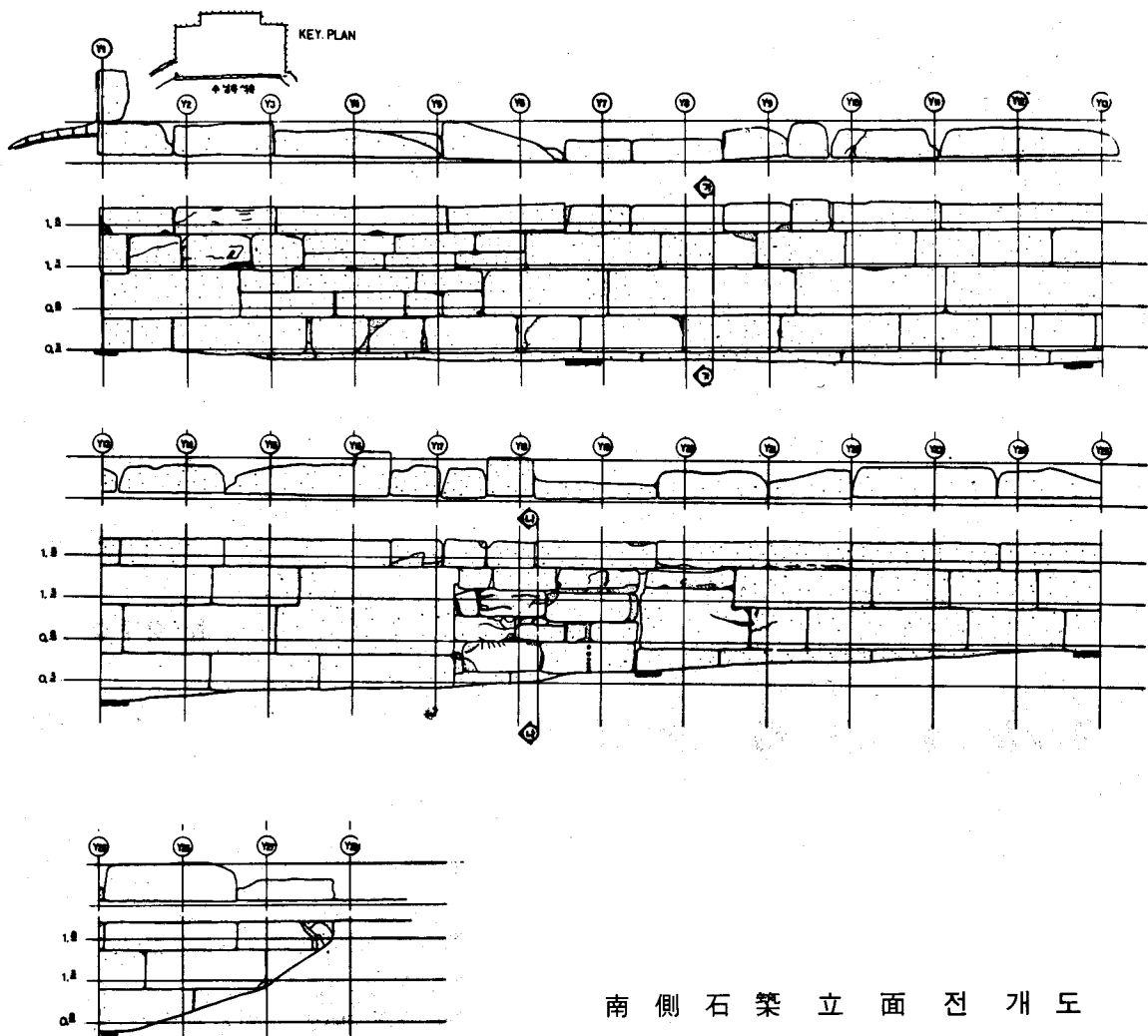


F-F' 단면도



G-G' 단면도





南側石·築 斷面圖



3. 中央建物址

塔·碑殿址의 가장 중심위치인 東西間 中心軸 깊숙한 곳에 南向하여 東·西로 길게 배치되어 있는 建物址이다.

二重基壇으로 형성된 壇上에는 正面三間, 側面一間이 劃定되도록 礎石 8개가 排列되어 있으며, 御間 중앙 壁心線에 맞추어 고막이 장대석과 그 앞에 信枋石 1개가 놓여있다. 그리고 御間 중앙 前面에 階段殘在가 부설되어 있다.

基壇의 길이는 下層 東西間 12.89m, 下層 南北間 6.94m, 上層東西間 길이 11.48m, 下層 南北間 5.54m이며 현재 배열된 礎石간격으로 보아 建物の 규모는 28.77㎡(8.72坪)이다.

上下의 基壇은 花崗石을 정교히 加工治裝하였는데 높은 品格의 莊嚴을 갖추었고, 礎石들도 대개 正方形 형태를 갖춘 平滑한 板石형의 礎頭를 보인다.

1964年度 발굴시 補修 정비되어 대체로 견실한 보존상태이나 부분적으로 石材가 침하, 기울음등 이완되어 있고 배면쪽과 西北隅角部에선 甲石이 일부 缺失, 또는 파손되었다.

(1) 基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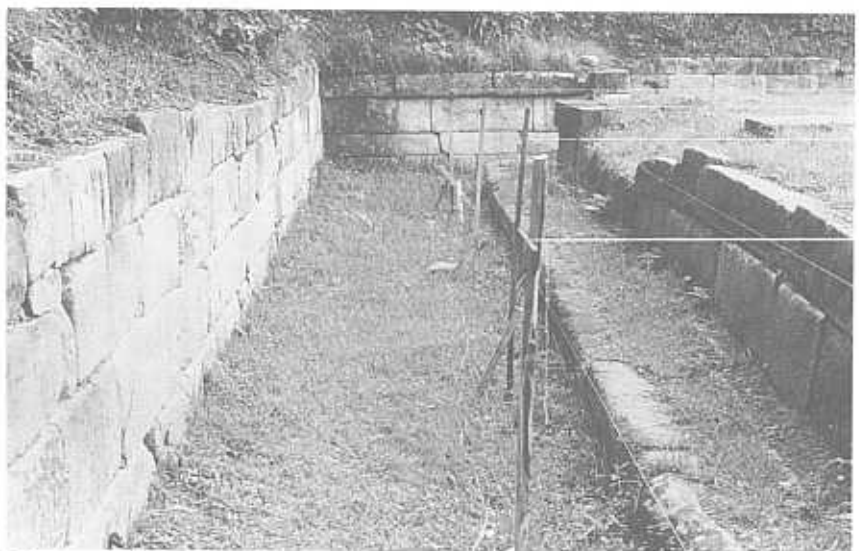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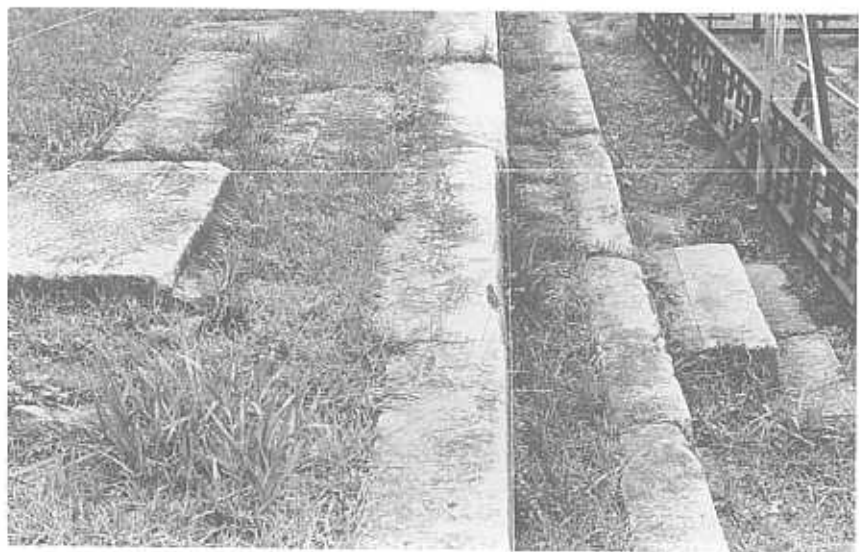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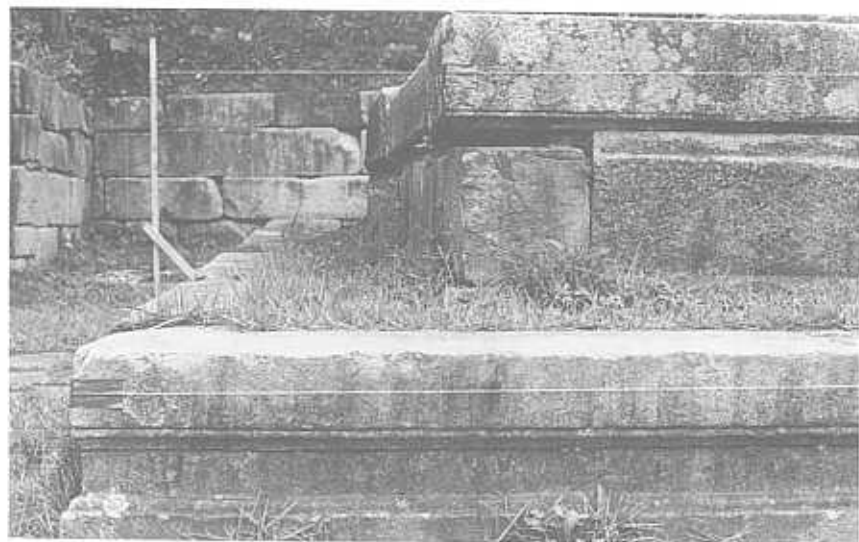
下層基壇 構成은 세밀하게 治石된 地臺石 위에 걸침턱을 파내고 面石겸 甲石을 單一材로 한 基壇石을 올려 축조했다. 地臺石은 地반(지표)면으로부터 3cm 가량 노출시켜 측면과 상면을 곱게 다듬었고 外緣으로부터 13cm안으로 들여 위의 基壇石 받침이 되게 하였다.

네 귀에 있는 지대석은 「ㄱ」자로 꺾여 基壇돌이 밀려남을 방지토록 배치되었고 1개의 길이는 85cm에서 270cm까지 비교적 긴돌이 사용되었다. 基壇石 밑에 묻혀있는 돌의 넓이는 확인할수 없으나 두께는 20cm~27cm 규격이다.

지대석 밖의 南쪽과 東·西쪽엔 圖面에 표기된 바와 같이 두께 7~10cm 내외의 薄石이 깔려있다. 박석규격은 40~45cm 각 내외의 정방형석과 폭 35~45cm, 길이 45cm~60cm 가량의 장방형석등 두종류이며 표면은 흑두기 정도의 거친 다듬이다.

中央建物址 1.





下層 基壇石은 높이 34.2cm 두께 25~29cm 가량의 加工石인데 그 外面 중간 부분에 4條의 쇠시리(물당)를 파넣어 外見上 下臺와 中臺 面石, 上臺甲石이 분리된 것 같은 형태의 單一石 基壇이다.

쇠시리의 細部的 모습은 詳細圖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부턱을 오목(凹)弧를 두고 중간 7.4cm 가량을 平面으로 하부는 볼록(凸)弧形을 이루었다. 상하의 두 귀는 직각으로 手工한 것이나 오랜 세월동안 마모로 둥굴린 모습으로 보인다.

下層기단석의 길이는 짧은 것은 73cm로부터 긴것은 214cm에 까지 이르고 맞댄면은 보통 石構造物에서와 같이 外面에서만 약간 다듬은 맞댄 이음이다. 下層基壇과 上層기단 지대석 사이에는 약간의 띠임거리를 두고 판석을 깔아 덮었다.

上層基壇은 地臺石과 面石, 甲石으로 構成되었다.

하층기단 外緣으로부터 60~72cm 가량 안으로 들여 27cm 두께 내외의 지대석을 놓고 위부분을 파내어 面石을 짜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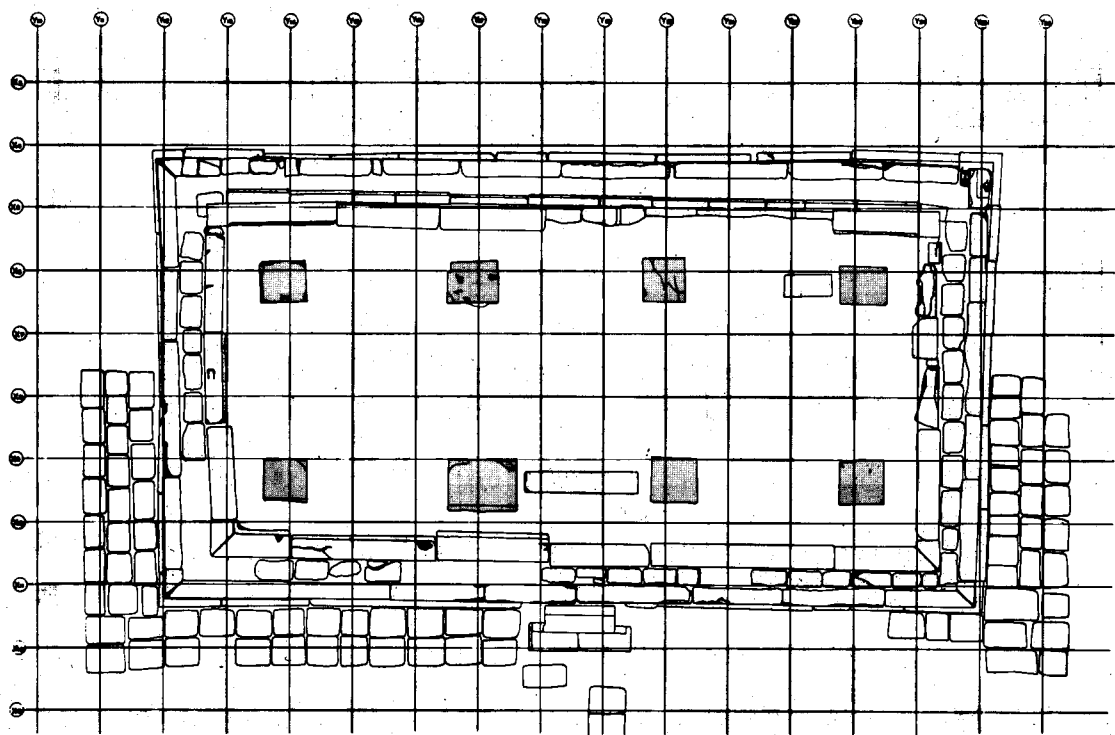
지대석의 상부는 지표면으로부터 2~3cm 가량 노출시킨후 상면은 4.5cm정도 뒷물려 걸침턱을 둔것으나 배면쪽에서는 지대석이 훨씬 밖으로 밀려나 있으며, 다른 면에서도 혹 缺失된 곳, 또는 流土에 埋立되거나 薄石밑에 깔려져 있어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面石 : 法泉寺 建物基壇에서 가장 特異한 형태로 治裝한 것이 여기 中心建物址 上層基壇面石 부분이다. 면석 個材의 길이는 1.20m, 1.60m, 2.4m등 여러가지 있는데 전체 입면상으로 볼때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대략 1.2m 간격) 여러줄의 세로 주름을 새겨넣는 치장과 그 사이에는 平滑面을 갖는 평판면이 돌아져 있어 일견 액자형으로 교대 배열되었고 그 하단에는 2단의 층급단이 도출된 형태이다.(종단면 실측도 및 입면 전개도, 사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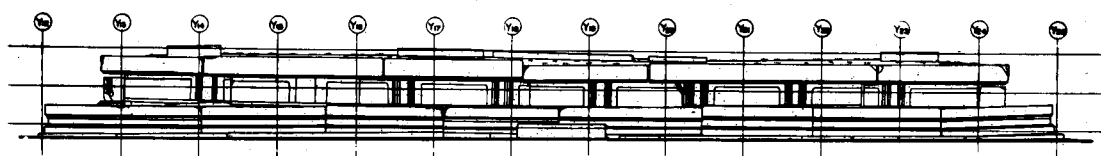
背面쪽의 면석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는 것을 보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뒷쪽을 소홀히 한것인지, 후일에 缺石을 보충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모서리 부분은 서로 엇물려 교대 마감하였는데 南石隅 부분에만은 別材로 끼워 넣어져, 쉽게 빠져나오기도 한다.

甲石은 두께 27cm, 넓이 28cm~40cm, 길이 160cm~290cm 까지의 여러 규격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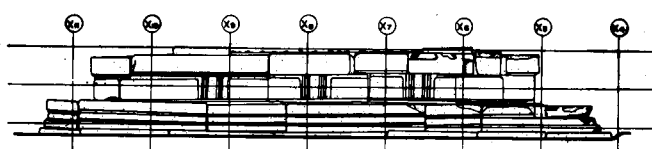
공석이 사용되고, 남쪽의 양 모서리에는 「ㄱ자」로 깎여진 甲石이다. 갑석단면은 「外面下端에 一段角 접은 아래 둥글게 內弧를 궁글린 오목 쇠시리 파고, 上面 내측으로 는 기단상부 바닥 마감재를 받게되는 2cm 내외의 턱을 두었다. 面石으로부터 3~4 cm 내밀어져 있다. 甲石材의 규격(특히 두께)이 균일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缺失되거나 파손되었기도 하지만, 上·下層의 기단구성형상이 상당히 功들여 築造한 모습에서 麗代에 隆興했던 가람터였음을 짐작하게 하고 이웃한 居頓寺址 金堂基壇과 같이 豪放함은 적으나 여기에서 있는 塔碑와 浮屠塔의 手法과 잘 어울리는 모습의 基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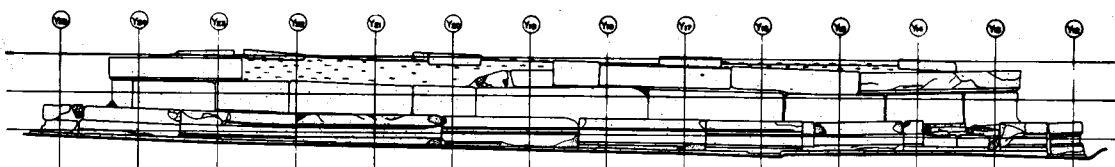
中央建物址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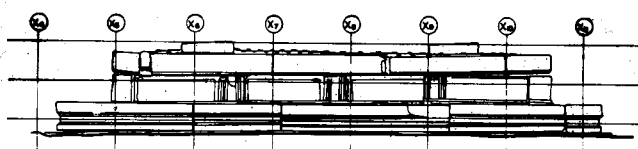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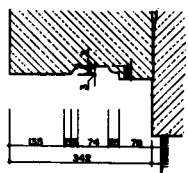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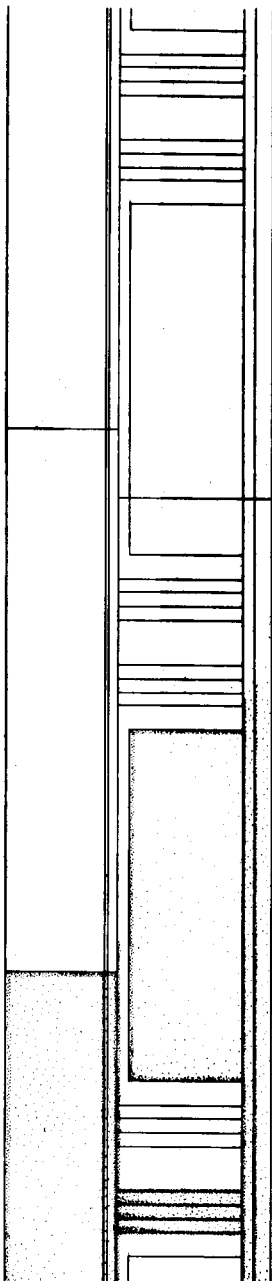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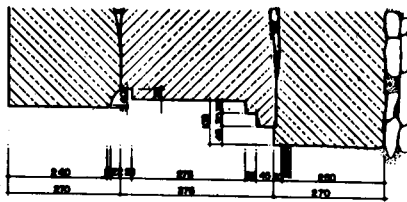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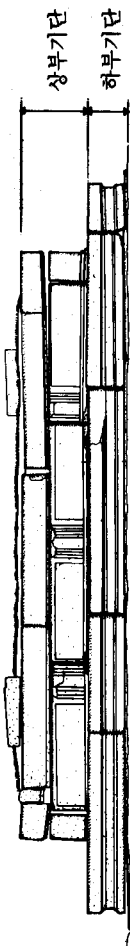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中央建物址基壇立面圖





하부기단 부분상세도



상부기단상세도



中央建築物址基壇詳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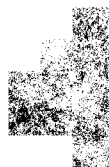
(2) 石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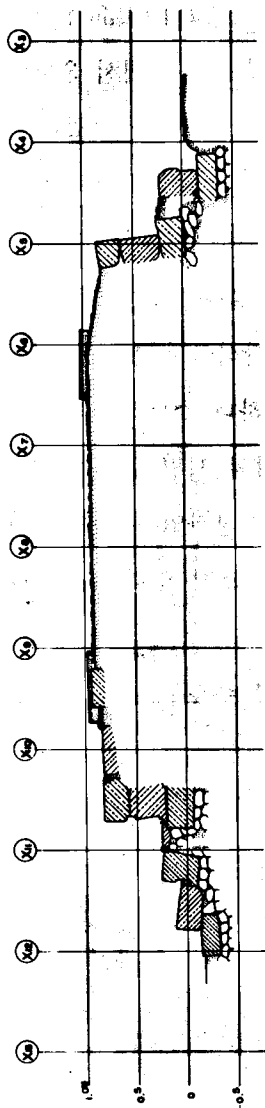
中央建物址의 前面 御間 중심軸에 맞추어 부설된 石階 흔적이 下層基壇앞에 놓여 있다. 디딤돌 2段이 塔·碑 경계철책과의 사이에 놓여있는데, 第1段은 地表面에 거의 묻혀 上面만을 들어내고, 중앙부에서 이음한 두 조각이며, 그 兩端部 內側에 소대석 끝을 접합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홈이 패여져 있다. 그리고 外緣에서 30cm 들어간 內側 상면에 윗층 디딤석을 받을수 있게한 깊이 2cm 가량의 턱을 주었다. 높이 18cm, 넓이 46cm, 길이 143cm의 이 계단석은 地臺石이다.

그 위에 얹혀진 第2段石은 이보다 짧은 길이 112cm, 넓이(보임면) 29cm, 두께 25cm로 前面 西便 隅角部에 길이 7cm, 넓이 12cm 정도의 돌출부가 솟아져 있다. 또 하나의 계단석으로 보이는 돌이 御間전면에 박혀 있다. 계단석을 이룬 石質과 治石手法 등은 建物基壇石과 같은 것이고 양끝의 형상이 다르긴하나 소대석은 갖춘 石階이다. 그런데 이 石階의 結構上 문제가 되는 것은 第2段째의 서편 돌출부 및 디딤돌 길이가 소대홈과 맞지 않아 여기의 第2段石은 이 石階와 상관없는 돌인듯 하고, 上·下層 基壇石(面石 및 甲石)과의 接合部分 흔적등이 뚜렷하지 않아 石階 자체가 처음부터 意圖되지 않은 後補物이 아닐가 하는 의문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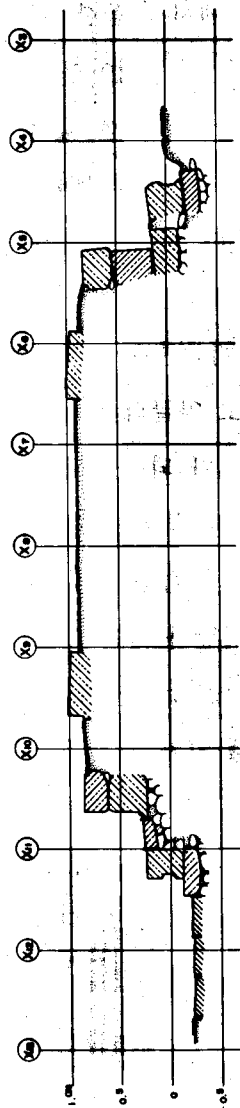
소대부분을 基壇石에 挿入하지 않고 맞댄 면으로 接續시킬 수도 있겠으나, 上層基壇 面石에 彫出된 치장문양, 배열상 일치 되지는 않는다. 또 面石위치가 본래 대로된 것이 아닌 후일의 변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현존하는 殘餘石만으로는 정확한 石階形狀을 推論하기 어렵다. 1964年 조사 당시에도 이같은 見解를 밝힌바 있다.

壇上の 御間 전면에 박혀서 상면만을 내보인 디딤돌도 石階에 사용된 것으로 推定되나 길이와 加工상태에 약간 차이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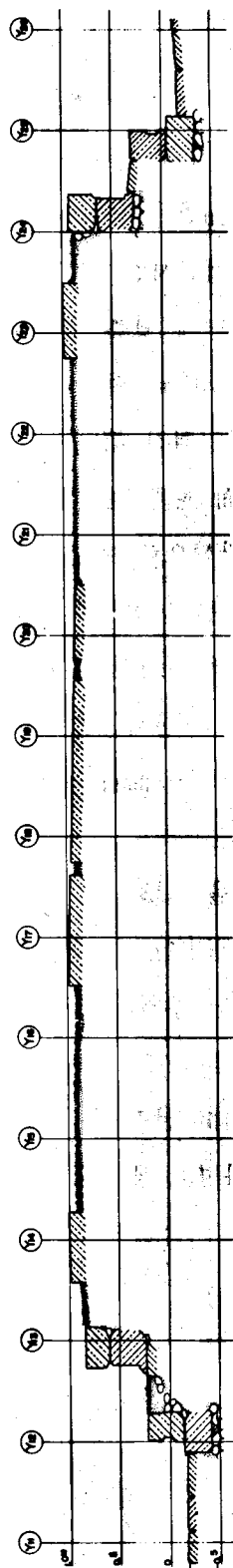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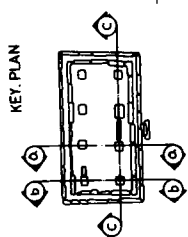
a-a' 단면도



b-b' 단면도



c-c' 단면도



中央建築物址斷面圖





中央建物址 基壇細部



中央建物址 階段部分



(3) 礎石과 고매이 돌(信枋石)

中央 建物址 壇上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正面三間 側面一間은 획정할 수 있는 상태로 배열된 8개의 礎石이 있다.

1964년 發掘당시 “前面列 御間 西便의 長方形 礎石 외에는 모두 제 위치가 아닌 곳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후의 補修時에 정비되어 지금은 거의 均一한 柱間을 유지하고 있다.

위의 長方形 礎石 외에는 모두 대략 70cm 각 내외의 正方形 礎石이다. 前面列은 上層基壇 甲石 外緣으로부터 125cm 가량에 礎心을 두었고 背面列은 120cm, 西側面列은 120cm, 東側面列은 124cm 가량 각기 甲石外緣과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長方形 礎와 西便隅礎는 한턱 낮은 刻을 두었다. 礎石加工 상태는 鋸다듬의 平頭된 方形礎이다. 현재의 礎頭 LEVEL은 實測圖面(중·횡단면)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거의 水平을 이루고 있는데, 前列御間 東礎(Y㉔)가 다른 것보다 9cm정도 침하되고, 같은 列(Y㉔)의 後面礎石이 6cm 가량 솟아져 있다.

礎石상의 기둥 中心을 정확히 測定키는 어려우나 대략 판별된 柱間 실측치와 礎石 규격은 아래와 같다.

柱 間 實 測 值

(단위 mm)

	西夾間	御 間	東夾間	平物值	全 長
前面列	3,030	3,010	3,010	3,016	9,050
後面列	3,010	3,010	3,060	3,026	9,080
側面間	3,150	3,180 3,200	3,200	3,182	

礎 石 實 測 値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北 쪽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div> 南 쪽 </div>		구분 \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로(東西간)	720	1080	7300	700	720	820	660	780
		세로(南北간)	700	730	720	740	680	710	680	640

前面列 御間 중앙부분에 길이 184cm, 넓이 33cm의 上平된 석물이 礎心線, 즉 벽체가 설치될 위치에 놓여 있고, 後面列 東夾間 礎石 옆에도 폭 35cm, 길이 76cm의 같은 형태의 돌이 露頭되어 있다. 정다듬된 治石으로 고매기 돌(信枋石)이라 생각된다.

4. 東建物址

塔·碑殿址의 東쪽 建物址는 중앙 건물지 東便에 西向하여 자리 잡았다. 중앙건물지 下層 기단·지대석 外緣으로부터 145cm 떨어져 西便 기단석이 놓여지고 이 建物の 北側面 礎石列이 中央建物址 前面列에 거의 일치되는 線에 맞추어 配置되었다.

남측면을 제외하고는 삼면의 기단열이 整然되고 그 위에 正面三間, 側面一間을 헤아리는 礎石列이 배열, 그 사이에 고매기석이 있다. 건물지의 남북간 중심축에 해당되는 御間 중앙 전면에 石階가 있다. 建物址의 東南隅礎 1個와 南쪽 기단석이 전부 流失된채 경사지었다.

(1) 基壇과 石階

東建物址의 基壇구성은 前面 및 北側面, 背面쪽이 서로 다른데, 즉 전면(西)과 北面은 地臺石위에 二重石 놓고 그 위에 甲石을 얹은 형태이고 背面(東)은 地臺石위에 다른 두면보다 높이가 큰 두벌대 長臺石 築造로 기단높이를 마감했다.

別石을 사용 甲石으로 한 구성에서도 현재 北東隅一角에 甲石 1個 많이 殘存하고 있으며 물림턱과 내밀기는 없다.

지금, 거의 地表下에 묻힌 地臺石 두께는 18cm이고, 그 外緣으로부터 14cm 정도 안으로 들어 面石을 쌓았다. 2段石중 下段은 비교적 얇은 두께의 장대(長臺)이나 그 上段 및 背面쪽의 2段築造 구성한 기단석은 두께(높이)가 38cm, 길이 120~240cm로 비교적 견실하고 정다듬 治石한 長臺가 주로 사용되고 일부에 파손된 短石, 缺失부엔 조잡한 보충석이 채워져있다.

建物基壇의 길이는 前面列(Y26) 1,162cm, 背面列(Y32) 1,070cm, 北側列(X8) 562cm이고 地表上 높이는 50~65cm 내외이다. 北側面 東隅角部 기단밖에 놓인 步石(장대석 : 높이 28cm, 넓이 46cm, 길이 128cm)은 본래 이 위치에 있을 것은 아니고 타처에서 이동된 돌로 보인다.

石階는 넓적한 地臺石 위에 步石 2段만이 얹혀져 있는데 地中에 완전히 묻혀진 地臺表面을 보니 外緣에서 전면은 9cm, 양측면은 12~13cm가량 안으로 들어 얇은 턱(3mm 정도)을 파내어 線條가 보이며 두 조각으로 이어졌다.

地臺石 바깥선으로 부터 42cm 안으로 들어서 디딤돌이 얹혀져 있는데 上·下 2個石의 길이 및 높이가 다르다. 또 下段步石도 지대석에 파인 홈(소대석 받침일수도)과는 相合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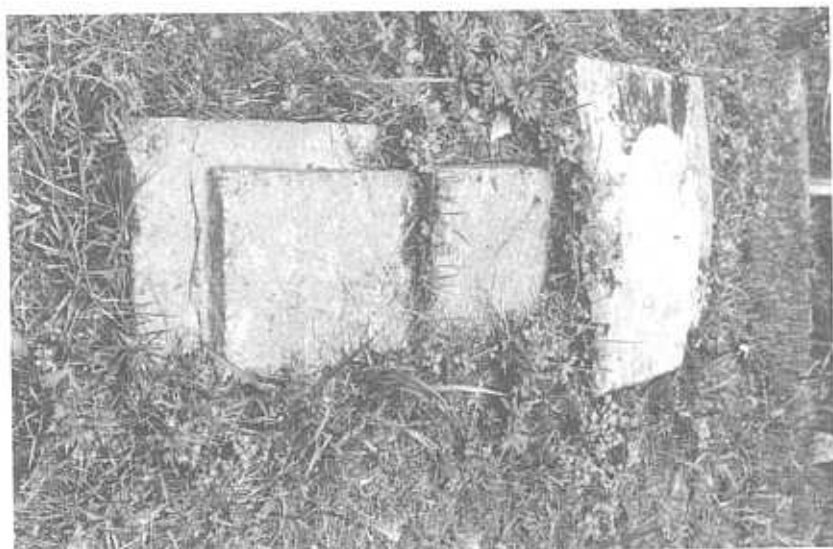
上段步石은 길이 1,080cm 넓이 39cm이고 바깥선으로부터 29cm 안으로 들어간 내측 상면에 3cm높이의 턱이 있어 甲石材의 일부일 가능성도 보인다. 東建物址 基壇面에도 階石과 관련된 흔적이 없고 부재수도 적어 현 단계로서는 復元觀을 推定하기 곤란하다.

(2) 礎石과 고매기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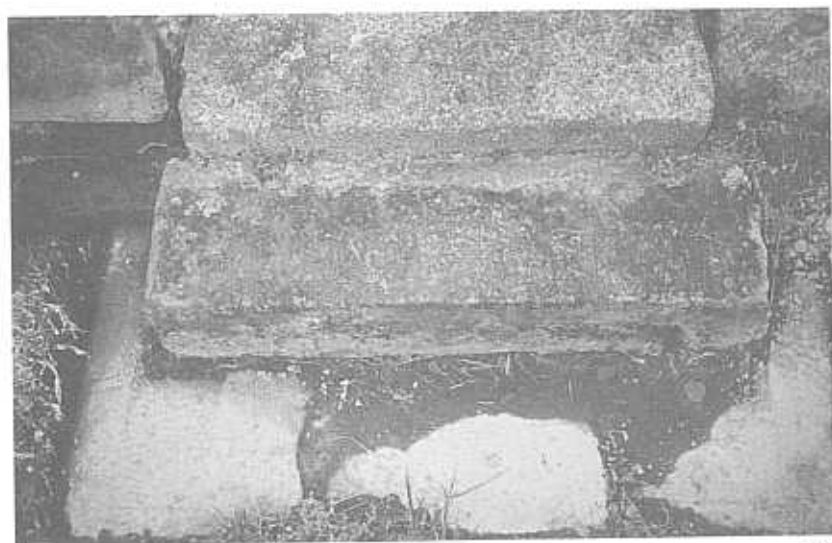
東建物址 초석은 지금 南東隅礎 1개가 유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 위치에 7개가 배열되어 있다.

현재 礎石은 모두 正方形 平頭礎이나 西北隅 1개만은 직경 36cm 가량의 돌을 새긴 圓形柱座를 두었다. 약간 틀어져 놓여 있지만 柱座새김의 모양이 양측에 고매이둔 상태로 보아 제 위치의 隅柱礎인듯한데 壁心 위치와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礎石놓인 방향을 틀어놓아야 할듯하다. 西南隅石도 약간 틀어져 제 위치를 잃고

東建物址 礎石과 信枋石



東建物址 階段部分



있다. 礎石규격은 대체로 54~56cm 각을 이루고 바탕돌 표면에서 6~10cm 턱을 준 加工이며 礎頭 LEVEL은 거의 水平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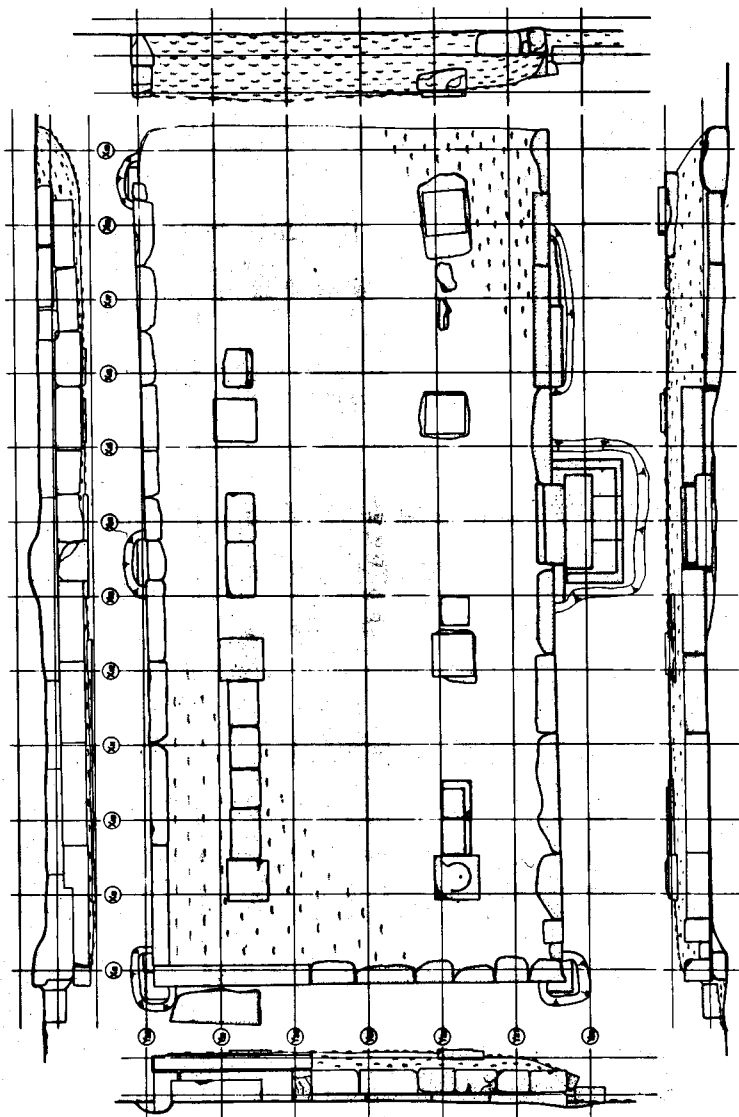
礎石間에는 信枋石(또는 고매기돌)이 이어졌던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 背面 北夾間에 4개의 石片이 이어지고 다른 柱間에도 일부만이 남았으며 대개 폭이 40cm내외 ×길이 52~75cm 내외의 平頭加工이고, 前面 北夾의 殘餘石에는 上面 안쪽에 3cm 가량 패인홈을 준것이 특이하다. 본래의 위치에 그대로 남은 것인지는 不明하다. 前面 기단의 넓이(礎心에서 기단끝선)는 전면 137cm 배면 124cm 北측 140cm 내외이다.

柱間(주간)實測值
(단위 mm)

	北夾間	御間	南夾間
全面列	2,980	3,240	2,760
後面列	3,005	3,240	·
側面間	2,860	南2,880 北2,8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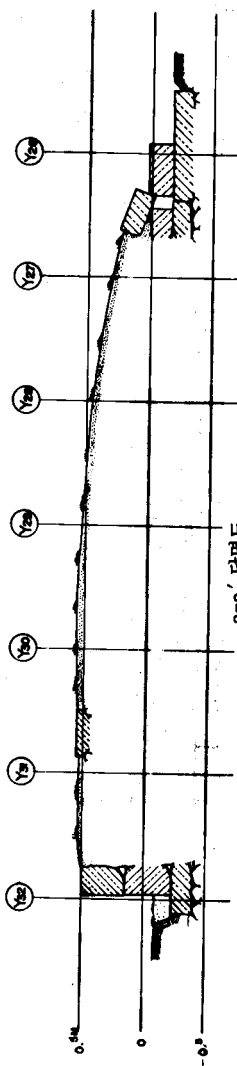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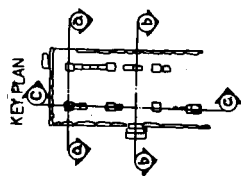
正面 基壇立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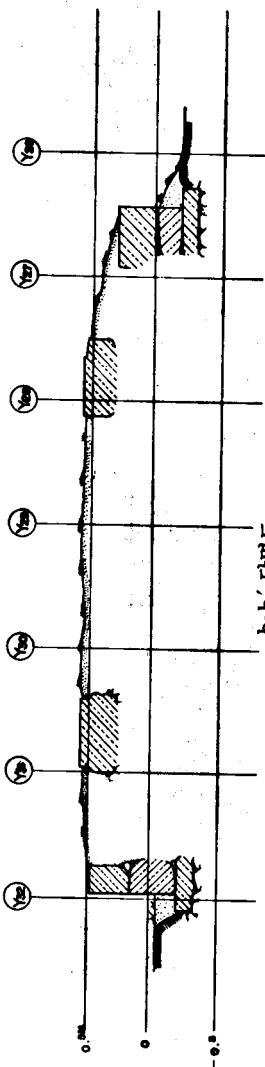
北側面圖

背面 基壇立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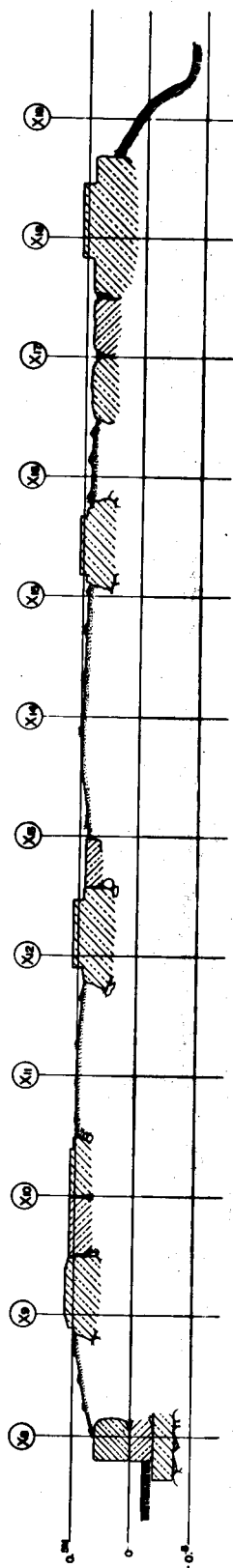
南側面圖



a-a' 단면도



b-b' 단면도



c-c' 단면도

東 建 物 址 斷 面 圖



5. 西建物址

中央建物址를 중심으로 西便에 자리해 東向한 建物址이다.

중앙건물 하층기단 地臺石으로 부터 158cm내외 거리를 두고, 東建物과 같은 X8 축선에서 北側面을 이룬 배치로 두 건물이 위치 및 규모가 서로 비슷하게 마주 바라보고 있다.

基壇構成도 東建物址와 같은 手法의 長臺石 加工築造이며 礎石은 매우 정교한 二重蓮華文을 조각한 圓形柱座가 있고, 信枋石과 石階등이 정제되어 있다.

지금 南夾間이 마무리 될 수 없게 基壇과 礎石이 缺失되어 있지만, 正面 3間, 側面 1間 일자형 건물지이다.

초석배열 및 모양, 신방석 등으로 보아 三面壁이 설치되고 前面은 開放된 建物址로 推察된다.

壇上의 構成과 治石手法등이 東建物址나 中央建物址 보다 세밀하게 造成되어 세련된 品格의 重要 건물터였음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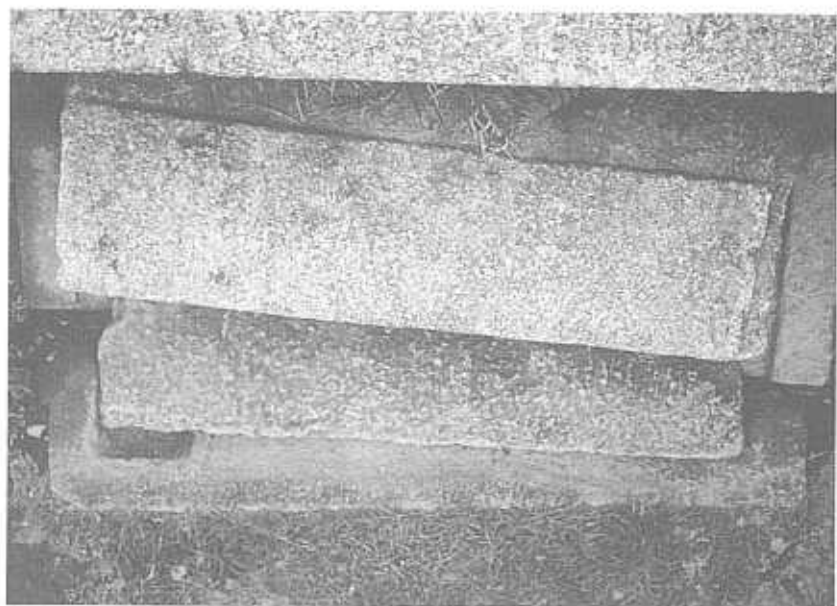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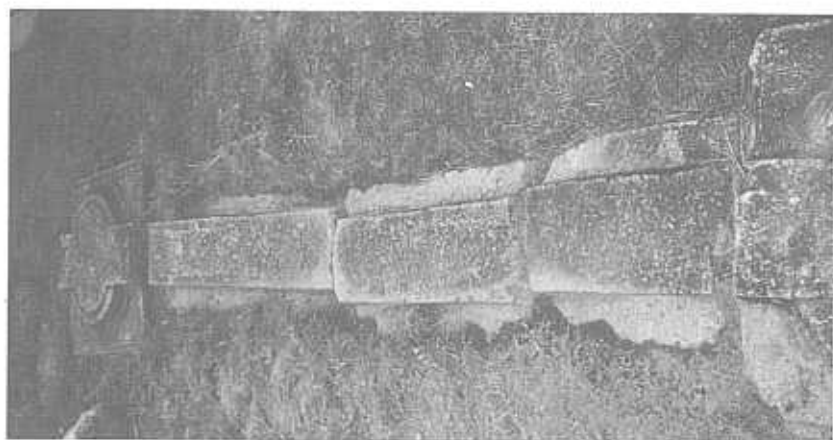
지금 이 建物址 壇上에는 塔碑殿址 일대와 法泉寺 경내 여러 곳에서 出土, 수습된 여러 종류의 石物들이 모여져 있다.

(1) 基壇과 石階

前面과 北側面은 지대석위에 장대석 두벌대 놓고 甲石을 얹었고 背面쪽은 지대위에 두벌대 장대석으로 높이를 마감했다. 甲石은 前面 중앙과 북서모서리 일부에만 남겨져 있다. 배면 최상층 장대와 갑석에는 안쪽으로 3cm 정도의 턱을 주어 기단바닥 마무리 재료를 마감해 줄 수 있다. 턱의 높이가 매우 낮아 溥博보다는 강희다짐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갑석재는 높이 17cm, 넓이 26cm, 길이 210cm의 얇은 세장재를 썼는데, 내림턱등은 보이지 않는다.

갑석까지 세벌대로 이루어진 前面과 北側面 기단석은 높이 19~33cm, 길이는 최단 80cm로 부터 최장 270cm까지의 비교적 細長한 長臺이고 2 段續한 背面 기단석





은 높이 31~37cm, 길이는 110~130cm내외의 장대석 정다듬 治裝이다.

北西隅部에서는 좀더 큰 돌로 造段 쌓기하여 모서리 부분을 보강하였다. 前面御間 중앙부에 부설된 石階는 지대석을 놓고 歩石(디딤돌) 2단 놓은 구성인데 양끝에 소대석 끼워 넣었던 홈이 지대석과 面石, 갑석에 패여져 있다.

소대석의 두께는 16cm 내외로 측정된다. 石階의 幅(디딤돌 넓이)은 110cm이고 높이는 22~24cm이다. 治石手法은 基壇部와 同一하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의 基壇 길이는 前面 1,036cm, 背面 970cm, 北側面 560cm이다. 基壇石 外緣으로부터 建物 中心線(礎心)까지의 길이는 前面 143cm, 背面 120cm, 北側面 145cm이다. 지대석이 거의 地表下에 埋沒되어 있고 지대석 위에서 기단 높이는 대략 68cm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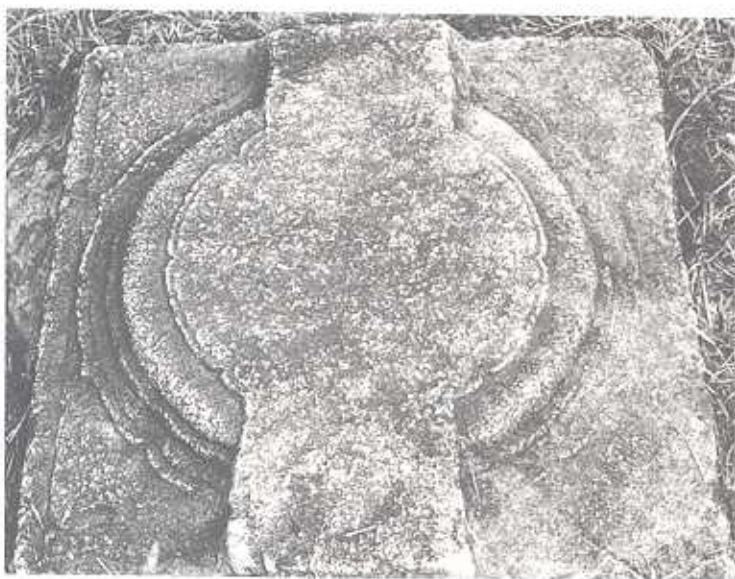
(2) 礎石과 고매기 돌

西建物址 礎石은 남측열 초석 2개가 유실된 외에 나머지 礎石 6개가 놓여 있으며, 背面御間 남쪽 것이 남쪽으로 약간 밀려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제위치에 잘 남아있다.

御間左右의 4개 초석은 정교한 조각의 蓮華文이 彫刻되어 注目하게 되고 北側面例(X8)초석 2개는 蓮華없이 둥근 쇠시리만 조출한 圓形柱座에 고매기 座가 이어졌다. 연화조각한 4개의 초석중 전면 쪽의 2개는 圓柱座 四方둘레 쇠시리가 완벽하게 彫出되었고 背面쪽 2개는 壁線에 맞추어 2方向 고매기座(폭 22cm)가 礎頭面과 같은 높이로 이어져 연화조각은 앞뒤로 양분된다.

이 연화주좌 礎石의 전체크기(초반부분)는 가로 693~750mm의 대략 정방형을 이루었고 조출상부 柱座面經은 대략 390~420mm내외이다. 礎盤面으로 부터 柱座面까지의 彫出 높이는 51mm이다. 그 세부형상을 살펴본다.

먼저 平滑한 礎盤 바닥면 외곽 연변에 15mm폭을 들어서 얇은 홈을 파서 方形廓을 두르고 그 內區 네 귀중 두 귀 모서리에는 모서리 장식을 넣었다. 礎心中央部에 두툼한 돌을 새김 柱座 구성한 최하단에 8葉을 배치한 蓮葉을 二條線으로 조출한 안쪽에 다시 2개의 층급으로 표현된 불록쇠시리 돌려지고, 그 안쪽 54mm에 기둥 받을



西建物址 礎石



면 갖치장으로 역시 8葉이 배치된 얇은 2개의 선조(線條)가 둘러져 柱座部를 장식했다.

이런 형식으로 된 정교하고 부드러운 治裝의 礎石은 法泉寺址 碑殿 西建物址에서만 볼 수 있는 唯一한 例이다.

同 寺址內 西北쪽 陵線 아래에 있는 朝鮮시대 講堂址에서도 다소 파손균열이 있는 圓形의 礎石 2個가 있음은 여기 西建物址에서 移轉되어 설치된 것인지 또는 同 寺址內 다른 建物에도 같은 형의 초석이 더 사용되었던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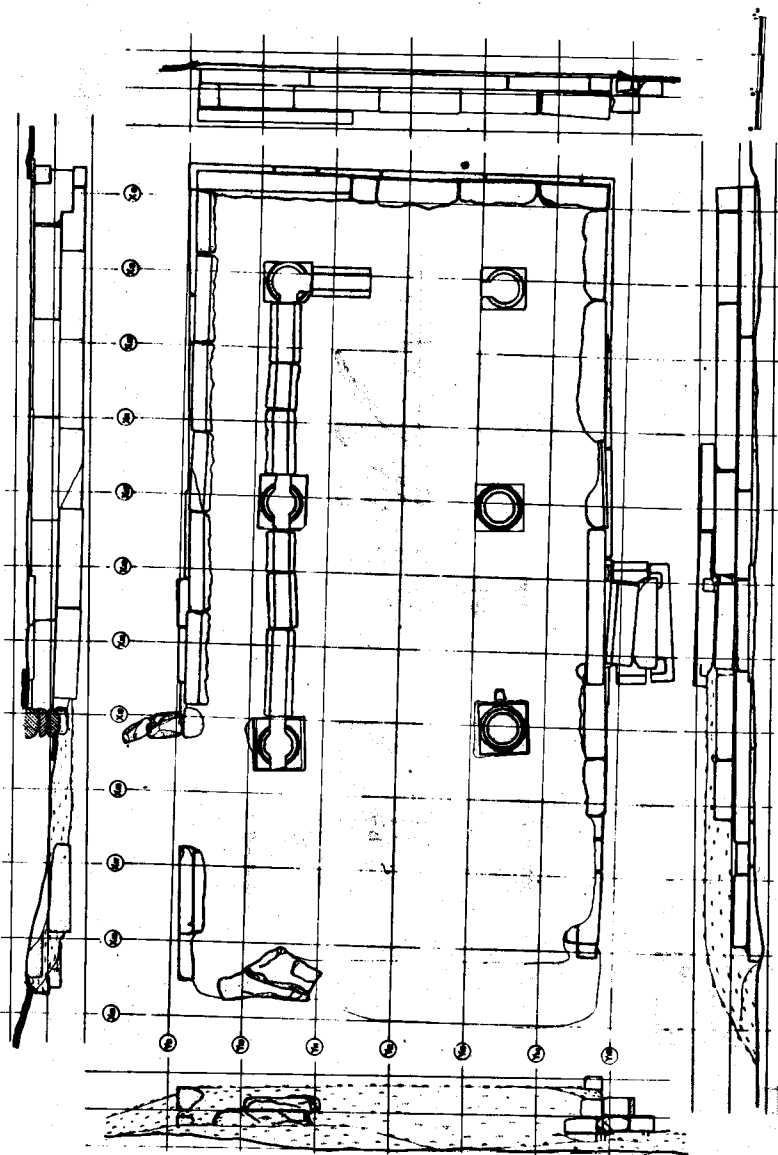
고매기座 부설된 다른 2개의 연화주초는 전체 규격이 약간 더 크고 외곽의 평할면이 165mm로 굵게 되어 있으며 기타는 거의 같다. 연화문 없이 圓形柱座둔 北側面 礎石 2個中 北西隅礎는 직각방향 2방향으로 고매기좌 뺀 礎石이고, 北東隅 쪽의 것은 西쪽 一方으로만 고매기座 있어, 柱間에 배열된 고매기石 및 연화문초석 등의 모양과 배치상 前面쪽을 개방하고 三面壁을 둘러친 建物形을 직감하게 된다. 실측도면 상에 보이는 바와 같이 北西隅礎石의 규격은 연화문초석 보다 약간 작은 가로 602mm, 세로 580mm에 235mm내외의 고매기座를 직각 방향으로 뺀어내고 外緣에 相接하게 얇은 (높이 9mm)충급하나 두고, 그위에 높이 33mm, 넓이 60mm의 두툼한 돌림띠를 돌린후 다시 한번 접어 圓形의 기둥자리를 彫出했다.

기둥자리의 직경은 372mm 내외이다. 또 礎盤平面으로 부터 전체 彫出高는 51mm로 연화문 초석과 같다.

北東隅礎는 상부에만 1개 충급을 둔 쇠시리 둘러고 일방향 고매기좌이다. 背面 2間과 北側間 일부에 여러 쪽으로 이어져 놓인 고매기石은 넓이 22~24cm 높이 3cm 가량의 고매기(벽체) 폭을 修粧幅으로 드러내고 양면에 한턱내린 턱을 주어 건물 내 외부 바닥재 마무리 하도룩한 모습이다. 현재의 고매기석 배치가 원 위치로 판별된다. 礎頭 LEVEL은 거의 水平을 이루고 있으나 신방석은 1~4cm 가량 침하되어 요철면을 나타낸다.

여기 西建物址의 基壇과 石階, 礎石, 고매기돌 등의 治石, 結構手法으로 보아 高麗初期의 石物임을 推定하게 되고 전면을 개방한 3間建物인 것으로 볼때 前면의 塔과 碑등과 더불어 重要な 儀式上에 考慮된 건물이리라 추측된다.

正面基壇 立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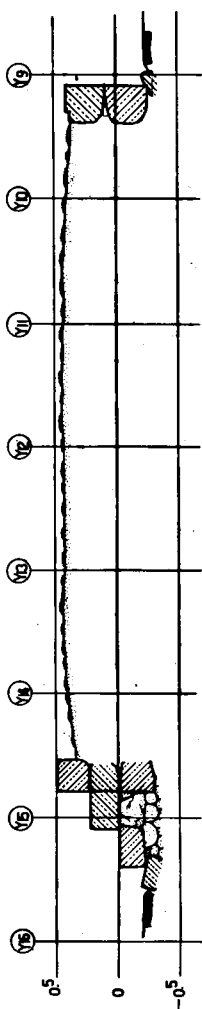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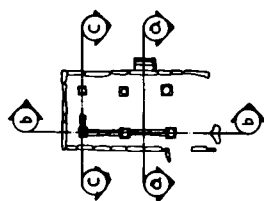
南側面圖

北側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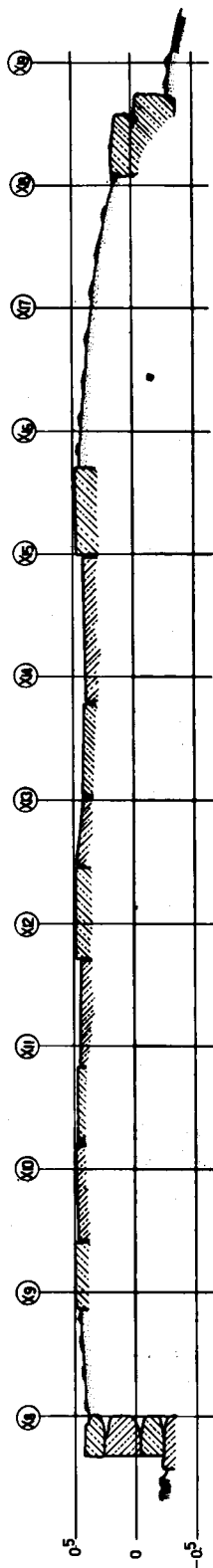
背面基壇 立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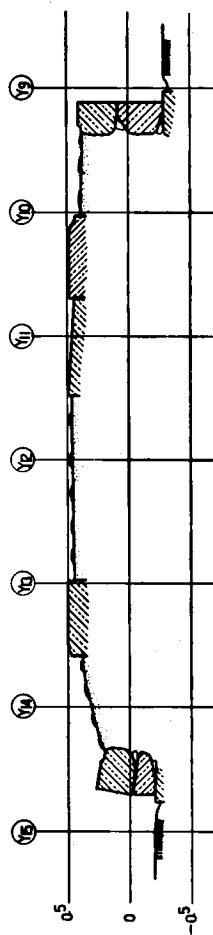
KE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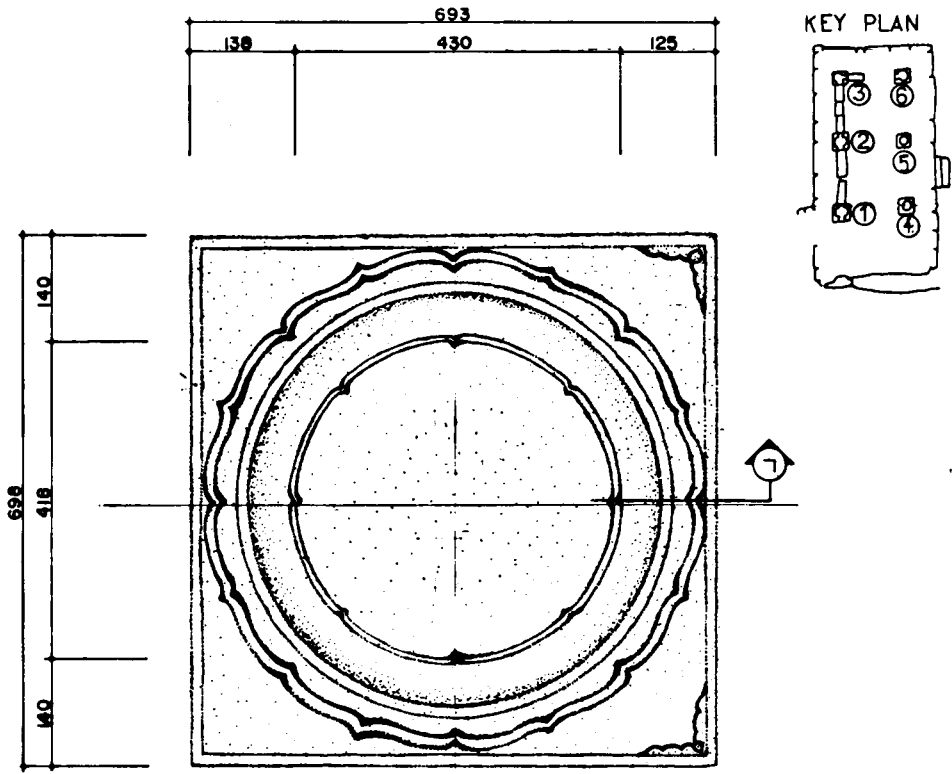
a-a'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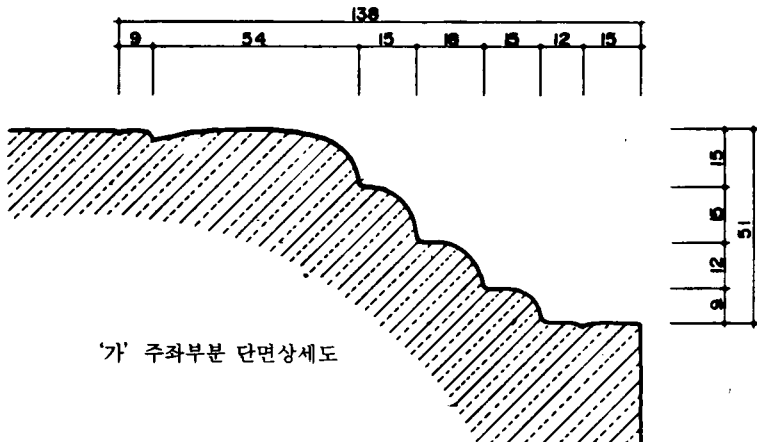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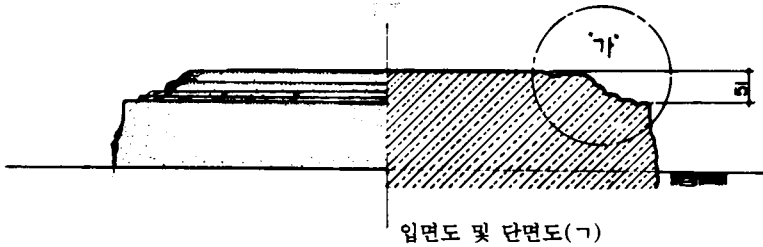
b-b'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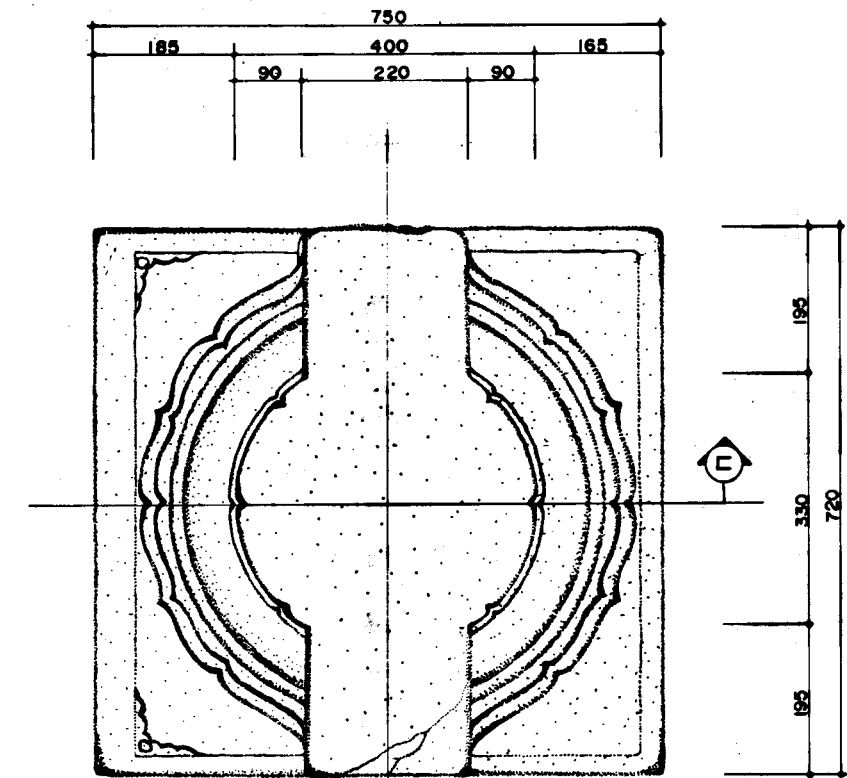
c-c'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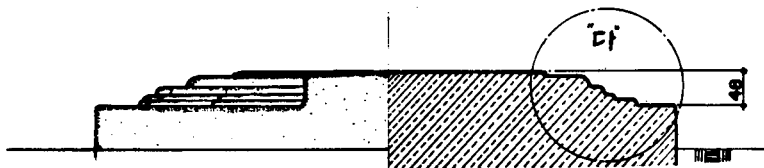
평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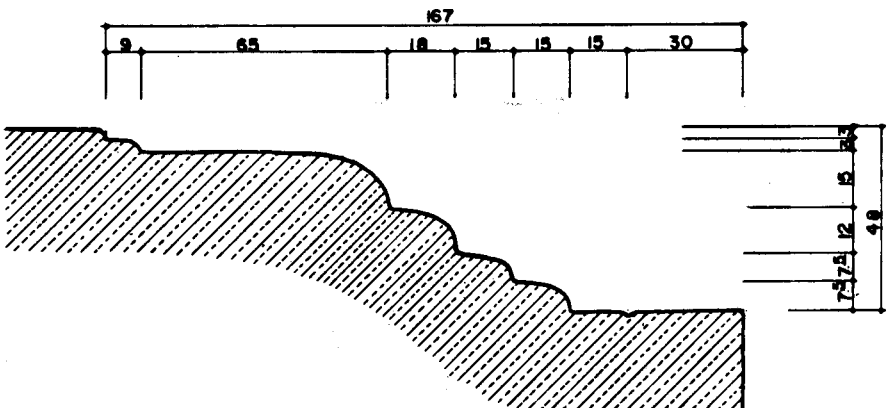
西 建 物 址 礎 石 상 세 도 No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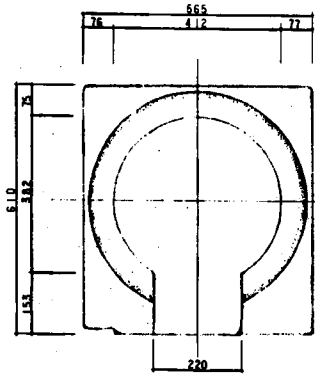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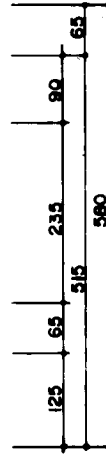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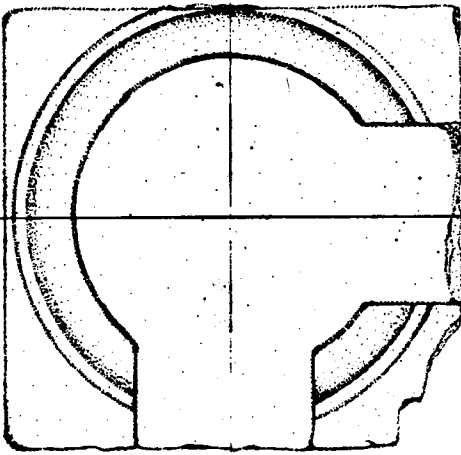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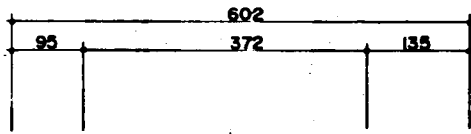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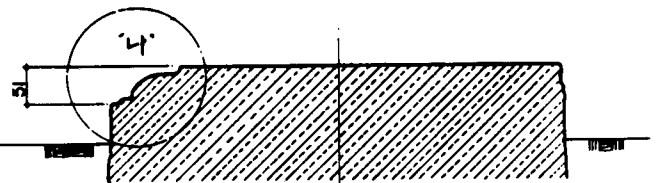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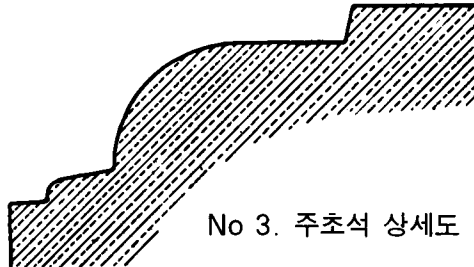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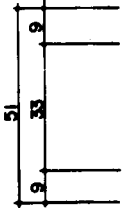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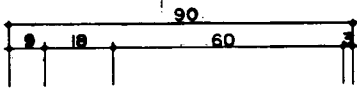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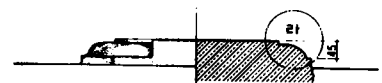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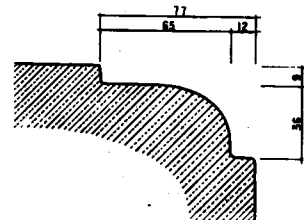
단면도(L)



No 3. 주초석 상세도



입면 및 단면도(라)



"라" 주좌부분 단면 상세도

No 6. 초석상세



6. 智光國師 玄妙塔碑

法泉寺 重興期の 큰 스님이시며 이 塔碑殿의 主人公인 智光國師의 一代記와 玄妙塔 建立 緣起를 적은 記碑이다.

여러 상황으로 견주어 보아 元位置를 그대로 固守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이 碑는 高麗宣宗 2年 (1085)乙丑에 建立되었다.

네귀를 연귀맞춤하듯 한 2段 造成의 臺石위에 龜趺와 碑身, 璃首로 구성된 麗代 典型手法을 보이는데 그 규모의 雄大함과 섬세하고 華麗한 彫刻등으로 다른 石碑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傑作品이다.

목을 높히 치켜세운 환상적인 龜頭에 거북등 전체를 두꺼운 龜甲衣로 둘러쌓았고, 方形으로 구획한 六角龜甲文을 배열하고 그 內區엔 王字文을 넣었다. 龜甲아래의 배 밑부분엔 네발에서 뿜어 나오는 瑞氣가 구름처럼 가득 서려있고, 등어리 中央에 넓게 연화刻한 碑座를 배치하였다.

碑面 周緣에는 寶相華 唐草文을 돌려 세우고 정각 碑題銘에 「贈諡 智光國師 玄妙之塔碑銘」이라 두행으로 기록된 題額이 있다. 碑額의 상단에는 日, 月, 飛天像 등이 새겨진 須彌山圖가, 左右에는 鳳凰文 등의 祥瑞로운 그림이 線刻되어 있다. 碑身 兩側面에도 外緣部를 두터운 테로 額을 낸 속 전체에 弄珠하는 雙龍이 힘찬 숨씨로 浮彫되었다.

璃首는 다른 石碑들과는 달리 화려한 寶蓋形 蓋石위에 3段層으로 올려 쌓은 花文 寶珠가 특이하다. 보개의 외부 테두리 상단에는 귀꽃을 장식하고 그 아래 仰蓮과의 사이에는 雲龍文이 조각되어 있다.

龜趺와 蓋石부분은 花崗石이고 碑身은 흑회색 粘板岩系 岩石이다.

비의 實側値는 아래와 같다.

玄妙塔碑



基壇與地臺石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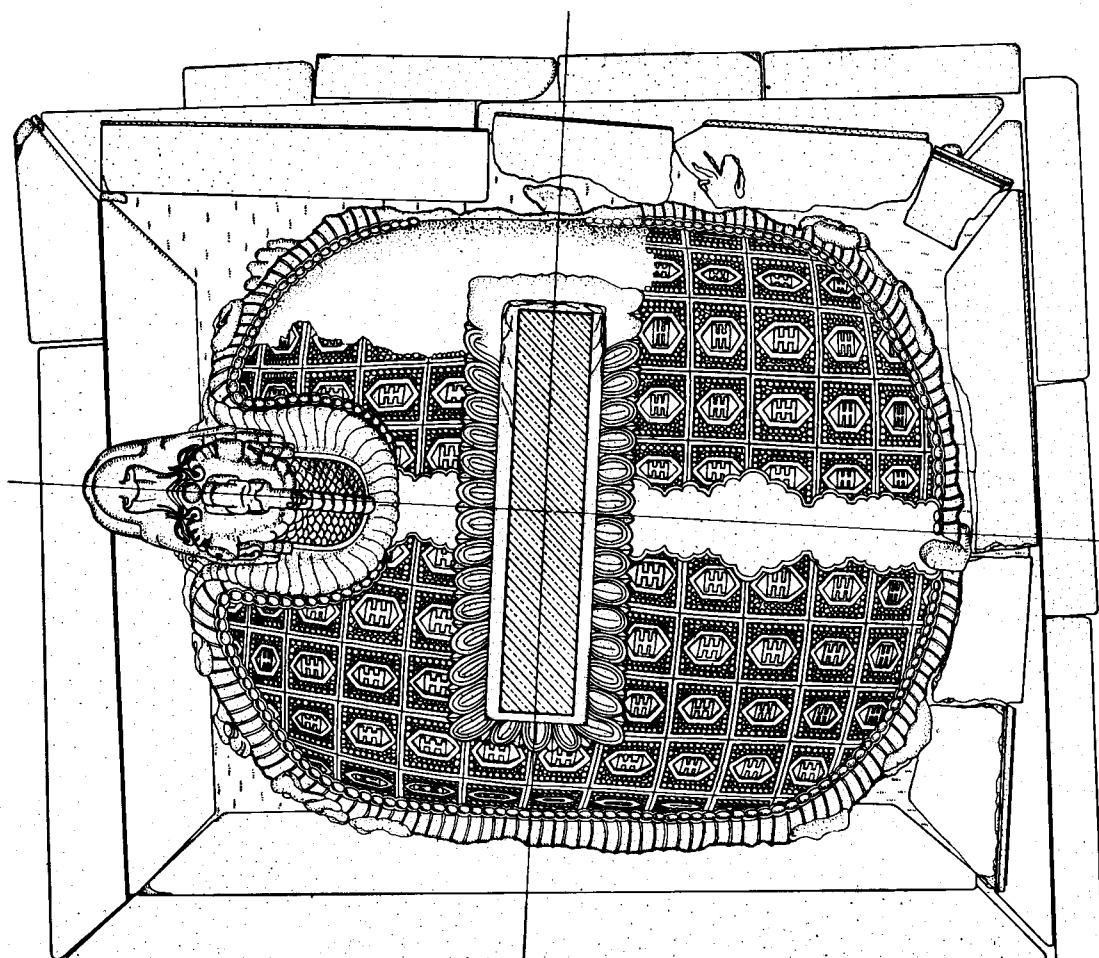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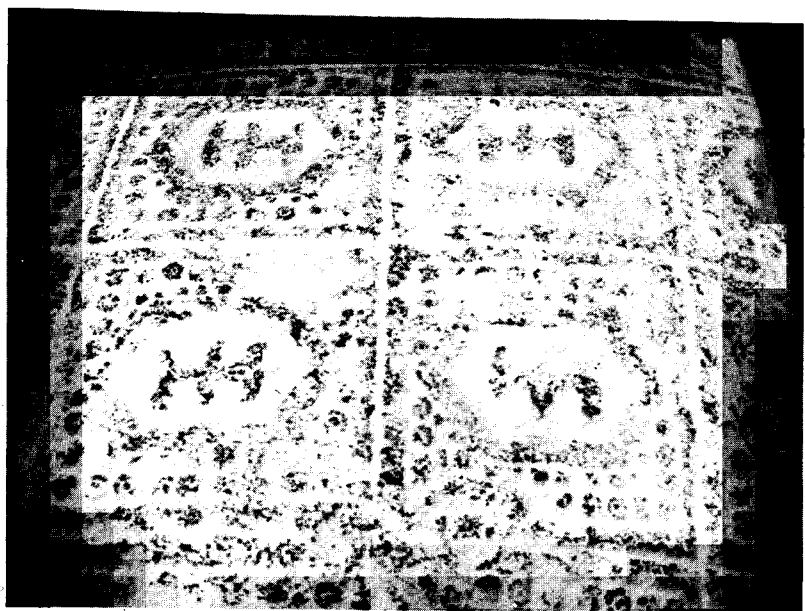
碑臺部		幅	長	高	備 考					
	地臺石 下 壇 上 壇	3,140	3,010(부분)	140	東側과 北側에만 남음 네 귀에서 어긋나고 뒤 밀린 교란된 상태임.					
		3,020	3,520	280						
		2,700	3,150	215						
龜 趺	龜甲(몸체, 전체) (머리~꼬리끝)	幅	長	高						
		2,260	3,180	상대석~귀두까지 1,490 상대석~비좌상부 870						
	龜額 (전체) (최대치)	幅	長	高						
		490	760	540						
	碑座 (上面) (下面)	幅	長	高	左端	中央	右端			
		1,480 1,710	365 640	前面 後面						
	碑 身		幅	長	高					
			1,260	3,090 비좌상면~ 이수밑면	265					
蓋 石		993	2,160	全高 1,260 蓋石 605	개석에 동조된 상륜고 291 相輪部高 310					

이러한 큰 龜趺를 單一石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폭 8자, 길이 11자, 높이 6자의 큰 原石이 필요하며 그 무게는 약 35톤에 이른다.

① 碑臺石

塔碑 基壇에 해당하는 臺石부분을 세밀히 調査해보면 바닥 흙속에 매설된 듯한 地臺石 일부가 東便과 북쪽면에 일부 露出되고 그 위에 2重으로 層段들어 쌓은 두단의 長臺石 方廓 틀이 碑를 받는 臺石이다.

上.下壇 臺石들은 각 면에서 2~4 個石으로 이어졌고 귀 부분에서는 45° 斜線으



로 맞추어 졌다.

下壇石은 外面만 정다듬한 無文 長臺石으로 上面 뒷쪽을 한턱내어 上段石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上壇石은 側面둘레에 上, 下테(턱)을 둔후 가운데는 草花와 어이 童子像을 刻한 모습인데 磨滅이 심하여 뚜렷하지는 못하다.

그리고 上面 전체에는 무결무늬를 새겼다. 下壇石 밖으로(塔碑의 背面(東)과 北쪽 일부에만 남겨진 상태이긴 하나) 또 다른 長臺로 下壇石이 밀려남을 방지한 補强石이 있는데 이것이 地臺石인듯 하다.

② 龜趺 및 龜頭

목을 바짝 치켜 세워 크게 두눈을 부릅드고, 前面直視의 자세로 水平線上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 얼굴 전체 생김새(形容)의 正面相은 方形이고, 平面으로는 앞뒤로 길게 되어 이마 부분이 뒤로 비스듬히 경사지고 앞부리 윗 입술턱이 길게 내 뻗었다. 푹 볼그러져 튀어 나온 부리 부리한 眼球가 놀라움과 노려보는 듯한 표정이고, 눈가의 두툼한 눈거풀이 여러겹 주름지듯, 불꽃 모양의 눈썹이 갈퀴지어 둘러진 위에 평탄한 이마 頂部엔 뿔과 같은 突起가 솟아있다.

윗 입술 둔턱이 앞으로 길게 내어 뻗어 치켜올려진 위에 코 허리는 잘록하게 굽어져 누운 형상이며 가지런히 다문 齒列 양쪽 가장 자리에 鬼齒가 아래, 위로 날카롭게 뻗어 있다.

양볼 뒤끝까지 길게 벌어진 측면의 입바퀴는 크게 발달하여 귀를 완전히 감추고 목덜미 뒤에 까지 넓게 퍼졌는데 그 퍼짐 힘살의 모습은 화염문 불꽃 타오르는듯 하다.

아랫턱 수염이 덩수룩하게 뻗어 내린끝이 까치발 받치듯이 목뿌리 근처에서 뻗어나와 길게 내뻗은 턱들 받치고 있다.

목둘레에는 온통 비늘(魚鱗)이 가득하고 목뒤허리 중앙선에 톱날같이 突起된 등지느러미 모습이 이어져 흐른다.

이런 모습의 龜頭로 하여 이 거북은 매우 환상적이고 神靈化된 龍頭의 모습이 되었고, 順厚한 거북에서 점차 神龜化되 어가는 麗代의 龜頭중 가장 발전된 표현이라

고 할수 있겠다.

石造龜趺가 등장한 이래로 그 형식 발달 과정을 보면 초기엔 거북을 충실하게 묘사한 순수한 형태의 龜頭形이었다. (태종무열왕능비 [661]등) 統一後期에 들어 점차로 龍頭化되어 直立하고, 더 시대가 내려와서는 (9세기경) 환상에 젖은 龍頭가 되었고, 다시 獸頭化하여 鰲首形 등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

목줄기 주름이 몇겹 중복되어 흘러내린 배부분은 두툽한 唐草文, 雲華文이 가득한 사이에 앞발을 넓게 벌려 龜甲先端 모서리에 5爪의 발가락을 내보인다. 양측면과 배면의 龜甲 밑 배부분은 같은 치장이다.

③ 龜 甲

귀부등 전체를 덮어 씌운 甲衣는 가로방향 10줄과 세로방향 12줄로 나누어 方形의 구획을 하고 그 內區에 다시 長方六角形의 귀갑문 속에 임금 “王”자를 두드러지게 彫出 배치했다.

方形區劃을 이룬 界線은 두터운 陽刻線으로 區劃하고 그 내부 중앙에 배치한 王字文 주위에 다시 굵은 띠를 길게 六角으로 형성하고 두 突帶界線 사이를 작은 圓形斑点으로 돌출시켜 甲文 전체가 하나의 方廓花文과 같은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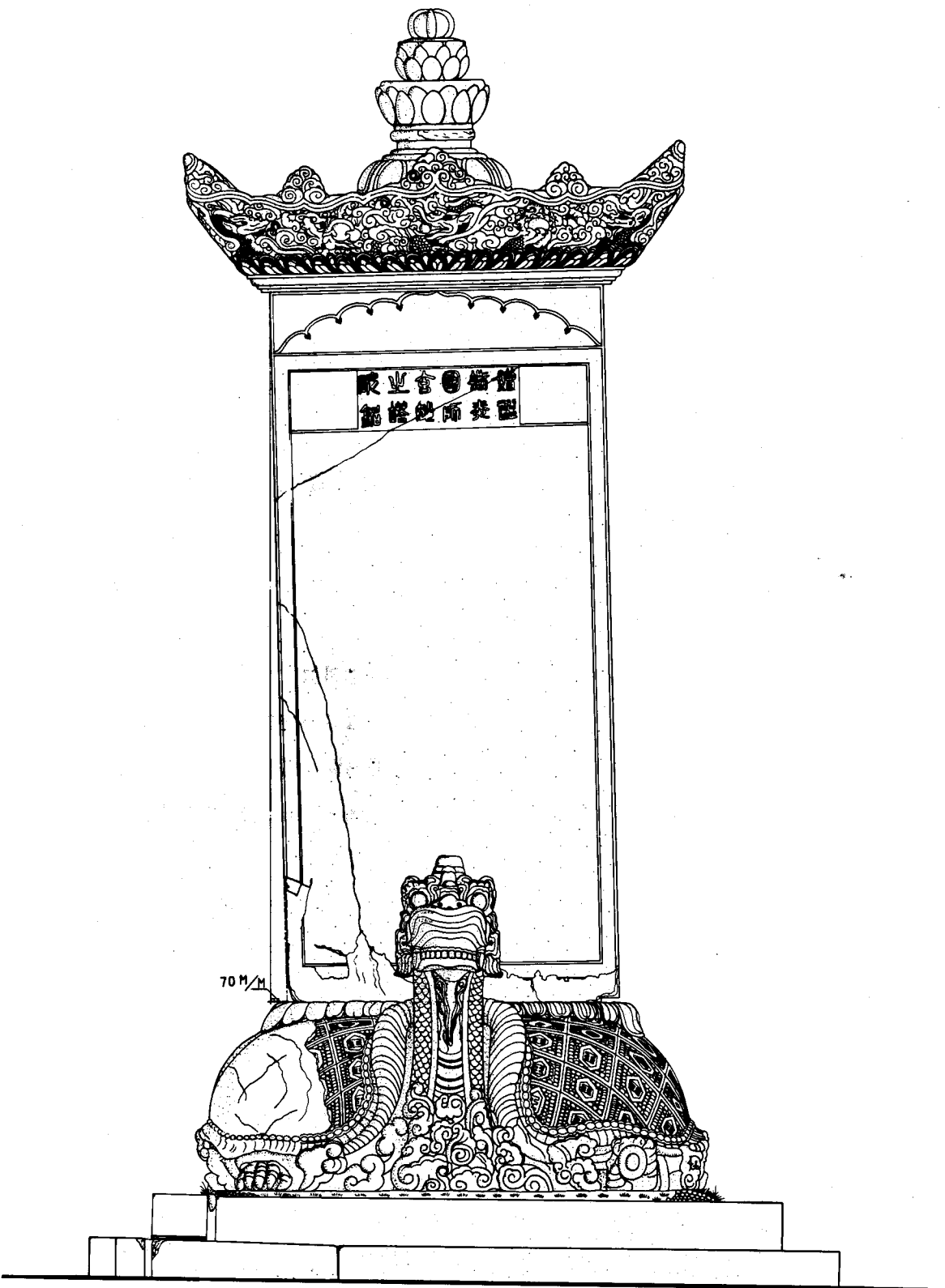
龜甲文 한개의 크기는 가로 21~22cm, 세로 22~23cm이고 內外 돌대계선의 폭은 3cm, 刻한 깊이는 1.2cm가량의 비교적 淺刻한 수법이다.

龜甲의 등 중앙에는 伏蓮으로 치장한 長方形 碑座를 두고 목줄기 뒤로부터 龜尾에 이르는 등줄기에는 甲文界線보다 약간 높게 도출된 화려한 甲衣文을 길게 연결시킨 隆起 突帶로 치장되어 있다. 움기된 碑座部는 38瓣의 연꽃으로 둘러 새겼다.

등줄기를 중심으로 양편의 龜甲文은 서로 對稱 되었는데 북쪽 前端部는 磨滅된 損傷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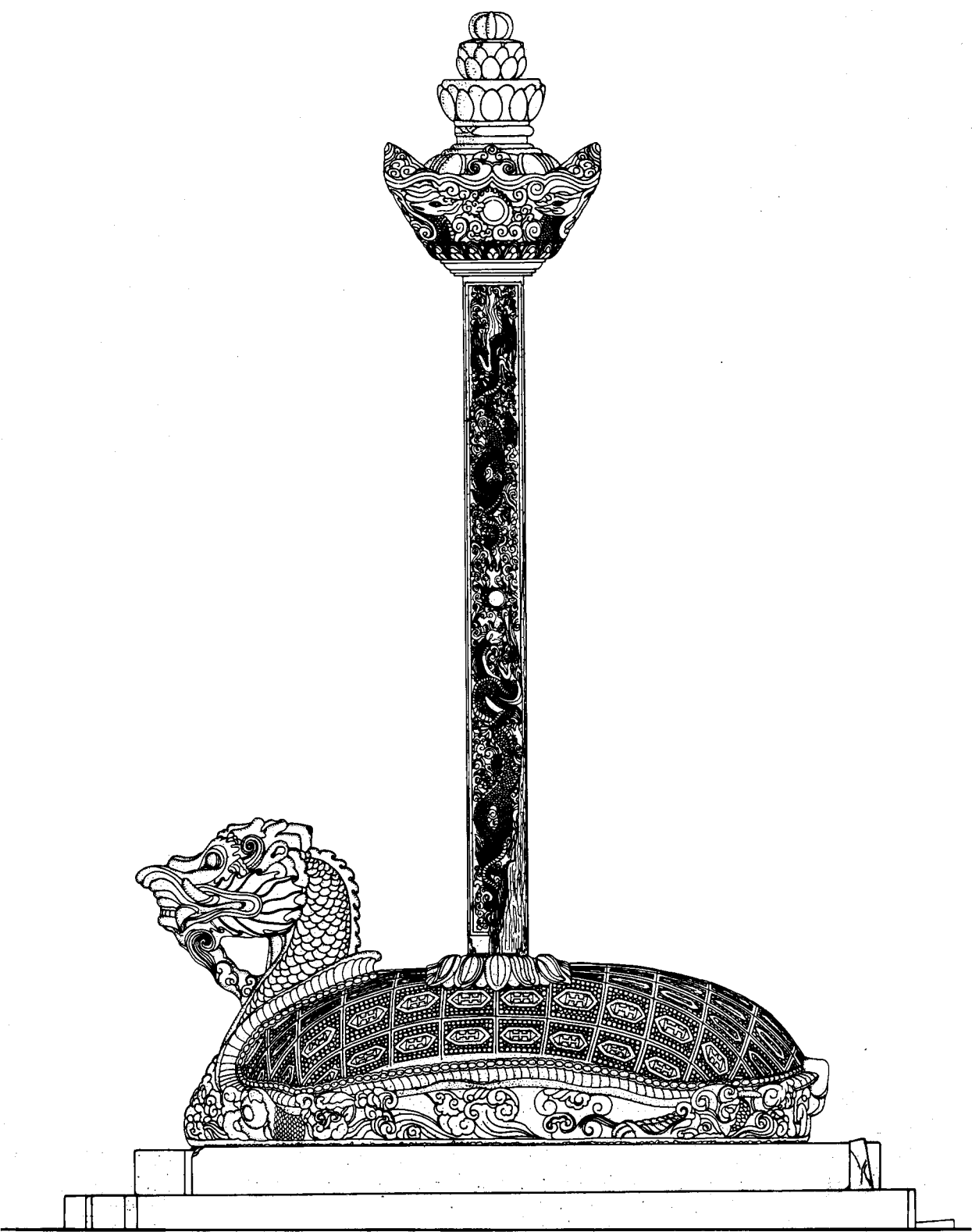
龜甲衣 周緣은 珠聯과 주름단으로 둘러 장식 하였는데 목뒤 부분에서 자락히 둘러 뒤집혀 있다.

이 智光國師 玄妙塔碑 龜甲文은 섬세하고 화려한 彫刻美를 보이고는 있으나 甲文이 적고, 淺刻되어, 인근에 있는 居頓寺址 圓空國師碑(1025)나 興法寺址 眞空國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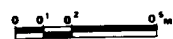


智光國師玄妙塔碑正面圖





智光國師玄妙塔碑側面圖



碑(940), 高達寺址 元宗大師碑(975) 등 麗代初에 造成된 碑들에 彫刻된 크고 豪放한 甲文을 갖는 龜甲에 비하여 좀 섬약한 느낌을 준다.

前代인 統一新羅期 귀부에선 初期에 龜甲 전체에 長方形六角으로 하여 그 内部에 三重, 四重의 重疊刻出하고, 다소 深刻한 편인데, 統一後半에는 龜甲文形이 자유롭게 변화, 多樣해 지면서 內區에 花紋, 王字紋등을 淺刻하는 경향이 있다가 10세기 말부터는 重厚한 龜甲文이 나타났다가 다시 細分化되어간 과정을 보인다.

④ 碑 身

黑灰色 점판암系 岩石으로 제작된 碑身은 前面 전체와 後面中央部에 碑文을 새겨 배치했고 兩側面에는 두툼한 외곽테두리 내에 雄渾한 弄珠龍을 彫出莊嚴했음을 전술한바 있다.

碑身 前面上端에서 25.7cm가량 全幅을 區劃, 日, 月, 飛天像, 雲文 등이 새겨진 須彌山圖가 섬세하고 상서(祥瑞)로운 圖形으로 治裝되었는데 그 刻法은 바탕을 약간 깎아 文樣을 碑面에 맞추어 도출한 陽刻手法이어 한쪽의 현란한 繡畫를 보는듯 하다.

그 아래부분 碑文이 刻記된 碑面四方 周緣에 幅 5.6cm의 突帶속에 활짝핀 寶相花 唐草文을 돌려 새긴 돌림띠 내구(內區)에 碑文을 새겨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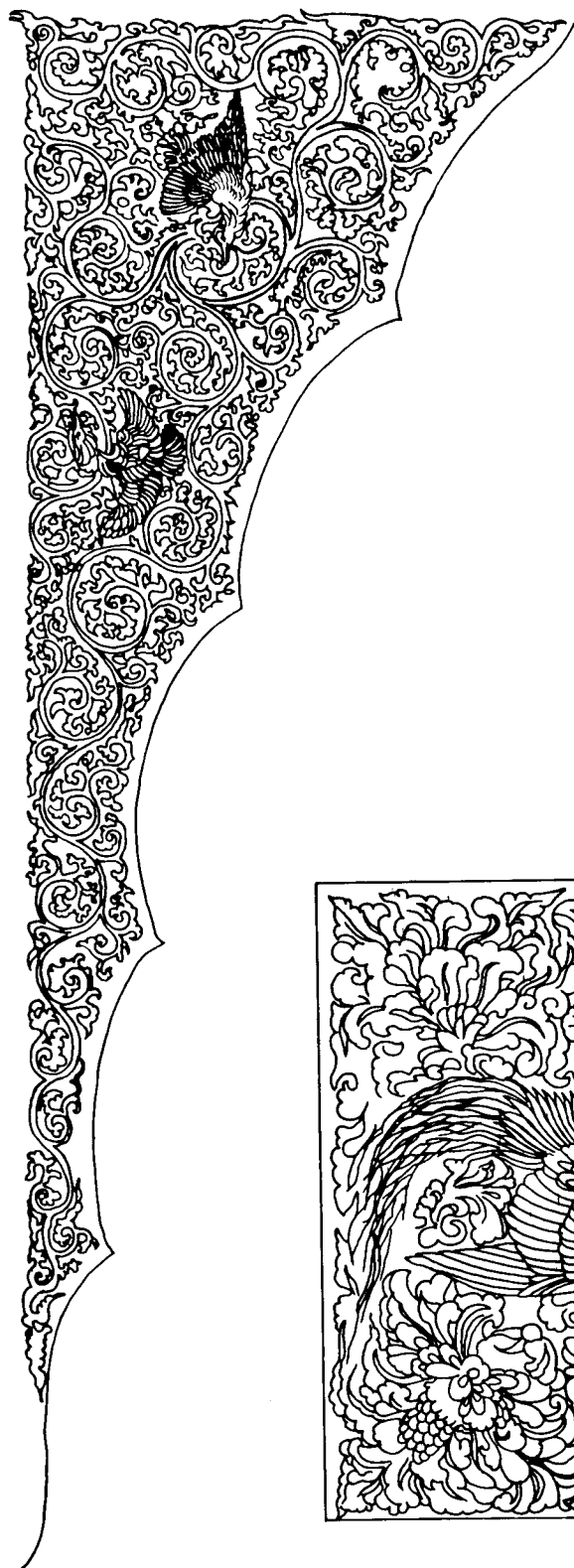
碑文 上段 정각 중앙에 隸書體로 刻한 6字 두줄 碑題 새긴 額 左右에 세로 24.5cm 가로 28cm 규격의 方廓內 美麗한 鳳凰紋이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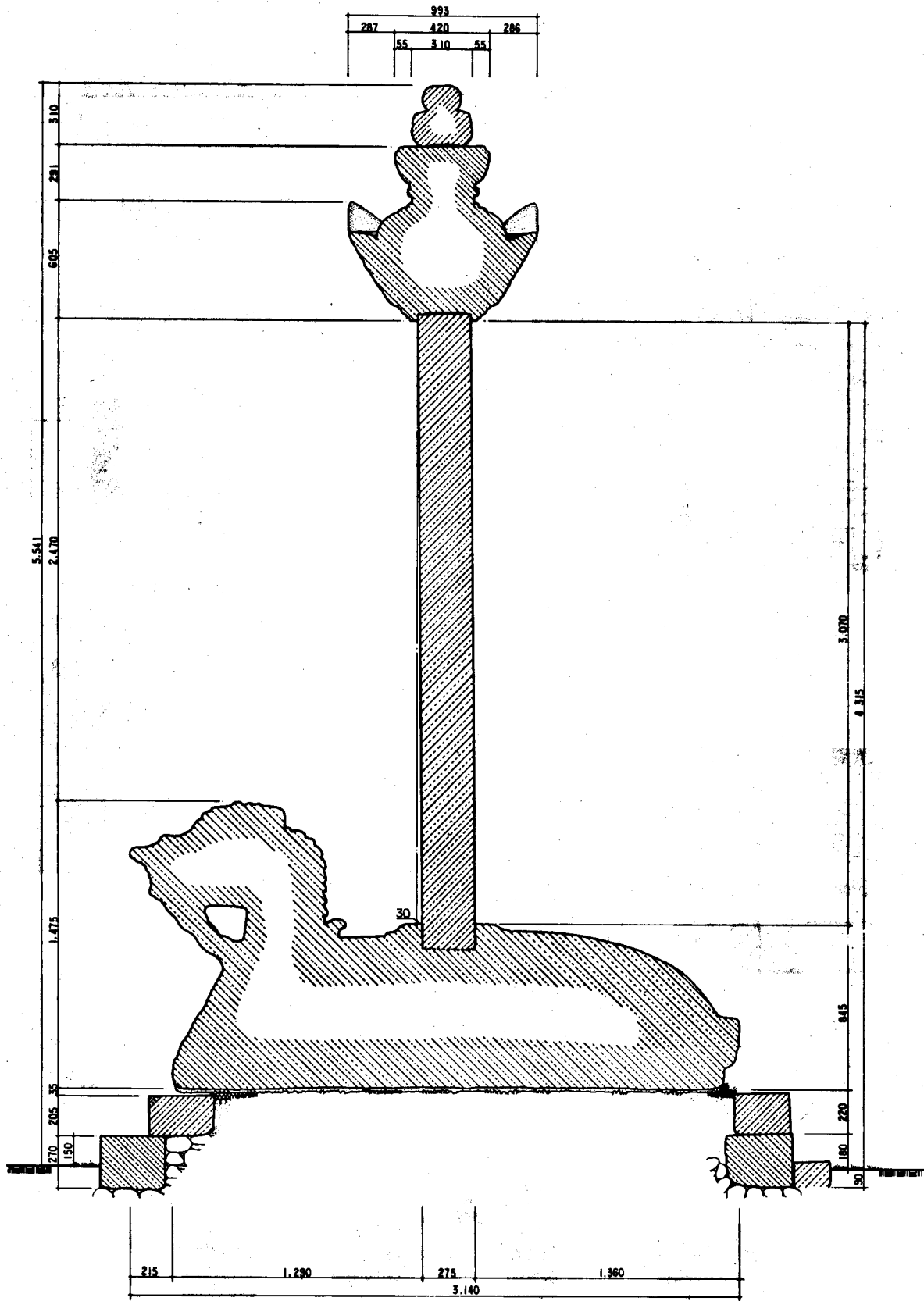
「贈諡 智光國師 玄妙之塔碑銘」이라 쓰여진 字體의 크기는 9.2cm角이고 파낸 깊이는 0.3cm에 이른다.

碑文 새김자리에는 縱行 80칸 橫列 43칸으로 구획 매칸마다 글씨 한자씩 배열할 수 있도록 29mm 정방각으로 얇은 線條를 내고 그안에 楷書體의 陰刻記文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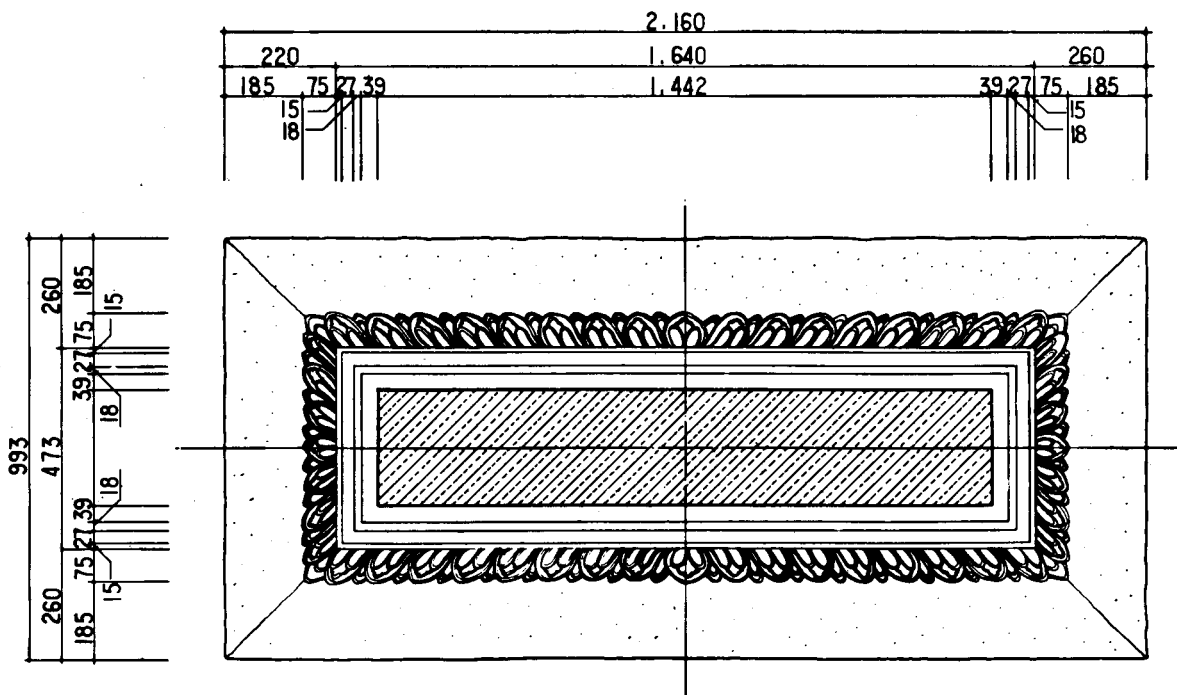
碑文은 「高麗國 原州 法泉寺 講眞弘道明了頓悟戒正高妙 應覺探玄道源通濟淵奧法棟具行了性導首融炤朗徹 贈諡智光國師玄妙之塔碑銘」이라한 긴 二行 碑銘으로 시작되고 碑陰末文에 「大安元年 歲在乙丑仲秋月 日樹」라 기록되어 絶對年代를 밝히고 있다.

碑身前面 上段の文様詳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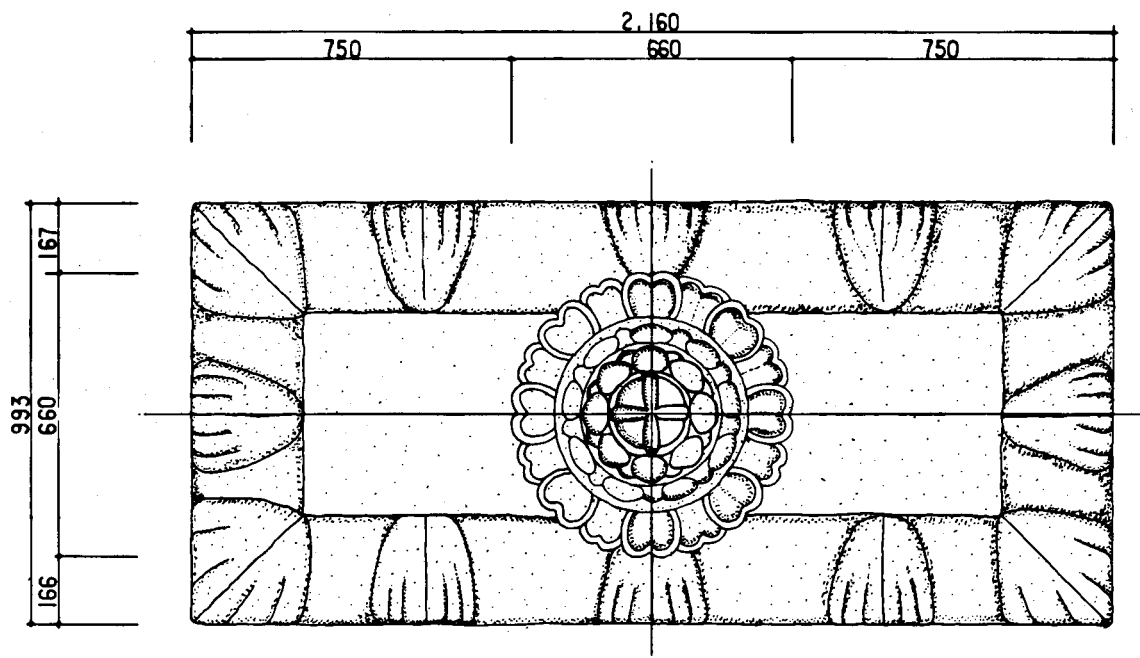




智光國師 玄妙塔碑 斷面圖



蓋 石 仰 視 圖



蓋 石 平 面 圖

碑文은 세로(縱)로 길게 내려 썼으며 背面 陰記도 뚜렷하게 남아 대체로 判讀이 可能하다. 麗初에 文章家인 鄭惟彥이 王命을 받아 짓고 安民厚가 썼으며 조각은 李英輔, 張子春이 담당했던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⑤ 蓋石

이 碑의 璃首는 위가 활짝 벌어진 寶蓋形으로 독특한 형식의 蓋石이다. 四隅의 轉角部分이 우뚝 솟아 귀꽃을 치장했을뿐 아니라 前後面과 양측면에도 각기 3개, 1개씩의 귀꽃을 돌출, 테두리 상단을 장식했다.

보개 사면 둘레에 화려한 雲龍文이 전면에 걸쳐 배치되었는데 돌려 엉켜진 龍首가 9~10개에 이른다. 그 下端에는 48瓣의 仰蓮이 돌려 새겨졌고 그 아랫부분이 3級의 弧形, 直角形 층급쇠시리가 있다. 보개 윗면이 蓮花彫刻된 등근 隆起部로 모아지고 그 中心軸에 三層으로된 寶輪부분, 그리고 그위에는 三重疊된 寶珠를 올렸다. 하단과 중단부 보주에는 양련이 조각되고 맨 윗부분이 水煙을 닮은 형태이다. 최상부 2層的의 보주가 別材이고 그 이하부분은 單一石材에 彫出하였다. (斷面圖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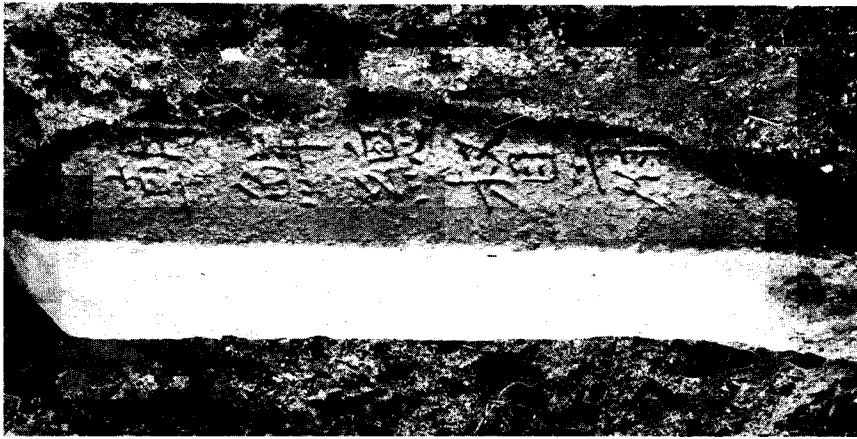
浮屠塔이 있었다고 傳해지는 遺址를 굴착해본 결과 雜石群이 허트러져 혼란된 가운데 日帝때 세웠던 「史蹟標石」이 같이 묻혀있다. 標石前面에 「寶物 第315號 智光國師玄妙塔碑」라 되었고 배면에는 「朝鮮總督府」라 陰刻되어 있다.

1965年 發掘當時 基礎部가 攪亂되어 遺構를 확인할수 없다고 밝힌바도 있었다.

標石의 전체길이는 1,520cm, 다듬은 標石面은 1邊 20cm 正方形의 길이는 90cm이고 頂上部를 뾰족하게 四角錐내었다.



智光國師 玄妙塔址로 推定된
곳의 遺構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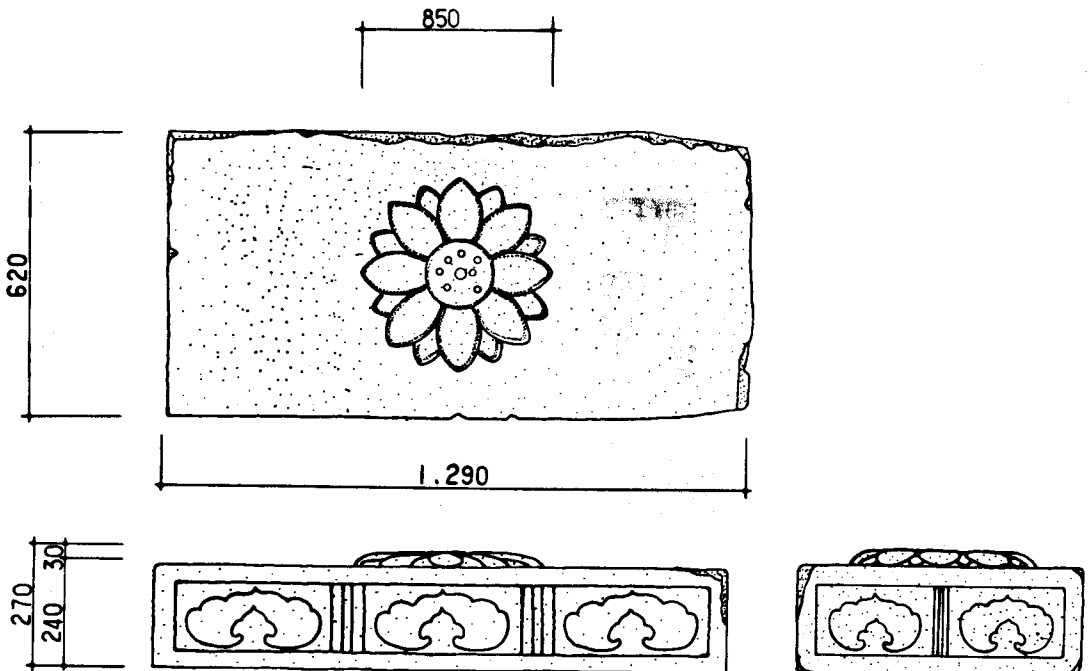


일제때 세운
寶物指定 標石

7. 西建物址위의 石物

(1) 拜禮臺石(奉爐臺石)

1965年度 발굴 調査당시 정우철氏 덕에서 발견, 西建物址에 옮겨 놓았던 것으로 당시의 名稱은 「奉爐臺石」이라 하였다.





拜禮臺石

廢塔材



여러 寺刹(또는 寺址, 恩津 觀燭寺등)에 이와 유사한 石物이 法堂이나 塔, 佛像앞에 놓여있어 「拜禮臺石」이라 稱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그러한 用途의 石物이 아닐가 생각된다.

그 형상은 길이 129cm, 넓이 63cm, 두께 27cm의 長方形石에다 平滑한 上面 中央部에 큰 蓮花座를 돌을 새김해 배치하고 四面둘레 측면에는 각면마다 2~3間을 區劃하고 그 內區에 眠象을 돌려 배치하였다.

상부면을 세밀히 보면 중심을 향하여 얇은 구배를 주어 중앙부를 약간 올려세운 위에 直經 42cm의 큰 八葉의 연꽃무늬를 조각하였는데 중심에 직경 15cm의 연밥(蓮子)를 중심으로 그 외변에 八葉과 間葉이 균일하게 둘러치고 있다. 돌을 새김한 높이는 약 3cm이다. 측면 둘레에는 상, 하, 좌우 외곽에 3cm 폭의 方槨을 두르고 前後面에는 3間, 좌우(양단)에는 2間으로 나누어 각기 바탕면을 깎아 다듬은 중심에 眠象一坐씩을 한층더 깊게 陰刻 배치하였다.

원위치로 지칭되는 정우철(지금의 정해용씨대 주변)가옥 주위에서 석탑재등이 함께 발견, 서(西)건물지로 이전된 것과 또 그 일대의 가옥(정해용씨, 정대용씨집)에 지금도 일부 塔材가 남아 기단, 또는 장독대등에 사용된 것을 감안해 볼때 塔 또는 石燈과 연관된 石物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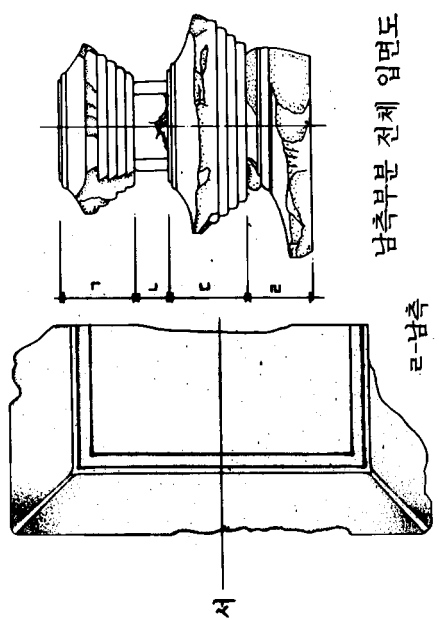
(2) 石塔材

西建物址 北夾間에 폐탑재 4점이 무작위로 쌓여져 있다.

基壇部 甲石材로 보이는것 1점, 屋蓋石 2점 塔身石 1점 등이다. 현재 놓여진 상태와 규격으로 보아 上·下의 물림이 서로 맞지 않고, 부분적으로 균열, 파손된 모습대로 수습되어 그대로 쌓았다. 甲石材는 원래 두 조각으로 組立하여 基壇部 甲石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금 그 半分만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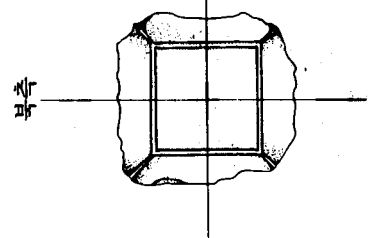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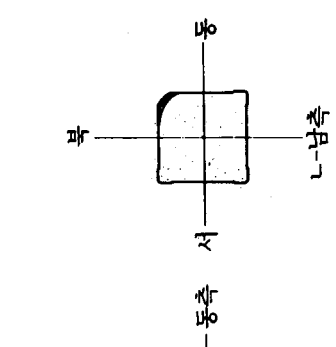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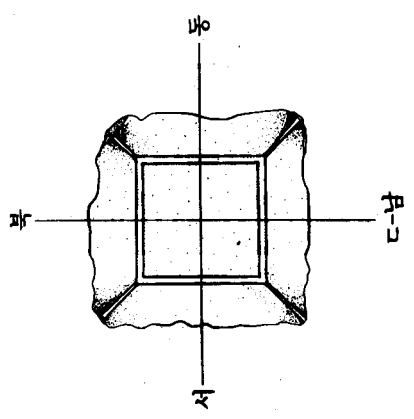
屋蓋石 2점은 모두 單一石으로 이루어져, 옥개받침은 3級으로 하였고 옥개받침 부분의 높이에 비하여는 지붕경사면이 낮은편이다.

옥개 지붕 경사면 頂上部에 一段의 턱을준 퇴물림으로 平板面을 만들어 그 상부 塔身石 받을 자리가 되도록 治石되었다.



남측부분 전체 입면도

리-남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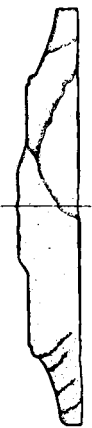
리-서측



리-남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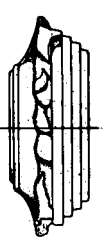
리-북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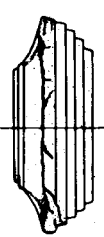
리-동측



리-남



리-서



리-북



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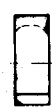
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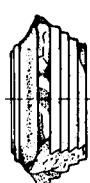
리-서



리-북



리-동



리-동측입면



리-서측입면



리-북측입면



리-남측입면

지금, 위에 얹혀진 옥개석 밑바닥 중심에는 徑 9cm, 깊이 8.5cm 가량의 四角홈이 위 방향으로 패여져있다. 두 屋蓋石 사이에 끼여있는 塔身石은 작은 單一石材로 造成되었는데 각면의 左右端에는 幅 8.5cm의 隅柱가 얹게 模刻되어 있다.

반쪽만이 남겨진 基壇甲石材도 지붕 낙수면이 매우 얇고 平薄한 형태로 길며, 경사면 높이가 비교적 낮다. 지붕마루 상부에 두툼한 圓形 쇠시리 弧로 궁글린 위에 다시 한단의 얇은 턱을 주어 5段層級 위에 上面을 판판하게 다듬어 初層 塔身받을 홈을 파 넣었다.

각부재의 實測値와 圖面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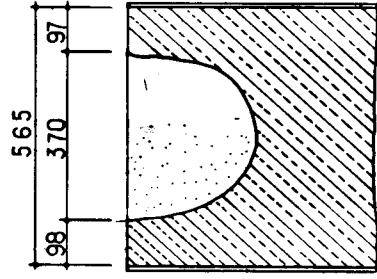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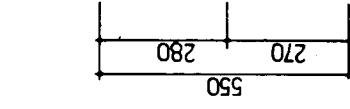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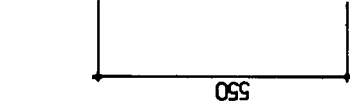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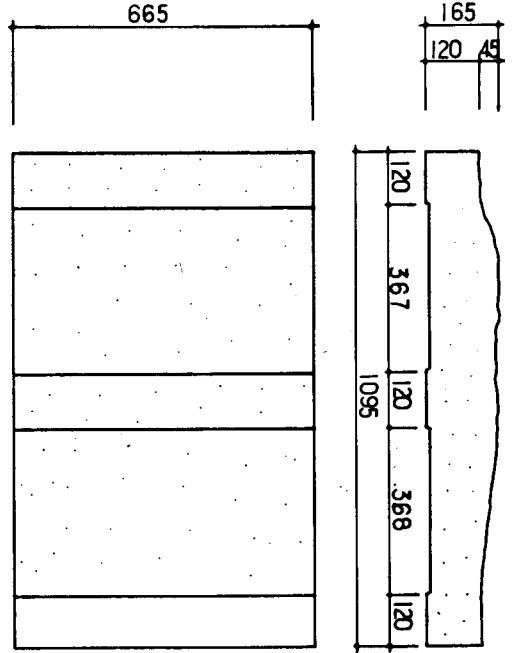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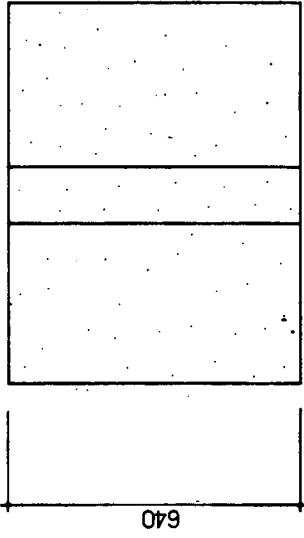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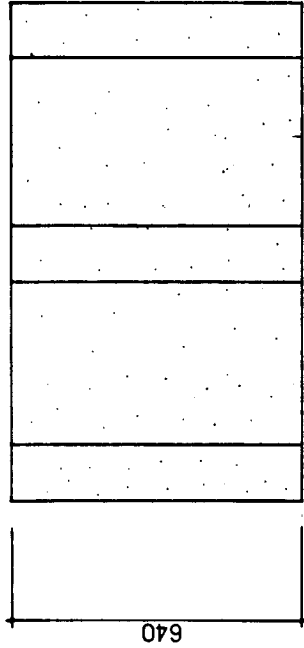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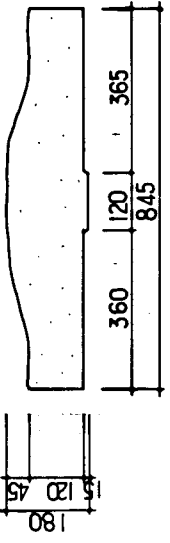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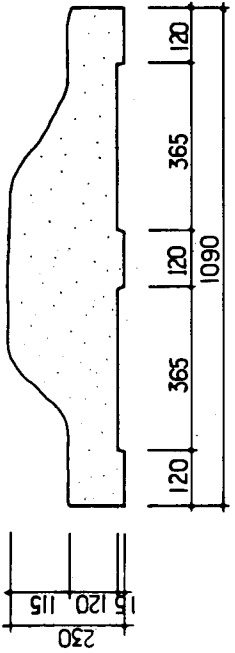
• 부락 民家の 石塔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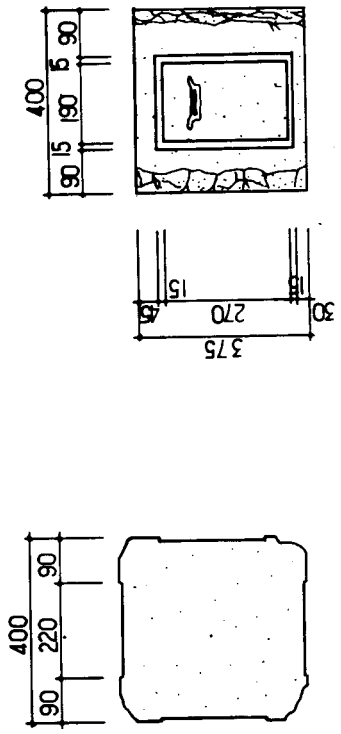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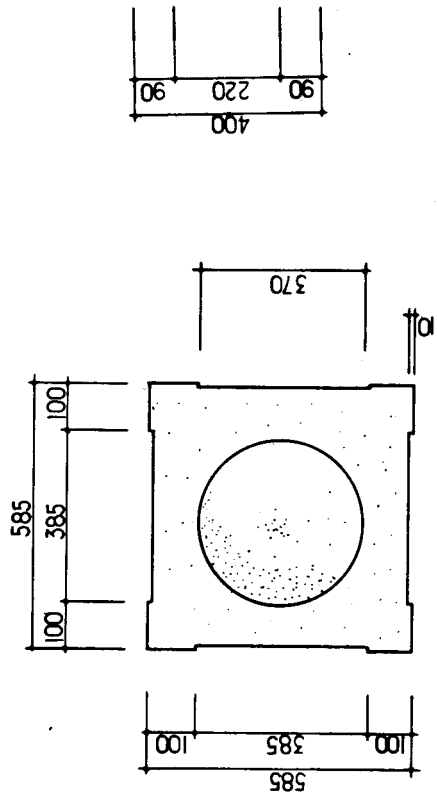
塔·碑殿址에서 가장 가까운 부락민가 정태용氏宅의 基壇과 장독대 마당жат 등에 石塔材가 4点 석여 있다. 基壇에 혼재되어 築造된 塔材는 面石 2点(그 중 하나는 兩邊隅柱와 중앙 撐柱가 함께 彫出 되었고 다른 하나는 隅柱없이 撐柱만 同彫된 것임)이고 그 집 장독대엔 이와는 규격이 약간 다르고 (높이가 2.5cm더 큼)양단에 隅柱가 새겨진 面石이 얹혀져 장독을 받치고 있다.

이들 面石들은 石塔基壇部를 형성한 부재로 보이며, 西建物址에 남아 있는 甲石材 1片과 接合 되기에는 그 규격이 정확히 맞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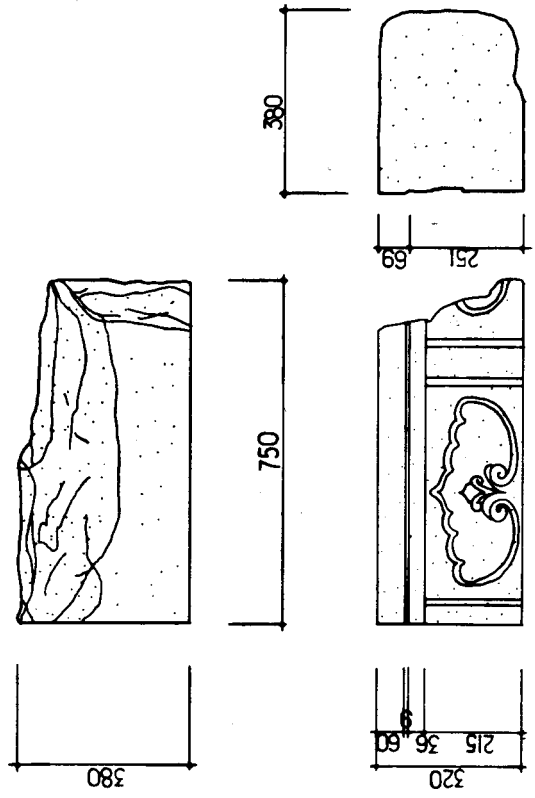
정태용씨댁 기단에 묻힌 면석 2個중 隅柱 있는 것은 그 자체로 完面을 이룰 것이고 隅柱없이 가운데 撐柱만을 갖춘 面石은 다른 2面 쪽에 끼워져 基壇面石部를 完成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2부재의 높이와 隅(撐)柱 幅이 같아 같은 塔材로 본다. 같은 집 안마당에 있는 塔身石 1個는 네귀 隅柱를 갖추고 있어, 西建物址에 있는 塔材들과 一組를 이룰듯 한데 缺材가 많아 확실한 복원案 까지는 곤란하다. 이 탑신석 상부에 徑 30cm 깊이 28cm의 구멍을 파서 절구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송인현씨 가옥에서 발견된 塔身材는 네귀 隅柱를 치장하고 한 면에 門扉장식이 새겨져 있는데 그 규격이 너무 적으며 (幅 40cm, 高 37.5cm)다른 塔身材와는 형식이 달라 또 다른 石塔의 부재일 것으로 推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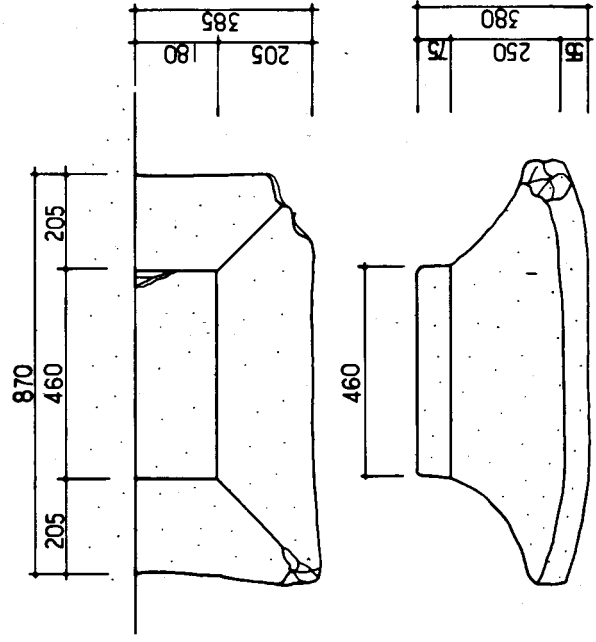




승인현씨대 탐재



정해운씨대 뒷돈덕 석물 (탐기단석)



김영득씨대 담장밑 옥개석

부재명	형상특징	전체넓이	높이	최대두께	隅()柱幅	隅()柱幅	비 고
面石 1	양隅柱 있음	1090	640		120	12	정태용씨 가옥기단
面石 2	隅柱없이 撐柱만 兩	845	640	180	120	12	"
面石 3	측 隅柱있음	1095	665	165	120		정태용씨 장독대
塔身石 1	네귀 隅柱있는 單一石 塔身材	585	550		100	10	정태용씨 가옥 마당 갓 절구통으로 사용
塔身石 2	네귀 隅柱 장식문양 門扉(자물쇠)장식	400	375		90	12	송인현씨 가옥
屋蓋石	반쪽(半分)만 노출 됨 층급받침 없음	870	380				김영득씨댁 담장밑

(3) 石造佛像 및 光背

西建物址 北夾間 전면에 놓여있는 一組의 佛像중 佛身과 佛頭는 1964년 발굴당시 中央建物址 남측기단 앞에서 발견되고 光背는 이웃한 寺址境內(法泉寺)에서 수집되어 이곳에 옮겨 조립된 것이다. 佛身과 佛頭, 光背가 서로 맞지 않는 각기의 石物을 배합 현재와 같이 造成해 놓은 것인데 얼핏 보기에는 光背를 갖춘 定規의 坐佛像 같은 모습이다.

작은 佛身 몸체에 비해 佛頭가 너무 크며 (특히 側面), 光背下端部가 흠에 묻혀 제대로 된 상태는 아니어서 서로 調和되지 않는다.

먼저, 坐佛身은 結跏趺坐해 定坐한 健壯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갖추어 있으나 頭

像부분과 오른팔이 없어진 상태이다. 목부분의 三道가 表現되지 않았고, 右肩偏袒하여 오른쪽 가슴을 크게 드러내 놓고 있는 法衣文은 비교적 두꺼운 편(厚織衣)이다. 두손은 모두 무릎위에 얹혀 오른손은 伏掌하고 왼손은 現掌하며 항마촉지인을 한 석가여래상의 형태이다.

또 오른팔과 소대부분이 절단되어 없어진 채 손부분만이 무릎위에 얹혀져 있다. 측면과 배면 부분에서는 옷주름이 표현되지 않은채 둥글게 素文을 하고 있다. 跏趺坐한 양 무릎끝 간의 넓이는 63cm 어깨부분의 넓이 41cm, 목부분까지의 높이 60cm, 가슴부분의 두께 16.5cm 결가부좌 무릎부분 두께 25cm 내외로 측정된다.

佛頭는 여기에 받쳐진 「坐佛身」과는 別個의 것으로 각기 제작을 잃은채 수습되어 여기에서 조립해 놓는 상태이다.

따라서 佛頭 頭蓋 두께가 坐佛身 몸체 그것보다 훨씬 두툼하고 몸체의 중심축선에서 왼쪽으로 살짝 옮겨진채 얹혀있다. 전체적 얼굴모습은 가름한 편으로 하관(下寬)이 두툼하게 양볼의 量感(厚德像)이 충만한데 표면이 마모되어 相好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머리 부분은 보편적 頭像에 표현된 肉髮와 螺髮 구성이 소략된채 전체적으로 두툼한 一頭角을 이루고 있어 마치 터반을 둘러쓴 형태의 頭像이다.

이 頭像의 크기는 넓이 24cm, 높이 34cm, 두께 23cm의 비교적 작은 佛頭라 할 수 있다.

造成된 石質은 佛身과 같으며 같은 時期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 光 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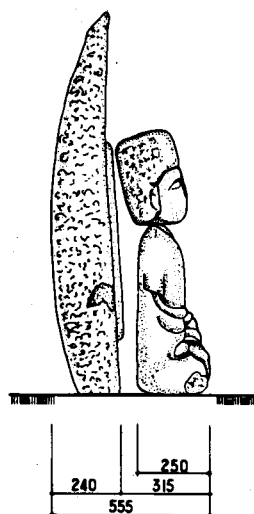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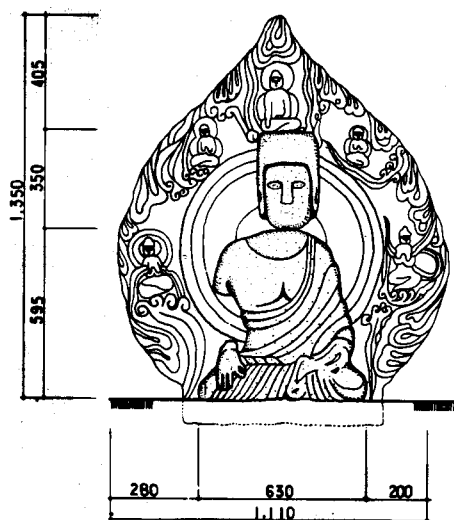
坐佛像의 배후를(頭光을 中心해서) 밝히게한 寶珠形 花焰文 光背이다. 頭像의 바로 배후면이 되는 頭光은 直徑 32cm의 둥근 素文圓板을 두툼하게 彫出하고, 그밖으로 12.5cm 거리를 띠어 半圓에 가까운 弧形 돌기선을 2重으로 둘러 同心圓을 이루게 한후 그 外郭全體에 화려한 花焰文을 굵게 刻出하였다.

2重 돌기된 同心圓弧는 안쪽엔 가는데(2.5cm), 밖으로는 좀 넓은데(3.5cm)를 둘러고, 그 밖의 頂上部와 左右,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5軀의 化佛을 화염문 속에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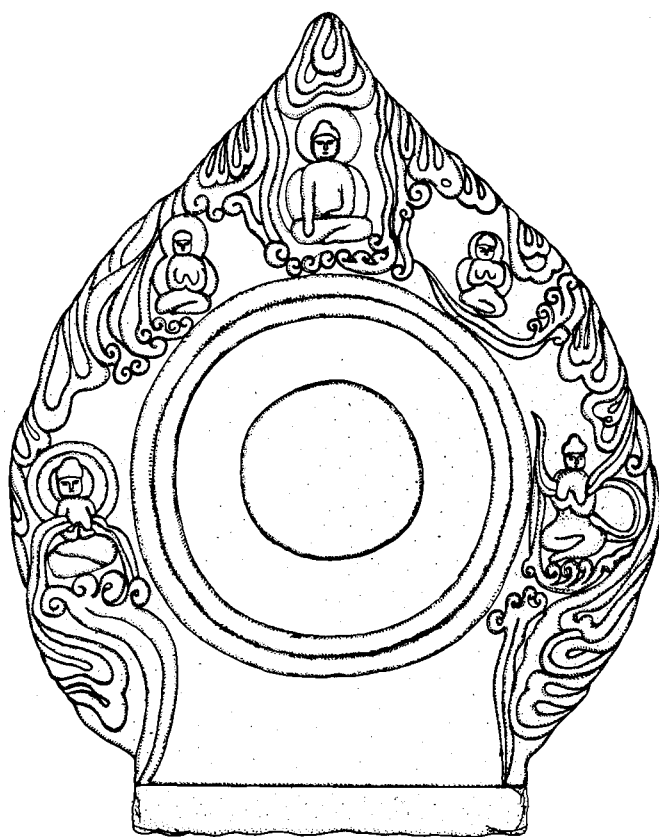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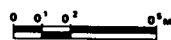


石造 佛像 光背





佛像吳光背實測圖



光背文樣細部圖

절히 安置 治裝하였다.

지금 光背 下端部 자락이 흠에 일부 묻혀 전체가 들어나 있지는 않지만 그 전체 높이는 143cm, 넓이(幅)는 114cm, 두께는 11.5cm이다. 下端으로부터 頭光中心까지의 거리는 64cm로 測定되어 현재의 佛像과는 적합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4) 虹螭形 石物

1964年 調査當時 塔·碑殿址의 南石築 南西端角 前方 40尺 지점에서 發見되어 西建物址 현 위치에 옮겨진 것으로 報告되었다. ARCH形 石物の 豪放하고 세련된 治裝으로 보아 매우 높은 뜻의 念願을 담은 緊要處 장식물이라 생각된다. 「사진」과 「實測圖面」을 참고로 細部 모습을 살펴보면 우선 흠에 上部面 圓弧 바닥에는 두줄로 배치된 6개의 커다란 모란꽃과 같은 형상의 꽃봉오리가 배열되어 있는데, 그 중앙은 움푹패였고 그 주위엔 그 잎사귀와 줄기 등이 두툼하게 彫出되어 있다. 그 兩緣邊 2단 각인 테두리 상면에는 六葉蓮瓣과 같은 작은 圓文이 연주같이 배열되었다.

흠에상부, 즉 볼록한 圓弧部分 바닥면에는 활짝핀 목단화가 두줄로 6개 배치된듯, 그 중앙 花心부분이 徑 16cm 깊이 7cm 정도의 움푹패인 구덩이고, 둘러싸은 꽃잎은 두툼하게 이어져 花形의 전체 크기는 徑 25cm 돌출된 높이는 6cm가 측정 된다. 커다란 연꽃처럼 보이는 이 돌을새김 주위 바닥에는 잎사귀와 줄기 唐草文 등이 서로 얹혀 있는듯 보다 얇은 彫出이 전체에 깔려있다. 그 左右의 兩邊 端部는 2段角 각음한 테두리 띠(폭 7cm)를 두었는데 그 上面엔 六葉蓮瓣과 같은 작은 圓文이 주런같이 그리고 한쪽 끝에는 마름모꼴 윤곽속에 草葉이 새겨진 연속문양이 배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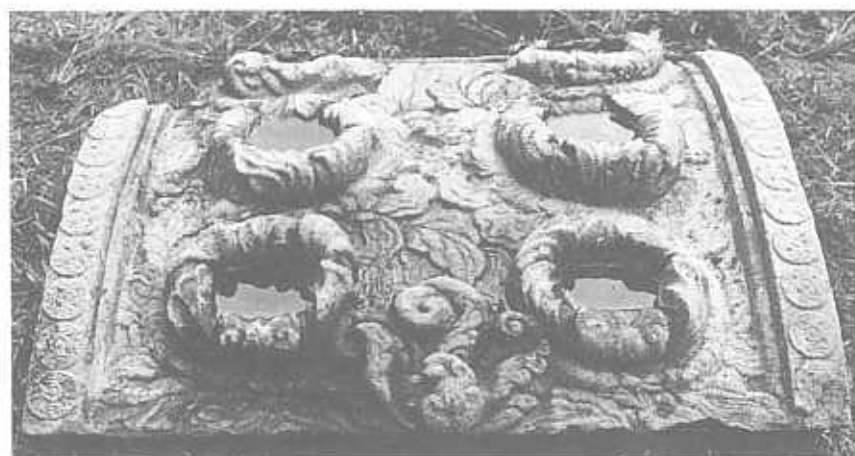
테두리의 側面(옆면)에는 唐草文, 雲文 등으로 형상화된 세밀한 조각과 안으로 톱을 주어 내린 면에 波形文 등이 연속해서 조각되어 있다.

밑바닥면에는 아무런 治裝없이 거친 다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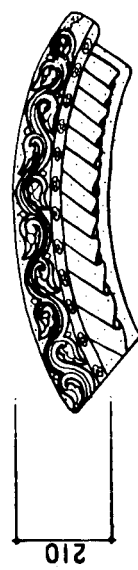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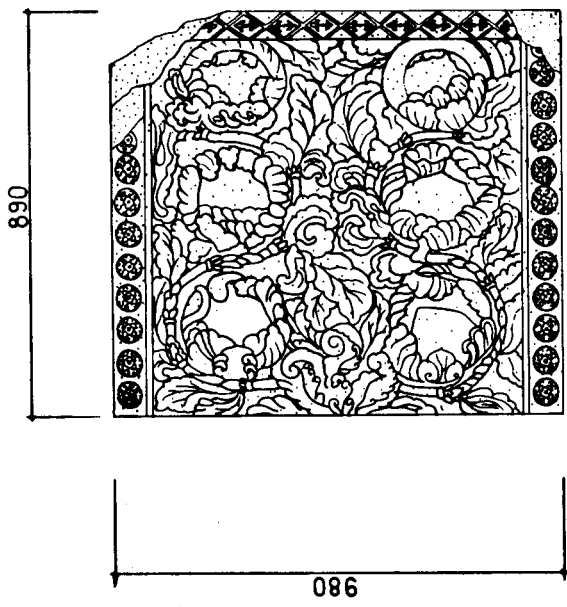
이 石物の 크기는 길이 890cm, 넓이 890cm, 두께 210cm이고 ARCH의 重心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것같은 큰 直徑을 갖는 圓弧의 일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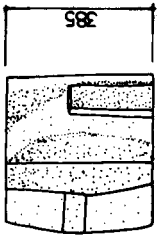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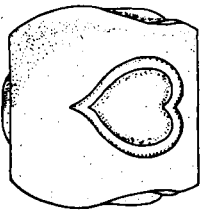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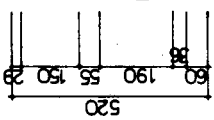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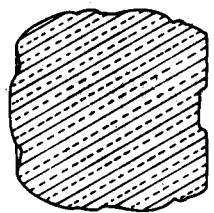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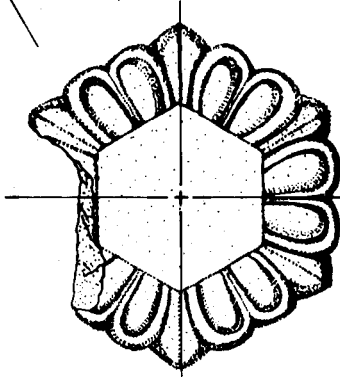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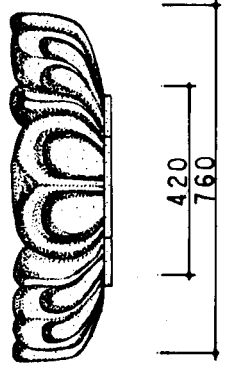
虹蜺形石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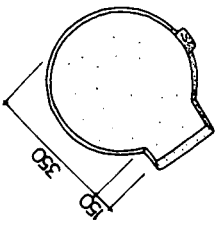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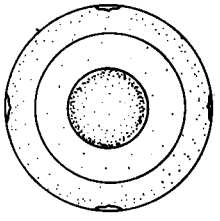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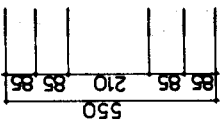
虹 蟻 形 石 物



蓮 花 臺 石



浮 屠 身 斗 用 途 不 明 石



(5) 浮屠身

1964年 調査當時 丁鶴鎮氏宅에서 發見되어 현재 위치에 옮겨진 浮屠 몸체부분이다. 胴體의 가슴부분이 약간 부풀었고 下寬이 약간 훑어진 항아리형 浮屠身 四面에는 커다란 花焰文形이 음각되었다. 상부에는 옥개석을 받아 끼울수 있도록 고려된 徑 21cm, 높이 2.1cm의 둥그스럼한 볼록홈이 同造되고, 底面중앙에는 徑 12cm, 깊이 2cm 가량의 오목홈이 패여져 있다.

胴體 높이는 49.9cm, 胴徑은 55cm이다. 지금 이 浮屠身밑에 반혀진 연화대석과는 그 接合部가 일치하지 않는 別個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알맞는 臺石과 屋蓋石이 발견되지 않는다.

(6) 蓮花臺石

西建物址에는 4개의 蓮花臺石이 있다. 규격이 서로 다르고 出處가 불명한 것도 2개이다.

① 蓮花臺石 1. (圓形伏蓮臺石)

1964年 調査當時 이선재씨 댁에서 발견되어 西建物址로 옮겨진 蓮花臺石(당시보고서 p.30, 別表 1.의 圖面 No.8-7)이다.

둥근 바탕에 八瓣伏蓮을 두툼하게 새기고 그 위에 2段層級의 八角 받침면을 만들어 그 중앙부분에 徑 13.5cm 깊이 8cm의 홈을 파내었다. 밑바닥 부분도 八角 2段層級을 둔 평판면을 加工한 것으로 보아 상·하에 다른 부재가 끼이는 中臺石으로(浮屠나 石燈 등의)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상면에 패여진 홈은 舍利孔 또는 竿柱石 뿌리를 꽂는 孔등일 듯하다. 彫刻 상태는 洗鍊되게 정제되지는 않았고 상면 홈 주변에도 또 하나 거칠게 둥근 모습을 한 홈이 패여져 있다.

이 臺石의 규격은 전체직경 65.1cm, 두께 23.5cm이며, 八角面 1邊의 길이는 13.5cm이다. 상·하의 층급 높이는 1.2cm 내외의 얇은 층급이다.

② 蓮花臺石 2.(六角仰蓮臺石)

정확한 出處는 알 수 없다.

六角形을 이룬 仰蓮帶上面을 약간 內傾한 경사를 들여판 후 1段級을 준 일변길이 27.5cm의 六角평판 면으로 위 부재 받침이 되게하고, 밑바닥에도 일변길이 21cm의 육각평판면을 이루었다.

각면에 두툼하게 배열된 蓮瓣사이의 모서리 각에는 間葉이 끼여 있다. 用處는 不明이나 中臺石 類의 石物이다.

全長은 67.5cm(대각선 길이는 76cm) 두께는 21cm, 層級의 높이는 1.2cm이다.

③ 八角伏蓮臺石

1964年 調査時 丁鶴鎮氏 宅에서 發見된 것으로 八角의 각면에 單葉 伏蓮坐를 한 개씩을 그리고 모서리에 間葉이 배치된 상부면에 2段層級을 준 八角平板面이 있는 臺石이다. 지금 그 위에 특이한 형상의 浮屠身이 얹혀져 있어 底面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下臺石 用途로 추정되며, 지금 얹혀진 浮屠身石과는 규격이 맞지 않는다. 전체직경 76cm, 높이는 19.5cm, 層級 높이는 1.2cm이다. 복원추정으로 이 臺石을 뒤집어 浮屠身石과 組立해본 상상도를 아래에 예시한다.

④ 半破된 圓形 蓮花臺石

거의 圓形을 하고 있는 伏蓮坐 위에 1段層級의 八角면을 갖추고 그 중앙부에 徑 18.5cm 깊이 5cm의 둥근홈이 패여져 있다.

全體徑 70.5cm 높이 25.1cm의 怪石에 연화문 彫出된 부분의 높이는 10.5cm이고 그 下半部는 거친 다듬으로 되어 下臺石임이 분명하다.

復葉을 각면에 1개씩 두툼하게 陽刻했고 그 사이 소략한 間葉이 드러나 있다.

지금 절반부분이 파손 탈락되어 있는 이 石物은 石燈등의 下臺石으로 推定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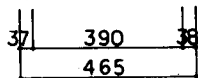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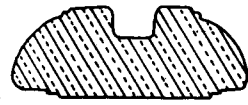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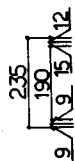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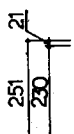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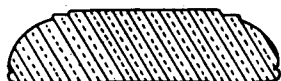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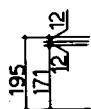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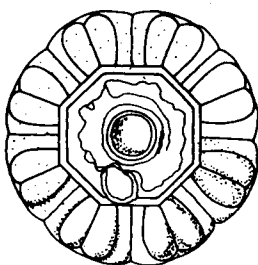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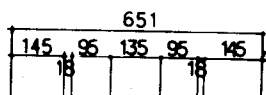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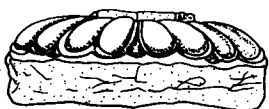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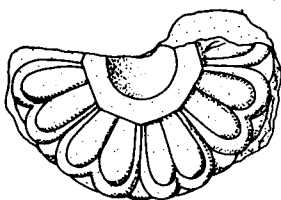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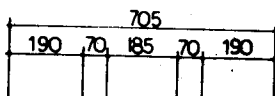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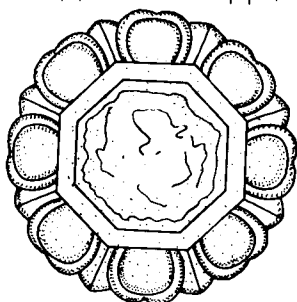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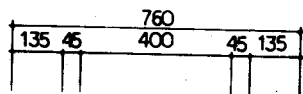


蓮花臺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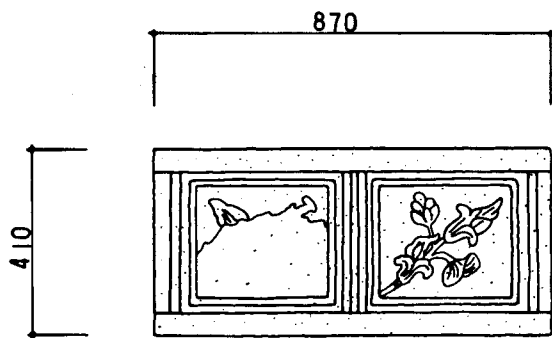


石獸形階段 소대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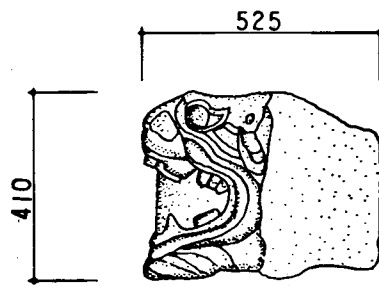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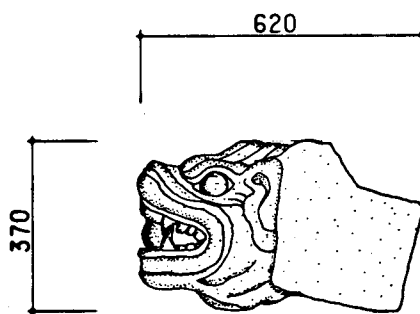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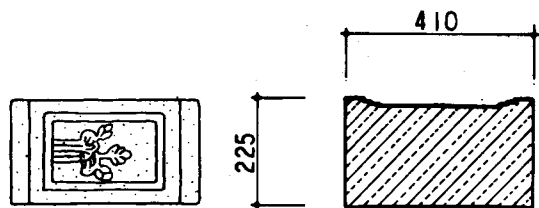




蓮花臺石



用途不明의石物



石獸形階段소대石

(7) 用途 不明의 石物

西建物址 北側 기단 甲石 위에 얹혀져 있는 石物로, 1964년 발굴당시 西院址에서 발견, 이곳에 옮겨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石物의 정확한 用途와 緣起를 알 수 없다.

이 石物의 길이는 87cm, 높이 41cm, 두께 22.5cm의 長方形 臺石인데 治裝 상태로 보아 지금 놓인 것과 같이 누워있는 형이 아니고 당초엔 세워진 형태의 石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놓인 상태로 보아 上面과 兩端 좌우 측면에 方槨을 내고 그 안에 草花紋이 彫刻되었고, 위·아래면은 조각없이 평편한 다듬이며, 배면(즉 지금 기단바닥에 접촉된 면)은 거친 다듬상태의 가공이어서 草花彫刻된 부분을 外面으로 하고 다른 시설물에 붙혀 세워졌던 일종의 臺石이 아닐가 추측된다.

평편한 外面治裝의 前面(지금 놓인 상태로는 上面)의 형상은 上·下 緣邊에 폭 5cm의 넓은 띠를 두르고 左·右端과 중앙에는 2cm 정도의 좁은 띠로 方槨을 낸후 그 內區에 2線條의 테를 액자형태로 다시 두른 안쪽에 꽃잎과 봉오리를 연상케하는 草花文을 돌을 새김해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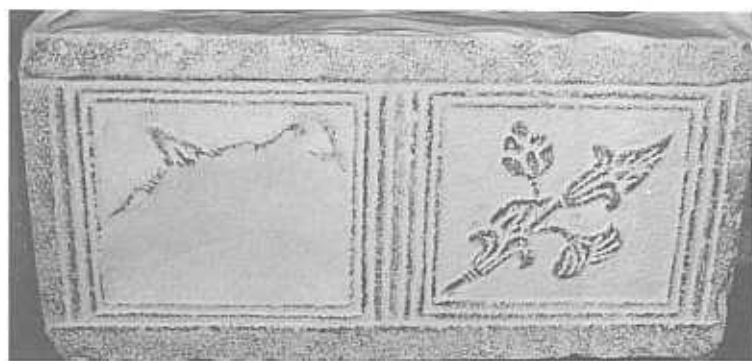
지금 왼쪽 조각면은 표면파손 탈락으로 형상이 불분명하며 파내려간 바탕의 깊이는 약 3cm이다.

左右側面도 각기 外廓 테두리를 두른 내구에 두툼한 윤기 突線으로 액을 잔후 다른 구성의 한떨기 草花文이 각기 조출되었다. 차후라도 이 石物의 用處가 밝혀지길 바란다.

(8) 石獸形 階段 소대石

지금 西建物址에 石獸形石 2개가 保存되어 있는데 그 形狀은 龍頭, 또는 거북, 혹은 猛獸 머리 형상을 하고 뒷부분은 좁은 幅으로 양볼과 上·下面 턱을 각아내서 基壇 石階등의 施設物에 축끼워 넣을 모습으로 다듬어 졌다. 특히 뒤촉부의 윗면 石獸後頭部에서는 세모꼴로 홈패여져서 그 위에 얹힐 다른돌(계단 소대석등)과 接合하

用途不明의 石臺



게 했던 모습이다.

두개의 石獸石규격(幅과 高, 뒷축등)이 서로 다르고 현재 들어난 建物基壇 및 石築의 石階흔적등과 짝마추어볼 資料가 부족하여 소대석 端部 치장인 것만은 확실하나 어느 부분 石階소대석일지 정확한 判別은 할 수 없다. 1964年 調査時 한개는 南石築 前方에서 發見되어 옮겨진 것으로 기록되었다.

8. 南石築 전면의 發見石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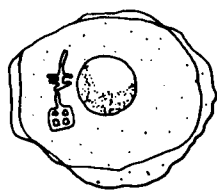
塔·碑殿址 前方 발 가운데 둔덕에서 발견된 추정 소대석 1点, 礎石 1点, 그리고 方形孔 뚫린 方形臺石 등 3개의 石物은 상당한 注目을 끌게 된다.

① 石階附設의 소대석 일부로 추정되는 石物의 두께(幅)는 39cm, 높이 72cm, 길이 132cm로 큰 돌의 上部面에 경사 折曲을 두번 꺾어 加工했다. 先端 부분의 일부만이 남겨진채 破損되어 全體의 형상을 파악할 수 없으나 內側을 제외한 보이면 3면이 정다듬으로 곱게 治石되고 豪放한 규격이라서 이 石物이 포함된 石階는 매우 장중하고 品格이 높았을듯하다. 南石築을 築造한 長大石의 육중하고 堅實한 治法과 같은 類의 造成觀을 보이는데 階段址의 幅이 226cm로 좁은 것을 보면 여기 石階에 사용된 소대석이라고 斷定할 수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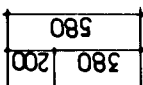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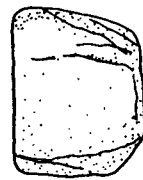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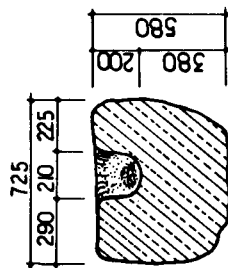
② 발둔덕에 뒤집혀 묻혀진 礎石片 1개는 곱게 다듬은 上面(礎頭)일부만을 남겨진 채 埋沒되었는데, 露出 부분에서 확인되는 조각을 보면, 半圓에 가까운 두툼한 弧형 돌기 외측으로 얇은 층급의 테두리를 한번 더 둘러 받치었고 內側으로는 하단 턱을 주어 圓柱座와 고매기 신방석 부분을 直角方向으로 同彫하였다. 柱座部 쇠시리 돌림부의 운두 높이는 3cm이고 礎石전체의 크기는 길이 113cm× 넓이 104cm× 높이 46cm 중 상당부분이 흙속에 매립되었다.

③ 같은 위치 주변 발가에 뒤집혀져 있던 方形石物은 가로 85cm, 세로 70cm, 높이 22cm의 약간 가로로 긴 長方形 臺石이다. 上面과 四方의 側面은 곱게 다듬었고 밑바닥(低便)만을 거친 흑두기 加工이며, 중앙부분에 역시 같은 外形의 方形孔 (36cm×34cm)을 1段 턱주어 貫通해 뚫려져 있다.(실측도 도면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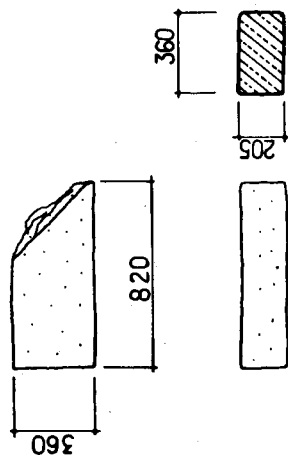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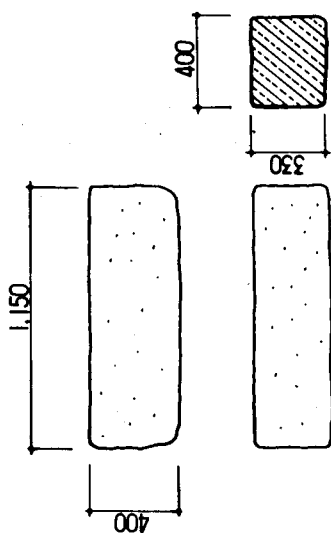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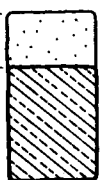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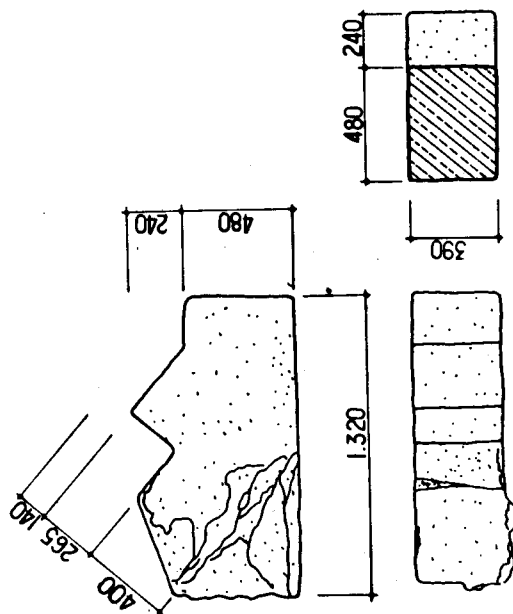
No 1.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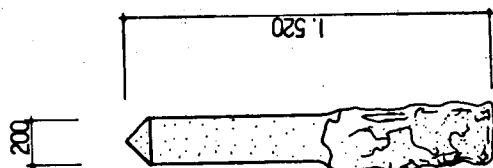
No 2.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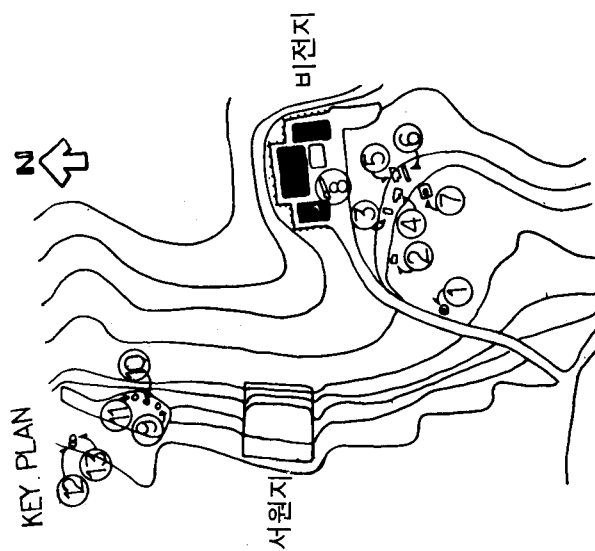
No 3.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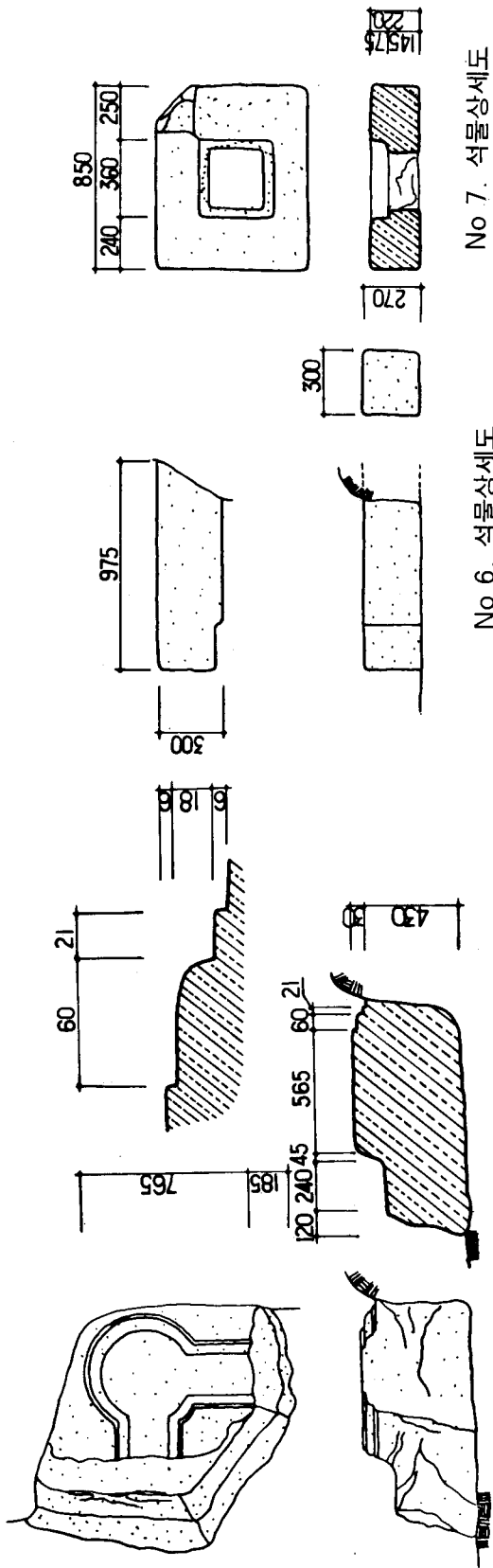
No 4. 석물상세도



No 8.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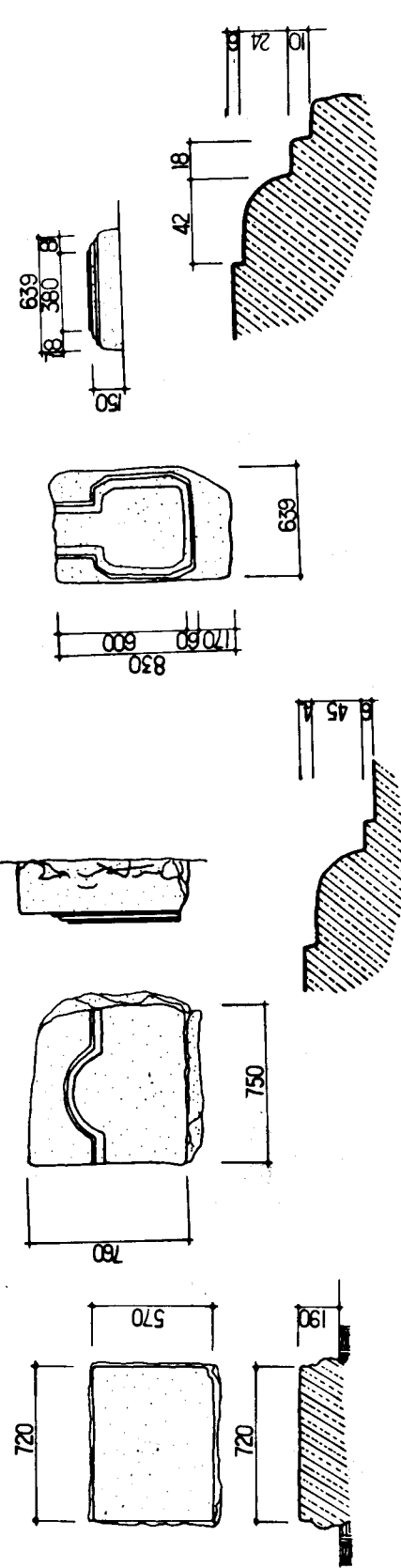
南 石 築 前 面 的 石 物



No 7. 석물상세도

No 6. 석물상세도

No 5. 석물상세도



No 11. 석물상세도

No 10. 석물상세도

No 9. 석물상세도

이 石物의 正確한 用處는 알 수 없으나 그 형상으로 보아 중앙 孔穴이 長方形 竿柱를 꽂아 세울 수 있는 施設物(露臺, 庭燎臺 등)의 下臺石이 아닐가 추정된다.

④ 南石築 西端 길옆 둔덕에 上面만을 다듬은 둥근 石物이 한덩이 있다. 直徑 72.5cm, 높이 59cm의 가름한 타원형 上面을 곱게 다듬고 그 중심에 작은 구멍(직경 21cm, 깊이 20cm)이 패여 있고 그 옆에 「甲午」라고 음각된 글씨가 새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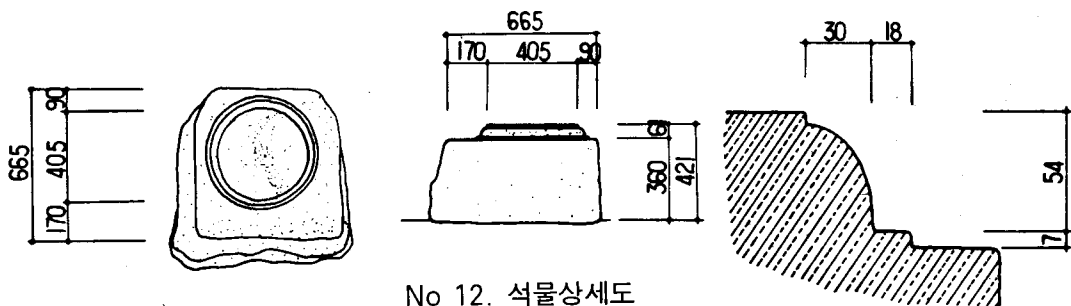
이 흙에 竿柱 꽂아 세운 地臺石인듯한데 塔·碑殿지역에 오르는 길옆에 있는 것으로 보아 聖域入口의 表門역할을 하는 石柱 또는 木柱의 支柱石이 아닐가 추측된다.

⑤ 이밖에도 南石築 前面에는 細長한 장대석 2점, 디딤돌(步石) 1점이 발견된다.

⑥ 塔·碑殿址 서편의 낮은 陵線넘어 書院址 북쪽 발가에서도 加工礎石 5 점이 더 발견되었다.

모두 方形礎盤에 2段 쇠시리 圓形柱座 갖춘것 1점, 양쪽 고매기좌와 外面만 圓柱座둔것 1점, 약간 長方形 柱座에 片面에만 고매기座 同造된것 1점이 있고, 다른 2개의 礎石은 平滑하게 上面만을 다듬은 方形礎이다.

(실측도의 ⑨, ⑩, ⑪, ⑫, ⑬번 참조)



9. 塔碑殿址의 考察

黃 義 秀

(1) 建物址의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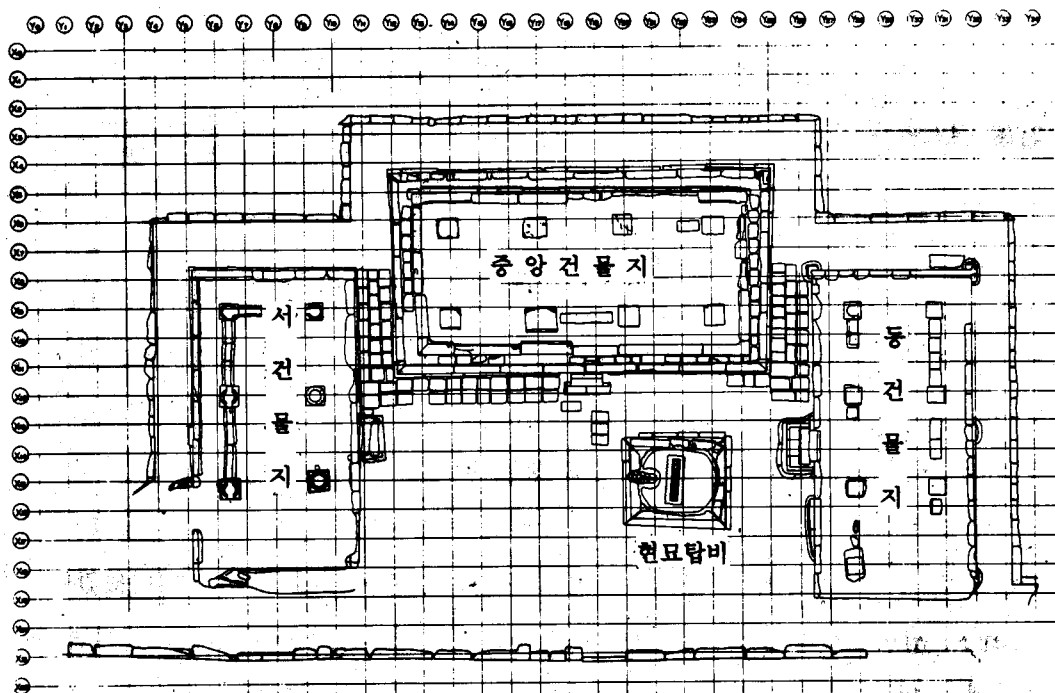
지광국사현묘탑비와 일부 건물지만이 외롭게 남아있는 이 탑비전지는 법천사의 거의 모든 유구가 멸실된 상태에서, 부분적이거나 대단히 중요한 유구이다. 현묘탑의 원 위치를 찾아내고 건물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법천사지의 전체적인 성격을 구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부도탑과 그 탑비를 모시는 별도의 구역을 마련하고 건물을 세우는 등의 장엄을 하였는데, 이러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었다. 따라서 이 탑비전지의 조영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내기도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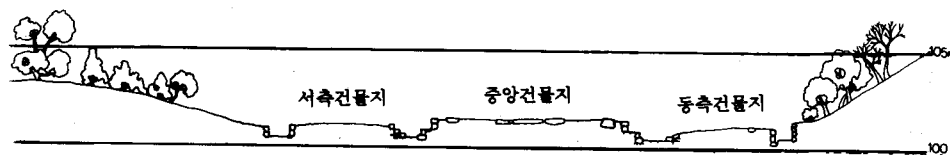
현재의 탑비전지는 1965년도에 발굴하고 그를 정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의 보고에 의하면 중앙건물지와 후면석축이 매몰된 상태였고, 퇴적된 흙을 제거한 바 중앙건물지에서 초석으로 추정되는 8개의 석재가 나타났는데 이중 1개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의 정비과정에서 나머지 7개의 석재를 정면 3간, 측면 1간으로 배열하여 건물지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 외의 부분은 대략 종전의 상태를 정리하면서 일부 발굴된 석재들을 서건물지 상단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옆뜰에 옮겨져 있는 지광국사현묘탑의 원위치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중앙건물지 전면 동쪽에 서향하고 있는 탑비와 대칭되는 위치 즉 중앙건물지의 남북중심축선을 기준으로 동, 서로 대칭되는 자리가 현묘탑의 원위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하고, 그 자리를 시굴하였으나 현묘탑의 원위치라 확정지을만한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건물지내 동단부에 깊은 구덩이가 파져 있었는데, 부락민에 의하면 일인의 도굴로 생겨난 흔적이라고 전할 뿐이다.

탑비전지는 산 기슭을 정리한 후에 전면에 일직선의 석단을 쌓은 다음 그 중앙에 계단을 내었던 것으로 보이고, 후면 및 좌우측면에 산의 경사도에 맞추어 석축을 쌓



塔·碑殿址 現況配置圖



95

碑·殿址東西間 地形 斷面圖



았는데 그 전체적인 형상은凸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세 건물지는 “ㄷ”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각 건물지 기단과 기단 사이에는 약 4척 정도의 바닥과 중앙건물지 전면일부에 판석형의 박석이 깔려 있다. 일종의 통로로 보이는 이 박석은 중앙건물지 전면에도 측면과 같은 폭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1척 정도 좁다. 전면 석단 중앙의 계단은 없어졌으나 그 부분은 임시로 보충한 관계로 다른 부분과 상이하다.

1) 中央建物址

건물지로 추정되는 3개소 중 중앙부에 남향하고 있으며, 2층의 석재기단을 가지고 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잘 가공된 석재기단은 이곳이 신성한 곳이며, 중요한 조영물이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지광국사의 제자들이 그들의 훌륭한 스승을 모시는데 정성을 다하였을 것은 틀림이 없다.

기단은 화강석의 2층 기단이다. 지대석을 지면보다 약간 높게 깔고 그 위에 하층기단을 올렸다. 하층기단은 갑석, 면석, 저석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한돌에 동조하였고, 상층기단은 하층기단 외단(外端)에서 약 2척정도 안드려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면석과 갑석을 올렸는데, 하층과는 달리 면석과 갑석을 한돌로 하지 않았다. 상층기단과 하층기단 사이에는 판석을 한줄로 깔고 있는데 전면과 좌우측면에만 남아 있고, 후면에는 결실 되었는지 보이지 않는다.

정면 중앙에 계단을 내고 있으나, 디딤돌 2개만 남아 있을뿐 기타 부속재는 보이지 않는데 디딤돌도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또한 계단이 설치되려면 기단과 맞닿는 부분에 소맷돌을 끼울 수 있는 홈등이 있게 마련인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서 당초부터 계단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기단석의 가공은 일반 건물지에서는 보기드문 형태로 상당히 정교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하층기단은 면석의 상하에 쇠시리를 두고 있는데, 아래쪽은 도드라진 1/4 원으로 윗쪽은 반대로 안으로 육은 곡선이다. 상층기단은 면석의 상하에 쇠시리를 표현한 것은 하층기단과 같으나 형태가 약간 다르다. 아래쪽은 2단으로 하였는데 직각으로 쇠시리한 것이나 상단의 모를 따낸 정도는 3cm 내외이다. 그 위의 갑석은

하단부에 안으로 육은 1/4 원의 쇠시리를 내는 정도인데, 쇠시리의 내단이 면석의 상단 모를 따낸 내단과 일치시키고 있다. 다만 갑석의 쇠시리 바로 윗쪽에 아주 작은 1단의 직각형 쇠시리가 첨가되어서 전체적으로 섬세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그리고 상층기단의 면석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탕주를 표현하고 있다. 탕주의 좌우로는 세줄씩의 쇠시리를 하면서 차츰 안으로 파고들어 갔는데, 제일 깊게 파여들어간 면이 면석 상단의 모를 탄 쇠시리의 내단면과 일치하고 있다. 탕주 좌우의 쇠시리는 모서리부분만 살짝 굴절러 모죽임을 한 것이 주름을 잡은 것 처럼 보인다. 전체적으로 탕주를 세운 그 사이에 도드라진 면석이 배열된 모습인데 북측면에는 아무런 조식을 하지 않았다.

상 하층의 갑석중 네 모서리 부분은 “ㄱ”자형의 석재를 사용하였는데 모서리에서 45도 각도로 모를 세우고 있어서 석탑의 기단에서 느낄 수 있는 섬세함도 있다.

발굴당시 본래 초석간의 거리는 알 수가 없었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초석을 중심으로 간수를 맞춰 배열하였다고 한다. 초석의 모습들은 모두 방형이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초석만 장방형이고 나머지는 거의 정방형이다. 그러나 서건물지의 초석들이 연화문으로 장식된 훌륭한 것에 비하여 아무런 장식이 없는 육면체로 주좌의 표현도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면 중앙간 초석사이에 신방석으로 추정되는 장대석이 놓여 있는데 그 정확한 용도는 알 수가 없다.

2) 東建物址

건물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초석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추정된다.

기단은 화강석을 가공하여 축조하였는데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2단의 면석을 쌓은 다음 갑석을 덮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건물지의 기단에서 처럼 쇠시리를 하거나 탕주를 모각하는 등의 장식적인 것은 전혀 없는 소박한 기단이다. 특이한 것은 기단 네 모서리 지대석의 밑을 받치고 있는 석재가 있는 점이다. 초석형의 석재를 1개 또는 2개 깔고 그 위에 지대석을 놓았는데 이러한 기초공법이 일반적인 것이 아

니어서 주목된다. 남쪽 부분이 훼손되어 초석 2개를 비롯하여 남측면 기단석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전면 중앙부에 階段지대석과 디딤돌 1개만 남아 있다. 지대석은 모두 3개의 석재로 이루어 졌는데, 디딤돌이 놓이는 부분을 약간 파낸 형상으로 그 정도가 약하여 선각을 한듯하다. 그 이외의 부재는 결실되어 계단의 원래 모습은 알 수가 없다.

초석은 거의 정방형으로 대부분 제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서남쪽 모서리의 1개가 기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었고, 동남쪽 모서리의 1개가 결실되었을 뿐 그 나머지 6 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초석의 가공상태는 서북쪽의 1개에만 원형의 주좌가 표현되었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그리고 전면과 후면 일부에 고막이로 추정되는 석재가 초석간에 일열로 남아있는데 그 폭이 약 40cm 정도로 넓은 편이고 높이도 낮아서 고막이라기 보다는 고막이의 받침돌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1965년도 발굴당시에는 이를 신방석으로 추정하였으나 출입문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여 고막이와 연관된 석재로 추정하고 싶다.

3) 西建物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 東건물지와 대칭되는 위치에서 서로 마주 바라보는 형상이다. 다른 건물지에 비하여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특히 초석은 그 다듬어 놓은 솜씨가 뛰어나서 이곳 탐비전지 전체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다고 하여도 좋을 정도이다.

기단은 東건물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축조되었는데 상단의 갑석부재가 더 많이 남아 있다. 갑석의 윗면은 일정한 폭으로 정다듬하고 그 안쪽으로 턱을 내렸는데, 턱의 높이가 대략 3 cm정도로 일정하여 기단의 바닥을 전돌로 깔기에는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東건물지와 마찬가지로 남쪽 부분의 훼손이 심하다.

계단은 東건물지와 비슷하다. 지대석과 디딤돌 2개가 남아 있는데 상단의 디딤돌은 안쪽에 턱이 있어서 원래부터 디딤돌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지대석의 윗면에는 東건물지와 비슷하게 홈이 파여 있으나 전면으로는 파여 있지 않고 양 측면에만 파여

있어서 소맷돌을 놓았던 자리로 보인다. 그리고 계단부의 상단 갑석에도 소맷돌이 끼일 수 있는 홈이 파여 있어서 소맷돌이 존재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나 어디로 유출되었는지 보이지 않는다.

초석은 중앙건물지나, 東건물지의 초석과는 달리 원형주좌의 둘레를 연화문으로 장식한 중심부 4개의 초석과, 원형주좌만을 표현한 복측의 2개 등 모두 6개가 남아 있다. 남쪽 부분의 2개는 결실된 상태이나 원래는 복측의 초석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부 후면의 초석과 복측의 초석 4개에는 고막이가 同造되어 있으나 전면 중심부의 초석 2개에는 주좌와 연화문이 완벽하게 돌려있다. 따라서 고막이가 없는 초석은 그 위에 기둥만 세웠을 뿐 벽체가 연결되지 않았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건물은 남, 서, 북 3면을 벽으로 막고 전면을 개방한 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연화문을 장식한 4개의 초석은 주좌 및 쇠시리의 운두를 아주 낮게 하면서도 깔끔하게 조각하여서 통일신라시대의 초석을 연상하게 하는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고막이들은 東건물지와 비스하나凸형으로 한 점이 다르다. 상단부의 폭이 초석의 고막이 폭과 같이 하였다.

(2) 塔碑殿址의 原形探索

지광국사 현묘탑의 원위치가 확인되지 못한 상태여서 전체적인 원형의 탐색에 많은 지장이 되고 있다. 만약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탑비와 대칭되는 위치에 현묘탑이 있었다면 세 건물이 이루는 내정에 탑과 탑비가 나란히 마주 바라보는 형상으로, 현 상황하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묘탑의 원위치라고 추정한 자리를 발굴한 결과 아무런 근거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정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현묘탑이 이 탑비전지를 벗어나 별도로 세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사지 및 부근 일대를 조사하였으나 이렇다 할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1965년 발굴 당시에도 古老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묘탑이 이곳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단정하기에는 미흡하였고, 일반적으로 부도탑과 탑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여서 주변을 조사한 것이다.

중앙건물지를 제외하고 동, 서의 건물지는 기단과 초석의 상태로 보아, 분명한 건물지는 東物建址는 사방을 벽으로 막고 전면 중앙에 출입구를 두었을 것으로 보이고, 서건물지는 남, 서 북의 삼면을 벽으로 막고 전면을 개방한 형태의 건물로서 중심부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의식을 위한 예비공간의 성격으로 추정된다.

중심부에 2층의 기단을 갖춘 장방형의 중앙건물지는 상단에 노출된 초석으로 인하여 일단 건물지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물이어야 할 이곳에 쓰인 초석이 서건물지에 비하여 격이 떨어지고, 전면 중앙의 계단이 당초부터 있었다고 할만한 구조가 보이지 않는 등 꼭 건물지라고 단언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다.

또한 이 건물지에 세워진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도 몇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지광국사의 영정이나 초상등을 모신 조사당과 같은 성격으로 추정한다면, 현묘탑과 탑비까지 모두 한 구역에 집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비슷한 의미의 조영물들이 중복되어 있게 된다. 다음으로 재와 같은 의식을 위한 건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현묘탑의 후면이 아닌 전면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역시 부적합하다. 결국 이곳이 건물지가 아닌 다른 성격의 조영물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존하는 초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가 문제로 남게 되는데, 현재의 초석이 아주 소박하여서 기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훌륭한 초석을 가진 西建物址보다 격이 낮은 건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건물을 세운 것은 훨씬 후대에 법천사와는 관계없이 다른 목적하에서 지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물지가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몇가지 경우를 설정하여 보면,

- 1) 기단을 통도사의 금강계단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2) 기단상에 현묘탑과 탑비를 같이 세웠을 경우.

등을 가정하여 볼 수 있다. 각각의 경우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① 基壇을 通度寺의 金剛戒壇과 같은 用途로 使用하였을 境遇

현재 西建物址 위에 있는 석재들 중에 그 用途가 분명치 않으나 조각이 화려한 것들이 몇개 있어서 이들을 戒壇에 사용된 부재의 일부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기단에는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없으며 기단 전면과 양측면 중심부까지 깔려있는 박석통로를 의식을 진행할 때 승려들이 도열하는 시설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탑비는 현 위치로, 현묘탑은 탑비와 대칭되는 위치로 보고, 그 이외에는 현상태와 같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다만 계단의 형태가 장방형인 점과, 부도탑과 탑비를 계단과 한 구역에 세울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② 基壇上에 玄妙塔과 塔碑를 같이 세웠을 境遇.

이 경우는 탑비의 위치가 현재의 위치와 달라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탑비가 꼭 원위치를 지키고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다. 그것은 비신의 전면 상단부에 새겨져 있는 日月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비신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 상단에는 圓안에 다리가 셋 달린 새가 그려져 있다. 이는 三足鳥로 해를 상징한다. 반대로 왼쪽에는 圓안에 토끼와 계수나무가 그려져 있어서 달을 상징하고 있다. 이와같이 해와 달을 상징하는 그림들은 일반적으로 해는 동쪽에 달은 서쪽에 표현된다. 그렇다면 이 탑비가 지금과 같이 서향한 것이 아니라 남향을 하고 있어야 그 방향이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제위치를 벗어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립 중앙박물관 서측에 옮겨져 있는 현묘탑의 기단 네 모서리에는 사방으로 뻗은 특수형의 석재가 있다. 네모서리에서 탑의 중심부를 향한 이 부재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네마리의 용이 탑의 기단을 물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자세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는 현묘탑 자체가 방형이라는 특수함과 아울러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인데, 기단의 바깥쪽에 또 다른 기단이 있을 수 있어서 중앙건물 지위에 현묘탑을 올려놓아도 좋을 형상이다.

중앙건물지는 상층기단의 정면과 측면이 2:1의 비례를 가지고 있어서 현묘탑과 탑비를 다 같이 남향하여 세웠을 가능성을 찾아 본 것이다.

문제점은 단상의 탐과 탐비를 단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상당한 규모의 탐과 탐비를 움직이는 일이 용이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단상에 집을 짓기 위한 목적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면 불가능 하였으란 점이다.

또 세개의 건물지는 그 규모가 거의 같다. 중앙에 세운것이 건물이라면 전면 좌우의 건물보다는 어느정도 규모를 크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중앙에 세운 것이 건물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상태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를 분석하여 볼 수 밖에 없다.

탐비전지의 전체적인 모습은凸형을 이루고 있다.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사용된 척도를 확인하여야 되는데 기단 일부만 남아 있고 그나마 상당히 교란되어 있어서 용척을 찾아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최대한 찾아내어 산출하여 본 바 약 295mm 정도가 1척으로 나타나고 있다.

295mm를 한자로 하여 각부의 거리를 측정하여 본 결과 대부분 완수로 되기에 이를 토대로 당시의 조영의지를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한다.

IV. 幢竿支柱

법천사지 사역의 동남쪽 가장자리 평탄지에 당간지주가 있다.

주변일대가 오랫동안 경작지로 활용되어온 까닭에 본래의 지표에서 상당한 깊이로 삭토된듯 약 1미터 높이의 잡석 석축위에 양 지주석과 간대석만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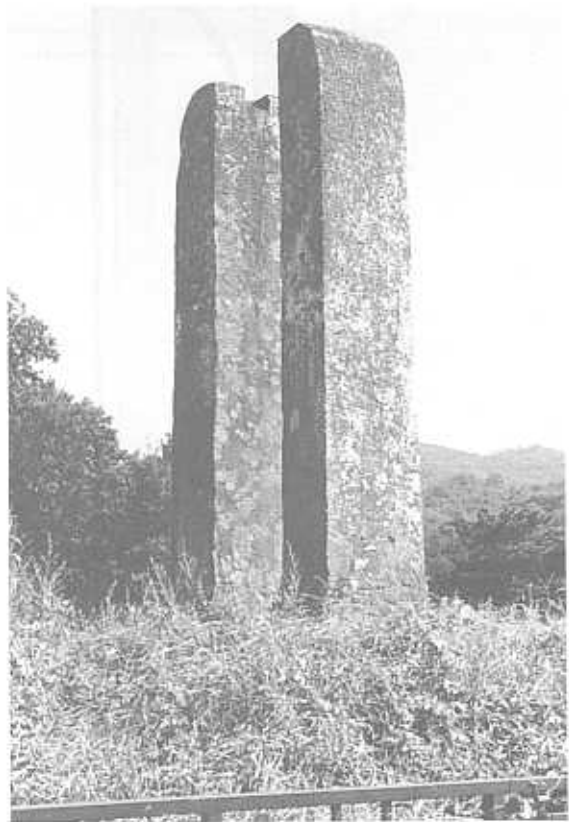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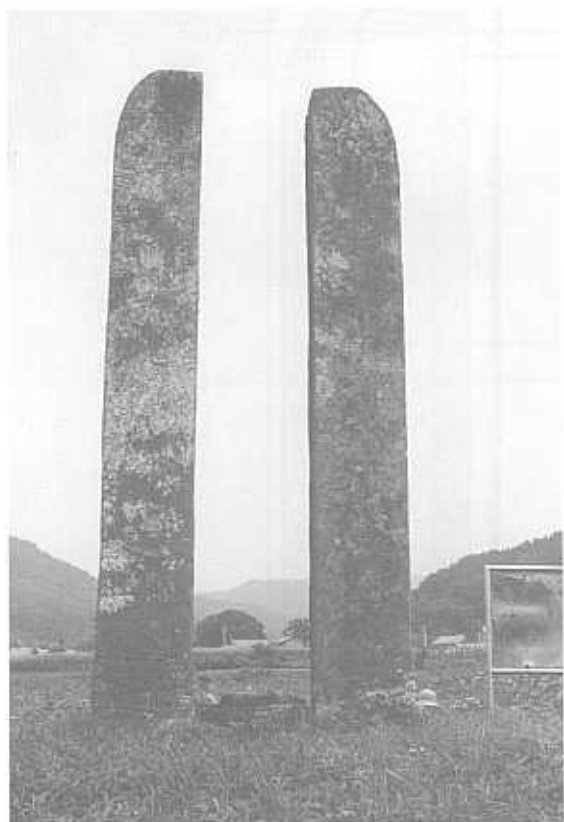
원래 이 당간지주 옆으로 사찰에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밭이 둘러싸였고 그 가장자리에서 개울 건너로 이어진 소로길이 옛출입로 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당간지주는 통상적인 형태로 양 지주석이 동서로 상대하여 가운데에 간주를 세웠던 형상인데 간주와 기단부분이 훼손된채 지주 뿌리부분과 간대석이 바로 흙속에 묻혀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지주의 형상은 지주 외면상에 별다른 치장없이 치석되고 양지주의 정상부 외측에 둥그런 원호로 굴글리고 상면은 중앙에만 폭 25cm, 길이 18cm, 높이15cm의 턱을 파내었을뿐 사면과 상면을 거의 평활한 수직, 수평면으로 가공 직립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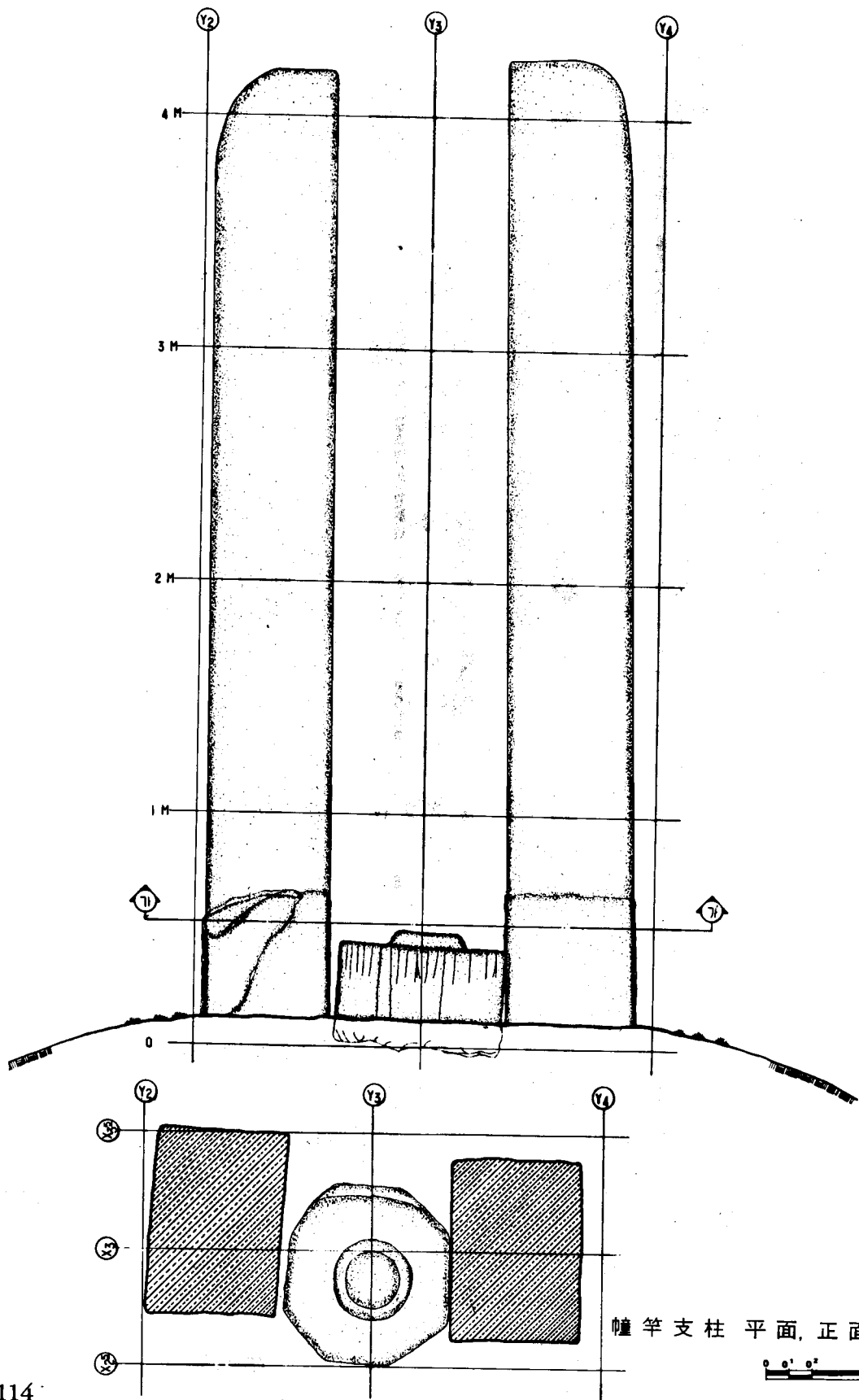
지주석의 규격은 동서 570mm, 남북 780mm, 지표상의 높이는 4,160mm이고 양지주석 간의 거리는 하부에서 765mm, 상부에서 740mm로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동서간 중심축선(x3)상에서 볼때 북쪽의 지주가 110mm가량 뒤로 밀려져 있다.

간대석은 팔각면체로 하여 상면 중앙에 원형 돌대축을 동조 간주를 받게 하였는데 간대직경은 730mm, 지표상 높이는 330mm, 돌대폭 직경은 330mm, 높이는 60mm이다. 당간지주 표면이 풍화로 마모되었고 지주석 하부에 약간 균열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법천사 가람의 경역범위를 추찰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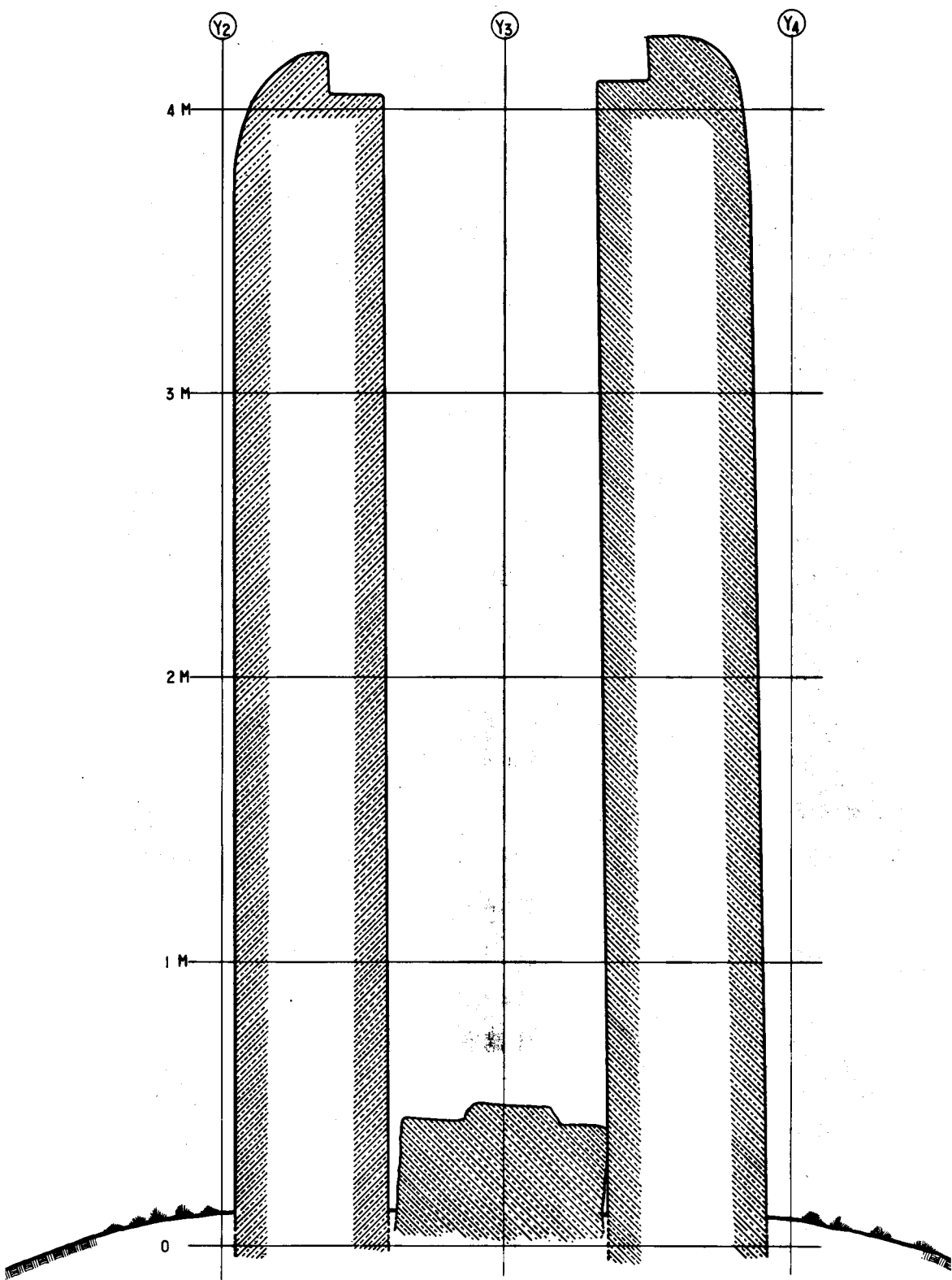


幢竿支柱





幢竿支柱 平面, 正面圖



帷竿支柱斷面圖



V. 書院터

智光國師 玄妙塔碑殿址의 西北쪽 작은 능선 넘어 民家사이에 있는 一團의 建物址가 講堂址 또는 書院터라 부르는 옛터이다. 前面에 있는 建物터는 「講堂址」라 지칭되고 발을 건너 산 기슭에 자리잡은 建物址가 書院 또는 祠堂터 인데 講堂터에는 解放後까지 볼품없는 건물이 存續되어 있었고 祠堂자리는 훼손된지 오래되어 建物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두 建物址는 富論邑內에서 法泉里 서원마을로 진입하는 현재의 新作路길로 들어서면 마을 入口 정자나무 부근의 나연숙氏宅과 정해운氏宅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콩크리트 포장로의 길옆에 바로 連接되어 교란된 石築위에 덩수룩한 石材덩이 뒤로 정교한 礎石列이 있는 講堂터는 祠堂터와는 발을 사이에 두고 따로 떨어진 臺地라 별개의 建物址로 추정되기도 한다.

祠堂터는 보다 정제된 平坦臺址 위에 正面 3間 側面 2間の 建物礎石과 基壇, 그리고 그 외곽을 둘러쌓은 담장터 흔적이 있으며 그 前面에 石築과 石階 및 門시설을 했던것 같은 石材들이 교란된 상태로 남아 있다. 대체로 朝鮮時代 中期以後에 造成된듯한 이 두 建物址가 同一時代에 함께 存在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옛 法泉寺의 加工礎石들을 옮겨 사용한 講堂址와는 다르게 祠堂建物址의 礎石, 基壇 石등은 朝鮮時代의 治法이 두드러진다. 住民들의 傳言으로는 朝鮮時代에 (17세기 말) 이 마을에 居住하며 後進養成과 農業에 從事한 性理學者 丁時翰 (1625-1707)이 講說하던 講堂이라 했으며 그 수하에서 講學한 후학들이 후일에 그를 추모하여 廣岩祠를 세웠다 한것을 보면 위의 祠堂터가 그 建物址인듯하다. 丁時翰은 理論에 매우 밝은 儒生이었으나 官街生活은 잠시로 끝내고 鄉里에 내려와 講學에만 열중한 性理學者로서 그의 理論은 후일 丁若鏞, 李瀾 등 實學者들에게 큰 影響을 주었다 한다.

1. 講堂址

講堂터는 前面의 臺地邊을 각아 마을 進入路로 開設하는 일로 前端部가 切開된채 자연석 허튼층의 石築面을 보이고 背面과 南側石築은 加工長臺石으로 견실하게 築造한 모습이 남겨져 있다. (남아있는 長臺石의 규격은 큰것은 長165cm, 高43cm 厚 30cm로부터 작은 것은 길이 73cm×높이 20cm×厚27cm의 것이 섞여 있다)

臺地形狀이 다소 일그러져 不規則하긴 하지만 원래는 거의 正方形 형상을 갖춘듯하고 臺上 후면 (東)쪽으로 치우쳐 正面 3間, 側面 1間の 南北으로 길게 뻗은 長方形建物を 추정할 수 있도록 礎石 8개가 2列로 배치되어 있다.

礎石 8개는 그 놓인 礎頭 LEVEL이 거의 水平을 이루고 있으나 그 형상과 규격이 모두 달라 他處에서 移動된 것임을 直感할 수 있다. 礎石 중 1개는 前記한 塔碑殿 西建物址에 있는 麗代 蓮化紋을 彫刻한 것과 같은 형의 礎石으로 內側을 向한 한방향에 고매坐가 同彫되어 있고, 3개는 弧形쇠시리(돌림띠) 상하에 礎盤과 柱座를 구획한 圓形礎石이다.

이 圓柱座 礎石도 서로 크기는 다르나 2개는 直角 2方向 고매기坐 부설 동조되고, 다른 한개는 隅角外面에만 층급둔 쇠시리 있는 礎石인데 表面 파손 마모가 심하다.

나머지 礎石들은 方形平板礎頭의 것 2개와 礎盤部分 없이 높은 圓形운두같은 礎石 1개, 그리고 方形屋蓋石을 뒤집어 놓은듯한 것 한개이다.

礎石 규격 형상뿐 아니라 고매기坐가 향한 방향들이 무질서하여 현 礎石배열 상태로는 建物 平面간살이와 性格등을 파악하기 困難하고 후일에 무작위하게 옮겨다 사용한 것으로 判斷케 된다.

臺地형상과 石築의 殘存상태로 보아서도 빼들고 일그러진 角度로 매우 不均衡하게 礎石이 놓여 현재의 석축이 建物の 基壇으로 생각하기에는 適合하지 않다.

즉 背面 礎石列(X2)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볼때 背面기단의 幅은 1.34m(Y10)로부터 1.180m(Y43列)로 斜角이고, 南側面기단은 2.09m(X2列)로부터 1.86m(X6列) 北側기단선은 1.34m(X6)의 거리로 측정된다.

또 建物前面에는 보다 넓은 臺地面적이 확보되어, 前面列(X6축선)을 기준해서 그 전면 先端기단선은 3.4m(Y10)에서 3.15m(Y4)까지 측정된다.

이렇게 넓은 前面臺上에 또 한줄의 礎石列이 있어 前退間 또는 側面 2間을 構成했을 礎石列이 밝혀지지 않았고 수북히 쌓인 加工石(장대석 또는 半加工石)더미가 있어 더 이상의 確認이 불가능하다.

잘 남겨진 背面長臺石築도 하부의 한段뿐, 상단石은 流失되고 南側面에 2段石築한 장대석축 일부에 自然石 허튼층으로 혼축되어 있다. 周邊地表面으로 부터 臺地바닥의 높이는 前面125cm, 背面65cm 南側110cm, 北側 98cm로 균일하지 않으며 특히 北側基壇石築과 前面北西隅部에는 심히 교란, 변형되어 講堂址의 原狀探索에 어려움이 있다.

講堂址 實側値와 圖面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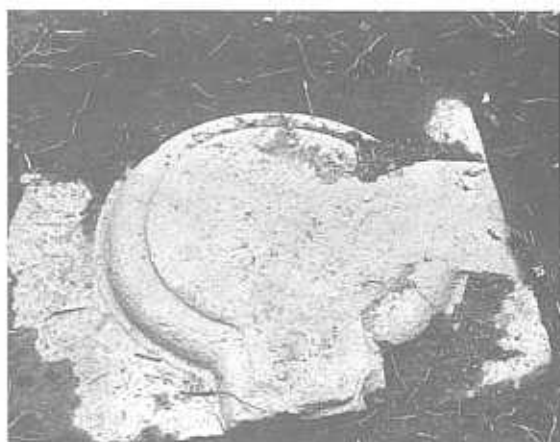
正背面柱間 및 기단 넓이 측정치					
	기단넓이	北夾間	中央間	南夾間	기단넓이
前面(X6)		1,540	2,180	1,470	2,090
背面(X2)	1,540	1,560	2,360	1,480	1,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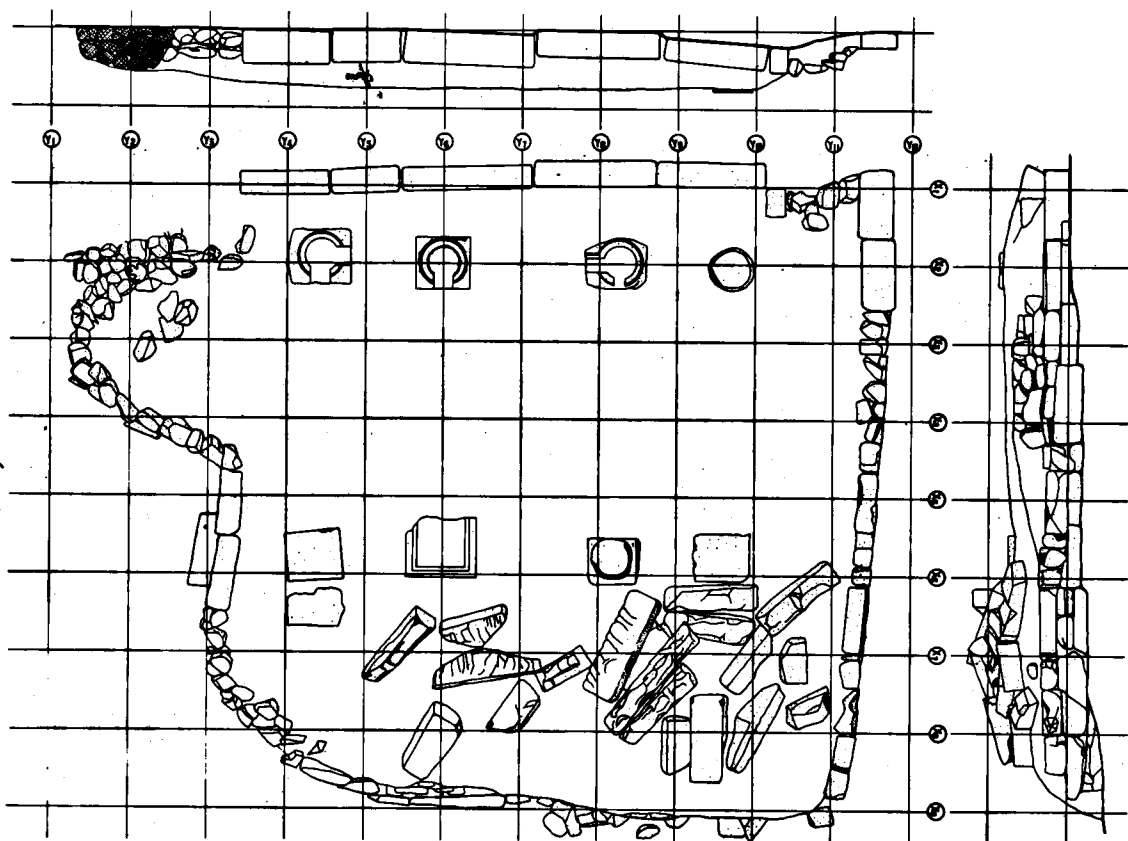
側面柱間 및 기단 넓이 측정치			
	기단幅(前面)	柱 間	기단幅(後面)
北 側(Y4)	2,740	3,740	1.18
御間北(Y6)	3,150	3,680	
” 南(Y8)	3,400	3,760	1.33
南 側(Y10)	3,570	3,740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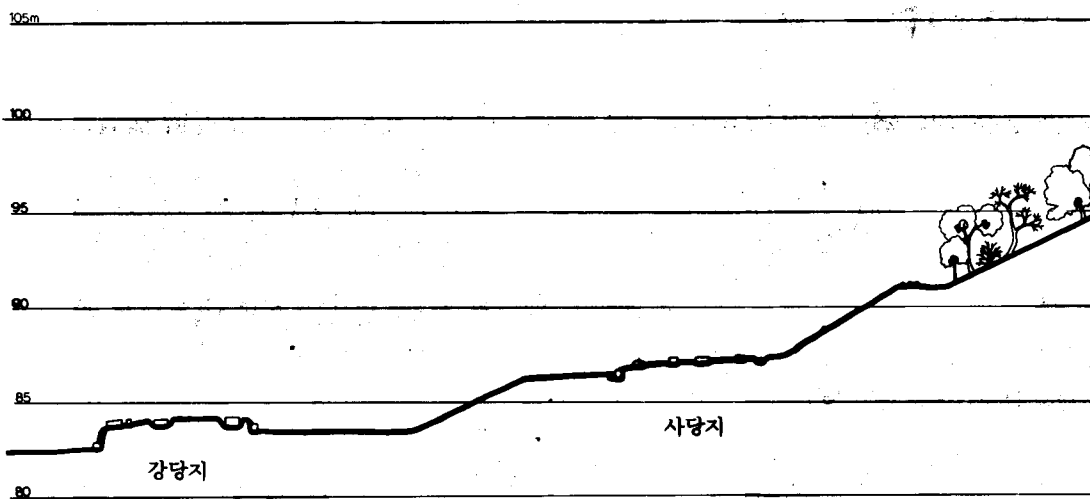
講堂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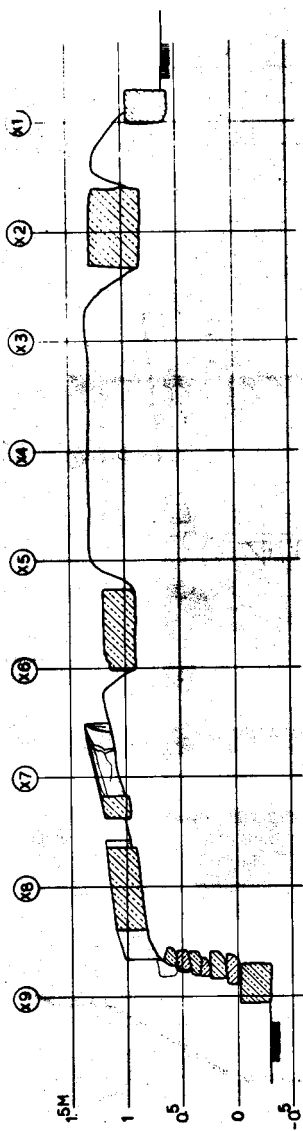


講堂址 平面 및 立面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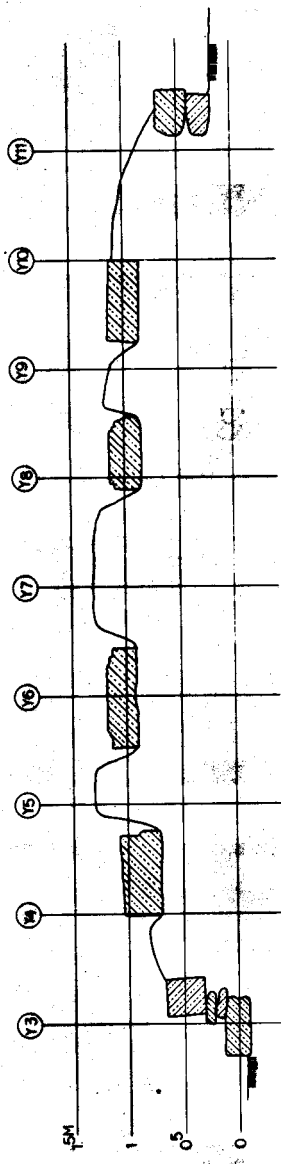


書院址 縱斷面(講堂~祠堂址間)

A-A 단면도



B-B 단면도



講堂址斷面圖



2. 祠堂址

講堂뒷편의 채전 건너 東便산 기슭을 깎아 平土된 터전에 書院, 祠堂자리를 잡은 遺構一圓이 잘 남아있다.

講堂 背面기단선으로부터 880cm 떨어진 발가에서 시작된 둔덕 初入에 一段築한 石築列이 보이고, 그위로 480cm 가량 더 들어선 평탄부지에 祠堂建物址, 그리고 그 左右便으로 담장을 둘러싼 隆起된 흔적이 이어져 祠堂背面 경사둔덕위로 연결되었다. 背面담장이 있는 경사둔덕 중간 위치에는 또 한列의 石築線이 보여 背山境域의 地形 처리를 위한 흔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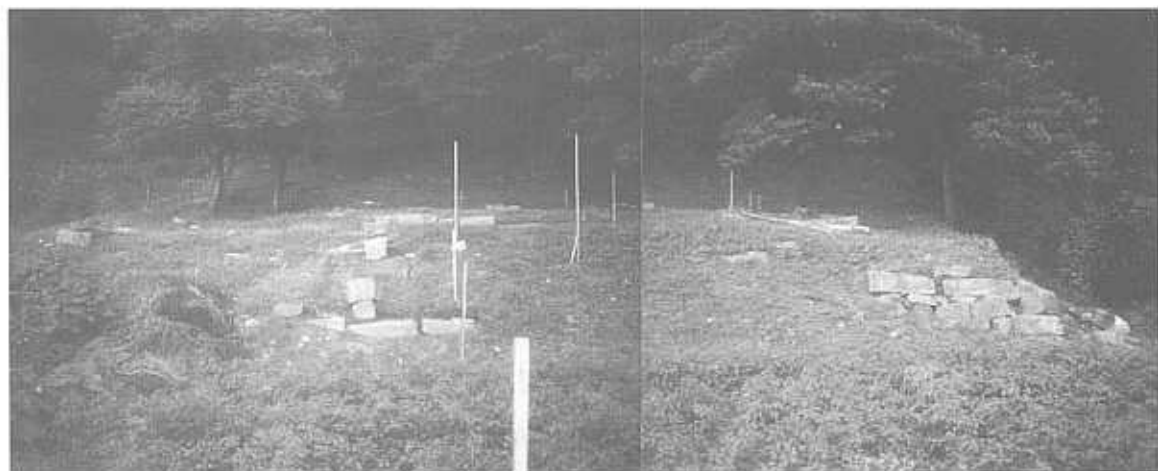
前面初入의 石築은 祠堂앞을 臺地造成을 위한 것인데 中央部分에는 一段列만이 남은채 流失되고 주위에 교란된 石列이 일부남아 이곳에 부설되었을 石階나 門址(內三門등)의 모습은 파악하기 어렵고 南端部에 대충 다듬은 마름돌 4段築이 남은 위에 覆土된것을 보면 이 石築의 높이는 150cm에 이를것으로 판단된다.

祠堂建物 基壇으로부터 全面石築까지의 거리는 570cm, 南北兩側面の 담장址까지는 420cm, 背面담장址까지는 760cm가 되어 담장 內郭 사당경역의 면적은 약 440㎡(133평)이다.

祠堂建物은 前退칸을 둔 正面 3間, 側面 2間으로 劃定되는 礎石배열인데, 兩側面 壁線중간(X5-X4 축선사이)에도 礎石이라 간주하기엔 不均衡, 不定形화된 石物이 하나씩 더 있다.

外邊柱列 礎石은 대체로 제위치를 지키고 있으나 內部기둥 列은 흐트러져 있고 背面 南夾間 일부에 고맥이 돌이 남아있다. 前面列 礎石은 가로 세로 600mm내외의 正方形 平板 礎盤에 낮은 굽(높이 4 cm)의 圓形柱座(經 42cm內外)를 돌을 새김하였고 나머지 礎石들은 횡방향이 약간 긴 長方形 平板面을 갖은 礎石이다. 前面 南隅柱礎는 圓柱座대신 正方形 네귀를 모접은 형태의 柱座를 갖고 있다.

斷面上으로 보면 前面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地表에 따라 前面 礎石列(Y13기준)의 礎頭 LEVEL이 背面 礎頭보다 27cm가량 낮다. 橫斷面圖에 보인 內柱列(X6)은 御間 礎石을 기준하여 兩側面柱礎가 약 10cm가량 쳐져있다. 각 礎石의 규격과 柱間



祠堂址 全景



祠堂址의 基壇
階段부분



祠堂址 基壇과 礎石



祠堂址 前面石梁및
段階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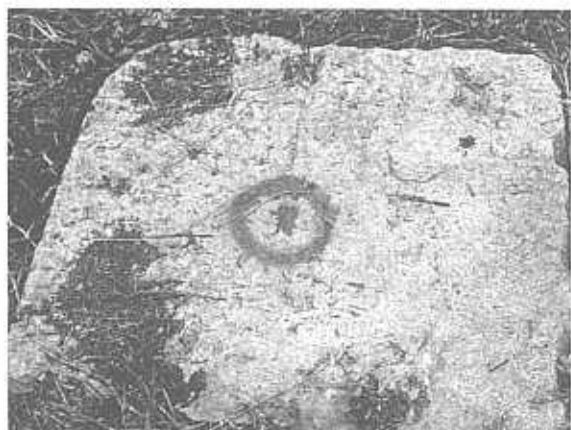




祠堂址 礎石들



(강당지 초석)



礎 石 實 測 値

단위 mm

⑨	⑩	⑪	⑫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가로길이	세로길이	柱座徑	柱座높이
1	560	500	420	
2	600	620	410	
3	630	620	410	
4	680	570	320	
5	490	430	平板面	
6	540	440	"	
7	530	450	"	
8	550	460	"	
9	590	550	"	
10	600	440	"	
11	500	430	"	
12	500	440	"	

柱 間 實 測 値 및 기 단 넓 이

단위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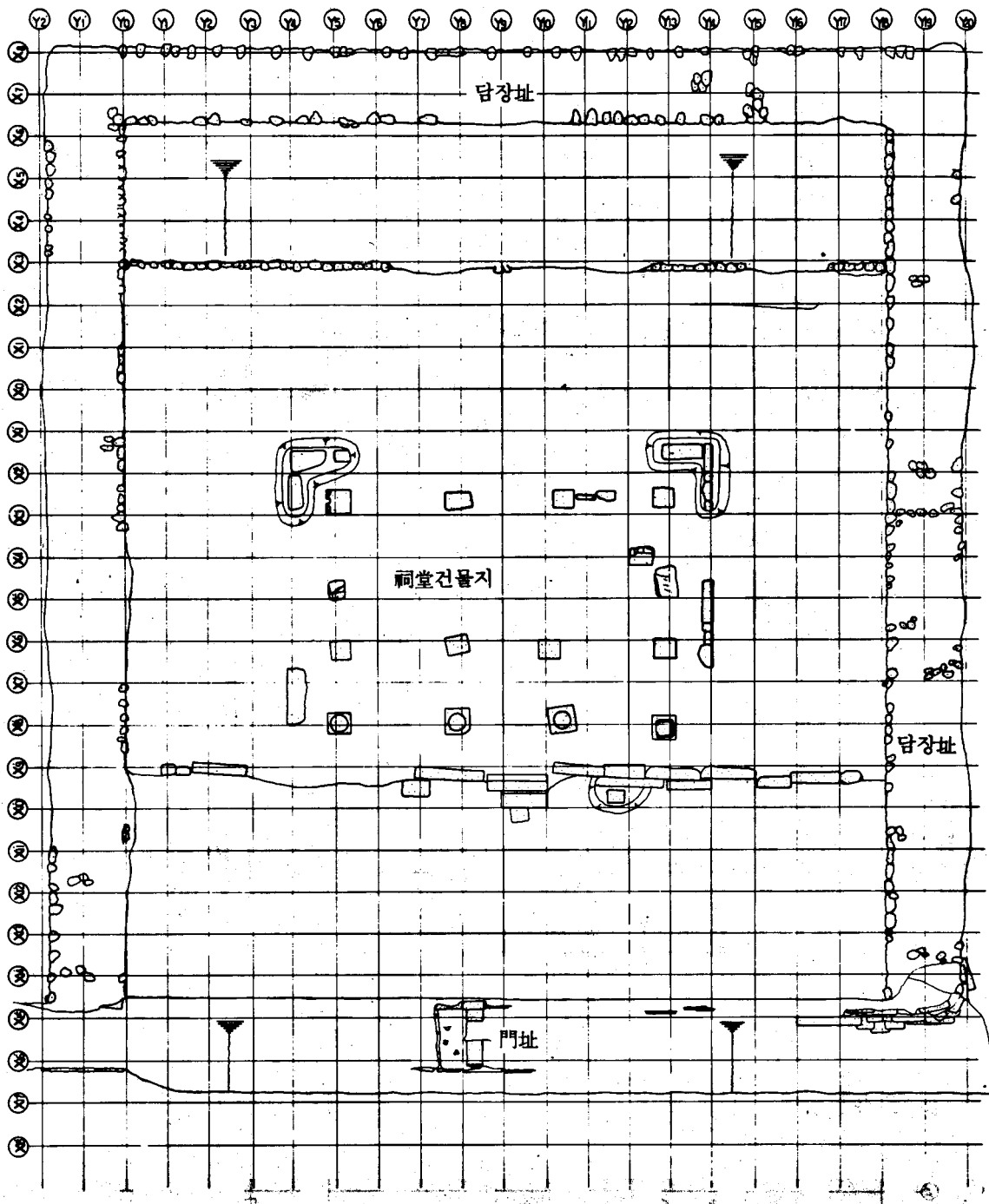
	기단넓이	柱 間			기단넓이
		北夾間	御間	南夾間	
前面列(X8)	1,240	2,830	2,520	2,480	
內柱列(X6)		2,820	2,180	2,840	1,140
背面列(X3)	1,180	2,830	2,580	2,430	1,140
	전단넓이	前退	內間	배면기단넓이	
北側列(Y5)	교란됨	1,760	3,600	1,170	
御間北(Y8)	1,370	1,820	3,510	매몰됨	
御間南(Y10)	교란됨	1,740	3,550	"	
南側列(Y13)	1,440	1,920	3,530	1,300	

實側値는 아래와 같다.

- 基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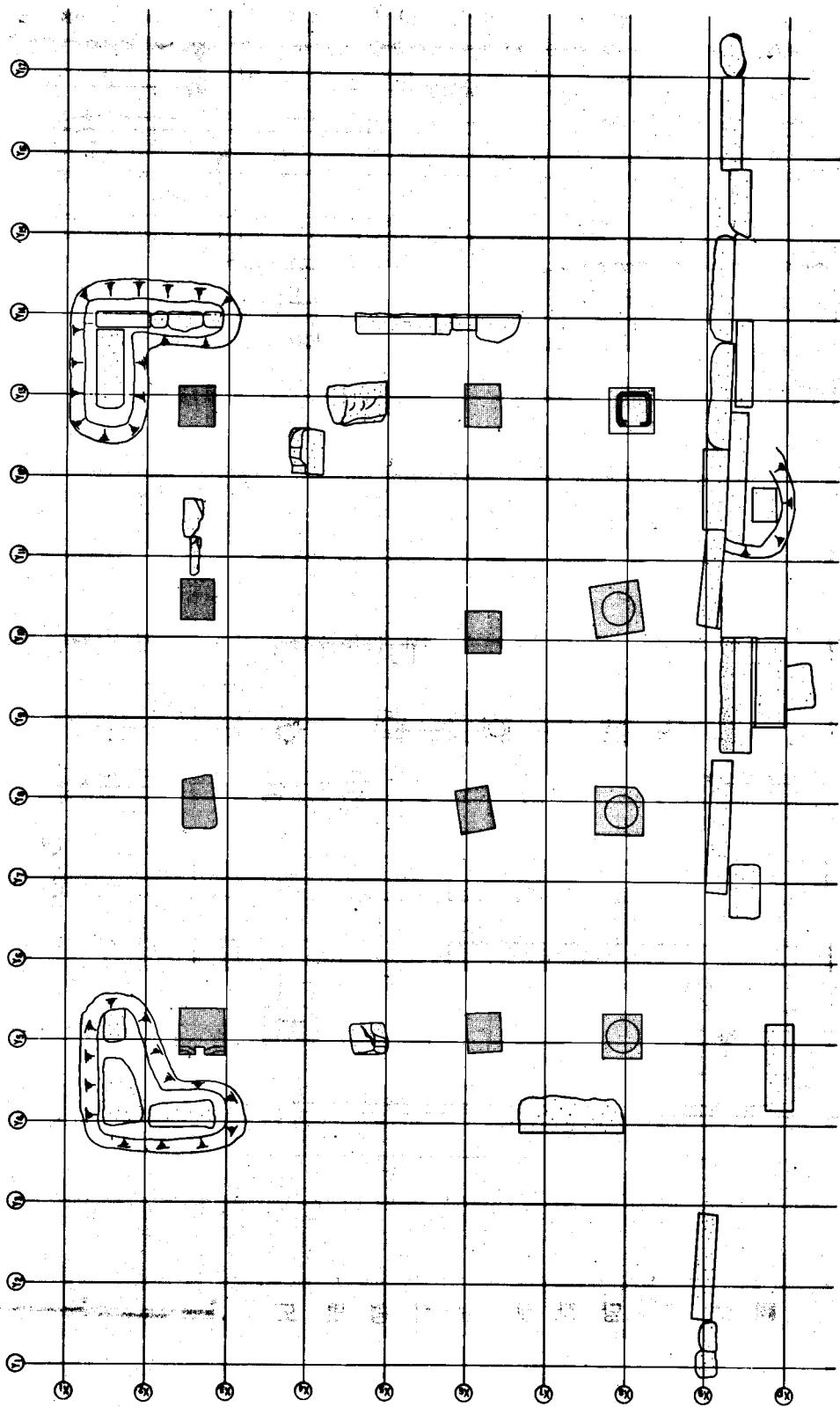
前面基壇은 建物址 左右로도 각 305cm, 355cm씩 더 길게 뻗어 전체의 길이는 16.m이고 현재 地表下에 일부 묻혀진 제 1段石만 남았고, 2上段石이 모두 훼손되었으나 覆土및 礎石 LEVEL과를 고려할때 원래는 세벌대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基壇石은 外面과 상부가 잘 가공된 長臺石이며 그 길이는 1m~1.65m사이, 높이는 25~30cm사이이다. 御間중앙정면에 階段石으로 사용된 長臺石 3개가 교란되어 있다. 兩側面과 背面기단 역시 埋沒되어 있는것을 表土제거로서 양측면 일부와 背面코너 부분에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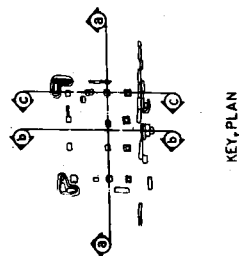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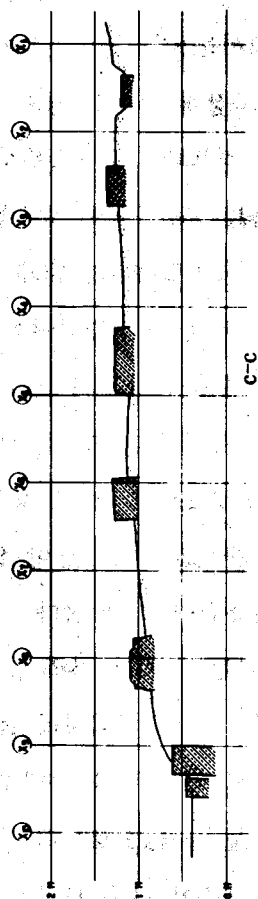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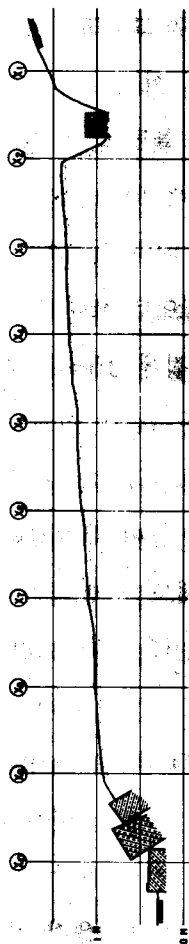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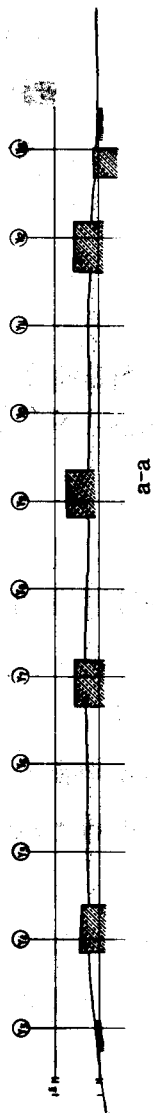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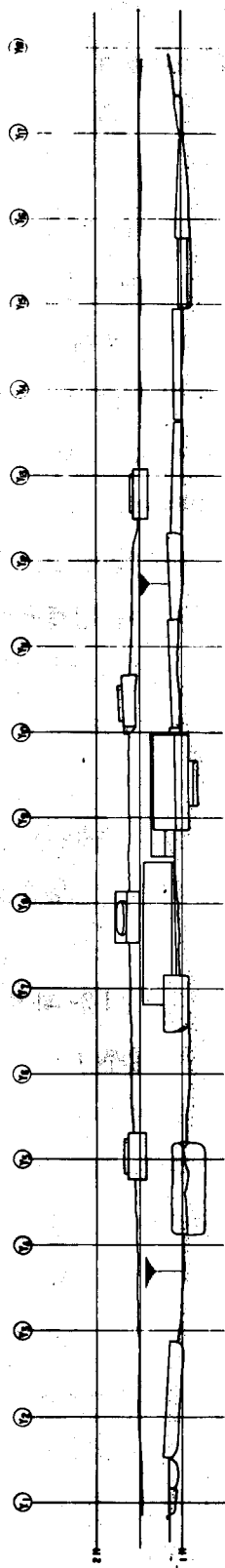
背面부분에서는 30cm 가량 깊게 매몰되어진 隅角部 기단만을 확인하였는데 거친 정다듬 정도의 불규칙한 마름돌과 정다듬한 장대석이 혼용되었다 외곽 담장의 적심 부분 두께는 15 ~ 35 cm 내외이다.



祠堂 및 담장址 배치 평면도

祠堂址平面圖





祠堂址 断面 및 立面 전개도

Ⅵ. 部落內的 石物調査

서원부락내의 민가안팎에 산재된 石物分布 상태는 寺址內 중심 寺域이라 추측되는 정해용씨집 주변과 강당지 주변, 그리고 塔·碑殿址 바로 아랫집인 정태영씨 집에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며, 서원마을 전체 가옥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몇채의 가옥에서는 기단등이 시멘트 몰탈로 피복되어져 있어 확인할 수 없으나 그 속에도 대체로 장대 기단석 등이 묻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石物들은 보통 건물의 기단, 장독대, 담장밑부분, 배수로, 축대 등에 박혀 있으며 일부는 디딤돌(步石), 機器具 등을 올려놓는 臺石으로 쓰이던가 塔身石 등은 상부에 구멍뚫어 절구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개 한집에 15~25점이 석물이 발견되고 있으나 정해용씨댁, 정태영씨댁에는 40점 이상 50여점에 이르는 石物이 분포되어 있다.

石物은 基壇石 용도의 加工長臺石類가 가장 많으며 일부 礎石과 塔材, 계단 소대석, 고매기石 또는 信枋石, 臺石 등이 섞여있다.

基壇石으로 分類되는 長臺石에도 일반적인 平物長臺와 甲石, 下臺石 地臺石으로 區分해볼 수 있는 류형들이 있는데, 外面보임 부분과 좌우, 상하 접착면 일부만을 加工한 長臺石이 가장 많다.

甲石材로는 上面과 外面을 加工한 보통 甲石形과 外面下壇部에 직각 턱을 판것, 같은 부위를 內弧의 쇠시리 몰딩 턱을 파낸것, 상면 내측부분에만 기단상부 마감 재처리를 위해 얇은 턱을 파낸것, 모서리용 ㄱ字形 甲石 등 여러 類型을 보인다. 下臺石材로는 上面外緣으로부터 약간 뒤로 올려 볼록형 쇠시리 몰딩을 주어 만든 것과, 상면 내외양측에 같은 모양의 몰딩을 하거나, 直角턱으로 파낸것 두종류가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는 基壇 下臺石이라기 보다 고백이石이나 信枋石이 아닐가 추측되기도 한다.

일반 장대 기단석보다 길이가 짧으며 사방보임面이 모두 加工된 短石은 디딤돌(步石 : 계단돌등); 座臺石 등으로 추정되기도 한다.(실측도, 사진참조)

이들 長臺石의 규격은 높이가 15~38cm, 넓이 19~44cm, 길이는 75cm로부터 25×9cm 까지 다양한 규격을 보이는데, 보통의 平物長臺는 높이 25cm, 넓이 30cm, 길이 1.2~1.5m 내외의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基壇石들의 加工상태는 대체로 보임면과 맞댄 접착면을 정다듬하고 다른 면은 흑두기 정도의 간략한 治石으로 하였는데 정다듬 면들도 고은 정다듬과 거친 정다듬의 비율이 대략 절반 가량씩 섞여있다. 비교적 큰 규격의 장대석은 중요건물의 기단 석일듯한데, 甲石, 下臺石 등에 턱을 낸 彫法이 曲弧(內弧 또는 外弧를 직각턱 사이에 둔것)를 제외하고는 대개 거칠게 加工되어, 塔·碑殿址 中央建物基壇이나 인근 居頓寺址 金堂基壇과 같이 精巧한 治石手法이나 매우 豪放한 架構手法의 돌이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다. 다만 나연숙씨 집 장대석 중의 1점은 甲石外緣 下端부에 內弧를 준 턱 아래부분이 고은정다듬면으로 이어져 있을뿐 아니라 精巧한 加工面이 돋보여 基壇部에 上臺(甲石)와 面石을 同造한 手法의 基壇石(탑비전지의 中央建物址 하층기단석과 같은)또는 塔의 基壇石이 아닐가 추측된다.

礎石 : 서원마을 法泉寺터 민가들 주변에서 옛 礎石의 발견은 의외로 적다. 옛 殿閣의 礎石과 기단이 제대로 남겨진 建物址가 塔·碑殿址의 3개 建物址 그리고 祠堂과 講堂址 뿐이며, 옛 건물터 징후를 보이는 곳도 講堂址 北쪽 산기슭 발가에 자연 석 주초로 생각되는 4個의 일렬배열 礎石이 있을 뿐인데, 주변에 散在한 장대석들에 비해 초석은 나연숙씨 댁 마당, 담장에 반쯤 묻혀있는 2点뿐이어서 더욱 의아심을 갖게한다. 이 마을 民家 木造집 몇채에도 옛 전각의 礎石을 그대로 借用해 쓰고 있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나연숙씨 집에 남은 초석중 1개는 1번' 길이 60cm 가량의 礎盤위에 한번 꺾어 四分圓弧쇠시리 刻한 圓柱座를 둔 礎石인데 절반가량이 땅속에 묻혀있다.(柱座徑 40cm, 운두는 8cm로 추정). 또 다른 한개의 礎石은 같은 규격의 礎盤에 圓柱座 쇠시리 둔 형태인데 直角 2方向으로 고매기 坐가 同造되어 있다.

塔材 : 서원마을 민가에 분포된 塔材는 塔·碑殿址 바로 아랫집(정태영씨 가옥)에 基壇面石 3点과 塔身石 1点 합하여 4점이 있고, 서쪽 개울 건너편 송인현씨 집에 塔身石 1点, 그리고 屋蓋石 1점이 나연숙씨집 담장밑에 거꾸로 박혀 있다. 이들 塔材

의 實測値와 그 構造 樣式的 性格 등은 第Ⅲ章 7節에 說明된바 있어 여기에선 省略한다. 또 정해윤씨댁 뒷마당 둔덕(사당 석축밑)에는 塔基壇部 구성물의 일부가 아닐까 추측되기도 하는 眼象 새겨진 石片이 調査되었다.

階段石 : 계단구성에 쓰인 돌은 디딤돌(步石)과 소대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딤돌은 양측 마구리 加工한 것 외에는 外形上 특별한 구분이 없어 길이 70~120cm내외의 長臺石중에 상당수가 步石으로 사용되던 것이라 생각된다.

외형상 디딤돌로 확실하게 區分할 수 있는 것은 권태성, 정완진씨 집등

약 10여점이 발견되며 그 중 일부는 先端兩側에 突起된 축이 있어(: 실측도 참조) 디딤돌 최하段의 地臺石이 아닐까 한다. (턱 부분에 소대석 先端이 끼일 것으로 추측) 소대석은 정해윤씨집에서 소대 先端部와 그 밑에 받치는 받침석이, 정창호씨 댁에서 소대갑석으로 간주되는 石片일부가 調査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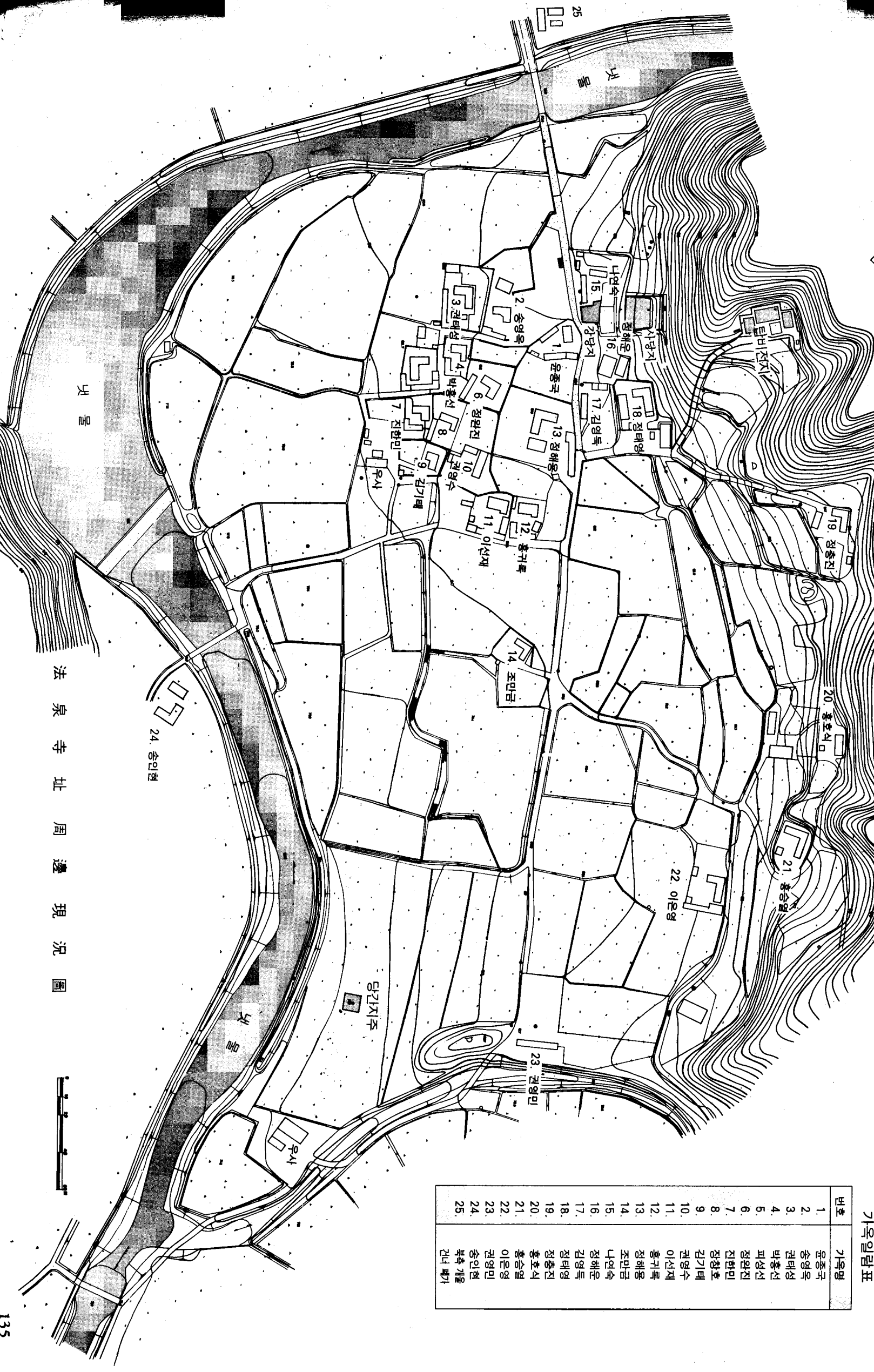
우물 : 서원마을내에서 옛우물이 2基 발견되었다. 피성선씨댁의 우물은 장대석으로 견고하게 축조한 方形우물이고 정창호씨댁의 우물은 둥그스름한 냇돌을 사용 圓形으로 축조하였다.

長臺石 方形우물은 지상에 노출된 부분에 시멘트 몰탈로 피복되어져 외형적 특색을 살피기 어려우나, 地中에 매설된 우물벽에 보면 높이 23~25cm, 길이 1.60~1.70M 내외의 거친정다듬 정도의 加工장대석을 여러단(11段) 엮물려 쌓아올려 造成하였다. 우물깊이는 약 4.6M가량으로 測定되며 井水위로 9단 가량 들어나 보이며 築造手法으로 보아 盛代의 法泉寺시절에 사용하던 우물로 추측된다.

정창호씨댁의 원형우물은 시골마을에 간혹 발견되는 옛우물 형태로서 깊이도 얇은 편(2M내외)이며, 축조시기도 조선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직경은 1.3M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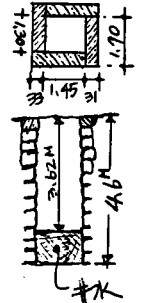
서원마을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도사랑이, 장뜰마을 민가들에도 많은 수의 石物이 기단과 담장 등에서 발견된다. 대부분 長臺形 基壇石과 디딤돌(步石)들이며 加工상태는 거친정다듬 상태의 형상이 양호한 石物들이다. 규격은 높이 30cm 내외, 넓이 20~45cm, 길이는 60~120cm 사이에 거의 균일하여 서원마을에서 보이는 大形 장대석은 없다. 이 石物들이 法泉寺 中心部에서 옮겨 왔을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300~400m의 거리가 너무 먼듯하다. 도사랑이 마을 背山에도 建物址의 흔적이 地中에 남아 있다고 하니 山內菴子나 別院이 형성되어 그 殘材가 아닐까 생각된다.

번호	가옥명
1.	윤종국
2.	송영옥
3.	권태성
4.	박홍선
5.	피성진
6.	정완진
7.	진한민
8.	장창호
9.	김기태
10.	권영수
11.	이선재
12.	홍귀록
13.	정해웅
14.	조만금
15.	나연숙
16.	정해운
17.	김영득
18.	정태영
19.	정충진
20.	홍호식
21.	홍승열
22.	이은영
23.	권영민
24.	송인현
25.	복죽개울 건너 개가



法泉寺址 주변現況圖

배치가옥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배치가옥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가" 지역 1. 윤종국 씨택	1	1410×345×275	고은정다듬 (상하모서리터)	기단석		3	1400×175×350	고은정다듬	기단석
	2	1665×410×185			4	840×435×125	"		기단갑석
	3	1375×250×245			5	1070×430×125	혹드기		기단석
	4	890× ? ×345			6	1170×330×390	거친정다듬		"
	5	770×380×215	거친정다듬 (상부내측예터)	기단갑석	7	1160×340×350	고은정다듬		"
	6	305×190×160	고은정다듬 (모서리쇠시리)	기단석	8	740×280×380	거친정다듬		"
	7	800(1070)×335×180	고은정다듬 (ㄱ자형)	기단갑석	9	1220×350×330	"		"
	8	1570×440×100			10	1100×335×300	"		"
	9	750×335×150			11	830× ? ×300	"		"
	10	1435×330×150	고은정다듬 (하부터있음)	기단갑석	12	1010×280×330	고은정다듬		"
	11	890×335×310	거친정다듬	기단석	13	1210×240×300	"		"
	12	1325×275×230			14	610×215×335	"		"
	13	1060×305×180			15	710×190×300	"		"
	14	495×265×215	고은정다듬 (모서리예쇠시리)	기단하대석	16	210×300×650	"		"
	15	600×230×215	고은정다듬 (모서리예쇠시리)	"	17	600×300×200	"		"
	16	1600×330×255	고은정다듬 (모서리예터)	"	18	1590×245×330	"		"
	17	1010×350×215	고은정다듬 (모서리예터)	"	19	1090×300×410			
2. 송명옥 씨택	1	370×310×300	고은정다듬	기단석	3. 권태성 씨택	안채			
	2	1270×370×220	"	"	1	770×540×260	거친정다듬		보석
					2	1530×230×400	"		기단석
					3	1390×220×320	"		"
					4	1200×210×270	"		"
					5	980×230×300	"		"
					6	640×350×225	상면터있음		"
					7	1775× ? ×215	"		"
					8	750×340×260	"		"
					9	650×240×320	"		"
					10	560× ? ×335	"		"
					11	595×430×320	"		"

배치가목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배치가목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12	1085× ? ×370	고온정다듬	기단석		3	610×320×170	거친정다듬	기단석
	13	990× ? ×270	"	"		4	760×350×120	"	"
	14	1060× ? ×260	"	"		5	520×375×135	"	"
	15	1210× ? ×270	"	"		6	2080×340×215	"	"
	16	1010× ? ×335	"	"		7	790×365×230	"	"
	17	930× ? ×300	"	"		8	915×325×255	고온정	기단석
	18	1140× ? ×270	"	"		9	1200×410×275	고온정	"
	19	630× ? ×340	"	"		10	1150×320×325	거친정	"
	20	900× ? ×140	"	기단갑석		11	590×350×280	"	"
	21	920×250×300	"	기단석		12	110×335×215	"	"
	22	950×240×290	하면턱있음	"		13	1255×360×250	고온정	기단석
	23	700×260×260	"	"		14	900×310×325	"	"
	24	1160×240×290	"	"		15	815×510×170	정다듬	기단석
	25	800×240×330	"	"		16	520×375×135	"	"
문간채	26	770×400×210	흑뜨기	보석		17	1260×300×320	"	"
	27	1100×350×345	거친정다듬	기단석		18	1200×300×415	"	"
	28	680×295×210	"	"	5. 피성선	1	1200×360×240	고온정다듬	"
	29	990×240×230	"	"	씨덕	2		거친정	우물
	30	920×290×235	흑뜨기	"	우물				
	31	1150×340×260	"	"					
	32	1240× ? ×350	고온정다듬	기단갑석					
	33	710×400×280	거친정다듬	기단석					
	34	690×330×230	"	"					
	35	750×265×215	고온정다듬	"					
	36	1100×260×245	거친정다듬	"	6. 정완진	1	1200×350×270	거친정다듬	기단석
	37	670×490×390	절구	"	씨덕	2	650×400×270	"	"
						3	780×320×270	"	"
"가" 지역	1	825×230×235	고온정다듬	"		4	700×240×320	"	"
4. 박홍선	2	270×240×180	거친정다듬	"		5	1000×210×320	"	"

배치가옥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배치가옥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6	1050×350×200	흑두기	기단석	7. 진한민 씨댁	1	900×350× ?	거친정다듬	기단석
	7	800×340×300	"	"					
	8	1880×340×300	"	"					
	9	740×365×180	"	"					
	10	1120×345×170	흑두기	"		8. 정창호 씨댁	1	1600×280×220	고은정다듬
	11	1210×330×260	"	"	2		1740×250×330	거친정다듬	"
	12	840×265×355	"	"	3		1650×240×340	"	"
	13	520×230×240	거친정다듬	"	4		550×420×220	"	보석
	14	735×180×365	"	"	5		330×320×230	"	
	15	753×210×390	흑두기	"				(방형초석)	초석
	16	930×220×413	"	"	6		960×350×250	고은정다듬	기단석
	17	715×310×230	"	"	7		820×310×300	"	"
	18	965×223×345	"	"				(하부턱있음)	소대갑석
	19	726×223×395	"	"	8		THK:250×L: 700×W:260	"	
	20	700×200×390	거친정다듬	"					
	21	1885×245×350	흑두기	기단					
		φ 600H400	흑두기	"					
	22	875×255×170	고은정다듬	절구					기단석
	23	740×580×210	흑두기	기단석	9		700×310×320	거친정다듬	기단갑석
	24	440×140×265	"	다담돌	10		510×400×340	고은정다듬	기단석
	25	630×200×275	"	기단석	11		1200×270×340	거친정다듬	보석
	26	600×150×275	거친정다듬	"	12		600×400×200	흑뜨기	기단석
	27	920×135×235	"	"	13		965×360×230	거친정다듬	"
	28	785×175×250	거친정다듬	"	14		730×400×200	"	"
	29	665×150×250	"	"	15		950×395×180	"	"
	30	900×215×270	"	"	16		1370×315×220	"	"
	31	615×120×250	고은정다듬	"	17		1725×265×250	"	"
	32	1130×255×250	거친정다듬	"					
	33	870×375×250	흑두기	"	9. 김기택		없음		
	34	φ 635THK 120	고은정다듬	연자방아맷돌					

배치가목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배치가목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10. 권영수 씨택	1	600×300×180	거친정다듬	기단석		11	800×210×310	거친정다듬	기단석
	2	1450×270×180	"	"		12	1120×250×285	"	"
	3	430×210×180	고은정다듬 (상부모서리 사면모접기)	臺石		13	890×285×385	"	"
11. 이선재 씨택						14	820×250×160	"	"
						15	940×275×155	"	"
						16	830×340×220	"	"
	1	1000×300×240	거친정다듬	기단석		17	565×240×360	고은정다듬 (내외양면모서리 예2단턱있음)	기단지대석 또는 중대석
	2	1100×300×300	"	"		18	880×240×360	고은정다듬 (내외모서리 2단턱)	기단석 (중대석)
	3	1050×300×320	"	"					
	4	1150×420×420	고은정다듬	기단석		19	1740×315×225	거친정다듬 (하부턱있음)	기단석
	5	600×380×245	고은정다듬 (모서리가공)	기단지대석					
	6	500×300×240	거친정다듬	기단석		20	977×400×320	거친정다듬	"
	7	750×340×200	"			21	1085×265×220	"	"
	8	φ 550×580(H)	흑두가	절구		22	1175×370×367	"	"
12. 홍귀록 씨택		기단등이 콘크리 트 피복되어 확 인할 수 없음				23	678×285×225	"	"
						24	645×330×240	"	"
13. 정해용 씨택						25	530×355×210	"	"
	1	600×210×245	거친정다듬	기단석		26	1725×320×230	"	"
	2	1180×140×370	"	"		27	1145×375×275	"	"
	3	1130×285×265	"	"		28	540×370×80	거친정다듬 (모서리턱)	디딤돌
	4	1220×330×260	"	"		29	570×395×100	"	"
	5	1800×335×220	"	"				"	"
	6	870×240×335	"	"		30	480×320×50	"	"
	7	640×330×300	"	"		31	540×370×100	"	"
	8	720×400×210	"	"		32	550×420×145	"	"
	9	1480×340×270	고은정다듬	기단지대석		33	555×400×245	"	(대석) 디딤돌
	10	1280×230×250	거친정다듬	"					

배치가목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배치가목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34	900×330×270	거친정다듬	기단석		5	820×380×180	거친정다듬	기단석
	35	930×380×270	"	"		6	580×340×180	"	"
	36	1200×410×250	"	"		7	400×340×180	"	"
	37	870×230×250	"	"					
	38	620×460×385	"	절구	15. 나연숙	1	510×310	고은정다듬	초석
		(상면바닥을파냄)			씨댁		(φ 300)	(불룩쇠시리 상·하에 적각턱있음)	
	39	560×500×295	흑두기가공 (상면바닥을파냄)	절구		2	990×300×195	고은정다듬 (하부모서리에 오목쇠시리)	기단갑석
	40	2050×2450×220	거친정다듬	기단석					
	41	820×385×270	"	"		3	445×230×160	거친정다듬	기단석
	42	2590×450×225	흑두기, 거친정	기단석 또는 교량판석		4	830×330×190	"	"
	43	575×385×130	거친정다듬	디딤돌(步石)		5	845×410×290	"	"
	44	565×285×250	"	기단지대석 (양면모서리턱)		6	1280×390×270	고은정다듬	기단갑석
				(고매기돌)		7	830×430×280	거친정다듬	기단석
	45	1320×275×235	"	"		8	795×310×245	"	"
			(양면모서리턱)	(고매기돌)		9	790×410×270	"	"
	46	765×300×130	"	디딤돌		10	1295×260(520)×250	고은정다듬 (모서리內弧)	탑기단석
	47	1055×360×240	"	기단석		11	1270×600×245	"	기단석
	48	940×335×275	"	"		12	630×330×340	"	"
	49	775×315×180	"	"		13	1240×370×210	"	"
	50	1075×345×210	"	"		14	900×240×180	"	"
	51	1310×330×205	"	"		15	1290×360×250	"	"
	52	530×470×350	흑두기	절구		16	1860×310×450	"	"
	53	640×590×255	거친정다듬	臺石類		17	1720×410×340	"	"
14. 조만금	1	640×310×180	거친정다듬	기단석		18	1310×340×260	"	"
씨댁	2	600×300×180	"	"		19	1020×240×310	"	기단갑석
	3	850×240×180	"	"				(모서리쇠시리턱)	
	4	680×300×200	"	"					

배치가목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배치가목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20	625×335×360	거친정다듬	기단석	“나”지역	1	720×310×210	거친정다듬	기단석
	21	980×285×275	“	“	17.김영득	2	1600×465×250	“	“
	22	740×620×300	“	“					
	23	1110×380×170	“	“	18.정태영	안채			
	24	585×355×120	“	“	썩덕	1	1620×320×240	거친정다듬	기단석
	25	635×255×270	“	“		2	1620×330×275	“	“
	26	945×475×280	“	“		3	1240×340×300	“	“
	27	770×420×330	“	“		4	970×370×290	“	“
	28	625× ? ×?	“	“		5	870×510×280	“	“
	29	1010×260×230	“	“		6	270×390×280	“	“
	30	960×600×400	고은정다듬 (고메기좌 있음)	주초석		7	1100× ? ×285	“	“
16.정해운 썩덕	1	1165×380×210	거친정다듬	디딤돌		8	680× ? ×335	“	“
	2	440×420×160	고은정다듬 (모서리턱 있음)	기단하대석		9	1035× ? ×320	“	“
	3	910×395×240	“	“		10	690× ? ×300	“	“
	4	한변 400~430 직각길이 1015~1050 두께 90	고은정다듬 (8각대석)	좌대석		11	1220× ? ×385	“	“
	5	1060×300×180	거친정다듬	기단석		12	915× ? ×310	“	“
	6	770×900×200	거친정다듬	계단소대 받침석		13	835×240×355	“	“
	7	785×250(600) ×235(250)	고은정다듬	계단소대석 기단석		14	1090×640×250	고은정다듬	탑신석
	8	575×450×150	고은정다듬	“		15	835×640×240	고은정다듬	탑신석
	9	750×380×320	“	탑재 (기단부)		16	740×250×200	거친정다듬	기단석
						17	1120×250×250	“	“
						18	680×320×200	“	“
						19	980×350×330	“	“
						20	1180× ? ×340	“	“
						21	1810×250×250	“	“
					장독대	22	1095×665×120	고은정다듬	탑신석
						23	1650×480×280	“	기단석
					마당	24	1020×470×250	거친정다듬	“

배치기육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배치기육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25	1050×360×350	거친정다듬	기단석		8	920×300×300	거친정다듬	기단석
	26	1250×240×390	"	"		9	880×270×280	"	"
	27	1250×380×250	"	"		10	1000×300×230	"	"
	28	1160×265×330	"	"			(모서리턱있음)	"	"
	29	1160×460×250	"	"		11	700×300×250	"	"
	행랑채					12	400×250×320	"	"
	30	950×320×220	"	"		13	1060×330×250	"	"
	31	860×340×200	"	"		14	440×250×320	"	"
	32	860×270×170	"	"		15	440×270×350	"	"
	33	1530×280×200	"	"					
	34	820×370×235	"	"					
	35	650×300×280	"	"					
	36	1120×330×250	"	"					
	37	1600×460×300	"	"					
	38	1300×390×230	"	"					
	39	920×290×360	"	"					
	40	1120×330×260	"	"					
	41	890×510×200	"	"					
	42	585×585×550	"	탑재(탑신)					
19. 정충진 씨댁	안채				20. 홍호식 씨댁	장독대			
	1	770×230×180	거친정다듬	"		1	970×270×330	거친정다듬	"
	2	1270×340×280	고은정다듬 (모서리쇠서리)	"		2	590×230×340	"	"
	3	1370×2700×300	거친정다듬	"		3	1120×250×340	"	"
	4	1320×250×300	"	"		4	620×240×280	"	"
	5	1100×260×340	"	"		5	690×230×250	"	"
	6	1370×380×230	거친정다듬	"		6	520×250×370	"	"
	7	1370×300×210	고은정다듬 (모서리턱있음)	기단석		7	570×260×280	"	"
					안채	8	1060×160×380	"	"
						9	630×470× (THK)340	고은정다듬 (ㄱ자로격임)	기단갑석
						10	1130×280×370	거친정다듬	"
						11	1400×300×400	"	"
						12	520×320×200	"	"
						13	1230×260×340	거친정다듬	기단석
						14	1050×260×410	"	"
						15	1040×250×340	"	"
						16	1170×210×410	"	"
						17	1120×240×370	"	"

배치가옥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배치가옥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18	700×200×340	거친정다듬	기단석		8	785×220×295	거친정다듬	기단석
	19	670×230×340	"	"		9	1000×190×335	"	"
	20	600×250×330	고은정다듬	"		10	925×200×300	"	"
	21	620×610×340	거친정다듬	"		11	870×235×345	"	"
	22	900×250×250	"	"		12	735×220×325	"	"
	23	780×250×300	"	"		13	610×235×335	고은정다듬 (모서리에 턱있음)	기단갑석
	24	820×270×320	"	"		14	895×220×300	거친정다듬	기단석
	25	840×220×360	"	"		15	1300×225×335	"	"
	26	1040×240×310	"	"		16	1250×175×395	"	"
	27	640×240×280	"	"		17	935×215×385	"	"
	28	1000×240×290	"	"		18	1070×185×210	"	"
21. 홍승열 씨댁	1	870×270×180	거친정다듬	"		19	1355×195×295	"	"
	2	650×330×260	"	"		20	835×310×245	"	"
22. 이은영	1	600×300×220	"	"	개울북측 폐가	21	1100×380×230	"	"
23. 권영민		없음		"		22	330×300×210	거친정다듬 흑두기	" 절구
24. 송인현	1	400×400×350	고은정다듬 (우주와 문갑문양)	탐신석		멧돌 φ 320 H 210			
25. 북측개 울 건너 폐 가	1	1200×325×370	거친정다듬	기단석	26. 강당지 의 석물	1	1120×320×400	거친정다듬	기단석
	2	1025×325×355	"	"		2	830×240×350	"	"
	3	1220×255×310	"	"		3	1180×320×430	"	"
	4	1000×325×325	"	"		4	760×320×370	"	"
	5	1260×200×365	"	"		5	790×300×400	"	"
	6	1000×215×370	"	"		6	1460×250×370	"	"
	7	630×290×300	"	"		7	790×260×340	"	"
						8	1700×330×280	"	"

배치가옥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배치가옥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9	1370×340×250	거친정다듬	기단석		6	720×260×300	거친정다듬	기단석
	10	670×260×340	"	"		7	900×270×280	"	"
	11	1120×410×410	"	"		8	1080×240×320	"	"
	12	1170×320×340	"	"		9	940×340×300	"	"
	13	600×310×350	"	"		10	900×240×302	"	"
	14	590×370×350	"	"		11	1320×225×342	"	"
	15	920×300×320	"	"		12	920×280×300	"	"
	16	1210×285×275	"	"		13	910×240×320	"	"
	17	1220×320×330	"	"		14	540×240×300	"	"
	18	1110×315×382	"	"		15	1020×280×300	"	"
	19	805×415×215	"	"		16	600×240×300	"	"
						17	820×240×300	"	"
도사랑이									
마을석물	1	750×260× ?	거친정다듬	기단석	4. 채봉천	1	970×300×325	"	"
1. 김재수	2	790×260× ?	"	"	(706번지)	2	765×303×315	"	"
(708번지)	3	380×330×340	"	"		3	575×280×315	"	"
								(상면모서리터)	
2. 김정옥	1	700×360×240	"	"		4	710×210×265	"	"
(700번지)	2	980×300×265	"	"				(상면모서리터)	
	3	1240×240×260	"	"		5	963×185×365	"	"
	4	1560×220×280	"	"		6	970×180×320	"	"
	5	970×400×240	"	"		7	1070×260×320	"	"
	6	1020×440×180	"	"		8	1110×315×300	"	"
	7	820×260×300	"	"		9	1400×385×315	"	"
						10	132×220×415	"	"
3. 이상철	1	1120×300×400	"	"		11	910×235×323	"	"
(702번지)	2	880×280×340	"	"		12	875×320×285	"	"
	3	940×340×280	"	"		13	580×245×315	"	"
	4	920×240×340	"	"		14	530×285×335	"	"
	5	620×440×320	"	"				(모서리터있음)	

배치가옥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배치가옥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15	820×285×285	거친정다듬	기단석		18	520×400×?	거친정다듬	기단석
	16	840×320×325	"	"		19	1150×360×?	"	"
	17	765×200×345	"	"		20	1200×280×?	"	"
	18	1050×220×375	"	"		21	980×440×?	"	"
	19	920×270×340	"	"		22	320×410×?	"	"
	20	520×340×270	"	"		23	1200×320×?	"	"
		(양면모서리터)				24	1100×280×220	"	"
						25	1100×260×230	"	"
5. 김온산	1	950×255×344	"	"		26	1020×300×230	"	"
	2	725×245×356	"	"		27	1020×320×300	"	"
	3	860×250×280	"	"		28	1220×310×280	"	"
	4	740×265×350	"	"					
					장뜰마을				
6. 김양옥	1	1800×385×230	"	"	석물	1	720×260×280	"	"
708번지	2	645×235×260	"	"	7. 이덕홍	2	780×240×260	"	"
	3	640×245×320	"	"	308번지	3	930×240×270	"	"
	4	1290×280×295	"	"		4	710×280×285	"	"
	5	620×205×240	"	"				모서리에	
	6	880×260×320	"	"				쇠시리터	
	7	1370×260×240	"	"		5	820×300×?	"	"
	8	680×240×340	"	"		6	910×240×?	"	"
	9	440×280×340	"	"		7	640×240×320	"	"
	10	910×270×370	"	"		8	1340×185×220	"	"
	11	890×240×320	"	"		9	1060×315×260	"	"
	12	840×240×335	"	"		10	930×240×?	거친정다듬	기단석
	13	640×280×340	"	"		11	1020×260×?	"	"
	14	520×500×?	"	"		12	1120×280×?	"	"
	15	940×340×?	"	"		13	1310×240×?	"	"
	16	520×410×?	거친정다듬	기단석		14	1110×240×?	"	"
	17	940×320×?	"	"		15	820×240×26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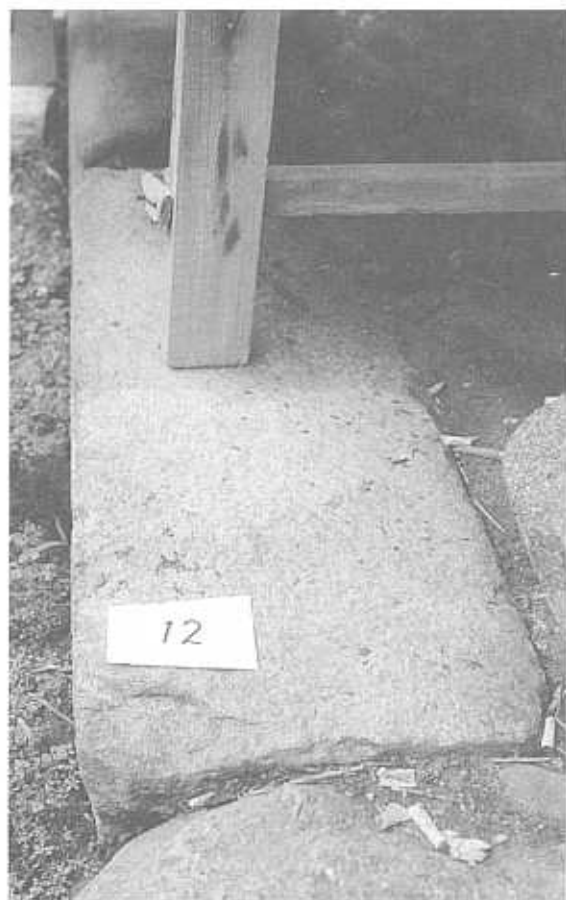
배치가목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배치가목	번호	크 기	가공정도	용도추정
	16	970×280×300	거친정다듬	기단석	8. 홍현식	1	1050×340×240	"	"
	17	690×320×?	"	"	308번지			모서리에	
	18	720×320×?	"	"				쇠사리	
	19	680×240×?	"	"		2	910×420×120	"	"
	20	540×235×300	"	"		3	970×230×240	"	"
	21	520×280×310	"	"		4	620×230×240	"	"
	22	750×220×230	"	"					
	23	690×380×240	"	"					
			모서리에 터있음						



운종국씨댁의 석물



권태성씨댁 석물



박흥선씨 댁의 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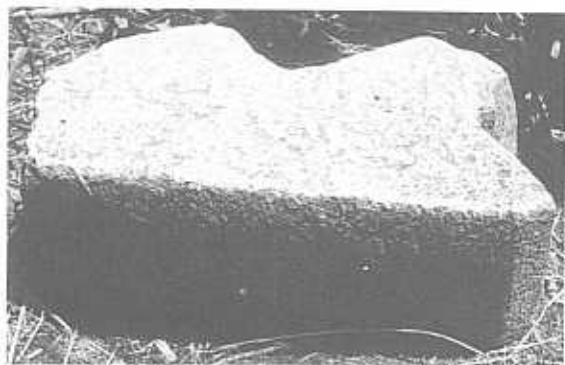
피성선씨 댁의 고려시대 우물



전원진씨 가옥의 석물



박홍선씨 댁의 탑재



정참호씨댁 석물



정참호댁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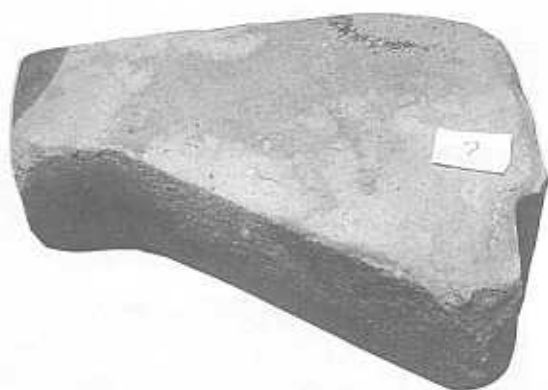




나연숙씨댁 석물



정해운씨댁 석물



정해운씨댁 뒷문덕의 탑기단석





정태영씨 댁의 석물 (탐재)





정충신씨댁 석물



홍호식씨댁 석물





개울북측 폐가의 석물

송인현씨 덕의 탑재



홍호식씨 댁앞 발가의 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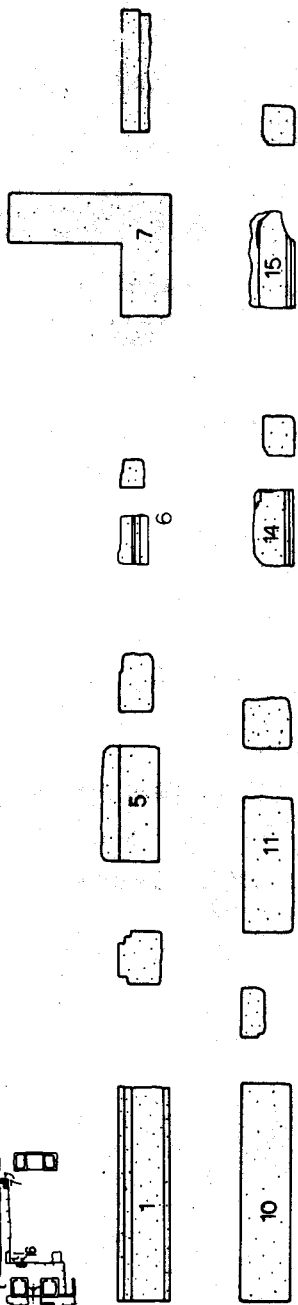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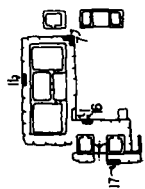


사당지 북측 발가의 추정건물지에
있는 礎石들 뒷문턱에 전돌(포장전)
다수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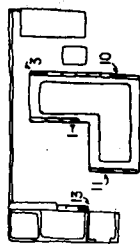


나연숙씨 가옥 북측 발의
건물지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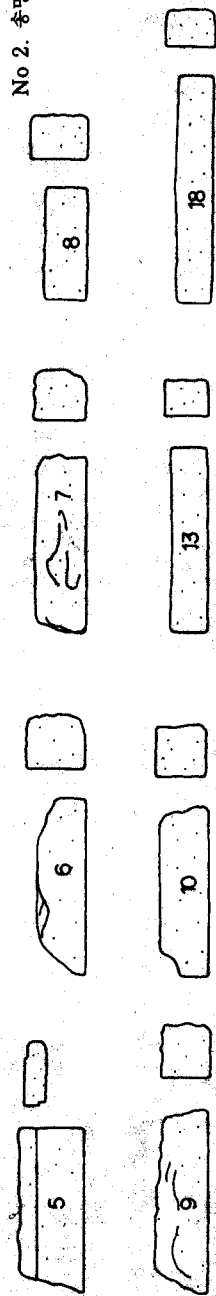




No 1. 온종국씨댁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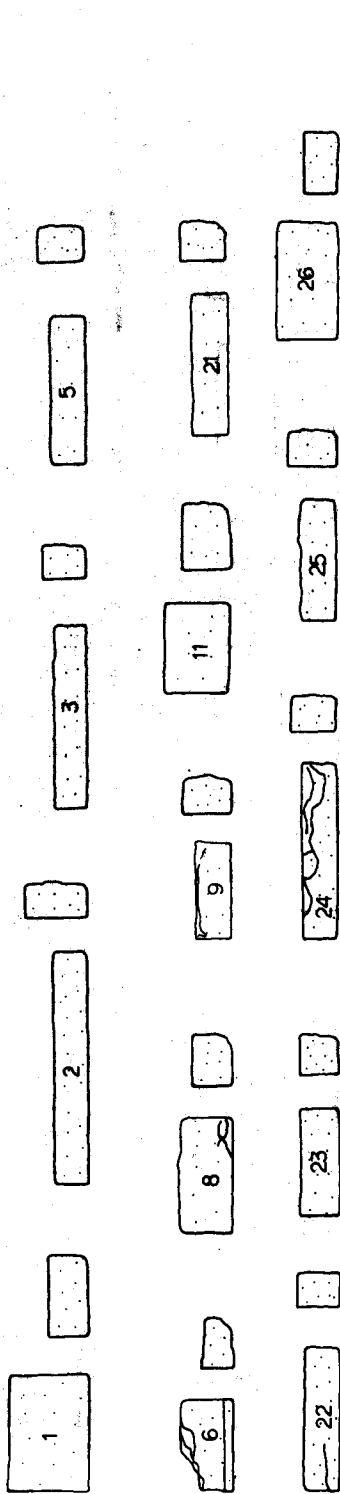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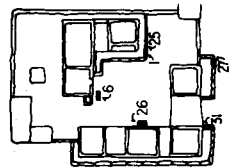


No 2. 송명옥씨댁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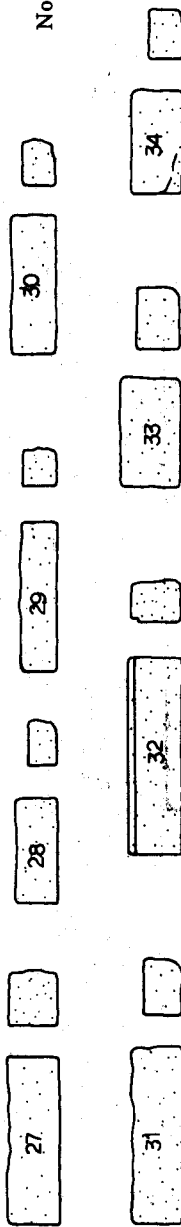


部落内の石物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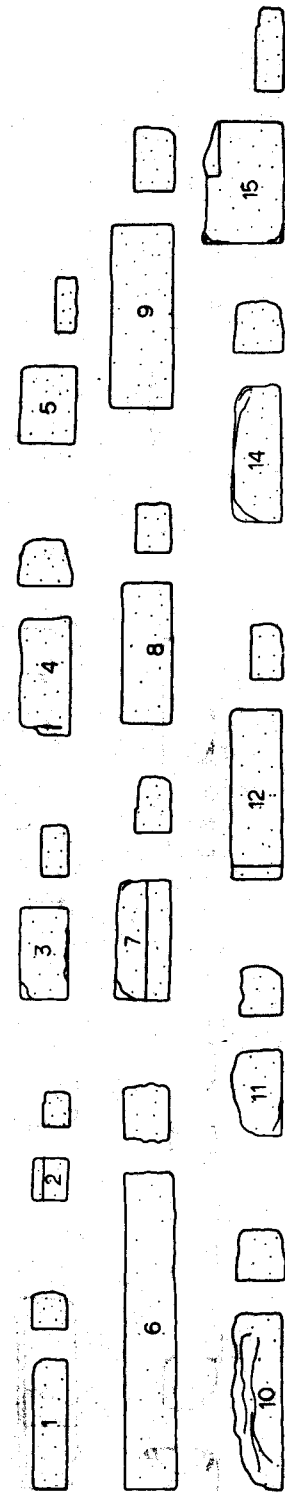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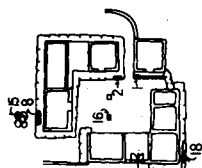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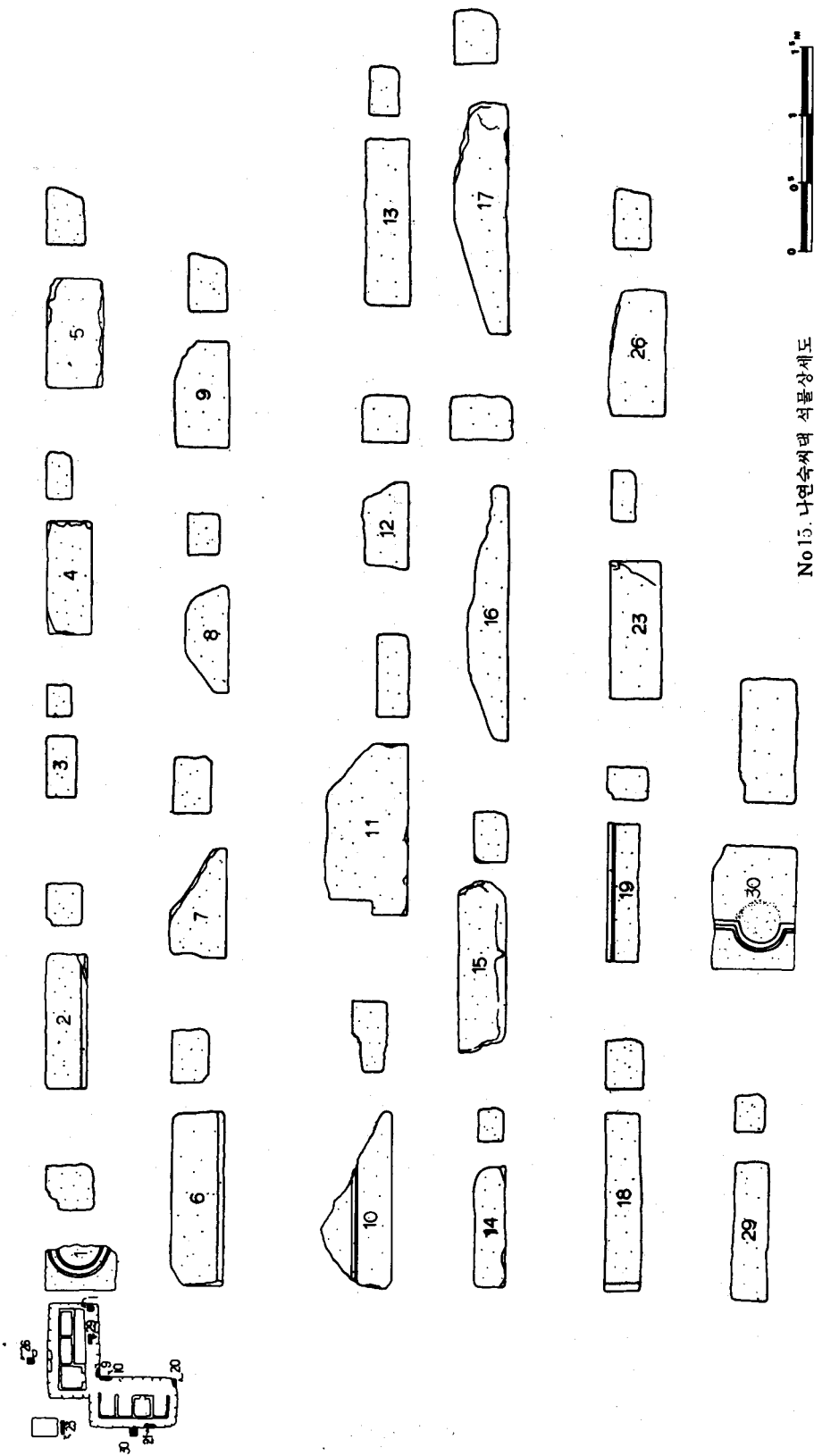


No 3. 권태성씨택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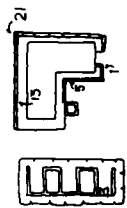


No 4. 박홍선씨택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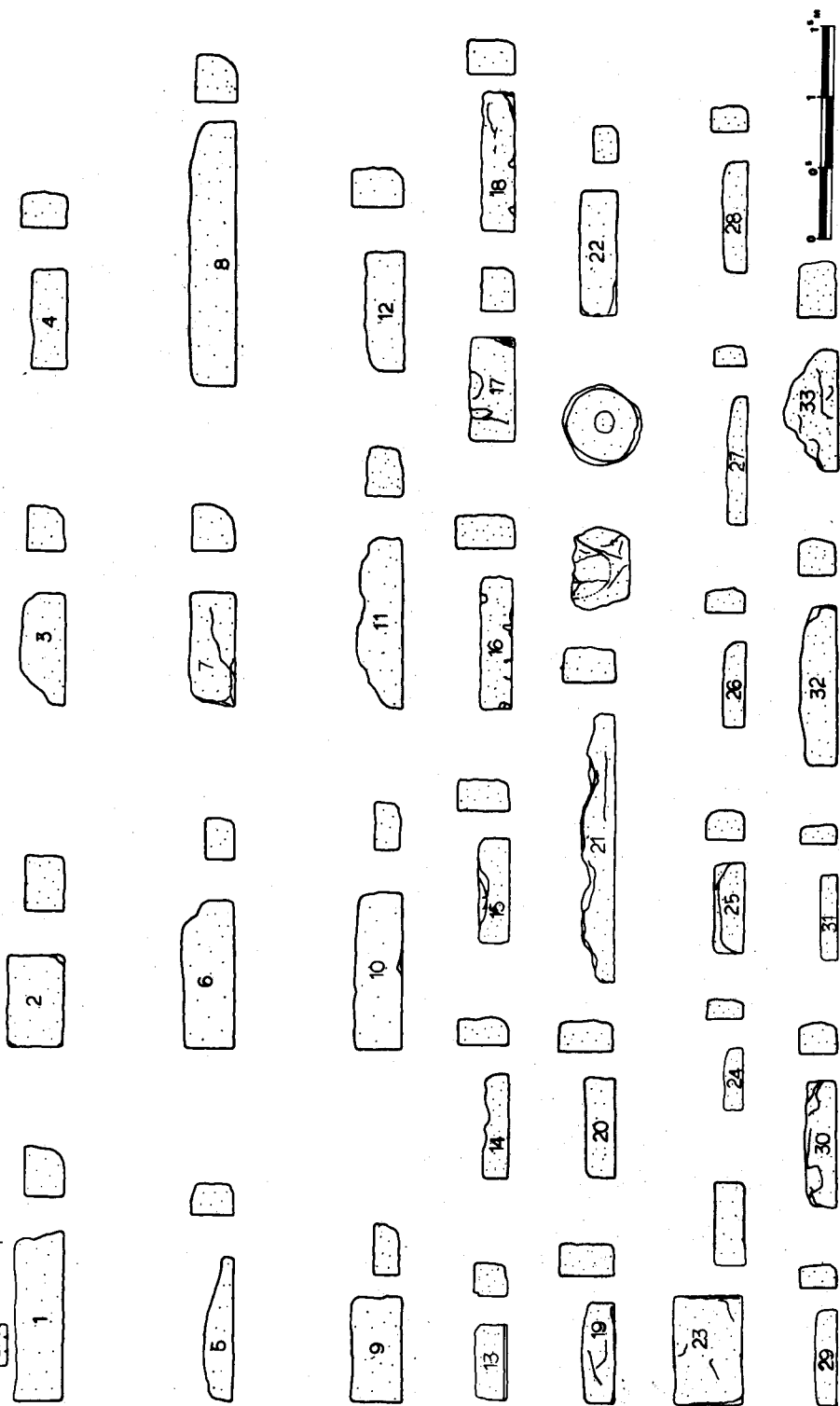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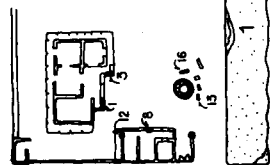


No 15. 나연속씨대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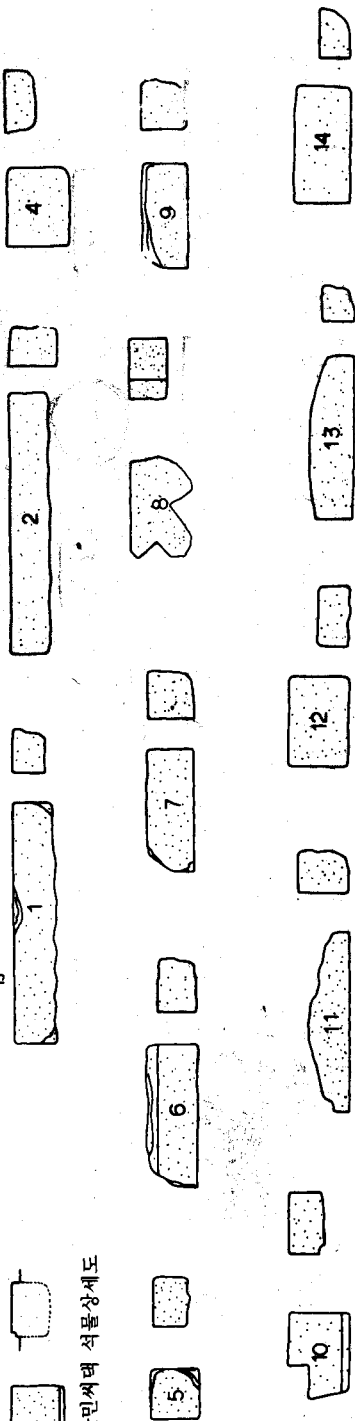


No 6. 정안진씨대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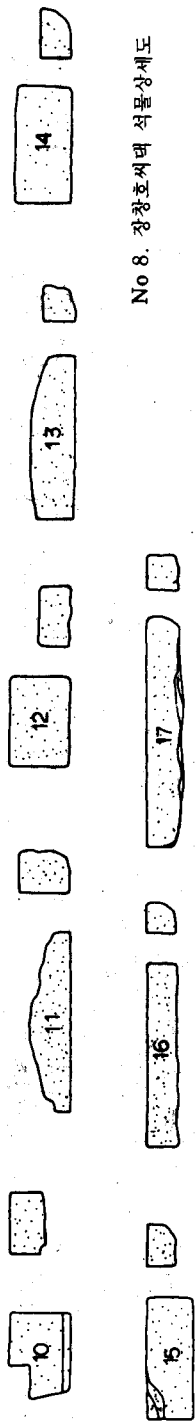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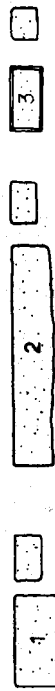
No 7. 진한민씨대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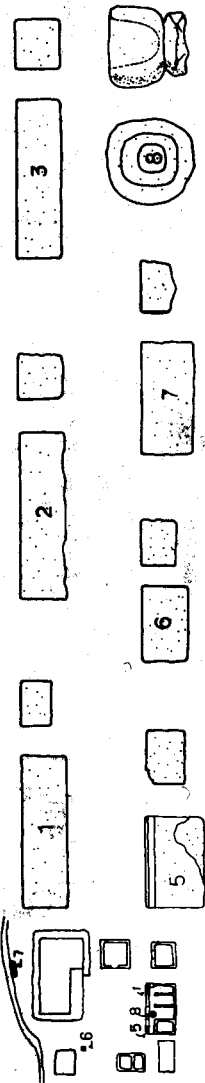
No 8. 장창호씨대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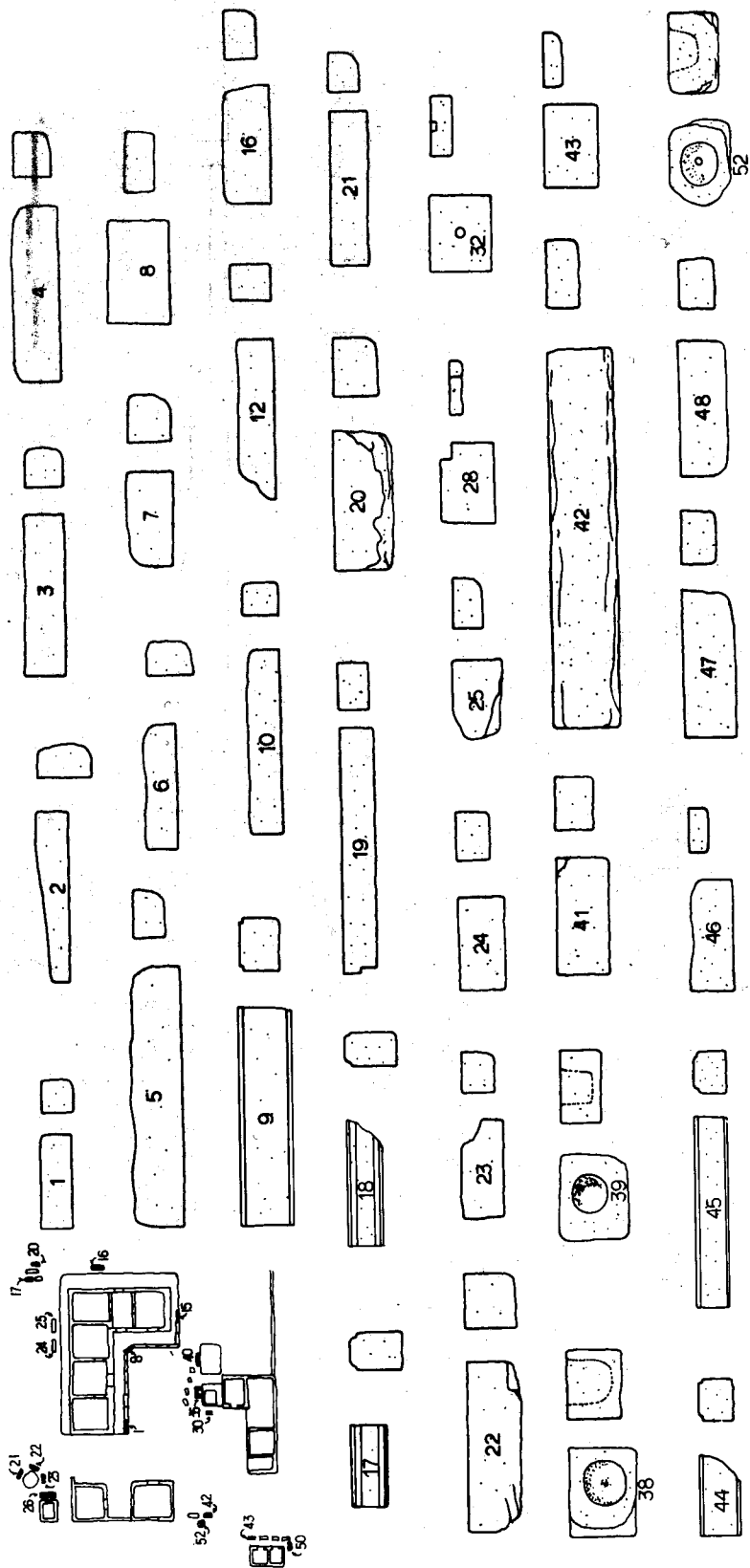


No 10. 권영수씨대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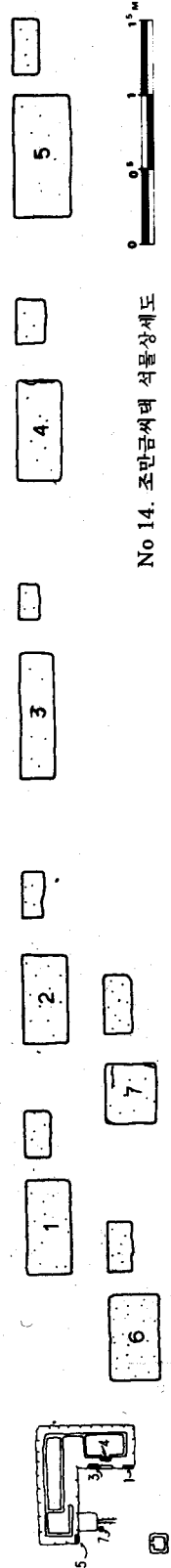


No 11. 이선재씨대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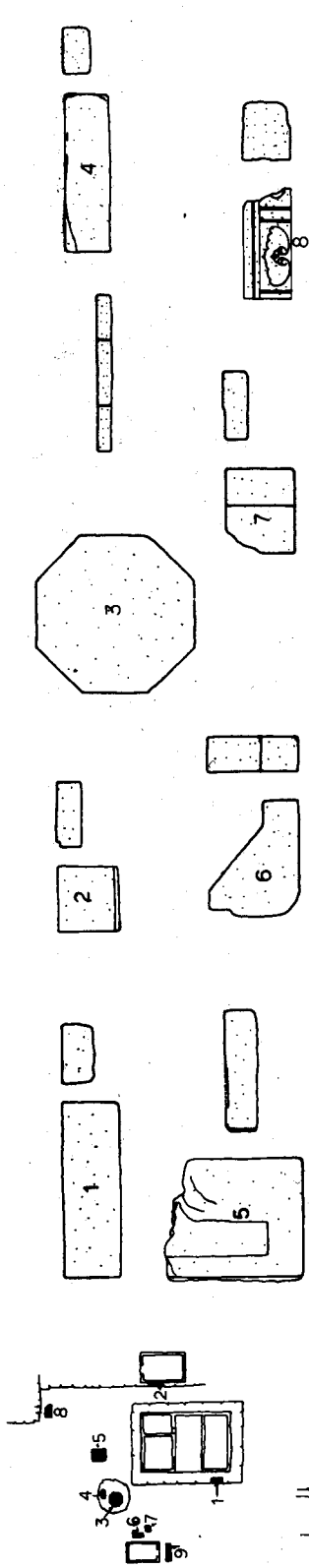




No 13. 정해용석대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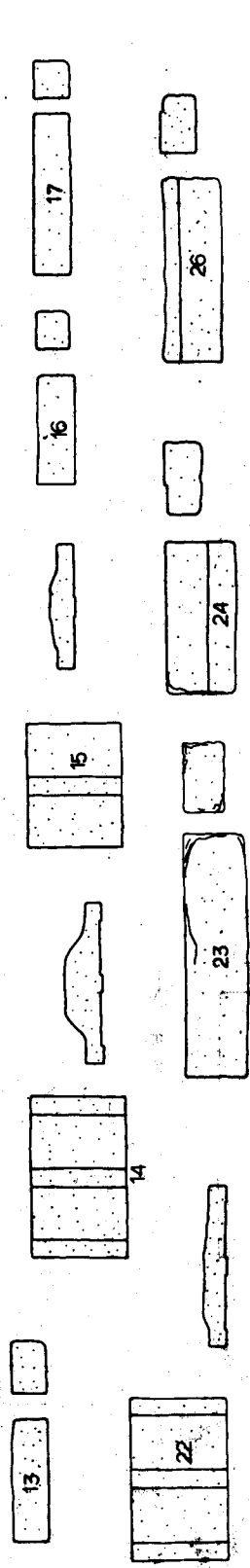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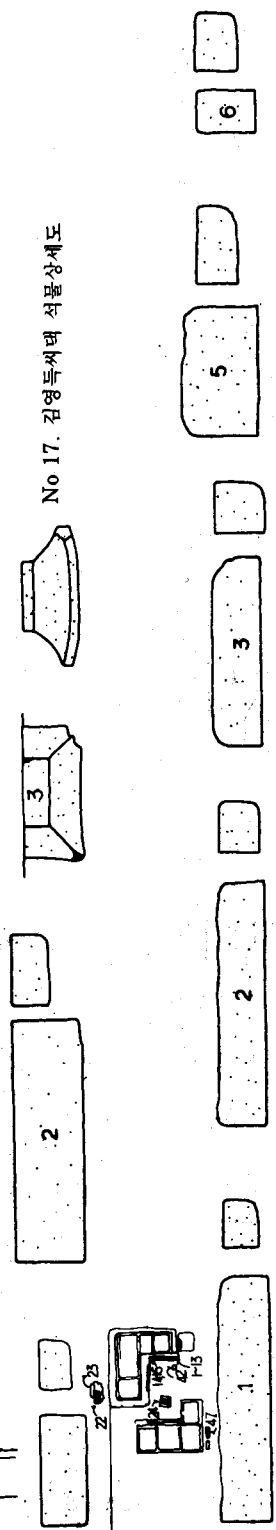


No 14. 조민금씨대 석물상세도



No 16. 정해운씨댁 석물상세도

No 17. 김영득씨댁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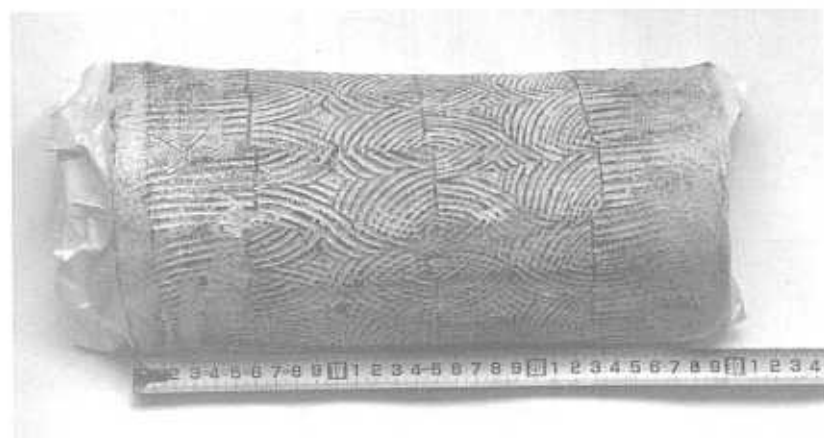


No 18. 장태영씨댁 석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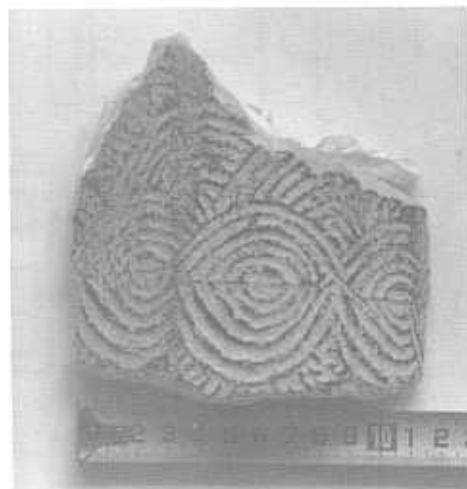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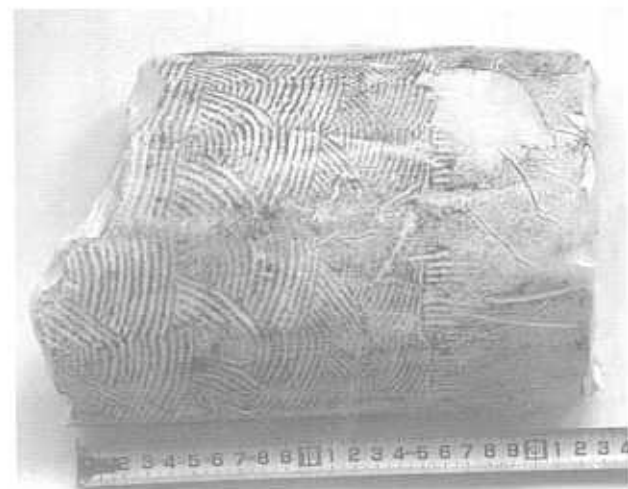




法泉寺址 수습 瓦片
(대체로 高麗時代 文様の
막새와 등무늬 치장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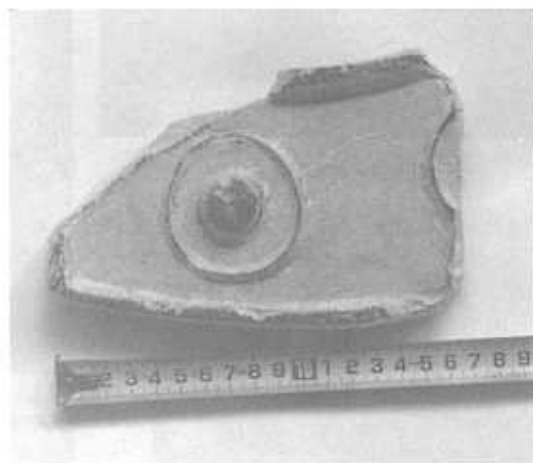


숫기와 등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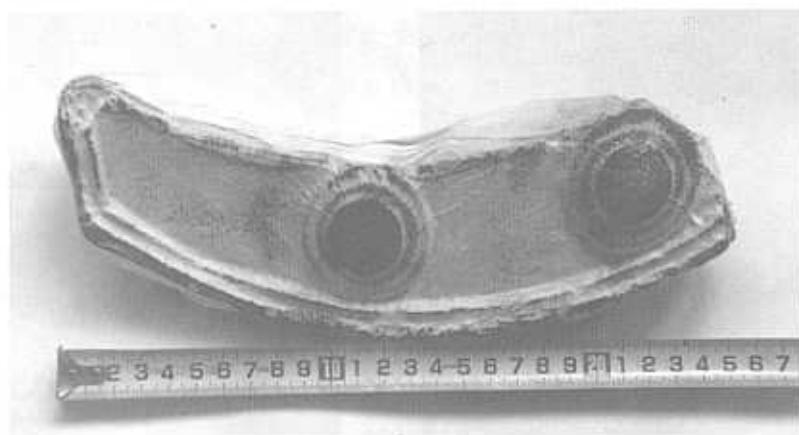




法泉寺址 수습된 숫막새



암키와 등무늬 片



암막새 片



이덕룡씨 대 석물



채봉천씨 대

김양옥 가옥의 계단



VII. 智光國師 玄妙塔

李 榮 姬(梨大 大學院 博士過程)

1. 構造樣式

2. 表面莊嚴

3. 特殊性 考察

· 時代性 · 地域性 · 西域文化影響

1. 構造 樣式

(1) 基壇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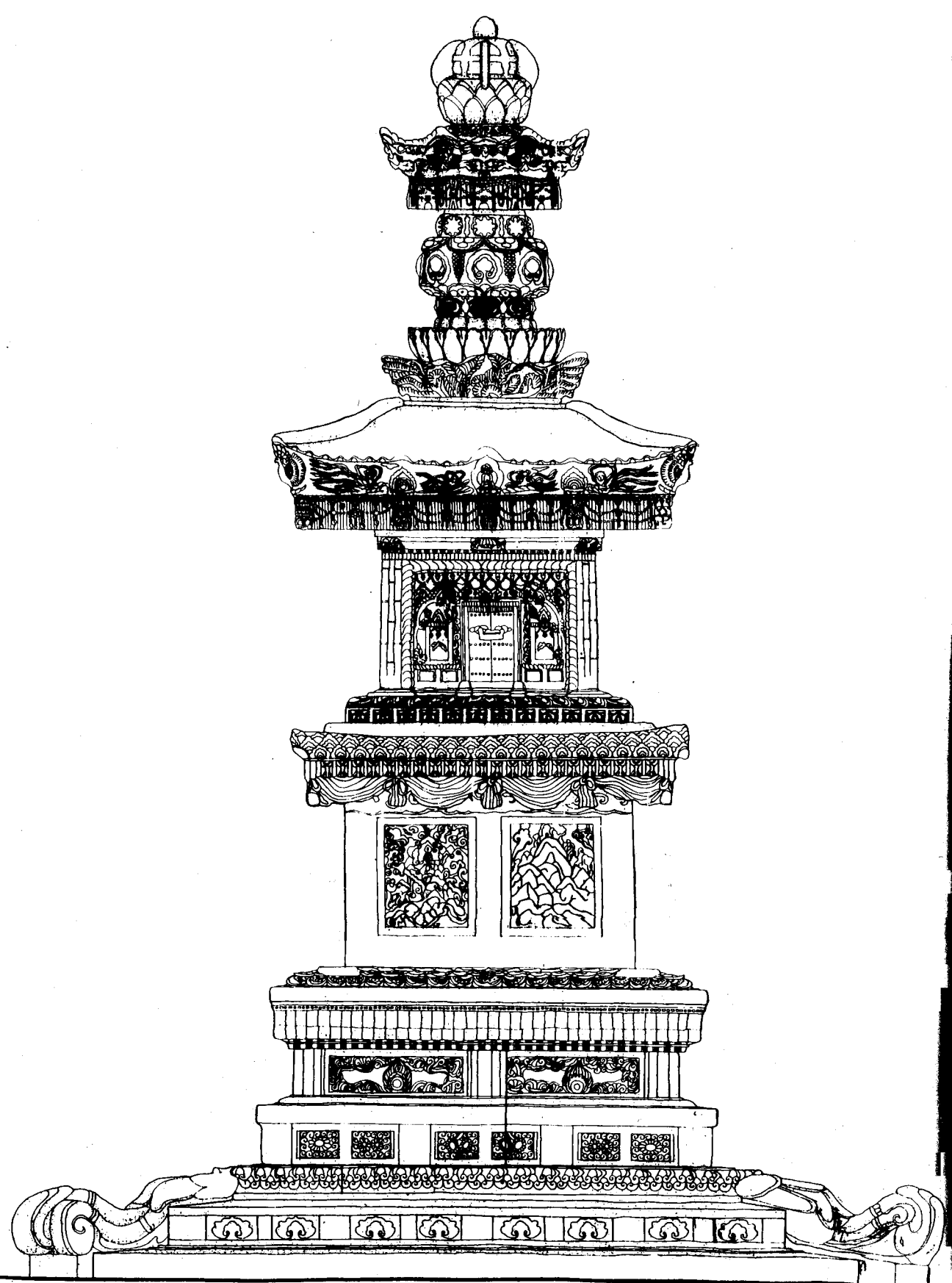
基壇部는 넓게 자리한 地臺石위에 下層基壇과 上層基壇의 二層基壇으로 구성되었으며, 上下 平面은 方形이다.

下層基壇은 다시 3段의 괴임壇 위에 面石과 甲石이 놓여지고 上層基壇은 그러한 下層基壇 위에 面石과 甲石으로 構成되어 전체 7層이라는 巨大한 構造를 이루어 塔身部를 받들고 있다.

地臺石은 浮屠 전체 높이 (6.3 m)와 안정된 비례를 유지하려 함인지 매우 넓다. (한변길이 : 310 여 cm) 특히 넓은 地臺石 四隅에는 動物의 발톱 모양의 彫刻이 바로 위의 下層基壇 제 1 괴임단에서부터 地上에 견고하게 밀착되어 (총길이 : 113 cm)있어 더욱 安定感을 준다.

또한 下層基壇과 上層基壇은 地臺石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한변의 길이는 줄어 들고 높이는 늘어나 높이와 넓이에 변화를 준 다양한 構造로 動物의 발톱 모양의 彫刻과 함께 塔의 安定美를 돋보이게 한 것도 하나의 特徵이다.

各 部材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枚石으로 結構된 下層基壇 제1괴임단(한변길이 : 약 269cm)은 上面에 낮은 1단의 괴임을 마련하여 두번째 괴임단인 蓮花壇을 받고 있다. 짧고 넓직한 7개의 기둥을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模刻하여 側面을 8등分하고, 그 內面에 花紋이 있는 小形眼象을 彫飾하였는데 西·北面은 마멸이 심하여 眼象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2괴임단은 4枚石으로 結構되었으며 한변의 길이가 약 230cm이다. 側面에는 復瓣의 蓮花紋이 彫刻되어 있는데 蓮瓣 끝에 장식된 귀 꽃이 二重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上面에는 角形과 弧形의 홈이 있고 그 위에 제3괴임단이 올려져 있다.

제3괴임단은 下層基壇 面石과 같은 돌로 역시 4枚石으로 되어 있으나 제1·제2괴임단에 비하여 높다. 側面에는 兩隅柱와 2柱의 넓은 撐柱를 새기고 隅柱와 撐柱로 나눈 空間에는 長方形의 花紋帶가 2區씩 彫刻되어 있고, 上面에는 弧形의 괴임을 마련하여 下層基壇 面石을 받고 있다.

下層基壇 面石에는 兩隅柱와 1撐柱가 模刻되었으며 다시 隅柱와 撐柱 左右에 短柱가 새겨져 있다. 兩隅柱와 1撐柱로 區分된 兩面 에는 중심에 寶珠를 두고 여백은 輪廓을 따라 火焰과 雲紋으로 장식하였다.

面石 위에 놓여있는 下層基壇 甲石은 1枚石으로 下面에 낮은 副緣이 있고 側面에 2段의 平行縱線紋과 蓮珠紋, 上面에 3重의 伏蓮 이 彫飾되어 있다. 上面 네 귀퉁이에는 큼직한 圓孔이 두개씩 뚫려 있는데 원래는 圓刻의 獅子像이 안치되었던 자리이나 獅子像의 遺失로 구멍만 남은 것이다.

上層基壇 面石도 單獨의 一枚石으로 基壇部の 部材들중 가장 높고 表面莊嚴도 가장 정교하다. 東·西·南·北 各面에 長方形의 額을 2區씩 만들고 그 안에 舍利函을 供養하는 場面(南面), 山景紋(北面), 雲龍紋과 神仙紋(東·西面)등을 彫刻하여 塔身內에 봉안된 舍利를 供養하고 있다.

上層基壇 甲石도 下層基壇 甲石과 같은 構造로 帳幕과 蓮花臺로 構成되어 있다. 下層基壇과는 伏蓮과 仰蓮의 對照로 構造의 아름다움을 살렸고, 둔중한 下層基壇에 비해 帳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장막 上端의 네 모서리에 약간의 反轉을 두어 화려하고 날렵한 분위기를 창출하였다. 이는 莊嚴의 意味가 강조된 上層基壇 面石 위에 놓인 甲石인 點으로 미루어 보아 당연하다 하겠다.

下層基壇과 上層基壇 甲石 上面의 蓮花臺는 莊幕 위에 번다하게 彫刻되어 八角圓堂型 浮屠에서의 蓮花臺의 意味는 약화되었지만 八角圓堂型 浮屠에서의 中臺石의 伏蓮., 上臺石의 仰蓮이라는 原則의 殘滓임이 분명하다.

上層基壇 甲石 위에는 一枚의 괴임석이 놓이고 그 위에 塔身石이 올려져 있다.

(2) 塔身部

塔身部는 각기 一石으로 된 塔身과 屋蓋로 構成되어 있다.

舍利가 봉안되어 있는 塔身石은 平面이 方形이며 塔身괴임이 模刻되어 있다.

塔身괴임은 앞은 側面을 12區로 區分하고 그 内部에 花紋이 있는 小形眼象을 彫飾하고, 上面에는 3重의 仰蓮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構造는 雙峰寺 澈鑑禪師塔(868)을 비롯한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883)과 같은 八角原堂型 浮屠에서 볼 수 있는 眼象石과 伏蓮臺로 된 塔身괴임대에 비하면 莊嚴이 가해진듯이 보인다.

方形의 塔身에는 三條의 竹幹으로 兩隅柱를 대신하였고 南·北面에는 文扉를 東·西面에는 窓을 模刻하여 阿彌陀와 觀音의 殿堂을 표시하고 있다. 上端部에는 左右에 料枋이 있어 門扉와 함께 木造建築 架構의 殘滓를 볼 수 있다.

玄妙塔의 해체·수리시 塔身 上面에서 方形의 큰 舍利孔이 확인되었는데 智光國師의 僧舍利가 塔身에 안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上層基壇 面石을 第1塔身으로 보고 塔身을 二層으로 간주하는 說도 있었으나 玄妙塔의 舍利孔 확인으로 잘못된 견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屋蓋石은 一石이며 平面이 方形으로 石塔形 屋蓋를 이루고 있는데 天蓋形이다. 興法寺 廉居和尚塔(844), 寶林寺 普照禪師彰聖塔(880), 大安寺 寂忍禪師照輪清淨塔(861), 大安寺 廣慈大師塔(950)과 같은 八角圓堂形 浮屠의 屋蓋石에서 볼 수 있는 橡木과 기와골, 막새기와 등의 模刻은 전혀 없고 高麗時代 石塔의 屋蓋石을 모방한 落水面 形式의 屋蓋石이다.

이러한 石塔形 屋蓋石은 이미 普賢寺 朗圓大師悟眞塔(940)에서도 볼 수 있었던 形式이다. 그러나 落水面의 合角部分에는 隅棟마루가 아주 두툼하게 이루어져 있어

역시 木造建築의 殘滓를 보여준다.

屋蓋石 네 귀퉁이에는 가룽빙가를 彫飾하여 八角浮屠 屋蓋石의 特徵인 귀꽃을 대신하였으며, 처마 부분에는 가룽빙가를 기준으로 중앙에 佛像을 그 左右에는 菩薩 대신에 火焰寶珠를 佛像과 火焰寶珠 사이에는 飛行飛天을 彫刻하였다. 처마 아래 부분은 휘장이 늘어진 형태로 瓔珞이 莊嚴되어 天蓋形 屋蓋를 이룬다.

(3) 相輪部

相輪部는 상륜받침·仰花·覆鉢·寶輪·寶蓋·寶珠 등의 各 部材가 층층이 쌓여 완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韓國石造浮屠中 相輪部가 보존되어 있는 예는 극히 소수인데 玄妙塔은 相輪部까지 원래의 형태를 잃지 않고 있어 玄妙塔의 構造美 뿐만 아니라 浮屠의 相輪部 研究에도 좋은 資料가 된다.

옥계석 위에 1단의 角形 받침을 각출하고 寶相花로 된 상륜받침이 놓이고 그 위에 瓣內 가장자리에 蓮珠紋이 섬세하게 조각된 立狀形 仰蓮이 2瓣으로 조각되어 仰花를 이루고 있다. 仰花石 위에는 一般型 石塔에서와 같이 扁球形의 覆鉢과 寶輪, 8角의 寶蓋와 火焰寶珠가 얹어져 相輪部를 구성하였다.

八角의 寶蓋는 八角圓堂型 浮屠의 八角을 고수하고 있는 유일한 部材이다. 또한 寶蓋는 매우 크고 강룽빙가와 瓔珞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 巨大한 浮屠塔의 基壇部·塔身部와 調和를 이룬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二層基壇과 塔身·屋蓋·相輪部로 構成된 玄妙塔의 전체 構造는 平面이 方形임이 가장 큰 特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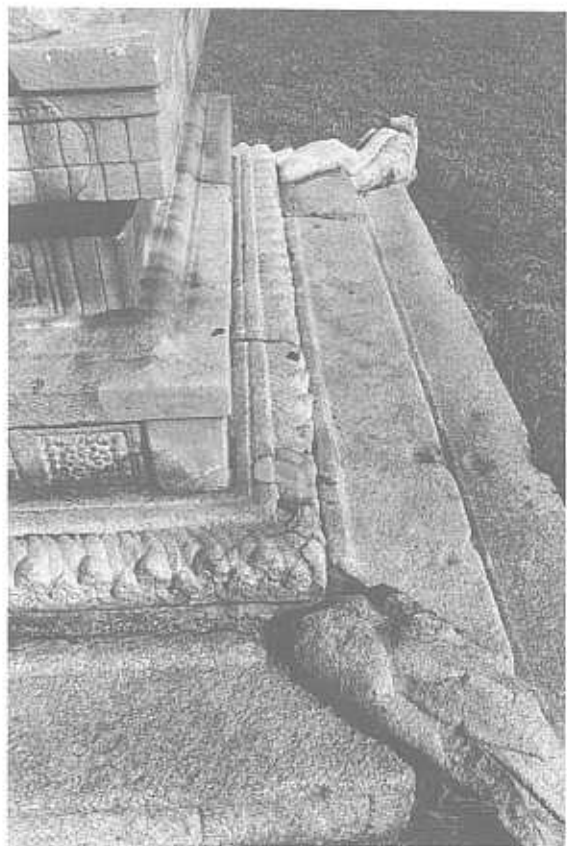
또한 基壇部の 3段의 괴임壇은 玄妙塔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構造로 塔身石을 받치기 위하여 7층의 部材로 높은 基壇을 이룬 點도 매우 특이하다.

下層基塔과 上層基塔의 甲石은 帳幕과 蓮花臺로 이루어진 동일한 構造이며, 天蓋形의 屋蓋石까지 帳幕形의 甲石과 屋蓋石이 面石과 塔身石을 두르고 있어 構造의 일관성이 돋보인다.

자칫 단조롭기 쉬운 方形의 巨大한 塔을 층층이 높이와 넓이에 변화를 주어 쌓아 올린 것도 玄妙塔의 構造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點이다.



智光國師 玄妙塔 全景



基壇部 詳細部分





屋蓋部分과 相輪部



2. 表面莊嚴

智光國師玄妙塔은 통일신라시대의 雙峰寺澈鑑禪師塔, 燕谷寺東浮屠에 필적할 만한 고려시대의 부도로 건축적 구조뿐만 아니라 장식문양이 매우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다. 거대한 탑의 표면을 세분하여 기단부에서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문양이 새겨져 있음이 주목되는데 순서대로 문양의 종류와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I) 基壇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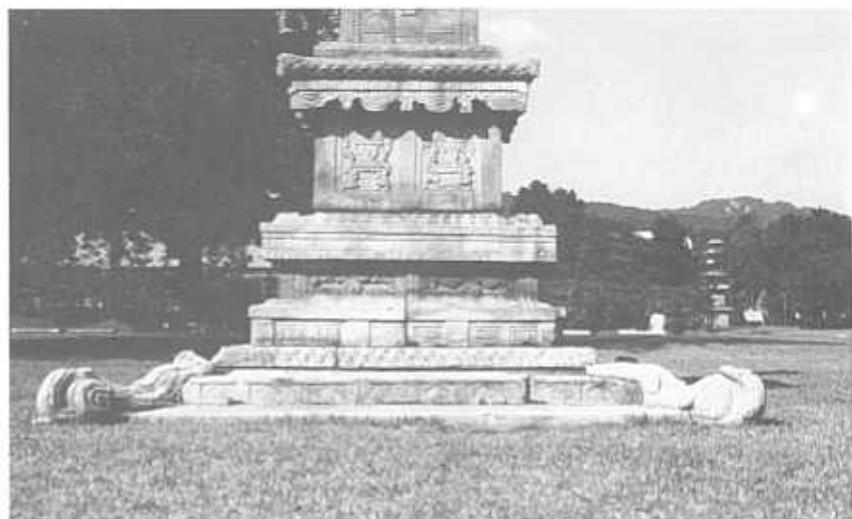
下層基壇 제1괴임단 측면에는 좁고 넓직한 기둥을 모각하여 8등분한 공간에 花紋이 있는 眼象이 일구씩 조각되어 있다.

眼象의 형태는 상부 중앙에서 위를 향한 尖頭를 중심으로 弧形이 좌우로 연속된 尖頭形 眼象이며, 특히 윤곽선 하부를 연장시켜 안상 밑에 꽃모양의 장식이 붙어있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안상이다.

연화단으로 된 下層基壇 제2괴임단에 조각된 蓮華文은 연판을 양분하고 좌우에 舌形을 조각한 復瓣에 연판마다 귀꽃이 장식된 有紋復瓣形式이다. 특히 연판끝에 장식된 귀꽃이 주문양처럼 두드러져 당초문같이 2중으로 연결되어 있어 귀꽃문이 단독문양으로 조각된 듯하다.

下層基壇의 세번째 괴임단 측면에는 좌우에 兩隅柱가 있고 2柱의 넓직한 撐柱로 三分한 공간에 2구씩 장방형의 花紋帶가 도합 6구 조식되어 있다. 6구의 화문대에 조각된 單位 草花紋은 동일하지 않고 배열도 사면에 차이가 있다.

3단의 괴임단 위에 놓여있는 下層基壇의 面石에는 1탱주로 양분한 각면에 寶珠紋이 조각되어 있다. 동서남북 사면의 보주문은 동일하게 조각된 것이 아니라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각면의 중심에 火焰寶珠를 두고 雲紋으로 가장 자리를 장식한 형태이다.



基壇部 全景



基壇部 細部文様



下層基壇 甲石 측면에는 한면에 38개의 縱線이 두단으로 새겨져 있는 平行縱線紋과 連珠文이, 상면에는 有紋單葉重瓣形式의 蓮華文이 조각되어 있다.

連珠文은 페르시아에서 발생한 문양으로 중국을 거쳐 7세기경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성행한 문양이다. 현묘탑의 연주문은 표면장엄중 외래적 요소를 지닌 문양이며 장식성이 강한 문양으로 부도의 표면장엄으로 처음 조각되었음에 특색이 있다.

蓮華文은 3중으로 번다하게 조각된 연판안에 화문이 좌우로 번져나가듯이 조각되어 연판은 외곽선 역할에 머물러 조각의 평면화와 함께 강한 장식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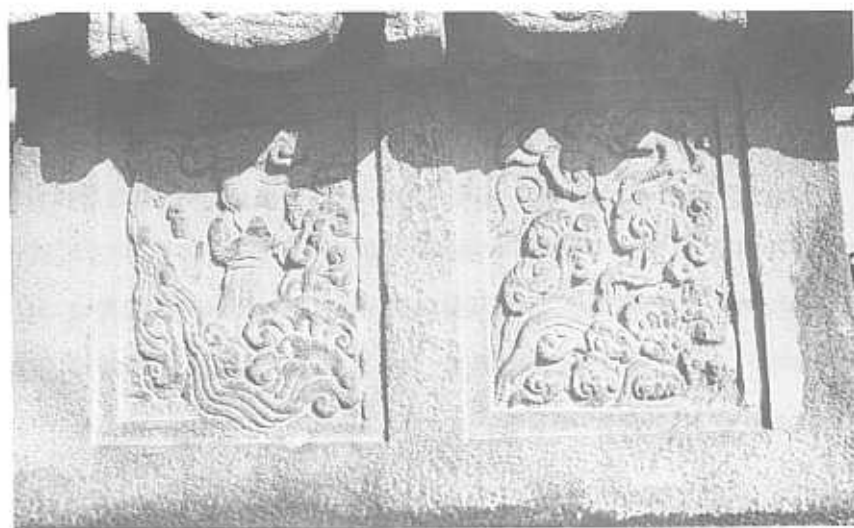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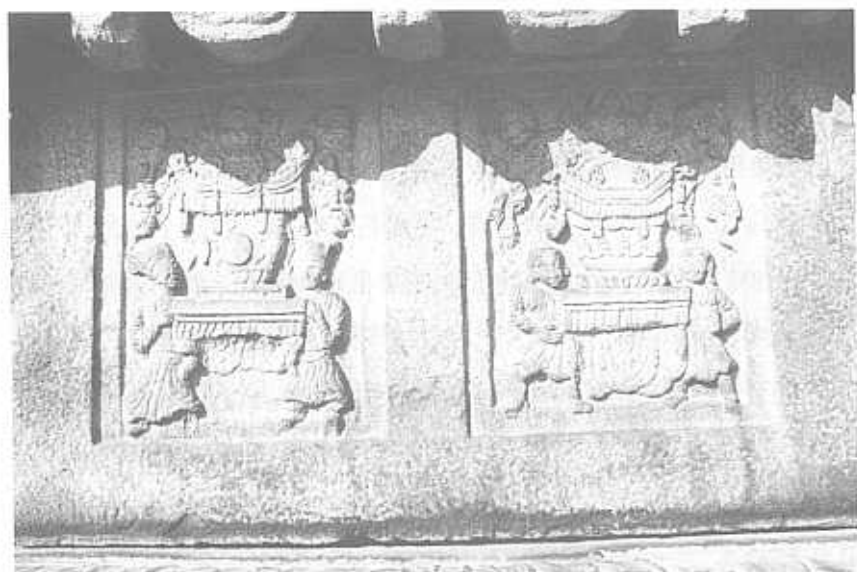
下層基壇 甲石 상면에는 원래 別石으로 圓刻된 사자상이 네 귀퉁이에 있었으나 지금은 圓孔만 남아있다.

上層基壇 面石에는 넓직한 공간을 2구씩 장방형의 額으로 나누어 그 속에 사리함을 공양하는 장면, 山景, 雲龍, 神仙 등을 주제로 한 각각 다른 문양이 조각되어 있어 마치 단독의 액자를 걸어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남면에는 좌우에 모두 舍利函을 공양하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왼쪽 장방형액에는 寶蓋와 寶珠, 瓔珞으로 장식된 사리병이 놓인 탁자를 佛者와 같은 사람이 양쪽에서 받들고 있고, 사람 위에는 구름위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는 공양상이 좌우에 조각되어 있다. 오른쪽 장방형액도 사람의 의복, 두발, 사리병의 모양, 공양상의 유무 등 다소의 차이는 보이나 왼쪽과 같은 장면으로 모두 國師의 사리가 들어있는 舍利瓶을 안치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탁자 위에 놓여진 그릇은 페르시아 Gillan 출토, 유리완과 동일한 유리용기 이므로 사리병을 탑속에 안치하기 위해 받들고 있는 장면임을 알 수 있다.

표면에 무늬를 도드라지게 하여 네모난 모를 잘라낸 장식을 시문한 유리병은 사산조 페르시아의 Cut-Glass기법의 유리이므로 페르시아미술의 영향이라는 표면장엄의 특수성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이다.

사산유리의 舍利杯가 조각된 것은 당시에 그러한 사리용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역으로 페르시아 지역과의 문화교류의 증거로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사리함이 부도에 조각되는 것은 浮屠가 僧舍利를 모시는 藏骨處라는 점에서 이해 가능하며, 전대에 비해서 사리함을 공양하는 장면이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은 탑의 주인공인 지광국사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면의 좌우 장방형액에는 부도의 표면장엄으로 처음 보이는 山景紋이 조각되어 있다. 얇은 선각으로 산봉우리를 묘사한 기법은 조각이라기 보다는 회화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기며, 특히 장방형 틀속에 조각되어 있어 한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한다. 왼편 산경문의 중앙에는 불감이 마련되어 있어 불세계의 중심에 솟아 있다는 수미산이 아닌가 한다.

동, 서면의 장방형액에는 神仙紋이 좌우에 조각되어 있는데, 동면에는 神仙紋(右), 雲龍紋(左)이 서면에는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다.

神仙紋은 구름위를 主者 1인이 從者 2인(西面) 혹은 3인(東面)을 거느리고 손에 보주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다. 主者를 크게 조각한 구성은 불상의 삼존형식과 같고, 동면과 서면의 신선은 좌우의 운용문을 향하고 있어 여기서 창출된 동적인 분위기 매우 우수하다. 종자를 거느리고 가는 신선은 지광국사가 입적한후 극락왕생의 길로 가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이는 국사의 입적후 사리를 받들고 안치하는 장면(남면), 불타의 거처인 수미산을 산경문으로 조각하여 국사의 내세를 묘사하였다고 본다면(북면), 동서면의 신선문은 입적후 다음 북면의 수미산으로 향하는 국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서면에서 신선문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雲龍紋이다. 동면의 왼쪽과 서면의 오른쪽의 장방형 액내에 피어오르는 구름속에서 목을 길게 빼고 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飛翔하는 용이 조각되어 있다.

雲龍紋은 팔각원당형 부도에서 즐겨 사용된 소재인데 현묘탑에서의 운용문은 운상계로 승천하는 용의 장엄한 자태를 평면에 조각하였음이 특징이다. 용의 다리와 발톱, 꼬리의 표현과 가는 몸체는 사실성이 부족하나 용의 몸체에 비늘을 표시하여 용의 특징만은 잘 나타내었다. 현묘탑의 운용문은 다른 문양과 관련해보면 아마도 국사의 성불을 기원하는 마음을 승천하는 용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下層基壇 甲石이 평행중선문과 연화문으로 구성된 것 처럼 上層基壇 甲石도 帳幕과 장막 상단에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帳幕은 평행중선문이 상단을 장식하고 아래로 커튼처럼 휘장이 드리워져 있다. 세 곳에 매듭이 묶어져 있고 매듭과 매듭 사이에 생긴 주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매듭을 당기면 장막이 아래로 내려치질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사실성이 돋보인다. 이와 같은 장막이 기단의 갑석에 처진 이유는 석굴사원에서 장막으로 불감을 만들어 불상을 안치하는 것처럼 면석에 조각된 내용을 격상시키기 위한 방편에서 인 듯하다.

상층기단 갑석 상면의 연화문은 伏蓮과 仰蓮의 차이는 있지만 하층기단 갑석 상면의 연화문과 같은 有紋單葉重瓣形式이다. 마멸이 심하여 연판속에 장식된 문양은 확인할 수 없으나 중심에서 좌우로 번져나가듯이 조각되어 있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2) 塔身部

탑신괴임 측면의 眼象은 하층기단 제1괴임단보다 더 세장한 기둥으로 구획된 공간에 12구 조각되어 있다. 안상의 형식은 내부에 화문이 있는 尖頭形으로 하층기단 안상과 동일하나 尖頭를 기준으로 하여 좌우로 弧形이 외반되었을 뿐아니라 윤곽선이 이중으로 조각된 차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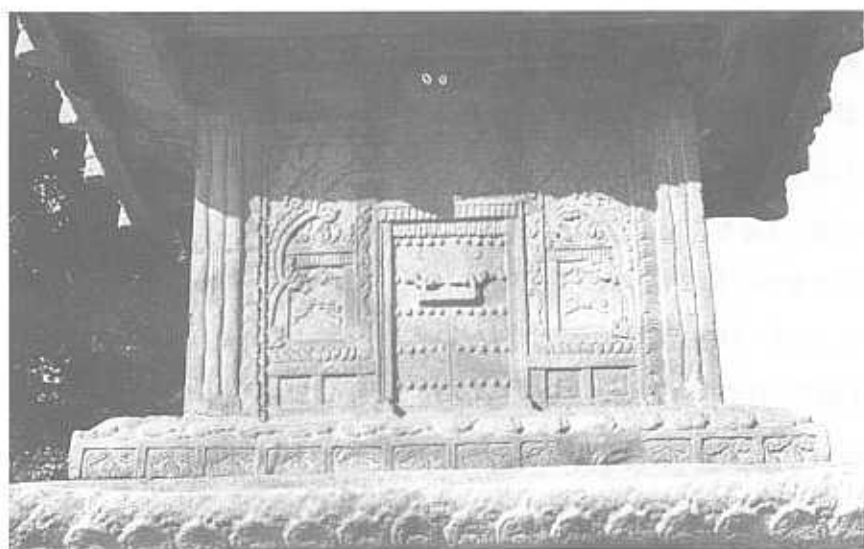
같은 탑에서 동일한 문양이 한번 이상 조식됨도 특이하지만 조각된 안상에도 차이를 주어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음도 주목되는 점이다. 또한 시대가 내려올수록 안상의 원 뜻을 잃고 장식문양으로 흘러가는 추이도 잘 보여주고 있다.

塔身은 동서남북 사면중 남면과 북면에는 門扉를, 동면과 서면에는 창을 조각하고, 문비와 창 위에는 소형창, 연화, 꽃, 꽃가지, 리본, 영락, 연주문 등 수많은 문양이 화려하게 장엄되어 있다.

浮屠의 塔身은 阿彌陀에 귀의한 자의 사리를 봉안한 殿堂을 의미하기 때문에 八角圓堂形 浮屠 탑신에는 門扉가 예외없이 모각된다. 현묘탑은 평면이 방형으로 변하였지만 사리를 봉안한 전당의 의미는 그대로 계승되어 탑신의 남·북면에 문비가 조각되어 있다.



塔身部 文様 1



塔身部 文様 2

門扉의 좌우에 3중의 윤곽선을 돌려 문틀을 만들고 문의 상부에는 커튼으로 장식한듯 종선문이 2단으로 쳐져있으며 중심에 큼직한 자물쇠와 둥근 鐵釘이 매우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동·서 탑신의 窓은 우리나라의 格子窓과 다른 尖頭 아치窓으로 표면장엄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창의 모양은 첨정의 아치가 좌우로 두번 연속되어 아래로 길게 연장되었으며 다시 그 안에 같은 모양의 윤곽선을 이중으로 돌려 창틀을 만들고 내부는 꽃, 리본, 영락으로 장식하였다. 창 아래 부분에는 창틀 모양의 작은 사각틀이 있어 창 의 사실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첨정의 아치창은 우리나라 미술품에 전혀 보이지 않는 특이한 창으로 지금까지 페르시아 계통의 華頭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으며, 그로인해 현묘탑의 외래적인 요소가 주목되어 왔다.

첨정 아치창은 원류는 페르시아이며, 이슬람왕조 압바스조에 이르러 일층 발전되었고, 압바스조와 빈번한 교류를 하던 당·송에 전래된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론된다.

문비와 창문 위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영락은 옥개석과 보개에 장식된 영락처럼 불타의 정토인 불국토를 상징한다.

영락은 원래 고대 인도인의 장신구이나 불교미술품에 이용될 때에는 단순한 장식의 의미에서 벗어나 장엄의 의미를 지니게 되어 불국토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옥개석 네귀통이의 전각부분은 날개를 활짝 핀 가룽빙가가 조각되어 있다. 보탁과 같은 옥개 아래부분의 묶음 위에 놓인 화반에 두다리를 올리고 양전각부에 날개를 배치하여 배를 앞으로 내밀고 비상하는 모습이다.

부도에 조각된 가룽빙가는 우리나라 가룽빙가의 일반적인 형태인 人頭鳥身形이 대부분인데 현묘탑의 가룽빙가는 완전한 새 모양임이 독특하다. 또한 기단부에 주로 조각되던 것이 옥개와 상륜부로 올라갔음도 주목된다.

옥개석 추녀에 해당되는 곳에는 사면에 三尊佛이 조각되어 있는데 중심에는 佛像이 그 좌우에는 菩薩像 대신에 火焰寶珠가 있다.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불상의 육계는 매우 크고 光背는 두광과 신광을 따로 표현한 舉身光이다. 보살상이 있을 자리에 화염보주가 조각된 것이 매우 특이하나 조각의도는 고찰이 불가능하다.

화염보주 좌우에는 중앙의 본존을 향하여 비상하는 飛天이 조각되어 있다.

飛天은 부도의 발생 이후 중대석 탑신 옥개석 등에 秦樂과 供養의 형태로 많이 조성된 문양이다.

옥개석 처마 아래부분에 내려져 있는 휘장에는 전면에 영락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화려한 옥개를 만들고 있다. 장엄의 의미는 탑신과 상륜부의 영락과 동일하다.

(3) 上輪部

屋蓋石 위에 놓인 상륜받침은 거대한 寶相花로 되어 있다.

寶相花란 瑞花로 보상화문이란 두개의 半 Palmette 葉을 합성하여 문양화한 것을 가르키나, 불교 동점 이후에는 연화문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인다.

상륜받침의 보상화는 입체화된 半 Palmette 葉이 옥개석의 두툽한 우동마루에 해당 되는 모서리와 사면의 각 중앙의 花形을 이루어 8송이의 꽃송이로 표현되어 있다. 부도의 표면장엄으로 단독으로 조각되었음이 주목되며, 입체화된 반 Palmette 葉 두개를 합치하여 화형을 만든 점에서 사사조 페르시아의 보상화문과 연결됨이 특징이다.

현묘탑의 거대하고 생기 넘치는 보상화문은 입체감 있는 페르시아 보상화문과 연결 되므로 컷-트 瑠璃杯, 尖頂 아치窓, 連珠文과 함께 西域美術의 영향이라는 표면장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문양이다.

立狀形 仰蓮으로 된 仰花의 연판 가장 자리에는 連珠文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扇球形의 覆鉢 상하에는 동일형의 화문이 매우 화사하게 조식되어 있고 측면에는 안상인 듯한 화형의 테두리 속에 매우 큰 여의두형 화문이 8개 조식되는 등 전체적으로 빈틈없이 조각되어 있다.

覆鉢의 상하에 놓여있는 寶輪에는 8개의 화문이 돌려져 있다.

팔각의 寶蓋에는 옥개와 동일하게 팔각의 전각부에는 가룽빙가를, 가룽빙가 사이에는 흐르는 듯한 구름을 새기고, 처마 아래부분에는 휘장을 드리우고 영락으로 장엄하여 화사함을 더하였다.

보개의 처마부분과 처마 아래 부분을 구별짓는 방법도 옥개석에서와 같이 연판을 이중으로 돌렸으며 보개의 裏面까지 화문을 빈틈없이 조식한 점은 현묘탑 표면장엄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寶珠는 立狀形 仰蓮을 2판으로 조각하여 세운 원대위에 火焰寶珠形 蓮華寶珠가 얹어져 있다.

3. 特殊性 考察

韓國의 石造浮屠는 7세기 중엽경에 發生하여 차츰 獨自의인 典型을 定立하는 發展系譜를 가지면서 石造美術의 한 分野를 이룬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文聖王 6年(844)의 廉居和尚塔을 시작으로 佛塔으로 통칭되는 方形重層의 一般型 石塔과 달리 基壇部 위에 單層의 塔身을 올리고 屋蓋와 相輪을 차례로 쌓은 八角圓堂型이라는 外形의으로 다른 形式을 이루게 된다.

八角圓堂型이란 地臺石·下臺石·中臺石·上臺石으로 構成된 基壇部와 僧舍利를 안치한 塔身部, 相輪部の 各 部材를 차례로 쌓아 올린 浮屠의 平面이 八角이라는 造形的 側面과 彌陀와 觀音의 殿堂이라는 佛教的인 側面에서 命名된 用語로 八角圓堂型 浮屠는 韓國石造浮屠의 典型 樣式이다.

八角圓堂型 浮屠는 景文王 8年(868)의 雙峰寺 澈鑑禪師塔에 이르러 典型樣式的 定型을 이룬 후 時代의 變化에 따라 典型樣式的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各部 構成의 생략과 間略化, 表面莊嚴의 變化라는 多小의 差異를 보이면서 高麗 時代까지 主流를 이룬다.

玄妙塔은 平面이 方形으로, 浮屠의 平面이 八角이라는 原則에서 완전히 벗어난 浮屠이다.

그러므로 玄妙塔은 八角圓堂型 浮屠라는 韓國石造浮屠의 典型樣式의 側面에서 보면 特殊形式의 浮屠라 일컫을 수 있다.

(1) 時代的 考察

玄妙塔을 建立하던 11세기는 高麗的인 社會·文化期에 돌입하는 時代이다. 前代 社會에서 새로운 社會로의 轉換을 의미하는 羅末麗初의 혼란과 豪族聯合政權으로부터 中央集權의 貴族政權으로 넘어가는 過渡期的인 光宗代(950~975)와 儒敎思想에 입각하여 中央集權의 貴族政治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成宗代(982~997)를 지난 후에야 비로소 高麗는 王權의 安定과 文物制度의 整備라는 王朝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社會·構造的 變化는 造形美術에 영향을 미쳐 高麗的인 色彩가 농후한 새로운 造形美를 탄생시킨다. 浮屠를 비롯한 石造美術도 1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前代樣式을 계승한 國初의 過渡期的인 樣式에서 벗어나 高麗的인 特性을 발휘하게 된다.

建造年代가 뚜렷하여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는 高麗初 浮屠로는 菩提寺 大鏡大師玄幾塔(太祖22年 : 939), 興法寺 眞空大師塔(太祖23年 : 940), 普賢寺 朗圓大師悟眞塔(太祖23年 : 940), 興寧寺 澄曉大師寶印塔(惠宗25年 : 945), 大安寺 廣慈大師塔(光宗 : 960), 鳳巖寺 靜眞大師圓悟塔(光宗16年 : 965), 高達寺 元宗大師慧眞塔(景宗2年 : 977), 普願寺 法印國師寶乘塔(景宗3年 : 978)등 8基가 있다.

이들 10세기 浮屠는 平面構造가 八角圓堂型이라는 點과 蓮花臺石이나 雲龍紋으로 된 基壇의 構成, 文扉形 彫刻과 四天王像·神將像을 彫刻한 塔身, 木造建築의 細部를 모방하여 緣木과 기와골·막새기와 등을 模刻하거나 石塔形을 모방한 落水面 形式의 屋蓋石 形式 등 統一 新羅時代 八角圓堂型 浮屠의 基本樣式 手法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八角圓堂型의 테두리 안에서의 變化이지만 急進的으로 변한 中臺石의 雲龍紋이나 上臺 仰蓮石의 複瓣 流行과 塔身받침의 생략등 高麗時代의 特徵을 지니면서 차츰 典型樣式에서 벗어나려는 기미를 보인다.

이중 大安寺 廣慈大師塔(960)과 鳳巖寺 靜眞大師圓悟塔(965)은 先代作 大安寺 寂忍禪師照輪清浮塔(861)과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883)을 모방하여 全部材가 八角의 平面을 이루는 八角圓堂型 浮屠의 樣式을 충실히 固守하고 있다.

寂忍禪師 惠哲은 九山禪門의 하나인 桐裏山派의 開祖이며, 廣慈大師 允多是 第3祖 이므로 先師의 墓塔을 모방하여 건립된 것은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曦陽山派를 開創한 智證大師 道憲(智詵)의 墓塔과 曦陽山派의 3祖인 靜眞大師 競讓의 墓塔이 유사한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興法寺 眞空大師塔(940)과 高達寺 元宗大師慧眞塔(977)은 11세기 浮屠로 넘어가는 過渡期的인 浮屠로 高麗初 浮屠의 特性을 잘 보여준다.

中臺石이 雲龍으로 변한 이 두 浮屠는 先代作 禪林院址浮屠(886)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高麗時代라는 새로운 時代의 전개를 상징하듯 雲龍이 더욱 急進의으로 변하여 八角의 瓦解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高達寺 元宗大師慧眞塔은 興法寺 眞空大師塔과 같이 地臺石이 方形으로 변하였을 뿐만아니라 基壇部의 下臺石도 八角이 아닌 方形이며, 中臺石은 中央에 龜趺形이 놓이고 左右에 龍이 배치된 독특한 형태로 八角의 固守가 점차 무너져감을 보여준다.

高麗初 八角圓堂型 浮屠에서의 八角의 瓦解는 基壇部 뿐만아니라 塔身部에서도 變化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興寧寺 澄曉大師寶印塔(945)의 塔身의 平面은 분명히 八角이나 上下가 좁아져 鼓腹과 같은 形態를 이루어 11세기 淨土寺 弘法國師實相塔과 같은 球形의 塔身이라는 새로운 樣式의 태동을 암시한다. 高麗初 造營으로 추정되는 佛國寺舍利塔에서의 높고 넓직한 竿柱形으로 雲紋이 조각된 中臺石과 鼓腹形 塔身도 八角圓堂型 浮屠의 解體過程을 보여준다.

10세기 浮屠에 나타난 이같은 細部的인 變化는 11세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社會 분위기와 합치되어 高麗의인 새로운 造形美를 지닌 浮屠를 탄생시킨다.

八角의 平面을 유지하면서 塔身만 球形으로 변한 淨土寺 弘法國師實相塔(顯宗 8年 : 1017)과 八角의 平面 構造에서 완전히 벗어난 玄妙塔이 11세기 浮屠의 造形美를 보여주는 代表的인 例이다.

浮土寺 弘法國師實相塔에서는 阿彌陀와 觀音의 殿堂을 의미하는 八角의 塔身이 1石의 球形으로 변하였고, 殿堂을 표현하기 위한 門扉의 彫刻도 없이 中央에 2條의 陽刻線을 橫으로 돌리고 다시 上下를 十字로 연결하여 그 交叉點에 花形을 두었을 뿐이다. 이러한 構造와 莊嚴의 획기적인 變化는 玄妙塔에 이르러 塔身部 뿐만아니라 全部材가 方形으로 변한다.

八角의 平面이 四角으로 변한 것은 高麗時代 石燈의 例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므로 高麗的인 特徵으로 볼 수 있다.

高麗時代 石燈에서는 八角을 基本形態로 한 新羅時代 以來의 典型樣式과 함께 上下 方形을 基本으로 하는 새로운 樣式이 탄생하여 高麗石燈의 特徵을 이룬다. 灌燭寺石燈(968)과 玄化寺址石燈(1020)이 代表的인 方形樣式으로 前代에 전혀 볼 수 없었던 高麗 特有的 樣式이며 陵墓 앞에 설치하는 朝鮮時代 長明燈 形式에 계승된다.

그러므로 八角을 기본으로 하던 石造美術이 方形의 特殊形式으로 변한 것은 高麗的인 造形美의 구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樣式은 絶頂에 이르면 퇴화하므로 韓國石造浮屠의 典型樣式인 八角圓堂型은 羅末麗初期에 樣式的 꽃을 피우고 高麗文化의 爛熟期인 11세기인 中葉에 巨大한 特殊 形式의 浮屠를 탄생시킨 후 차츰 쇠퇴한다. 그리하여 玄妙塔을 기점으로 僧侶의 舍利墓塔으로서의 기능은 차차 약화되어 石鍾型 浮屠가 高麗末 以後 流行하여 朝鮮時代까지 主流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玄妙塔은 高麗的인 社會·文化期를 이룩한 11세기 高麗의 所産이며 韓國의 石塔樣式이 7세기 후반의 感恩寺 三層石塔에서 典型的 始發을 이룬 후 發展期를 거쳐 新羅文化의 爛熟期인 8세기 中葉에 異型의 佛國寺多寶塔과 같은 前無後無한 塔을 탄생시킨 것과 같은 이치로 볼 수 있다.

(2) 地域의 考察

高麗時代 塔婆의 建立에는 많은 경우 地方民의 發願에 의하여 순수한 地方勢力과 民衆이 참여하여 地方的 特色을 드러냄이 하나의 特徵이므로 浮屠의 造營에도 상고해 볼 문제이다.

특히 浮屠는 國家的인 造營이 아니라 門下의 弟子들에 의해 僧侶가 住錫하던 寺刹에 건립되기 때문에 地方的 特色이 많이 가미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므로 地域的 要因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玄妙塔의 所在地는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의 法泉寺로 南漢江 中流地城이다.

이 地域은 원래 高句麗의 平原郡으로 新羅時代에는 文武王때 金海(金官京)·南原(南原京)·清州(西原京)·忠州(中原京)와 함께 原州가 5小京의 하나인 北原京이 되어 古代로 부터 文化의 中心地였다.

이 地城에는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의 法泉寺址外에 地正面 安昌里의 興法寺, 鼎山里의 居頓寺등 隣接地域에 高麗時代의 代表的 寺刹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佛教文化의 中心地 였음을 알 수 있고 이들 寺刹은 智光國師 海麟(984~1070)·眞空大師 忠湛(869~940)·圓空國師 智宗(930~1018)과 같은 高麗時代 高僧들의 住錫地였다.

忠湛은 羅末麗初의 高僧으로 高麗 建國후에는 太祖의 王師였고 太祖가 碑文을 親選할 정도로 王權과 밀접한 관계였다. 智宗 또한 禪宗의 高僧으로 顯宗 2年(1011)에 王師에 봉해졌고 그후 國師에 추증되었다. 禪宗은 地方豪族과 연결되어 高麗의 建國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들 高僧의 行蹟을 통해 高麗初부터 중요한 地域으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海麟代에 이르러서는 法相宗의 勢力強化로 法泉寺를 중심으로 하여 地方文化가 형성되었을 것이며, 高麗中期 以後 계속 文化의 中心地가 되었을 것이다. 이들 寺址에 遺存하고 있는 浮屠·塔碑·石塔·幢竿支柱를 비롯한 多數의 石造遺物들이 高麗時代 地方文化의 근거지 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地域은 또한 古代로부터 南北을 잇는 交通의 中心地 였다. 佛教文化가 일찍부터 싹튼 忠州地方과는 堤川·丹陽으로 이어지는 竹嶺街道와 水安堡·聞慶으로 이어지는 鳥嶺으로 연결되며, 漢江, 下流와의 交通은 漢江 자체를 이용하여 驪州·楊平을 지나 西海岸까지 연결된다.

古代文化는 사람의 이동과 함께 전해지는 것이므로 陸·海 交通의 中心地인 法泉里를 비롯한 原州地方에 先進文化의 流入은 어느 地域보다 강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交通의 中心地이자 高麗初부터 地方勢力이 강했던 地域的 特殊性이 玄

妙塔과 같은 特殊形式의 浮屠의 造營에 영향을 끼쳤던 것

(3) 西域美術의 影響

玄妙塔의 表面莊嚴에서 나타난 特殊性은 高麗의 11세기 美意識과 함께 西域과의 文化交流의 흔적까지도 보여주는 點에서 매우 중시된다.

裝飾紋樣을 단순히 建築·彫刻·繪畫 등에 종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藝術學의 立場에서 볼때 裝飾의 本質이란 作品에 한 民族의 藝術意慾을 매우 순수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에 있으므로 各時代나 地方儀式을 裝飾紋樣을 통해 단적으로 알수도 있다.

또한 紋樣에는 裝飾의 效果의 達成外에 精神的인 面도 表出되므로 한 나라의 風土 혹은 民族性에 의해 形成되는 것이며, 民族 혹은 國家를 중심으로 하는 文化風土에 의해 양성되고 여러 民族 또는 國家間的 文化交流에 의하여 形成 發展되는 面도 있기 때문이다.

玄妙塔의 表面莊嚴에는 上層基壇 面石에 彫刻된 컷-트 琉璃杯를 비롯하여 東·西塔身에 彫刻된 尖頂아치窓, 상륜받침을 이루고 이는 아칸더스風의 寶相花, 連珠紋 같은 外來的 色彩가 짙은 紋樣外에 中國의 石窟寺院에서 많이 보이는 帳幕이 莊嚴된 點이나 塔의 全面에 빈틈없이 細密하게 紋樣을 彫刻한 번다한 裝飾과 강한 左右 對稱性·兩面性 등의 特徵을 통해서 西域美術의 影響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文化傳來의 증거로도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中國文化圈을 넘어선 中國 以西의 影響을 보여주므로 西域이라 지칭하였으나 西亞細亞의 페르시아 文化圈으로 좁혀 볼 수도 있다. 페르시아 文化圈이란 西의 로마(Roma)·그리스(Greece), 東의 印度·中國을 연결하는 文明의 十字路上에 위치한 地理的 여건으로 東·西의 兩代文化圈의 影響을 받으면서 獨自의인 藝術資質을 가미시켜 독특한 文化를 형성한 이란(IRAN)의 古代文化圈이다.

玄妙塔의 表面莊嚴에서 西域美術의 影響을 보이는 紋樣中 舍利函은 供養場面에 彫刻된 舍利瓶은 表面에 무늬를 도드라지게 하여 네모난 모를 잘라낸 페르시아 사산조 時代의 컷-트 技法의 琉璃杯이므로 페르시아 美術의 影響을 분명히 예시한다.

또한 塔身의 門扉 左·右의 窓은 우리나라 格子窓과 완전히 다른 아-치(Arch)가 左右로 두번 연속되어 아래로 길게 연장된 尖 아-치(pointed Arch)窓으로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아라비아인에 의해 建立된 이슬람제국의 東칼리프국인 압바스조 建築技法과 연결된다.

이 특이한 窓은 페르시아 建築의 特徵인 아-치를 이용하여 이슬람제국에 의해 완성된 多葉尖아-치窓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文化圈과의 交流를 보여주는 좋은 例이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玄妙塔에는 중세 페르시아왕조인 사산(Sasan)조(226~641)와 이슬람제국의 압바스(Abbas)조(750~1258)文化의 影響이 분명히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페르시아 美術의 要素를 어떻게 理解할 수 있는가. 玄妙塔의 西域美術의 影響은 玄妙塔이 造營되던 11세기 高麗와 페르시아 地域과의 直接交流에 의한 페르시아 文物의 傳來라는 側面과 高麗時代 以前에 이미 전래된 페르시아 文化의 影響으로 特殊形式의 玄妙塔에 外來的인 色彩가 짙은 紋樣이 조각되었다는 두가지 側面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高麗와 페르시아 文化圈과의 直接交流는 歷史書의 記錄을 통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에 페르시아 地域에 대한 언급은 아라비아(Arabia)의 페르시아어로의 직접 번역인 大食(Tazi·Tazik·Taeshik)으로 표현되어 있다.

“顯宗 15年(1024) 9月 乙未에 大食國의 悅羅慈 등 100人이 와서 土產物을 바쳤다. 大食國은 西域에 있음”¹⁾

“顯宗 16年(1025) 9月 辛巳에 大食國의 夏詵·羅慈 등 100人이 와서 土產物을 바쳤다.”²⁾

“靖宗 6年(1040) 11月 丙寅에 大食國 客商 保那蓋 등이 와서 水銀·龍齒·占成

1) 「高麗史」世家, 卷第5, 顯宗

甲子十五年九月乙未 大食國悅羅慈等一百人 來獻方物 大食國在西域

2) 「高麗史」世家, 卷第6, 顯宗

乙丑十六年九月辛巳 大食蠻商 夏詵羅慈等 一百人來獻方物

香·沒藥·大蘇木 등을 바치니 有司에 명하여 館에서 잘 대우하게 하고 돌아갈 때에 綿을 많이 주었다.³⁾

이러한 歷史的 事實은 일반적으로 東西貿易을 중계하던 大食國 商人이 당시 極東貿易의 中心地인 中國의 廣州·泉州를 거쳐 中國人의 안내로 高麗까지 왔으며,⁴⁾ 계속적으로 貿易을 하지않고 3회에 불과했던 것은 高麗와 大食商人들 사이에서 中繼貿易을 하던 宋商의 제약이었다는⁵⁾ 側面에서 받아들여진다.

唐代 以來 宋太祖를 비롯한 歷代 君主의 海外貿易 장려정책과 발달된 商業經濟로 宋과 페르시아 地域과의 交易은 宋代에 이르러 더욱 활발해졌고 文物交流도 왕성해졌다. 玄妙塔의 尖頂아치窓과 같은 이슬람제국의 建築技法이 中國에 전래되어 浙江의 靈隱寺와 廣東 光孝寺의 塔에 나타난 것도 하나의 例이다.

또한 高麗와 宋과의 관계는 북쪽 거란의 세력 우세와 3차에 걸친 侵入으로 체결되 거란과의 朝貢關係의 成立으로 顯宗11年(1020)부터 國交가 再開되는 文宗 27年(1072)까지 公的인 관계가 단절되어 統一新羅와 唐만큼 밀접한 關係는 아니었다.

이러한 高麗와 宋과의 交易은 宋과 페르시아 地域間의 활발했던 南海貿易의 影響을 많이 받았을 것이며, 宋에 전래된 페르시아 文化와 이슬람 文化는 直接·間接으로 高麗에 전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페르시아 文化圈과의 文物交流의 흔적은 玄妙塔을 제외한 高麗時代 美術品을 통해서 전혀 證明할 수 없으므로 玄妙塔의 西域美術의 要素도 當代 페르시아 地域과의 直接交流에 의한 影響으로 보기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둘째, 玄妙塔 以前에 이미 페르시아 美術의 要素를 지닌 美術品이 있어서 그 影響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問題이다.

3) 「高麗史」世家, 卷第6, 靖宗

庚辰六年十一月丙寅 大食國客商保那蓋 來獻水銀·龍齒·占城香·沒藥·大蘇木等物命有司 館待優厚及還時賜綿.

4) 震壇學會(1961), 「韓國史」中世篇, (서울: 乙酉文化社), pp.313-314.

5) 金庠基(1974), 「東方史論叢」,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455~456.

이러한 사산조 美術의 要素를 띤 美術品の 出土는 高麗時代 以前에 이미 페르시아 文化圈과의 접촉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며, 傳來經路는 페르시아의 中國과의 東西交流狀況으로 보아 唐을 통한 間接交流로 볼 수 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西의 東로마帝國과 中國文化의 上昇期인 魏·隋 初唐, 印度文化의 獨創的 隆盛期인 쿠산(Gusan)말·굽타(Gupta) 時代에 해당되는 王朝로 아카이메네스조 때부터 집적해온 실력이 統合的으로 발휘되었다.

사산조 文化는 國際貿易에 의한 로마의 비잔틴 帝國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를 통해 印度와 中央亞細亞를 경유하여 隋·唐의 文化에 큰 影響을 끼쳤다.

唐나라에 전래된 페르시아 文物은 僧侶와 使臣의 往來가 빈번했던 新羅에 전래되어 올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史記」卷33, 雜諸 第2의 「色服」·「車騎」·「器用」·「屋舍」條에 나오는瑟瑟·氍毹·毵毹·翡翠毛·玳瑁·紫檀·沈香 등이 이러한 狀況을 間接的으로 보여주며, 앞서 설명한 美術品도 文化交流의 증거들이다.

韓國의 文化는 中國文化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와의 접촉은 많지 않았으나 古代東西交流 狀況과 페르시아 美術의 要素를 지닌 古代美術品을 통해서 볼 때 페르시아 地域과의 접촉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크로드와 南海航路를 이용하여 中國과 貿易한 페르시아인이나 아라비아 商人에 의한 中國을 통한 間接交流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멀리 페르시아 文物이 新羅時代 以來 전래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玄妙塔의 西域美術의 影響에 대해 두가지 側面에서 考察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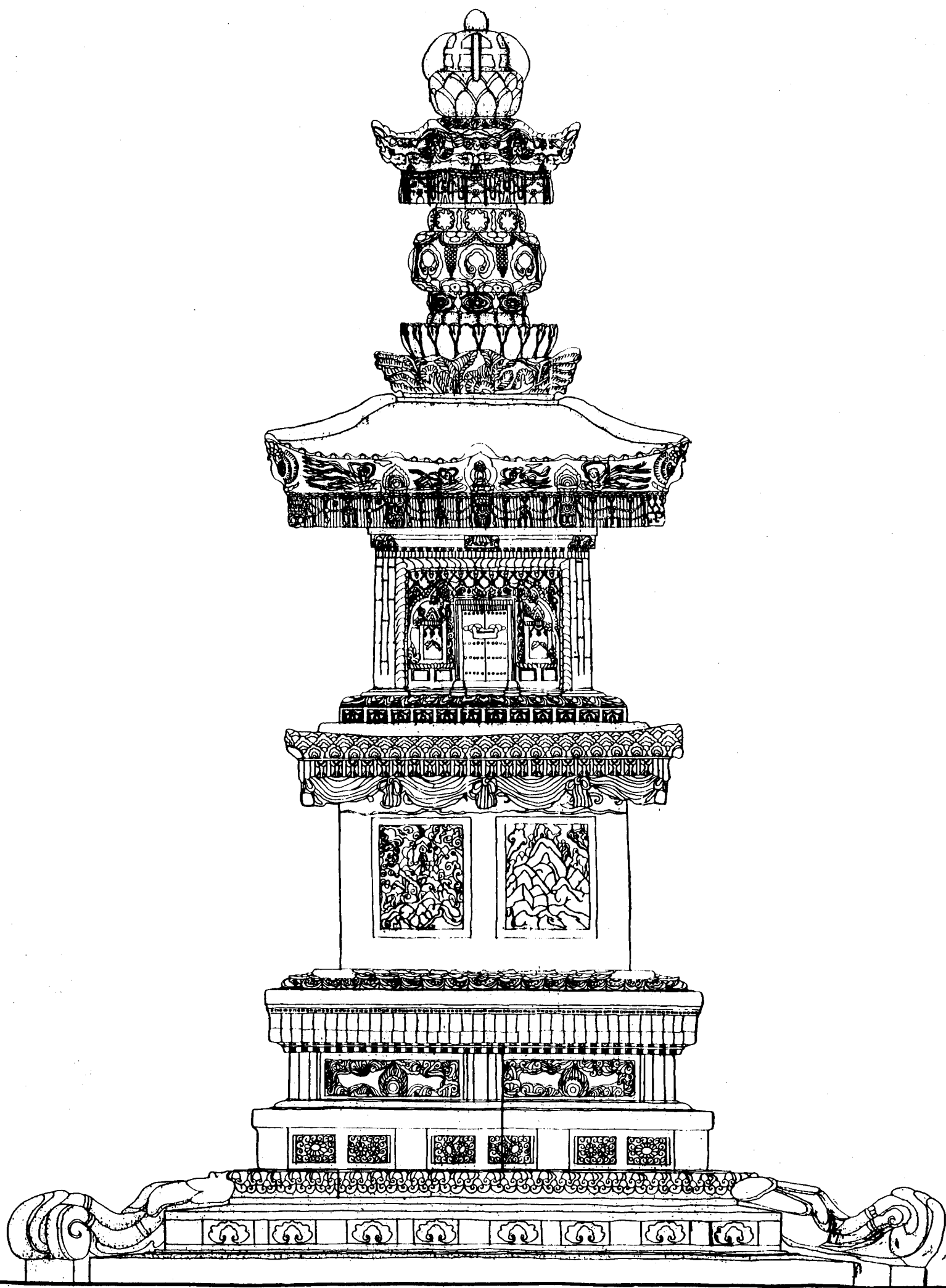
玄妙塔의 紋樣중 페르시아 文化圈의 影響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컷-트 琉璃杯, 尖頂아치窓, 아컨더스風의 寶相化·連珠紋 등의 彫刻樣式은 當代 활발했던 海上交易를 통한 페르시아 地域과의 直接的인 交易에 의해 페르시아 美術에 대한 知識이나 遺物의 傳來로 그 受容이 가능하였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高麗史」에 기록된 大食商人의 3차례에 걸친 到來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玄妙塔 以來의 高麗時代 美術品에서는 페르시아 美術의 要素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이 문제이지만, 新羅時代 以來 페르시아 美術의 影響을 입었음을 現存하는 遺物을 통해 밝힐 수 있었으므로 玄妙塔에 페르시아 美術의 要素가 보이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現存하는 페르시아 影響을 지닌 美術品으로나 古代東西交流 狀況으로 보나 玄妙塔의 西域美術의 影響은 分明하므로, 中國文化圈을 넘어서 페르시아 文化圈과의 접촉을 보여주는 중요한 미술품의 하나라는 점에 가치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11세기의 東西交流의 狀況으로 보아 페르시아 文化圈과의 直接的인 접촉에 의한 影響으로 볼 수 있는 면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관련 遺物이 出土된다면 多角的인 考察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智 光 國 師 玄 妙 塔 正 面 圖 (文化財管理局 資料提供)



高麗法泉寺
智光國師

塔
碑
殿
址
調
查
概
要

考古美術同人會刊

目次

一、補修及調査経緯	二〇〇
二、補修及調査日誌	二〇二
三、遺蹟	二〇五
1、發掘前狀態	二〇五
2、中央建物址	二〇六
(1) 中央建物址 基壇	
(2) 中央建物址 石階	
(3) 中央建物址 礎石	
(4) 中央建物址 信枋石	
3、東建物址	二〇七
(1) 東建物址 基壇	
(2) 東建物址 石階	
(3) 東建物址 礎石	
(4) 東建物址 信枋石	
4、東建物址	二〇九
(1) 西建物址 基壇	
(2) 西建物址 石階	

(3) 西建物址 礎石	
(4) 西建物址 信枋石	

5、南石築	二一〇
6、北石築	二一一
7、碑台石	二一一
8、塔址	二一一
9、板石	二一二
四、遺物	二一二

別表目次

1、發見遺物目録	二二三
2、出土遺物目録	二二四
3、礎石 心心間 實測値	二二五
4、基壇 實測値	二二六
5、南石築 實測値	二二六
6、塔碑 實測値	二二七
7、傳西院址 礎石 心心間 實測値	二二七
〔附〕 文獻目録	二二八

寫真目次

- 1、南石築(補修前・西南에서)
- 2、南石築 崩壞狀態(南에서)
- 3、中央建物址 東南隅 基壇(發掘前・東에서)
- 4、北石築 東(發掘前・東에서)
- 5、西建物址 西南(發掘前・西南에서)
- 6、中央建物址 基壇(南에서)
- 7、碑台石(南西에서)
- 8、全景(發掘 및 補修中・西南에서)
- 9、東建物址 北基壇(發掘中・西에서)
- 10、西建物址 北石築 崩壞狀態(發掘後・東에서)
- 11、中央建物址 基壇(發掘・復原後・南에서)
- 12、遺物 陳列狀態(補修後・西에서)
- 13、아취形 石彫物(Ⅰ)
- 14、아취形 石彫物(Ⅱ)
- 15、西院址 發見遺物
- 16、西院址 礎石
- 17、浮屠
- 18、奉爐台石
- 19、西建物址 礎石
- 20、出土遺物 瓦磚類
- 21、出土遺物(石燈火舍片(大) 및 玄妙塔片(小))

圖面目次

- 圖 1、配置圖
- 圖 2、中央・東・西建物址 및 南・北石築平面 實測圖(發掘後)
- 圖 3、中央・東・西建物址 縱 및 橫繼面圖(發掘後)
- 圖 4、(1) 南石築 現狀 實測圖
(2) 南石築 復原後 平面 및 立面圖
- 圖 5、建物址 및 石築 復原後 平面圖
- 圖 6、(1) 北石築 復原後 立面圖
(2) 建物址 復原後 斷面圖
- 圖 7、(1) 中央建物址 및 南・北石築 復原後 斷面圖
(2) 西建物址 基壇 및 石階詳細圖
- 圖 8、遺物 實測圖(Ⅰ)
- 圖 9、遺物 實測圖(Ⅱ)
- 圖 10、遺物 實測圖(Ⅲ)
- 圖 11、石燈火舍石片

一、補修 및 調査經緯

法泉寺는 高麗初期에 建立된 國家大刹로서 특히 智光國師의 住刹로 이름 높다.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院村 漢江流域에 現存하는 遺址는 隣在하는 同代의 興法寺址 및 居頓寺址와 더불어 이 地域의 古代 三大寺址의 하나이다.

法泉寺址의 中心部에는 部落이 들어있고 그 以外는 모두 田畠으로 變하여서 옛 伽藍의 자취는 거의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같이 變貌된 속에서 오직 部落 後崗一段 높은 台地위에 「碑殿」이라 불리오는 南向의 一廓만이 保存되어 왔는데 이곳에는 有名한 智光國師 玄妙塔碑가 傳來하여 있었다. 玄妙塔^註은 日政 初에 掠奪되어서 日本 大阪으로 搬出되었던 일이 있었으나 碑石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키고 解放後 國寶로서 保護를 받아왔다. 이 浮屠는 그後 곧 返還되어서 景福宮 庭園에 安置되었는바 六·二五動亂에는 砲彈의 被害로 塔身以上이 大破되었다가 國立博物館에 의하여 다시 復元되었다. 이와같이 崎嶇한 運命을 겪었으나 이 作品이 高麗浮屠美術을 代表하는

最大の 傑作品임에서 그에 대한 研究는 자연히 이곳 原在地點에 대한 注目을 모아왔던 것이다.

六·二五動亂後 이 塔碑가 建立되었던 南端의 石築이 漸次頹落하여 全面崩壞의 危機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一九六四年度 文化財補修對象의 하나로 決定되어서 同年十月三十日 開催된 文化財委員會 第一分科委員會 第十二次會議의 審議를 거쳐 이곳 石築의 全面補修를 實施하게 되었으며 監督官으로서 同委員會의 黃壽永氏가 위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上程된 工事設計圖面은 現地 教育區廳에 의하여 作成된 것으로서 특히 北側石築의 設計에 있어서 原形에 대한 配慮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補修決定과 同時에 再設計에 着手키로 되어서 申榮勳文化財 專門委員의 現地調査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아울러 臺地위에 埋沒되어 있는 建物址의 發掘調査를 追加併行키로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玄妙塔의 原位置를 正確히 밝히므로써 그와 現存하는 碑石 및 建物과의 關係를 調査하는 동시에 이 一廓의 性格을 把握하자는 곳에 있었다. 그것은 나아가 高麗 最優의 塔碑 安置에 따르던 特別한

建築의 配案과 그 壯嚴의 자취를 더듬을수가 있을 것으로 期待하였기 때문이었으며 동시에 이같은 調査는 遊離되어버린 玄妙塔 研究를 위하여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이 매우 限定된 調査範圍를 豫定하고 石築工事와 建物址의 發掘이 同時에 實施되므로써 比較的 保存狀態가 良好한 當代의 遺構를 究明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이 發掘地域과 部落民家內에서 收拾된 石造遺物들을 고루 調査할 수가 있었다. 이곳에서 收拾된 遺物은 發掘된 西建物址위에 陳列되어 永久保存케된것또한 이번 工事に 따르는 收獲의 하나이었다.

【註一】現地古老談에 의하면 그당시 玄妙塔은 이곳 丁氏宗山에 있어 宗家어른인 丁柱燮氏가 塔을 팔았다고 한다. 이때 日人三人이 와서 現地人을 고용하여 塔을 解體하여 漢江에서 數隻의 船便에 실었다 한다. 이때 塔속에서 「文書보따리」가 나왔으며 塔下地中에서는 金佛이 나왔다 한다. 또 이때 「술하미」라고 불려오는 人形巨石도 搬出하였다 한다(丁奎瑞氏 六十八歲 丁奎浩氏 七十三歲談話).

一九六四年 年末까지 完工키로 豫定되었으나 위에서言及한바와 같이 設計檢討의 必要에 따라서 着工은 嚴冬

이 지난 翌年 二月上旬부터 長韓建設株式會社(代表.. 鄭復永氏)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二月六日 監督官이 參與하여 工事執行에 대한 指示가 있었고 建物址發掘調査는 金東賢氏를 中心으로하여 實測 撮影 記錄 또한 同氏가 擔當키로 하였다. 二月十日 着工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추위가 풀리지 않은 野外에서의 作業은 容易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作業은 順調롭게 進行되었으며 建物址北側의 傾斜面에서는 當初의 石築이 거의 完全히 露出되므로서 石築工事를 위하여서도 發掘의 成果를 얻을수가 있었다. 建物址는 中央과 그 東西各一의 計三棟의 規模를 밝힐 수 있었으며 이들 三建物이 둘러싼 前庭中央에 玄妙塔의 原在地点을 推定할수가 있었다. 동시에 南面大石築中央에서 石階段의 存在를 推定하고 그 用材의 일부 특히 彫刻이 絶妙한 虹霓形石片을 얻은것은 큰 收獲이었으며 또 中央建物址 西南地下에서 類例없는 石燈火舍片을 發見할 수 있었으나 이의 部材와 位置를 確認할 수는 없었다. 이들은 아마도 玄妙塔을 搬出할때 塔內의 舍利寶物과 같이 日本으로 運搬된 것으로 推定되었는바

그破片에서 미루어 塔에 相應하는 아름다운 作品임을 짐작케 하였다.

調査의 範圍를 넓혀서 이 建物址 西쪽 傾斜地에 保存된 「원터」라고 불리우는 小建物址를 實測하였으며 또 調査期間 中部落內 民家에서 檢收한 古石材등을 實測 撮影하였다. 그리하여 現地教育區의 周旋과 發掘 및 工事擔當者의 協力에 의하여 所期の 目的을 거의 達成할 수가 있었다. 少額의 經費로써 이루어진 調査이었으나 이 建物址의 規模와 그 配置의 解明은 이곳에 奉安되었던 塔碑와 더불어 高麗初期(十一世紀) 建築研究를 위한 하나의 資料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補修工事와 發掘調査는 同月二十八日 終了되었다.

二、 補修 및 調査日誌

一九六五年 二月十日

午後三時頃 現場에 到着하여 工事 地域의 現狀 調査와 發掘 및 工事에 關한 協議를 끝내고 中央建物址 一部

와 碑 앞의 잔디를 除去하였다.

二月十一日

告祀를 마치고 本格的으로 잔디를 除去하였다. 現狀 撮影을 끝내고 南石築의 西部 實測을 完了하였다. 午後 現狀測量을 部分的으로 着手하였다.

二月十二日

中央建物址에 덮인 흙더미를 除去하기 始作하였다. 흙을 除去하자 上層 基壇面石이 一部 露出되었다.

昨日에 이어 南石築의 現狀 實測과 地形測量을 部分的으로 着手하였다.

二月十三日

昨日에 이어 中央建物址의 東側 및 西側에 堆積된 흙을 除去하고 南石築의 實測이 끝났으므로 石築 東部를 解體하기 始作하였다. 午後二時頃부터 비가 내리기 始作하여 作業을 中斷하였다. 黃壽永 秦弘燮 文甲洙 鄭明

鎬姜敬淑金和英氏來場一泊

二月十四日

하루 종일 中央建物址 北側 排水路에 쌓인 흙과기 作業하였다. 一行은 居頓寺址를 踏査하고 上京 南石築 中央部 階段址의 雜石을 解體하고 雜石 代身 鋌다듬된 石材를 골라 築石하였다.

二月十五日

中央建物址 周圍에 흩어진 石材를 寸數別로 區分하여 西建物址 東쪽에 整理하여 놓고 繼續하여 掘土作業을 進行하였다. 中央建物址의 흙이 除去되자 基壇이 二重으로 構成되었다는 것을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南石築 西部에서 무너져 흩어 파묻혀 있는 石材를 發掘하기爲 해 탐색 트랜치를 넣기 始作하였다.

二月十六日

中央建物址의 周圍에 흩어져 있는 흙을 完全 除去하였

다

南石築 西部를 復原築石하기 始作하였다. 發掘된 石材만으로는 缺失된 部分을 補充하기 힘들었다. 그래 部落에 散在되어 있는 石材들을 調査하였으나 石築材로 使用할 수 있는 寸數 맞는 石材는 거의 없었다.

中央建物址 東北 및 西北角 基壇石이 完全히 들어났다.

東 및 西 兩建物址 北側과 北石築 사이에 山積된 흙을 除去하기 始作하였다.

二月十七日

南石築 復原 築石工事は 缺損된 部分만을 除去하고는 거의 完結되었다.

二月十八日

北石築은 東 및 西 兩建物址의 北側 石築을 除外하고는 大部分이 무너져서 排水路에 흩어져 있었고 그대로 있는것조차 攪亂되어 있어 一切 解體하고 積心石을 쌓기

爲하여 北石築 前面線上으로부터 一·五미터의 幅으로
山을 깎았다.

二月十九日

碑臺石을 解體하고 定石시켰다. 中央建物址의 上 및
下 基壇甲石 및 面石을 整理하였다. 中央建物址 實測을
完了하였다.

二月二十日

降雨로 作業을 中止.

二月二一日

中央建物址의 礎石만을 除外하고 上 및 下 基壇의 整
理作業을 끝냈다.

二月二二日

北石築을 復原築石하고 東 및 西 兩建物址 周圍의 排

水路를 整理하기 始作하였다. 南石築 西側面의 길을
確認하기爲하여 現道路 一部를 파고 그 길이를 밝혔다.

二月二三日

中央建物址 定礎를 끝내고 整地作業을 完了하였다.

二月二四日

東 및 西 兩建物址의 前面 基壇石을 바로 잡고 礎石을
露出시키기爲하여 發掘作業을 始作하였다.

南石築의 不足 石材를 完全 補充 築石시켰다.

二月二五日

西建物址 西基壇石을 整頓하고 東建物址의 東側 排水
路에 쌓인 흙을 除去시켰다.

二月二六日

三棟의 建物址 周圍 바닥을 發掘하여 板石을 露出시켰

다. 西建物址의 蓮花文 圓形柱座 礎石 한 개를 原位置에 옮기고 西建物址 作業을 完結하였다.

二月二七日

東建物址 基壇石을 整頓하고 礎石 周圍를 整地하였다. 部落에 散在되어 있던 石彫物(浮屠一、蓮花臺石四點、石塔上臺甲石一點、塔身一點、屋蓋石二點、奉爐台石一點、用途不明 石物一點)과 아취形 石造物一點을 西建物址에 옮기여 配列시켰다.

二月二八日

排水路 整理作業 및 잔디입히기 作業을 끝내고 三棟의 建物址 및 石築實測을 完結하였다. 끝으로 美化作業을 마치고 今般發掘調査 및 補修工事を 一段落 지었다.

三、遺蹟

1、發掘前狀態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殿址는 東과 北에 앞으막한 山이 있고 前面에는 南石築을 境界로 殿址보다 앞은 밭이었다. 自然의 地勢는 正南을 向하고 中央建物址 前面에는 現在 景福宮內에 있는 智光國師 玄妙塔의 碑가 中央建物址 南北 中心線上으로 부터 東에 位置하여 있고 中央建物址 東西 兩側에는 中央建物址의 規模와 大同小異한 二棟의 建物址가 있다. 이 三棟의 建物址 後方에는 北石築의 一部分이 露出되어 있었다. 南石築 中央部の 階段址는 破壞되어 雜石으로 補修되어 있었다.

道路는 西建物址 西南에 部落民의 手苦로 近年에 山을 깎아 마련되었다고 한다. 北石築 石材는 山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流水로 崩壞되어 建物址와 北石築 사이의 排水路에 埋沒되어 있었다.

三棟의 建物址 亦是 모두 흙에 묻혀 있었고 中央建物址와 西建物址의 一部 遺構만이 露出되어 있었다.

南石築은 全面積의 半程度가 崩壞되었고 그 石材를 埋沒된 것도 있었고 아주 자취를 감춘 것도 있었다. 最上

段의 長台石은 단七個만이 제 位置에 남아 있었다.

2、中央建物址(圖二·三·五·六·三·七·一)

中央建物址는 南石築面上으로 부터 約 四四·五五尺 距離에 東西中心線을 두고 位置하였다. 이번 發掘에서 는 基壇 上面全體와 基壇石을 完全 露出시켰다. 比較的 殘存狀態가 良好하였다.

四面의 基壇은 花崗石을 加工하여 整然하게 二層으로 築造하고 前面中央에는 石階를 두었던 것이 밝혀졌다.

規模는 下層 基壇 外緣이 東西間 四三·七尺 南北間 二·四尺에 達한다. 壇上에는 方形礎石 八個가 前面三間 側面一間의 配列로 位置하였던 것 같다. 北쪽 上層 基壇 面石은 他三면의 面石과 달리 彫刻없는 鋌다듬된 것을 使用했고 下壇 面石은 四面 同一한 手法의 石材를 使用하였다.

(1) 中央建物址 基壇(圖七·一 寫眞三·六·一一 別

表四)

中央建物址 周邊의 基壇은 加工된 花崗石을 整然하게 築成한 二層 基壇으로 上層 基壇 四隅 面石을 除外하고는 若干의 移動이 있었을뿐 大部分이 良好하게 殘存하여 全體規模를 把握하기에 수월하였다. 下層 基壇을 構成하는 地台石은 地盤面으로부터 一寸을 뺀 길이 二·九七尺으로부터 十·八九尺에 達하는 大小 石材를 한줄로 둘러 下層 基壇 外緣을 構成하였다. 部材의 길이는 一定치 않았으나 地面으로부터의 높이는 同一하였다. 隅角部는 ㄱ字形으로 만든 石材를 使用하였다. 下層 地台石 위에는 陰刻된 石材 高 一·二二尺 幅 八·六寸 길이 三·六三尺 乃至 九·五七尺의 石材를 올려 놓아 下層 基壇의 높이로 삼았다.

그리고 이 石材와 上壇 地台石과의 사이에는 幅 一·一五尺 길이 一·六五尺 厚 三·三寸 되는(寸數가 一定치는 않음) 板石을 찾아 幅 二·三二尺 前後의 基壇幅을 갖게 하였다. 板石은 東 및 西側과 前面에만 남아 있을뿐 後面은 거의 缺損되었다.

上層 基壇의 構造는 上層 地台石 위에 面石을 놓고 面石 위에 甲石을 덮었다. 面石은 高 一·一五五尺 長 三·

六三尺乃至七·五九尺의 陽刻된 石材로 後面을 除外한 南 및 東·西에 築造하였다. 上層 地台石은 板石에 가리어 그 크기를 알 수 없었다. 上層 基壇 甲石은 高七·九寸 幅九·九寸의 石材로서 四隅角에는 「字形」으로 다듬어 올려 놓았다. 甲石은 한귀를 물당하였고 面石보다 앞으로 一·三寸 턱을 내놓았다.

(2) 中央建物址 石階(圖面七—寫眞一一)

基壇 前面 中央部에 石階를 놓은 것이 發掘에 依해 發見되었다. 그러나 디딤돌 二個만이 남아 있을 뿐 나머지 附屬材는 發見되지 않았다. 石階用 石材는 基壇石과 同一質의 石材를 使用하였다. 石階構造는 上層 基壇 甲石과 下層 基壇 地台石 사이에서 어떤 方法으로 構成되었는지는 殘存한 디딤돌 만으로는 簡單히 判明할 수가 없었다. 디딤돌의 크기는 高七·一寸 幅一·三五尺 및 一·四二尺, 長三·六三尺과 五·二八尺

(3) 中央建物址 礎石(圖二·五·一〇—一、二 別表

三)

中央建物址 및 그 周邊에서 八個의 礎石 全部를 發見하였다. 그러나 原位置에서 移動이 없었다고 믿어지는 礎石은 長方形 礎石 한個뿐이고 그外 七個의 礎石은 全部 位置가 아닌 곳에 있었다. 礎石 八個中 움직이지 않았다고 믿어지는 長方形 礎石外에는 모두 거의 正方形 礎石이었다. 礎石 心心間의 距離는 알길이 없었고 단지 前面 三間 側面 一間인 것만을 確認하였다.

(4) 中央建物址 信枋石

前列 中央間 西側 礎石 앞에서 信枋石 一個를 發見하였다. 上面은 鋌다듬되었고 兩側은 한턱 내려 刻하였다.

【附記】이 中央建物址 東端部에는 깊이 구멍이 파져 있었는데 部落民에 의하면 日人 盜掘의 痕跡이라 한다.

3、東建物址(圖二·三·五)

東建物址는 中央建物址의 東에 西向하여 位置하였고 中央建物址 東側 下基壇 地台石 外緣으로부터 東建物址 西基壇 地台石 사이의 距離는 四·二九尺이었다. 基壇石

은埋沒되어 있었으며礎石亦是 흙에 묻혀 있었다。基壇石과礎石을露出시킴으로서東建物址의規模가 밝혀졌다。基壇은南面과甲石을除外하고는比較的良好하게殘存하여 있었다。基壇은加工된石材를整然하게築造하고建物址前面中央에는石階를 둔痕跡이 있었다。基壇規模는基壇外面南北間이三九・二尺東西間이一八・五尺이었다。壇上에는正方形礎石八個가前面三間、側面一間으로構成되어 있었던것 같다。八個의礎石中東南및西南隅의礎石二個만이基壇石崩壞로原位置에서 빠져나갔고 나머지 여섯個의礎石은原位置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1) 東建物址 基壇(寫眞九別表四)

東建物址周圍의基壇石材는加工된花崗石으로使用되었고二重面石위에甲石을놓아基壇높이로하였다。地台石은地盤面으로부터二・六五寸을리고길이三・九六尺、四・九五尺의石材로外緣을構成하였다。地台石위에는一面만鋸다듬된石材를二段으로組積하였고그위에甲石을엮었다。

(2) 東建物址 石階

建物址前面基壇中央에石階를두었다。그러나디딤돌一個와石階地台石一個만이남아있을뿐나머지遺構는發見치 못하였다。石材는基壇石과同質의 것이었고石階의構造는알수 없었다。

(3) 東建物址 礎石(圖二・五別表三)

正方形礎石으로서 거의移動되지 않았다。八個의礎石中東南隅礎石一個가喪失되고西南隅礎石一個는基壇 밑에 떨어져 있었다。나머지六個는原位置에良好하게 남아 있었다。그中西北隅礎石一個에는直徑一・三二尺의円形柱座를刻하였다。

(4) 東建物址 信枋石

前面과後面の礎石間에서信枋石이發見되었다。兩側面에서는發見되지 않았다。信枋石은여러片石을連結하여한礎石間을가로질렀다。信枋石의加工形式은二種으로되어 있었다。

4、西建物址(圖二·三·五)

西建物址는 中央建物址의 西에 東向하여 位置하였고 中央建物址의 西側 下基壇 地台石 外緣으로부터 西建物址 東側基壇 地台石 사이의 距離는 三·六三尺이었다. 이 建物址는 中央建物址의 南北 中心線을 基準으로 東建物址와 對稱的인 位置에 있었다. 發掘前에는 蓮花文을 刻한 圓形柱座 礎石 一個만이 露出되어 있었고 大部分의 遺構가 埋沒되어 있었다.

攪亂된 南側基壇과 建物址 全域의 甲石을 除外하고는 遺構殘存狀態가 比較的良好하였다. 基壇의 組積手法은 東建物址의 것과 同一하였고 礎石만이 그 形態를 달리하였다. 三棟의 建物中 이 建物址에만 特殊礎石을 使用한 것으로 보아 建物 自體도 特殊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規模는 基壇 外面에서 南北 四〇·四尺、東西 一八·四尺에 達하고 壇上에는 圓形柱座에 蓮花文을 刻한 礎石 四個와 蓮花文이 없이 圓形柱座만을 刻한 四個(二個는 喪失)의 礎石으로 前面 三間 側面 一間的 建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 西建物址 基壇(圖七—二)

西建物址의 基壇은 東建物址의 것과 同一手法으로 加工되었다.

(2) 西建物址 石階(圖七—二)

建物址 前面 基壇 中央部에 東建物址에서와 같이 石階를 두었다. 디딤돌과 石階 地台石이 各各 한 개씩 남아 있었고 甲石과 同一 水平面上에 石階 最上 디딤돌이 殘存하여 있었다.

(3) 西建物址 礎石(圖二·五 寫眞一九別表三)

西建物에 使用된 礎石은 中央建物 및 東建物에 使用했던 礎石과는 달리 圓形柱座에 蓮花文을 刻한 礎石 四個와 圓形柱座만이 있는 礎石(二個는 缺失되었으나 圓形柱座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됨) 四個가 前面 三間 側面 一間으로 構成되었다. 南側의 礎石 二個는 喪失되었고 前面

中央間 南側礎石 一個는 建物址 南東쪽에 굴러 떨어져 있었다. 나머지礎石 四個는 發掘에 依해 露出되었다. 이곳 蓮花紋礎石과 그 配置는 특히 注目할만 하다.

(4) 西建物址 信枋石

西建物址의 信枋石은 中央 및 東建物址의 것과 同一한 方法으로 加工되었다. 前面 三間에는 信枋石이 없었고 나머지 部分에는 全部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發掘結果 北側礎石間과 西側礎石間에서 信枋石 七個가 發見되었다.

以上の 中央과 東西建物址는 玄妙塔碑設置와 有關한 것으로서 그들과 前後하는 麗初로 推定된다. 이 一郭을 碑殿이라 하는 傳稱도 注目할만 하다.

5、南石築(圖二·三·四·五 寫眞一·二·八 別表五)

南石築은 中央建物址의 東西 中心線으로부터 四·四五尺의 距離에 位置하였다. 石築의 東西 全長은 一一四·一

八尺에 達하며 그 中央面에 階段址가 있었다. 西側面의 길이는 六·六尺임이 밝혀졌다. 東側面의 길이는 이번 發掘에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단지 石築의 東端角의 位置를 確認하여 石築 全長을 구하였다. 石築의 築石方法을 地台石위에 四段으로 石材를 築造하고 最上段에는 長台石을 올려 놓아 石築 높이로 삼았다. 地台石은 石築面으로부터 四·一寸 突出시켰고 最上段 長台石 亦是 石築面으로부터 一寸 밖으로 내어 놓았다. 地台石과 第一段 石材와의 맞춤은 地台石 뒷쪽을 한터 第一段石을 끼여 맞추고 차례로 第二·三·四段을 組積하였다. 石築 뒤는 積心石을 石築面으로부터 四·九五尺안까지 石築面에 垂直으로 쌓았다. 積心石은 雜石을 使用하였고 크기는 一定치 않았다.

階段址 兩側石面의 줄눈은 長台石으로부터 第一段石까지 통줄눈으로 되었고 特殊形大石을 양쪽에 한개씩 두었다. 이곳 石築은 北의 것과 함께 이곳 台地위에 配置된 建物들과 同代일 것이며 이같은 台地造成은 玄妙塔碑와 關聯된 것으로 생각된다.

6、北石築(圖二·三·五·六—寫眞四·一〇)

北石築은 中央建物址 北東建物址 東 및 北·西建物址 西 및 北에 山과 建物址와의 境界를 지었다. 北石築은 中央建物址 北基壇 外緣으로부터 四·六二尺 東建物址 北基壇 外緣에서 四·六二尺 東基壇 外緣에서 三·三二尺 西建物址 北基壇 外緣에서 四·六二尺 西基壇 外緣에서 三·六三尺의 間隔으로 位置하였다. 北石築과 建物址間은 板石을 깔지 않고 排水를 爲해 施工되었던것 같이 보였다. 築石方法은 南石築과 同一하였으며 長台甲石만을 한꺼 모집기를 하여 石築面으로부터 一寸 내놓았다. 石築의 補強을 爲한 積心石은 없었고 直接 흙에 쌓았다(이번 補修時 積心石을 넣었음)。그런데 中央建物址 北石築 西隅에만 一面 鋸다듬된 石材를 넣었다. 鋸다듬된 것으로 보아 石築用 石材의 나머지를 넣지 않았나 생각된다.

7、碑台石(寫眞七 別表六)

碑台石은 二段으로 되었었다. 上壇 東 및 西側의 石材는 高 六·九四寸 幅 一·〇五五尺、一·三五尺 長 八·〇八

五尺이었었고 北側의 石材는 高 六·九五寸 幅 一·〇五六尺、一·三三二尺 長 九·八尺의 것으로서 上面은 磨滅이 심 陰刻하였고 外側面은 어이童子를 刻하였으나 磨滅이 심 하여 뚜렷하지 못하였다. 下壇 東과 西側의 石材는 高 八·二五寸 幅 一·四八五尺 長 九·七六尺으로 上面과 外側面만이 鋸다듬되었었다. 下壇石은 上面 뒷쪽을 한터 내려 上壇石을 끼워 맞추도록 施工되었었다. 上壇石 및 下壇石은 四隅角에서 各各 斜續이음으로 連結시켰다. 下壇石 外側에는 高 三·九五寸 幅 四·九五寸 長 一·八一五尺、三·五三尺의 石材로 下壇石이 밀려 나오지 않도록 補強하였다.

이번 工事時 西側 上壇石을(三片으로 切斷되어 있었음) 東側의 것과 바꾸어 놓았고 北側의 것은 南側(南側 上壇石은 喪失되었음)으로 옮기어 놓은것은 補強을 期하고자한 것이다. 이 玄妙塔碑는 高麗宣宗二年乙丑(一〇八五)의 建立으로서 國寶第五九號이다.

8、智光國師 玄妙塔址

智光國師 玄妙塔址는 部落古老의 말을 따라서 中央建

物址의 南北 中心線으로부터 碑와 對稱 位置에 있으리라 생각되어 一邊 七尺인 正四角트랜치를 깊이 四尺 程度 發掘하였다.

그러나 土層은 完全攪亂되어 있어 塔址로서 確定지을 만한 根據를 把握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擴張發掘하려 하였으나 制限된 經費의 不足으로 斷行치 못하였다. 단지 그곳에서는 加工痕迹이 없는 石材(高一·一五尺 幅一·三尺 長五尺)만이 發見되었다(塔 基礎石의 하나라고 생각됨). 部落民의 말에 依하면 日政時 數次에 걸쳐 이곳을 盜掘하였다고 하는데 이 塔址는 後日 再調査되어야 할 것이다.

【附記】部落古老에 의하면 日人搬出에 앞서서 中央佛殿을 向한 玄妙塔身에는 작은 구멍이 뚫여 있어 올빼미가 살고 있었다 한다 또 塔身의 門扉形은 北쪽(中央建物址)을 向하였다 한다.

9、板石(圖二·五)

中央建物址의 南·東·西와 東 및 西建物址의 西 및 東의 地面 一部에서 板石(가로 一·六五尺 세로 一·一五尺

두께 三·三寸)이 發掘에 依해 露出되었다. 中央建物址의 것은 比較的 그 殘存狀態가 良好하였다. 板石을 같은 北쪽의 限界는 東 및 西建物址의 北側基壇 外緣線과 同一線上에서 끝내었다.

4、遺物(別表一·二)

發掘 遺物은 中央建物址에서의 瓦類 磚 西建物址에서의 귀꽃石片·塔材破片·平瓦片 數點과 中央建物址의 南西側 基壇밑에서의 石燈·火合石 大小 二片(考古美術六卷三、四號 PP 六二參照)이 出土되었고 南石築 前方 밭에서는 石彫獸頭·圓柱形石物·階段用 石材等이 各各一點씩 發掘되었다. 此外에 寺址 區域內에 散在되어 있던 遺物은 如來坐像 一軀(佛頭喪失) 佛頭一點·塔材 七點·浮屠一點·아취形石彫物 一點·蓮花台石 三點·奉爐台石 一點·西院址發見 石物 二點이었다.

이中 運搬이 可能한 遺物들은 西建物址에 옮겨 놓았다. 이들 遺物은 建物遺址와 더불어 모두 高麗初期의 것으로 推定된다.

別表一、發見遺物目錄

名稱	크기 (尺)	發見地	寫眞	圖面	備考
塔身	高一・八五 一邊幅一・九五 隅柱幅〇・三二	丁海永氏宅		9 (1)	丁海永氏宅在
・	高〇・四九五 一邊幅一・三二 隅柱幅〇・一九八	정우철氏宅		9 (2)	西建物址로移置
・	高二・一八 隅柱幅〇・三八	丁海永氏宅		9 (4)	丁海永氏宅에서
塔上台中石	高一・〇七三 撐柱幅〇・四一二 現長五・九〇六	정우철氏宅		9 (7)	정우철氏宅에서 基壇으로使用中
塔下台中石	高〇・六四四 一邊幅六・〇	右同		9 (3)	西建物址로移置
塔上台甲石	高一・一五	右同		9 (5)	右同
塔蓋石	高一・〇五	右同		9 (6)	右同
・	高〇・六二七 徑二・五三	丁鶴鎮氏宅		8 (6)	右同
蓮花台石	高〇・七五 徑二・二一	이선재氏宅		8 (7)	右同
・	高〇・六九三 長三・三 幅二・九二	南石築南西端角에서 南西方向四〇尺地點	13 14	8 (8)	右同
아취形石物	高一・六五 胴徑一・八〇	丁鶴鎮氏宅	7	8 (1)	右同
浮屠	高〇・七六 長四・二二四 幅二・二二	정우철氏宅	18	9 (8)	右同
奉爐台石	高〇・八二 長二・九〇三 幅一・三八五	西院址		8 (2)	右同
石物 (I)	高一・〇五五	右同		8 (3)	右同
石物 (II)	高〇・四三 一邊長一・四二	이선재氏宅		8 (9)	右同
八角台石	高一・六八二	郭재녕氏宅 앞			郭재녕氏宅 앞在
蓋石	現高一・一五五	中央建物址南基壇東	6		西建物址로移置
石佛頭	現高二・〇一五 肩幅一・三八五	右同	6		右同
如來坐佛身					

別表二、出土遺物目錄

名稱	크기 (尺)	發掘地	寫眞	圖面	備考
숫막새 (二點)	①瓦當直徑〇・四二五 ②破片	中央建物址 西基壇斗西建物址東基壇間(二點共)	20		①複瓣八十葉蓮花紋
암막새	幅〇・二二 半破	石同	20		草花紋
有紋磚	一邊長〇・九九	中央建物址南基壇西端	20		蓮花蝶紋陽刻磚・破損甚尙
靈紋磚 (二種)	①一邊長〇・八二五 厚〇・一六五 ②〃〇・九九 厚〇・一六五	中央建物址西基壇 밑			中央建物址基壇에 移置
귀꽃片石	現高〇・三七 現幅〇・三八	西建物址東基壇中央	21		東大博物館所藏
塔材片	現高〇・三三	石同	21		右同
石燈火合石 (二片)	復原高・三八五 一邊幅〇・五二八 火冠高〇・七六 火冠幅〇・二九六	中央建物址西南角基壇石 밑	21	11	考古美術六卷三四號 pp 62「原城法泉寺址發見石燈火舍石片」..金東賢
石階附屬材?	高二・三一 長四・三五六×一・三二一	南石築中央部 밑		8 (10)	發見地에 在
圓柱形石物	高一・二八六 直經一・二二	南石築東側 밑		10 (3)	西建物址에 移置
石獸頭	高一・三五二 長一・六五 幅〇・七二六	右同		10 (4)	右同
鬼面瓦	破片	中央建物址東基壇 밑	20		

別表三、礎石心空間實測値(單位:尺) ※()內は工事後實測値임.

西 建 物 址					東 建 物 址					中 央 建 物 址								
	側間	平均 値	西 列	東 列	列 間		側間	平均 値	東 列	西 列	列 間		側間	平均 値	北 列	南 列	列 間	
?	第一間	?	?	?	南 間	?	第一間	?	?	九・〇四一	南 間	一〇・三七〇	第一間	一〇・一三八	九・九九八	一〇・二七九	西 間	
九・七六	第二間	?	一〇・九五七	二・一二二	中央間	九・七二	第二間	一〇・六六七	一〇・六一	一〇・七二三	中央間	一〇・四九四	第二間	一〇・一〇七	一〇・〇九七	一〇・一一七	中央間	
九・八一	第三間	九・七五二	九・七三五	九・七六八	北 間	九・八七	第三間	九・八〇四	九・七一	九・八九八	北 間	一〇・四一二	第三間	一〇・一七二	一〇・五四三	九・八	東 間	
九・七六八	第四間				全	九・七六	第四間			二九・六六六	全	一〇・三三〇	第四間	三〇・四一七	三〇・六三八	三〇・一九六	全	
?	平均 値	?	?	?	長	?	平均 値	?	?		長	一〇・三七七	平均 値				長	
南側間으로부터 北으로의順序						南側間으로부터 北으로의順序						西側間에서 東으로의順序					備 考	

別表四、基壇實測值(單位:尺)

建物址別 區分		層 別				長	前面 側面 比	高
中央建物址		上層基壇	下層基壇	南北間	東西間	二・三・四	一・八六七	三・四三
				東西間	南北間	三八・五	二・〇七二	
東建物址		單層基壇		南北間	東西間	一八・五	二・二一八	二・六五
				東西間	南北間	三九・二		
西建物址		單層基壇		南北間	東西間	一八・四	二・一九五	二・六三
				東西間	南北間	四〇・四		

※()内の數字は復原寸數임

別表五、南石築實測值(單位:尺)

地台石	第一段	第二段	第三段	第四段	長台甲石	全高	最小長	最大長
〇・三〇	一・五五	一・四一八	一・七八〇	一・四八四	一・一二〇	七・六五二	?	?
							二・九七	四・九五
							一・四八四	六・六〇
							二・三一〇	七・五九
							一・一五四	三・二七
							三・四〇	六・六〇
							全長	一一四・一八

別表六、塔碑實測値(單位:尺)

全高	碑蓋	碑身	鬼趺	上壇				下壇				備考
				北側	南側	西側	東側	北側	南側	西側	東側	
一八・〇三	三・四	一〇・二三〇	四・九一六	〇・六九五	.	〇・六九五	〇・六九三	〇・八二三	〇・八二五	〇・八二七	〇・八二五	高
	六・五	四・七一八	一〇・六二五	九・八〇九	.	八・〇八七	八・〇八五	一一・四八〇	一一・四八四	九・七六六	九・七六八	長
	.	〇・九九	七・六二三	一・三二	.	一・三五〇	一・〇五	一・四八二	一・四八五	一・四八五	一・四八四	幅
												備考

別表七、傳西院址礎石心間實測値(單位:尺)

前面 側面 比	南 (側面) 列		西 (前面) 列		備考
	西間	中央間	北間	中央間	
一・四〇一	五・七七五	五・一一五	七・九一八	八・四一五	全長
	六・五三三		八・〇八五	二四・四一八	全長
	一七・四二三				全長

【附】文獻目錄

●朝鮮總督府・朝鮮古蹟圖譜(第六冊)

- 七七一・廢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
- 七七二・廢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上部
- 七七三・玄妙塔身彫刻・塔上成壇彫刻
- 七七四・下成壇彫刻・塔地覆隅石彫刻
- 八一二・智光國師玄妙塔碑正面
- 八一三・智光國師玄妙塔碑左側面
- 八一四・智光國師玄妙塔碑刻字
- 八一五・智光國師玄妙塔碑碑陰
- 塔碑附近廢址
- 塔碑附近礎石

關野 貞・朝鮮美術史(朝鮮史學會刊)

- PP 一六二・廢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
- PP 一六八・廢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

高 裕 燮・朝鮮美術文化史論叢(서울新聞出版局刊)

PP 三六一・法泉寺・興法寺(寺蹟巡禮記

中) (新東亞一九三四年八號)

PP 八九・高麗의浮屠美術

久志卓眞・圖說朝鮮美術史

PP 一三〇・廢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

文教部・國寶圖錄第五輯(石塔篇)

PP 一三五・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

金 東 賢・考古美術六卷三・四號

PP 六二・原城法泉寺址發見石燈火舍石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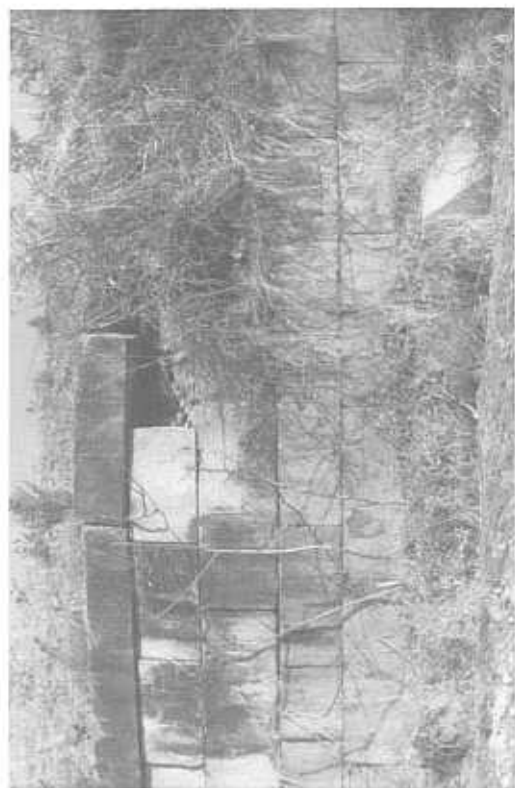
金 禧 庚・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의舍利孔(「考古美

術」第六卷十、十一號林泉先生追悼號一

九六五年十月)



寫眞一. 南石築 (補修前：西南에서)



寫眞二. 南石築 崩壞狀態 (南에서)



寫眞五. 西建物址西南 (發屈前：西南에서)



寫眞六. 中央建物址基壇 (南에서)



寫眞七. 碑 台 石 (南西에서)



寫眞九.
東建物址 北基壇
(發掘中・西에서)



寫眞八. 全景 (發掘 및 補修中・西南에서)



寫眞一〇. 西建物址 北石築 崩壞狀態 (發掘後・東에서)



寫真一一, 中央建物址基壇(發掘・復原後・南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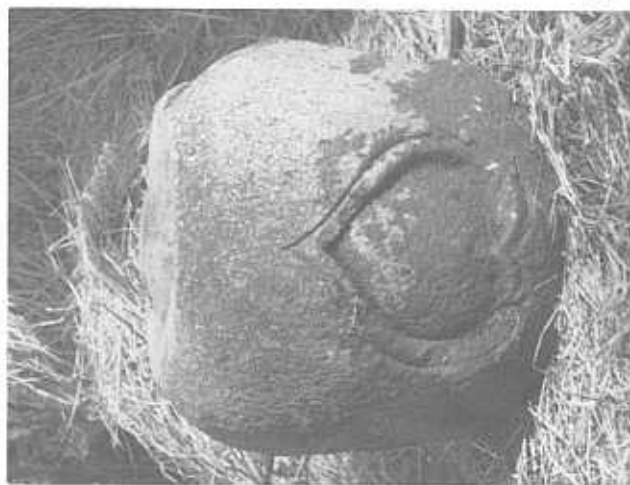
寫真一三,
아취形 石彫物(Ⅰ)



寫真一二, 遺物 陳列狀態(補修後・西에서)



寫真一四, 아취形 石彫物(Ⅱ)



寫真一七.浮屠



寫真一八.奉爐台石



寫真一五.西院址 發見遺物



寫真一六.西院址 礎石



寫眞二〇.出土遺物 瓦塼類



寫眞二一.出土遺物〔石燈火合片(大) 및 玄妙塔片(小) 지름은 流矢〕



寫眞一九.西建物址 礎石

參 考 文 獻

- 新增 東國輿地勝覽(국역본)
- 朝鮮古蹟圖譜 第6冊(朝鮮總督府刊)
- 朝鮮金石總覽(朝鮮總督府刊)
- 高麗法泉寺 智光國師塔碑殿址 調查概要：考古美術同人會, 1966.
- 高麗佛教史 研究：許興植 著 一潮閣刊 1986.10.
- 退耕堂 全書 卷二, 「韓國寺刹全書」編：權相老, 1990.
- 指定文化財 解說：文化財管理局 刊 1973.
- 中原文化圈(原州・原城) 遺蹟調查 報告書：檀國大 博物館 1985.
- 北原의 향기：原城郡 1981.7
- 高達禪院址 地表調查 報告書：驪州郡 1984.
- 居頓寺址 地表調查 報告書：原城郡 1986.
-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 研究：李榮姬 碩士論文 1989.

法泉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 報告書

發 行 日：1992 年 12 月

發 行：原 州 郡

調 查 編 纂：새한建築文化研究所

印 刷：大明企劃 (279-3835)

非賣品 限定版